

국립국어원 2009-01-47

발간 등록 번호
----------

11-1371028-000135-14
----------------------

# 2009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 연구 책임자 : 소강춘

■ 연구 보조원 : 서정섭 · 주경미

■ 조사 지역 :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국립국어원



.... 제 출 문 ....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9년도 전북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연구책임자 : 소강춘  
연구보조원 : 서정섭 · 주경미

## <국문 초록>

이 보고서는 2004년부터 수행된 국립국어원의 남북한 지역어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서, 2009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전북 임실군 신평면에서 이루어진 방언 조사의 결과이다. 2005년 이후의 전북 지역 조사는 전북의 서북부(옥구), 동북부(무주), 동남부(남원), 서남부(고창), 중부(완주) 등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9년 조사는 비교적 전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임실군 신평면이 조사지점으로 선택되었다.

이번 조사에는 유\*\* 님외 한 분의 제보자가 참여하였으며, 주제보자인 유\*\* 님이 어휘, 음운, 문법, 그리고 대부분의 구술발화를 담당하였고, 나머지 보조제보자는 어휘와 구술발화의 일부에 기여하였다.

조사는 정해진 조사 질문지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총 녹취 시간은 약 42시간이다. 조사된 자료 가운데 어휘, 음운, 문법 항목은 모두 음운 차원에서 전사되었으며, 약 7 시간의 녹취된 구술발화 자료 가운데 248분(4시간 8분)의 분량의 전사가 완료되었다. 이 전사된 구술발화 자료에는 조사지점인 신평면 원천리의 마을 소개, 그리고 주제보자 유\*\* 님의 개인 생활과 농사 및 식생활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

주제어 : 남북한 지역어 조사 사업, 방언 조사, 전북 임실, 음운, 문법, 어휘, 구술발화, 전사

2009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 목 차

1. 조사 과정 .....	7
2. 전사 원칙 .....	13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 발화 .....	17
제 2 편 어휘 .....	178
제 3 편 음운 .....	246
제 4 편 문법 .....	280
4. 제출 자료(별첨)	
1. 전사된 지역어 조사 질문지 원본 및 제보자 조사표	
2.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3. 지역어 현지 조사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보존용 48,000hz 웨이브 파일)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작업용 16,000hz 웨이브 파일, trs 전사 파일	
5. 지역어 조사 보고서 100부 및 원본 파일	
6. 구술발화 발간용 파일	



# 1. 조사과정

## 1.1. 조사 지점 개관

조사 지역 :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2009년도 전북지역 지역어 조사지로 선정된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는 임실군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다른 군 지역과는 인접되어 있지 않고 임실군 임실읍, 신평면, 관촌면, 운암면에 둘러싸여 있다.

마을 뒤편으로는 높은 산이 있어 운암면 및 신평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앞쪽으로는 큰 냇가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큰 냇가 마을 앞으로 흐르고 있어 옛날에는 큰 홍수가 자주 일어났으며, 지금은 냇가에 보를 막아 농업 용수 및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마을 앞의 냇가 건너편에도 산이 둘러싸여 있어 이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다. 옛날에는 임실에서도 가장 오지 중의 오지였다고 한다.

마을 앞에는 그리 넓지 않은 들판이 펼쳐져 있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요즘에는 고추를 집중적으로 재배하여 지역의 특산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매년 가을에는 신평고추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고추는 현재 마을 사람들의 큰 수입원이 된다.

원천리는 신평면의 면소재지로 면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어 면사무소, 우체국, 농협 등 관공서들이 들어서 있으며, 마을의 규모도 제법 크다. 그러나 어느 농촌과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고 6·70대 전후의 노인들이 주로 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경제, 교육 및 사회 활동의 중심지는 주로 임실읍이며, 병원을 이용할 때는 관촌을 거쳐 전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임실까지 가는 버스는 1~2시간에 한 번씩 운행이 되고 있고 임실읍까지 가는 데는 버스로 약 20분이 소요된다.

○ 위치



## 1.2. 조사 진행

- 1차 : 2009년 07월 29일(수) - 8월 11일(화) 제보자 집에서 기거
- 2차 : 2009년 08월 14일(금) - 8월 21일(금) 제보자 집에서 기거
- 3차 : 2009년 09월 27일(일) 제보자 집 방문
- 4차 : 2009년 10월 18일(일) 제보자 집 방문
- 5차 : 2009년 11월 27일(금) 제보자 집 방문

7월 7일 오후 3시 경에 임실군 운암면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사람을 소개받고 그 분을 만나보았으나 농사 경험도 별로 없으시고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제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운암면이 완주군과 인접해 있어서 완주군의 언어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산을 하나 더 넘어 임실군의 신평면으로 향했다.

신평면은 주변이 임실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임실 지역의 언어 현상을 잘 반영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마을에 들어서서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로부터 이 마을에서 농사지으면서 대대로 살고 계신 분을 소개 받게 되었으나, 그 분께서 워낙 농사에 바빠셔서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마을의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지역어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아주 잘 이해하셔서 제보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제보자 유\*\* 어르신은 신평면의 서북쪽에 있는 운암면에서 태어나서 열일곱 살 때 이곳 신평면 원천리로 시집을 오셨다. 원천리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아오신 분을 제보자로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만, 마을 전체가 고추 농사로 워낙 바빠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 유\*\* 어르신이 무엇보다 지역어 조사의 취지나 방향을 잘 이해하셨으며, 농사일은 물론 각종 통과의례, 길쌈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제보자로서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운암면은 신평면의 바로 옆 마을로 같은 임실군 지역이어서 언어 사용에 지역적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보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조사자는 처음에는 지역어 조사 질문지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제보자가 스스로 그 화제에 대해 기억을 되살려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제보자는 처음에는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도 나중에는 앞서서 대답하지 못했던 것들을 도리어 다시 말씀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제보에 임했다.

제보자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제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해당 내용을 잘 알 만한 보조제보자를 소개해 주시기도 하였다. 그리고 보조제보자에게 직접 찾아가 지역어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조사자가 불편함 없이 필요한 부분을 모두 조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 1.3. 제보자

제 보 자 : 유\*\* 여 80세 (일제시대)보통학교 3학년 중퇴

보조 제보자 : 김\*\* 남 76세 무학

제보자는 운암면 학암리에서 태어나 열일곱 살 때에 신평면 원천리로 시집을 왔다. 선대 역시 운암면 학암리에서 살아왔으며, 농사를 짓고 사셨다고 한다. 제보자의 집안은 농촌이었지만 넉넉한 편이었으며, 시집을 온 집안도 넉넉한 편이었다고 한다. 시댁은 선대 대대로 신평면 원천리에서 살아온 집안으로, 남편은 농사를 짓기도 하였지만, 배운 것이 있어 타지에서 면서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시집오기 전에는 친정아버지가 집안일이나 여자들이 하는 일만 시켜서 길쌈이나 바느질 일 외에 밖의 일이나 농삿일은 전혀 몰랐으나, 시집을 온 뒤로는 농사채가 워낙 많아 밭농사와 논농사를 거들 수밖에 없었다. 시댁의 큰 살림을 시어머니 밑에서 배웠으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보자가 도맡아 하게 되었다. 특히 남편이 일찍 타계하여 이후 집안일을 도맡아 해 오셨다.

유\*\* 어르신은 관절염으로 다리가 약간 불편하셔서 마을일에 나가시질 못하고 집에서 소일거리로 텃밭을 가꾸고 계셨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건강한 편이었고, 특히 치아는 아주 건강하였다. 아직까지 자연치를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을 만큼 건강하여 발음이 정확하였다.

언어의 사용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역어를 사용하였고, 의식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려 하는 태도도 없었다. 또한 같은 단어의 구형과 신형, 많이 사용하는 어형과 적게 사용하는 어형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어서 지역어 조사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건강도 양호한 편이어서 하루 6시간 정도 조사하는 데도 무리가 없었다.

보조제보자 김\*\* 어르신은 운암면 선거리에서 태어나 살다가 열여섯 살 때 신평면 원천리로 이사와 타지에 나간 적 없이 계속 이곳에서 살았다. 무학인데도 표준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자연 발화에서는 전형적인 지역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발음도 약간 부정확하였으나 주제보자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부족함 없이 잘 채워주었다.

#### (1) 주제보자

이름	유**
성별	여
나이	80
출생지	전북 임실군 운암면 학암리
거주지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선대거주지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직업	농업
경력	없음
학력	보통학교 3학년 중퇴
병역	없음
제보자 소개 과정	현지에서 직접 인터뷰하여 결정
제보자의 특기 사항	지적인 능력이 있고 충기가 있음
제보자의 음성 특징	치아가 건강하여 발음 매우 양호함

## (2) 보조 제보자

이름	김**
성별	남
나이	76세
출생지	전북 임실군 운암면 선거리
거주지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선대거주지	전북 임실군 운암면
직업	농업
경력	없음
학력	무학
병역	없음
제보자 소개 과정	주제보자의 소개
제보자의 특기 사항	집짓기, 농삿일, 절기풍습에 해박한 지식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발음 대체로 양호함

## 1.4. 조사자

- (1) 이름 : 소강춘(전주대학교 교수)  
주경미(전주대학교 교수)  
서정섭(서남대학교 교수)

- (2) 조사 일시 : 2009년 7월 8일-2009년 12월 7일

(3) 조사 장소 : 주제보자(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의 집

(4) 조사 내용 (총 42시간 26분)

tape	과 일 명	녹음시간	조사항목	제보자	조사자	항목번호
1	SJB_IS_01	0:49:11	구술발화		소강춘 / 주경미	
2	SJB_IS_02	0:27:22	어휘		소강춘 / 서정섭	20101 ~ 20126
3	SJB_IS_03	0:11:03	어휘		소강춘 / 서정섭	20127 ~ 20201
4	SJB_IS_04	0:15:43	어휘		소강춘 / 서정섭	20202 ~ 20211-0-2
5	SJB_IS_05	0:12:55	어휘		소강춘 / 서정섭	20212 ~ 20223-0-1
6	SJB_IS_06	0:10:27	어휘		소강춘 / 서정섭	20301 ~ 20401
7	SJB_IS_07	1:05:25	어휘		소강춘 / 서정섭	20401 ~ 20423
8	SJB_IS_08	0:54:06	어휘		소강춘 / 서정섭	20610 ~ 20813
9	SJB_IS_09	0:56:07	어휘		소강춘 / 서정섭	20814 ~ 20941
10	SJB_IS_10	1:08:29	어휘		소강춘 / 서정섭	21003 ~ 21213
11	SJB_IS_11	0:26:14	어휘		소강춘 / 서정섭	21215 21217
12	SJB_IS_12	0:40:02	어휘		소강춘 / 서정섭	21224 ~ 21256
13	SJB_IS_13	0:06:37	어휘		소강춘 / 서정섭	21256 ~ 21259
14	SJB_IS_14	0:27:25	어휘		소강춘 / 서정섭	21301 ~ 21324
15	SJB_IS_15	0:45:04	어휘		소강춘 / 서정섭	21325 ~ 21443
16	SJB_IS_16	1:35:05	어휘		소강춘 / 서정섭	21501 ~ 21647
17	SJB_IS_17	-	-		-	조사내용없음
18	SJB_IS_18	-	-		-	조사내용없음
19	SJB_IS_19	-	-		-	조사내용없음
20	SJB_IS_20	1:16:08	어휘		소강춘 / 서정섭	21701 ~ 21913
21	SJB_IS_21	1:17:31	어휘		소강춘 / 서정섭	21914 ~ 22231
22	SJB_IS_22	0:17:51	어휘		소강춘 / 서정섭	22231 ~ 22258
23	SJB_IS_23	1:31:38	어휘		소강춘 / 주경미	22302 ~ 22379
24	SJB_IS_24	1:01:57	어휘		소강춘 / 주경미	22401 ~ 22519
25	SJB_IS_25	2:00:53	어휘		소강춘 / 주경미	22601 ~ 22934
26	SJB_IS_26	1:05:39	자연발화 어휘		소강춘 / 주경미	10201, 10203, 10218, 10402 23001 ~ 23121-1
27	SJB_IS_27	1:40:47	어휘		소강춘 / 주경미	23201 ~ 23441
28	SJB_IS_28	1:27:23	음운		소강춘 / 주경미	31001 ~ 31052-0-3
29	SJB_IS_29	1:34:02	음운		소강춘 / 주경미	31053 ~ 32035-0-5
30	SJB_IS_30	0:47:04	구술발화		소강춘 / 서정섭	
31	SJB_IS_31	0:30:57	구술발화		소강춘 / 서정섭	
32	SJB_IS_32	0:39:17	구술발화		소강춘 / 서정섭	
33	SJB_IS_33	1:16:31	구술발화		소강춘 / 서정섭	
34	SJB_IS_34	0:17:47	구술발화		소강춘 / 서정섭	
35	SJB_IS_35	0:45:19	구술발화		소강춘 / 서정섭	
36	SJB_IS_36	0:34:02	구술발화		소강춘 / 서정섭	
37	SJB_IS_37	1:32:48	음운		소강춘 / 주경미	32021 ~ 32097-0-2
38	SJB_IS_38	0:50:02	음운		소강춘 / 주경미	32093 ~ 32162
39	SJB_IS_39	1:27:56	음운		소강춘 / 주경미	32163 ~ 32270-0-2
40	SJB_IS_40	0:51:02	음운		소강춘 / 주경미	32271 ~ 32331-0-2

41	SJB_IS_41	0:57:44	음운		소강춘 / 주경미	32332 ~ 32362
42	SJB_IS_42	1:37:45	문법		소강춘 / 주경미	40101 ~ 40349
43	SJB_IS_43	1:19:20	문법		소강춘 / 주경미	40350 ~ 41026
44	SJB_IS_44	0:25:05	문법		소강춘 / 주경미	41027 ~ 41116
45	SJB_IS_45	2:00:14	구술발화		소강춘 / 주경미	
46	SJB_IS_46	1:59:27	보충조사- 어휘		소강춘 / 주경미	
47	SJB_IS_47	1:09:19	보충조사- 구술발화 어휘		소강춘 / 주경미	
합계		42:26:43				

## 1.5. 전사

### (1) 1차 전사(2009년 8월~10월)

구술발화: 소강춘 / 서정섭 / 주경미

어휘: 소강춘 / 서정섭 / 주경미

음운: 주경미

문법: 소강춘

### (2) 1차 점검(2009년 11월)

구술발화: 소강춘 / 주경미

어휘: 소강춘 / 서정섭

음운: 소강춘

문법: 주경미

### (3) 2차 점검(2009년 11월)

구술발화: 소강춘

어휘: 소강춘

음운: 소강춘

문법: 소강춘

### (4) 3차 점검(2009년 12월)

구술발화: 소강춘

어휘: 소강춘

음운: 소강춘

문법: 소강춘

## 2. 전사 원칙

###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친구형은 응답형 뒤에 (+ 신), (+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 다), (+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 노), (+ 유)로 표시하였다.

##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 -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 ③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④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 3. 전사







# 제 1편 구술발화

## 1.2. 일생 의례(SJB\_IS\_30)

###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 10201 @ 조:나미, 이르미 어트게 되신다고 그러셧쥬? {존함이, 이름이 어떻게 되  
는다고 그러쥬쥬?}
- 10201 # 누구 이르미요? 저요? {누구 이름요? 저요?}
- 10201 @ 예. {예.}
- 10201 # 유\*\*요. {유\*\*요.}
- 10201 @ 여기 마으리 신평면, # 원철리 @ 원철리요? {여기 마을이 신평면, # 원  
천리. @ 원천리요?}
- 10201 # 예. {예.}
- 10201 @ 금녀네 연세가 어트게 되세요?
- 10201 # 팔십쥬. {@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 팔십쥬.}
- 10201 @ 월래 어디에서 태어나셔쥬요? {원래 어디에서 태어나쥬어요?}
- 10201 # 월래 저 아래 하감니서 이따가 요리 시지블 와꺼든요. {월래 저 아래 학  
암리에서 있다가 요리 시집을 왔거든요.}
- 10201 @ 우, 우남? #예, 우남메니요. @ 우남면 하감니요? # 예. {@우, 운암? #  
예, 운암면요. @ 운암면 학암리요. # 예.}
- 10201 @ 그럼, 그 하감니에서 계속 사셔뎐 거예요? {그럼, 그 학암리에서 계속 사  
쥬던 거예요?}
- 10201 # 애. 외지서인저, 거그서 자라가꼬는 크다가 인자 요:리 포도시 시지블 와  
쥬요. {예. 외지에서 이제, 거기서 자라갓고는 크다가 이제 요리로 겨우 시  
집을 왔어요.}
- 10201 @ 고, 친정에서도 계:속 그러면 그 하감니서 사라쥬요? {고, 친정에서도 계  
속 그러면 그 학암리서 살았어요?}
- 10201 # 그리쥬요. 에려서 그냥 나가꼬 질래 거그서만 커쥬요. {그랬어요. 어려서  
그냥 낳아갓고 계속 거기에서만 쥬었어요.}
- 10201 @ 고, 거기에서 그럼 농사 지시고요? {고, 거기에서 그럼 농사 지시고요?}
- 10201 # 애, 농사 저쥬. {예, 농사 지었쥬.}
- 10201 @ 그 학교는 다니셔쥬요? {그, 학교는 다니쥬어요?}
- 10201 # 일본 제국시대 때, 그때 사망년 드러가자그냥, 우쥬 날리 나가꼬는 그냥

마라버려쥬. {일본 제국시대 때, 그 때 삼학년 들어가자마자, 어찌 난리 나  
갖고 그냥 말아버렸쥬.}

10201 @ 그, 아드니른 며치श्य? {그, 아드님은 몇이श्य?}

10201 # 너이요. {넋이요.}

10201 @ 아들만 사, 사형श्य? {아들만 사, 사형श्य.}

10201 # 예. {예.}

10201 # 따라나 나가꼬 세 살 머거서 이저버리고는, 질레 아들만 나가꼬. {딸 하  
나 나갖고 세 살 먹어서 잃어버리고는, 계속 아들만 나갖고.}

10201 @ 그, 하라번니른 언제 도라가श्य? {그 할아버님은 언제 돌아가श्य  
요?}

10201 # 하라부지요? 우리 영감님? {할아버지요? 우리 영감님?}

10201 @ 예.

10201 # 시방 십늑년 되야श्य. {시방 십육년 되었어요.}

10201 @ 아, 도라가신 지가요? {아, 돌아가신 지가요?}

10201 # 예. {예.}

10201 @ 그럼, 그 때가 며쌀 때श्य? {그럼 그 때가 몇 살 때श्य?}

10201 # 영감님뇨? {영감님요?}

10201 @ 애. {예.}

10201 # 칠:씨베 도라가श्य.

10201 @ 칠시베요?

10201 # 공개서 팔십다서싱게, 시보년 되야श्य. {# 칠십에 돌아가श्य. @ 칠십  
예요? # 그래서 팔십다섯이니까 십오 년 되었지요.}

##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 1.1.1. 마을 들여다보기

10101 @ 그 마으레 대해서 줌, 원첼리 마으레 대해서요, 그 마으른 언제 생겨श्य  
요? {그 마을에 대해서 줌, 원첼리 마을에 대해서요, 그 마을은 언제 생겼  
어요.}

10101 # 저 오기저네:: 생깁श्य. 거, 시방 이런 사라면 알도 모더지요. 그냥 멘::  
년 대대,한 시방 오대조 하나부지가 이씨쌍게로 그때부텀. {저 오기 전에

생겼지요. 그, 시방 이런 사람은 알도 못하지요. 그냥 몇 년 대대, 한 지금 5대조 할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10101 @ 그 때부터 여기서 계속, 그 때부터 계속 이바다그서, 이지비서 사란능가 봐요. (# 응::.) 오대조 하라버지가, 그러고 인제 {그 때부터 여기서 계속, 그 때부터 계속 이 바닥에서, 이 집에서 살았는가 봐요. (# 응.) 5대조 할아버지가. 그러고 인제.}

10101 # 장판 큰불 나가꼬 집 질라고 저기 쪼까 아래 끄트서 살다가 여기 다시 여기 와서 저. {잠깐 큰 불 나갔고 집 지으려고 저기 조금 아래 끝에서 살다가 여기 다시 여기 와서, 저.}

10101 # 오, 오대조까지 시방 여기서 산 거 아냐. {오, 오대조까지 시방 여기서 산 거 아냐.}

10101 @ 여, 여기서요? 여, 여기서요?

10101 @ 그 여기 원철리에는 주로 어떤 성씨드리 마니 사려요? {그 여기 원천리에는 주로 어떤 성씨들이 많이 살아요?}

10101 # 엄 씨더리 마니 사라요. {엄 씨들이 많이 살아요.}

10101 @ 아, 엄 씨가요? {아, 엄 씨가요?}

10101 # 애, 그 다으미 인제 손 씨덜. {예, 그 다음이 이제 손 씨들.}

10101 @ 엄 씨, 손 씨. {엄 씨, 손 씨?}

10101 # 애. {예.}

10101 # 그러곤제 각 썩바지가 마니 살지요. {그러고 이제 각 성받이가 많이 살지요.}

##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0202 @ 그 하라번니:먼 성하미, 존하미 어트게 되셔요? {그 할아버님은 성함이, 존함이 어떻게 되셔요?}

10202 # 그, 우리 시아바니는 엔나레, 오대조 하나부지는 잘 모르고. {그, 우리 시아버님은 옛날에, 오대조 할아버지는 잘 모르고.}

10202 @ 아니, 아니, 그냥. {아니, 아니, 그냥.}

10202 # 우리 영감? {우리 영감?}

10202 @ 애. {예.}

10202 # 영가든 백짜 \*짜여, 백\*\*\*게, 백\*\*. {영감은 백 자, \* 자여. 백\*\* 이니까, 백\*\*.}

## 1.1.1. 마을 들여다보기

10101 @ 고 엄씨드른 어트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러케 오래 살게 된능가는? {그

고 염 씨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그렇게 오래 살게 되었는데는?)

10101 # 염:씨드른 인자 그건 잘, 엔나른 모르지마는, 엔날뽀템 여가 염씨더리 좀 주로 이썸능가 보테요. 그런단저 요새는 노인드른 다 도라가시고, 절문 사람들만 마니 사는디, 그도 염씨 꽤가 만혀요. {염 씨들은 이제 그건 잘, 옛날은 모르지만은, 옛날부터 여기가 염 씨들이 좀 주로 있었는가 보테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노인들은 다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들만 많이 사는데, 그래도 염 씨 꽤가 많아요.}

10102 @ 고 요 아페 내까 이르미 뭘예요? {그 요 앞에 냇가 이름이 뭘예요?}

10102 # 큰::내요, 큰내. {큰내요. 큰내.}

10102 @ 그냥 어 큰내? {그냥 어 큰내?}

10102 # 애. {예.}

10102 @ 따로 이르미 업꼬 그냥 큰내요? {따로 이름이 없고 그냥 큰내요?}

10102 # 물개::, 이제 따로 이르문 인자 물까상이라고 그런디, 마리 큰:내요. {물가, 이제 따로 이름은 이제 물가라고 그러는데, 말이 큰내요.}

10102 @ 큰내? {큰내?}

10102 # 애. {예.}

10102 @ 요, 또 저 뭘 사니나 이런 거슨뇨. 이르미 뭘 따로 이썸요? {요, 또 저 뭘 산이나 이런 것은요. 이름이 뭘 따로 있어요?}

10102 # 사는 인제 저:: 걸메라는디는 더미라고허고, 뒤여싸는 뒤썰사니라고 허고 그러대요. 저 가자꾸른 또 가자꿀 사니라고고. 메까지여 사니, 이르미. {산은 인제 저 걸피라는 데는 덤이라고 하고, 뒤에 산은 뒷재산이라고 하고 그러대요. 저 가자꿀은 또 가자꿀산이라고 하고. 몇가지여 산이, 이름이.}

10102 @ 가자사뇨? {가자산요?}

10102 # 가자꿀. {가자꿀.}

10102 @ 가자꿀? {가자꿀?}

10102 # 애. {예.}

10102 @ 고 여기 뭘 저수지나 이런 거슨 업썸요? {그 여기 뭘 저수지나 이런 것은 없어요?}

10102 # 저수지 이썸요. {저수지 있지요.}

10102 @ 어 어디? {어 어디?}

10102 # 저:그 저 큰내 보 망는거시 저수지자녀요. {저기 저 큰 내 보 막은 것이 저수지잖아요.}

10102 @ 큰내 거기 보? {큰 내 거기 보?}

10102 # 애. 저기 시안내뽀라고. {예. 저기 시안내 보라고.}

10102 @ 시안내뽀요? {시안내 보요?}

10102 # 애. 글:로가꼬 이 원천리는 농사를 징개, 무라래랑 불갱이랑 다 농사징개, 저수지 마가썰개, 저수지. {예. 그것으로 갖고 이 원천리는 농사를 지니까,

물 아래랑 북향이라 다 농사 지니까. 저수지 막았으니까 저수지.}

10102 @ 아: 큰내 그 내까를... 이르케 보를 마가갸꼬. {아 큰내 그 냇가를 이렇게 보를 막아갸꼬.}

10102 # 예, 내까를 이르케 보를 마가갸꼬, 그 물로 이르케 시방 여그 다:: 지어요.  
{예. 냇가를 이렇게 보를 막아갸꼬 그 물로 이렇게 지금 여기 다 지어요.}

10102 @ 고 시안내뽀라는 거슨? {그 시안내보라는 것은?}

10102 # 시안내뽀가 그거요. {시안내보가 그거요.}

10102 @ 그게 무슨 마리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102 # 시안내 보는 이 우리 동네가 시안내거든요. {시안내 보는 이 우리 동네가 시안내거든요.}

10102 @ 시안내? {시안내?}

10102 # 애. {예.}

10102 @ 응:. {응.}

10102 # 원철리::는 인제 절문 사람들 신시그로 써는 마리고. {원천리는 이제 젊은 사람들, 인제 신식으로 쓰는 말이고.}

10102 @ 애. {예.}

10102 # 노:인드른 시안내라고 히썌요. {노인들은 시안내라고 했어요.}

10102 @ 그게 뭇 마리에요? {그게 뭇 말이에요?}

10102 # 이 동네 이르미 시안내대요. {이 동네 이름이 시안내대요.}

10102 @ 응:. {응.}

10102 # 그리갸꼬 시안내 보라는디는 인자 그그럴 마가썌요. 마가갸꼬 인자 저수지를 맨드라서 농사를 지썌, 그 물로. {그래갸꼬 시안내보라는 데는 이제 거기를 막았지요. 막아갸꼬 이제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치요, 그 물로.}

10102 @ 고, 이 뭇 큰내나 시안내뽀나 무슨 산 이런 거세 따른 옛날 이야기 가튼 거슨 업썌요? {그, 이 뭇 큰내나 시안내보나 무슨 산 이런 것에 따른 옛날 이야기 같은 것은 업썌요?}

10102 # 그런 거슨 업썌요. 인제 시안내뽀, 큰:내, 그거:시 인제. 시안내 포는 저수지를 마가서 시안내 포고, 무리 이케 마:이 니레간 디넌 큰내라구요. 내까랑 그 무리 마능개 큰내까라고. {그런 것은 업썌요. 이제 시안내보, 큰내, 그것 이 이제. 시안내보는 저수지를 막아서 시안내보고, 무리 이렇게 많이 내가는 데 큰내라고요. 냇가랑 그 물이 많으니까 큰냇가라고.}

10103 @ 고 여기에서는 대:부분 다 농사 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는 대부분 다 농사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10103 # 예. 농사 지어요. {예. 농사 지어요.}

10103 @ 고 그러면 농사를 질러고 뭇 서로 뭇 계를 만드러서 하거나 뭇 그런 거슨 업썌요? {그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고 뭇 서로 뭇 계를 만들어서 하거나

뭐 그런 것은 없어요?}

10103 # 그런 건 업썬요. 기양 각짜, (@ 애.) 각짜 히가꼇자 그 기계 가진 사람드  
리 인자 가꾸댕임서 형개 계 그런 건 업썬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각자,  
각자 해가지고 이제 그 기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하니까  
계 그런 건 없어요.}

10103 놀:고, 오디 인제 피야서인제 귀경 가고 그런 계는 이썬도. {놀고, 어디 이  
제 모여서 이제 구경 하고 그런 계는 있어요.}

10103 @ 고 고런 계는 무슨 계예요? {고, 고런 계는 무슨 계예요?}

10103 # 그렇거 인제 뭐 단측계, 뭐 동창계, 그런 인자 뭐 갠숙떠리 허먼제 저 동  
구간덜까지도 묻는 계, 그런 계가 이썬, 다른 계는 업썬요. {그런 거 이제  
뭐 잔치계, 뭐 동창계, 그리고 이제 뭐 친척들이 하면 이제 저 동기간들까  
지도 묻는 계, 그런 계가 있지, 다른 계는 없어요.}

10103 @ 고 뭐 여기 고사 지내고 뭐 그런 거슨 업썬요? {고, 뭐 여기 고사 지내  
고 뭐 그런 것은 없어요?}

10103 # 고사 지내는 거슨 이제 지제나 사고, (@ 애.) 그러면 고사 지내요. {고사  
지내는 것은 이제 기계나 사고, (@ 예.) 그러면 고사 지내요.}

10103 @ 고 뭐 어디 여기 저 아페 큰 으냉나무나 뭐 이런 당산 가통거. {고 뭐  
어디 여기 저 앞에 큰 은행나무나 뭐 이런 당산 같은 거.}

그거 그 아페 저거 저, 모종 저는 거이요?

10103 @ 애.

10103 # 거그:서 고사는 지내썬요. 모종 지어노코. {그거 그 앞에 저거 저, 모종  
지어놓은 것이요? 고사는 지냈어요, 모종 지어놓고.}

10103 @ 지어, 지어썬 때만? {지어, 지었을 때만?}

10103 # 애, 지어노코는 인제 한번 지어따는 고사 지내고는 기양 다른 고사는 업  
썬요. {예. 지어놓고는 이제 한번 지었다는 고사 지내고는 그냥 다른 고사  
는 없어요.}

10103 @ 고 동네에 뭐 호닌계 가튼 거슨 업썬요? {고 동네에 뭐 혼인계 같은 것  
은 없어요?}

10103 # 호닌 계는 업썬요. 인제 계군더리 인제 호닌헌다면 서로 가고오고 허지  
호닝계랑 거슨 업썬요. {혼인계는 없어요. 이제 계군들이 이제 혼인한다면  
서로 가고오고 하지 혼인계라는 것은 없어요.}

10103 @ 상여계 가튼 거슨? 초상 치르고. {상여계 가튼 거슨? 초상 치르고.}

10103 # 그런 거슨 인썬요. {그런 것은 있어요.}

10103 @ 고곤 어뜨케... {그것은 어떻게...}

10103 # 부무더리 인제 주그머는 모다 인제 자식뜨리 피야, 피야서 오는단 그 계  
는 이썬요. {부모들이 이제 죽으면은 모두 이제 자식들이 모여, 모여서 오  
는 그 계는 있어요.}

10103 @ 한 면 명이? {한 몇 명이?}

10103 # 그건제 알 쑈 업쫐, 막 한 삼십명도 되고, 동창들이 마느면 동창들이 뵤야가꼬 그 초상계를 문명만노, 새끼더리. {그것은 이제 알 수 없쫐. 막 한 삼십 명도 되고, 동창들이 많으면 동창들이 모여갓고 그 초상계를 문더구만요, 새끼들이.}

10103 # 그러니, 그건 인제 머 한 동창이 마느면 삼십명도 되고, 이십명도 되고, 그러케 허등만요.. {그러니, 그건 이제 뭐 한 동창이 많으면 삼십 명도 되고, 이십 명도 되고, 그렇게 하드만요.}

10104 @ 이 원철리 시안내가 다른 동네하고 뭐 특빠리 좀 다른 저미나 뭐 그런 건 업쫐요? {이 원천리 시안내가 다른 동네하고 뭐 특별히 좀 다른 점이나 뭐 그런 건 없어요?}

10104 # 읍:쫐요. 다른 저문. 인자 저 대우리 저쪽 너머가 대우리디, 거그 싸람드 러고는 인자 가치 가튼 메나라서 와따가따 하고 그러케 허지, 머 특빠런 거 시기는 읍쫐요. {없어요, 다른 점은. 이제 저 대우리, 저쪽 너머가 대우리인 데, 거기 사람들하고는 이제 같이 같은 면이라서 왔다갔다 하고 그렇게 하지, 뭐 특별한 것은 없어요.}

10104 @ 여기 뭐 설라리나 추성날 뭐 보름날 이럴 때 무슨 민송노리하고, 노리하고 그런 거. {여기 뭐 설날이나 추석날 뭐 보름날 이럴 때 무슨 민속놀이하고, 놀이하고 그런 거.}

10104 # 망:우리 지코. {망월이 짓고.}

10104 @ 망우리? {망월이?}

10104 # 애. 망우리 질 때 인제 북치고 민송노리허쫐, (@ 애.) 그러고는. {예. 망월이 지을 때 이제 북 치고 민속놀이 하쫐, (@ 예.) 그러고는}

10104 # 저네년 그양 보통 어턱커먼 굳또 들고 놀더니 시방 그런 베비 업쫐져 버려쫐요. {전에는 그양 보통 어떤 일만 있으면 곳도 들고 놀더니 지금은 그런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10104 # 망:우리 지를 때만 허고, 저 당:산제 질 때, 지낼 때. {망월이 지을 때만 하고, 저 당산제 지을 때, 지낼 때.}

10103 @ 당산제는 어디서 지내요? {당산제는 어디서 지내요?}

10103 # 저 뒤훈서요. {저 뒫재에서요.}

10103 @ 요 어디? {요 어디?}

10103 # 요 바로 여그요. {요 바로 여기요.}

10103 @ 예. {예.}

10103 @ 그::건 당산제를 언제 지어요? {그거는 당산제는 언제 지내요?}

10103 # 그건 인자:: 정월 지내서 예레쫐날 이쫐, 보름 지내고, 예레쫐날 저녁그저요, 저 지내요. {그것은 이제 정월 지내서 열엿새날 있쫐, 보름 지내고, 열엿새날 저녁에 지어요, 저 지내요.}

10103 @ 고건 무슨 나무예요? {그건 무슨 나무예요?}

10103 # 당산나무. {당산나무.}

10103 @ 당산나무? {당산나무?}

10103 # 애. {예.}

10103 # 저그 여그는 뒤땅산, 저 아페 모정 진는디는 압땅산. {저그 여기는 뒷 당산, 저 앞에 모정 있는 데는 앞 당산.}

10103 @ 거 뭐 압땅, 압땅산 거기에두 그러며는 뭐 당산제를 지내요? {거 뭐 앞당, 앞당산 거기에두 그러면은 뭐 당산제를 지내요?}

10103 # 그냥 뒤여서 지내고, 거기따 밥만 한 그릇 히 뉘요. {그냥 뒤에서 지내고, 거기에다 밥만 한 그릇 해 놓아요.}

10103 @ 응:. {응.}

10103 # 양쪽 모뎡잉개. { 양 쪽 못 다니니까.}

10103 @ 고 언제부터 이 당산제는 지내쥬까요? {고 언제부터 이 당산제는 지냈을 까요?}

10103 # 옴:나레 으른덜버텨 그리때요. 저네 생길라헐찌기. {옛날에 으른들부터 그 랐대요. 전에 생기려고 할 적에.}

10103 @ 그 뭐 쫘 왜 거기에다가 그르케 당산제를 지내요? {그 뭐 쫘 왜 거기에 다가 그렇게 당산제를 지내요?}

10103 # 동네 조:코, 이 춘생들 조라고 거그다 당사늘. {동네 좋고, 이 춘생들 좋 으라고 거기에다 당산을.}

10103 @ 누구, 누구 든지 조으라고? {누구, 누구 좋으라고?}

10103 # 절물 사람덜. {젊을 때년.}

10103 @ 어 춘생들? {어 춘영곡든 사항?}

10103 # 애, 조으라고 고러케 당:사늘 맨드라서 게다 나:무를 싱귀가꼬, (@ 응.) 그 당산나무 위해서, 동네 위해서 거그 당산 미테 가서, 나무 미테 가서 제 를 지내요. {# 어찌 사람들. 어, 춘생들? # 예. 좋으라고 그렇게 당산을 만 들어서,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 갖고, (@ 응.) 그 당산나무 위해서, 동네 위 해서 거기 당산 나무 밑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제를 지내요.}

10103 # 고 어트게 지내능가 쫘 이야기쫘 해 주세요. {그 어떻게 지내능가 쫘 이 야기쫘 해 주세요.}

10103 # 고 가면 인제 지양 모시테끼 실사과 다 사고, 떠:거고, 그런거터고는 인자 쟁기노코는 다 초뿔 쓰고. {거 가면 인제 제사 모시듯이 과일 다 사고, 떡 하고, 그런 것 하고는 이제 쟁겨놓고는 다 좇불 켜고.}

10103 @ 그::러며는 고 당산제를 지낼 때 무슨 계가 이쥬요? {그러면은 그 당산제 를 지낼 때 무슨 계가 있어요?}

10103 # 계 읍쥬요. {계 없어요.}

10103 @ 계가 업꼬. {계가 업꼬.}



- 10103 # 그러면 누::가 그러면 고령걸 준비를 해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그런 것을 준비를 해요?}
- 10103 # 인제 그 저 보살 하나 이썬요. {인제 그 저 보살 하나 있어요.}
- 10103 @ 보살? {보살?}
- 10103 # 예, 저래 보살. 동네 싸래미 옌나래는 그케 그냥 막 동네서 싸를 걷꼬 벨 또로 히서 사라멸 당산제 지내라고 인자 일주이른 인자 기우를 허고 지내라고 헨는디 {예. 절에 보살. 동네 사람이 옛날에는 그렇게 막 동네서 쌀을 걷고, 별도로 해서 사람을 당산제 지내라고 이제 일주일은 이제 기우를 하고 지내라고 했는디.}
- 10103 # 시방은 그양 절문 사람드리 그걸 업써도 헨다고 그런 거슬 안헹개, 인제 우리가튼 중늘그니더리 그 허던 지슬 안헹개 몰썬다 허고 그런 거슬 한 사오년 떠:어 봐썬요. 안 허고 그양 떠:어보고. {시방은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것 없어도 헨다고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이제 우리같은 중늬이들이 그 하던 것을 한 하니까 못썬다 하고 그런 것을 한 사오년 띄워 봤어요. 안 하고 그냥 띄워보고.}
- 10103 # 대체 절문 사람드리 안 서든디 어트게 늘그니드리 히야고 히떠니 자꾸 사고가 나요. {대체 젊은 사람들이 안 서두르는데 어떻게 늘그니들이 해, 하고 했더니 자꾸 사고가 나요.}
- 10103 @ 아, 어 어떤 사고드리 나요? {아, 어 어떤 사고들이 나요?}
- 10103 # 청년드리 가다 그양 막 차에 사고 나서 죽꼬. {청년들이 가다 그냥 막 차에 사고 나서 죽고.}
- 10103 @ 아! 요 아페 큰기레서요? {아! 요 앞에 큰길에서요?}
- 10103 # 여그서도 그러꼬, 막 저 관촌 까는디 그 큰지레서도 그러고, 또 대학생이 하나, 이 동네 싸래미 전주서 대하글 뱅기나 칼 마자 죽꼬. {여기서도 그렇고, 막 저 관촌 가는 데 그 큰길에서도 그러고, 또 대학생이 하나, 이 동네 사람이 전주에서 대학을 배우는데 칼 맞아 죽고.}
- 10103 # 그리서 인제 그 저 마친디 가서 무러봉개, 당산제를 지내다가 중지를 헹개로 동네가 큰 해를 봐따고 당산제를 이레 지내라고 히가꼬는. {그래서 이제 그 저 맞히는 데 가서 물어보니까, 당산제를 지내다가 중지를 하니까 동네가 큰 해를 봤다고, 당산제를 이레 지내라고 해갓고는.}
- 10103 # 여기 절문 사람드른 그러케 그런 소리야, 에이그 뭐 썰떼기 읍씨 뭐 재수가 읍썬개 죽썰, 이런디, 자식떨 키운 사라믄 그거시여? 조오라고만 허지, 그리서 그양 다시 우리가 서드러썬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소리야, 에이그 뭐 쓸데 없어, 뭐 재수가 없으니까 죽지, 이러는데, 자식들 키우는 사람은 그것이야? 좋으라고만 하지, 그래서 그냥 다시 우리가 서들렀어요.}
- 10103 @ 애. {예.}

10103 # 다시 서드러가꼬, 인자 가꾼 사라믄 가꼬고, 안가꾼 사라믄 안 가꼬고, 보사럴 하나 내세워썩요. 빌어도라고 인자 우리가 보수는 달란대로 줄팅개 빌어도라고 히가꼬, 그 양반보고 인자 사정을 히썩. 그 양바니 땡임서 비리요. {다시 서둘러갔고, 이제 갖고온 사람은 갖고오고, 안 갖고 온 사람은 안 갖고오고, 보살을 하나 내세웠어요. 빌어달라고, 이제 우리가 보수는 달라고 하는 대로 줄 테니까 빌어달라고 해갔고, 그 양반보고 이제 사정을 했어. 그 양반이 다니면서 빌어요.}

10103 # 근 뒤로는 인자 사고도 읍꼬 동네가 죄용:허니. {그런 뒤로는 이제 사고도 없고 동네가 조용하니.}

10103 # 매:급썩 절문 사람드리 그양 뉘 심장마비로 중는다허고, 그양 저녁 잘 먹고 아치기 떠러져 죽꼬. {맥없이 젊은 사람들이 그양 뉘 심장마비로 죽는다하고, 그양 저녁 잘 먹고 아침에 떨어져 죽고.}

10103 # 파 여 당산 미티 사래미, 거너리라고 인는다. {파 여 당산 밑에 사람이, 건열이라고 있는데.}

10103 @ 누구요? {누구요?}

10103 # 그 이르미 거너리여. {그 이름이 건열이야.}

10103 @ 거너리. 예. {건열이. 예.}

10103 # 사춘시아재 빨리 되는다. {사춘 시동생뻘 되는데.}

10103 # 나라글 요때, 이르게, 요때그만뇨. 시방 사:: 한 사오년 되야썩꺼요. {나라글 이때, 이렇게, 이때이구만요. 시방 사, 한 사오 년 되었을 거요.}

10103 # 그르케, 밤먹꼬, 조밤먹꼬 나락 까마니, 인자 비고, 나락까마이를 그 기계 인는 사라믄 가따주러 가다, 아 오도바이 타고 가다 그양, 포도시 \*\*\*\* 나와가꼬는 주거버려썩. 아특 잘 먹꼬 뉘 암시랑 아는 사래미. {그렇게 밥 먹고, 조밥 먹고 나락가마니, 이제 베고, 나락가마이를 그 기계 인는 사람을 갖다주러 가다, 아 오토바이 타고 가다 그양, 겨우 \*\*\*\* 나와 가지고는 죽어버렸어. 아침 잘 먹고 뉘 아무렁지도 앓은 사람이.}:

10103 # 그리서 인자 왜 그린냐 형개로, 당산나무를 썩다가 개:바벌 꼬려때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 하니까, 당산나무를 썩다가 개밥을 끓였대요.}

10103 @ 아:! {아!}

10103 # 그 당산나무는 손 못때요. {그 당산나무는 손 못 대요.}

10103 응:. {응.}

10103 # 그르케 아라. 그리서 인제 무신니리 이썩서 이르게 그린냐 히떠니 심장마비로 주거따고 병워네서는 허는다, 인저 각썩가 무러받는개벼, 폭포경개, 점쟁이한테 가서. {그렇게 알아. 그래서 이제 무슨 일 있어서 이렇게 그랬냐 했더니,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병원에서 하는데, 이제 각시가 물어봤는가 봐, 답답하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10103 # 무신 이리 거시기서 이르게 급썩 주거야정계로, 점쟁이 마리, 당:산나무를

- 끄너꾸만, 당산나무를 끄너다가 부를 때서 이르게 벌 마자따고.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갑자기 죽었느냐고 하니까, 점쟁이 말이, 당산나무를 끊었구만, 당산나무를 끊어다가 불을 때서 이렇게 벌 맞았다고.}
- 10103 # 그런디로넨 아따 이거 몬시거따고 기양 우리더리 막 서드러서 막 당산제를 지내요. {그런 뒤로는 아따 이것 못쓰겠다고 그냥 우리들이 막 서둘러서 막 당산제를 지내요.}
- 10103 @ 진짜로 그 나무를 (# 애.) 잘라가꾸 (# 썬와서 잘라때요.) 그러케 개바블, 개바블 끄려꾸만노.
- 10103 # 자자:넌노를 그양, 그 이르게 나무가 큰디 여푸 자자넌노멸 토부로 썬러다가 그노멸 개바벌 끄려때요. {진짜로 그 나무를 잘라갓고 그렇게 개밥을, 개밥을 끊었구만요. # 예. 잘랐대요. 그냥 자잘한 것을 그냥, 그 이렇게 나무가 큰데 옆에 자잘한 것을 톱으로 썰어다가 그것을 개밥을 끊었대요.}
- 10103 @ 그게 한 면년 전 이리예요? {그게 한 몇 년 전 일이에요?}
- 10103 # 그새 한 칠년 되야쎄요. {그 사이 한 칠 년 되었어요.}
- 10103 # 그리가꼬는 그뒤로는 안 되거따시푸고 인자 막 당산나무를 손더럴 안 대고, 기양 거:차머게 당산나무를 위허고 귀허, 막 그르케 사람더리 인자 귀엽게 알고, 머시라도 그양 허머는 조시멸 허고 그려요. 거그 모까게 허고. {그래갓고는 그 뒤로는 안 되겠다싶어 이제 막 당산나무를 손들을 안 대고, 그냥 거창하게 당산나무를 위하고 귀하, 막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귀하게 알고, 뭇이라도 그냥 하면은 조심을 하고 그래요. 거기 못 가게 하고.}
- 10103 # 그리서 당산제를 지내로 가면 동지서따레 그 누니 막 마니 오자뇨? {그래서 당산제를 지내러 가면 동지섯달에 그 눈이 막 많이 오잖아요?}
- 10103 @ 애. {예.}
- 10103 # 썬:: 썬고 가면, 인자 동네 우리가튼 늘그니 영감더리 인자 와서 거그 와서 썬고 인자 우리는 바:비가꼬 모다 음식 장만히서 인자 가꼬면 가서 가지 근디. {썬 썬고 가면 이제 동네 우리같은 늘그니 영감들이 이제 와서, 거기 와서 썬고 이제 우리는 밥 해 갓고 모든 음식 장만해서 이제 갓고 오면 가서 갓지, 그런데.}
- 10103 # 그진말 암 보태고 구렁이가 톱 이보담도 커:요, 구렁이가, (@ 팔 팔뚝보다도 크고?) {거짓말 안 보태고 구렁이가 톱 이보다도 커요. 구렁이가. (@ 팔 팔뚝보다도 크고?)}
- 10103 @ 애. {예.}
- 10103 # 큰 구렁이가 그양 꺼무튀튀 누루꾸르::먼 구렁이가 그양 이케 나무 미티, 그 당산나무 미티가 빼:때고 이쎄요. {예. 큰 구렁이가 그냥 꺼무튀튀 누르스름한 구렁이가 그냥 이렇게 나무 밑에, 그 당산나무 밑에 가 버티고 있어요.}
- 10103 @ 아 겨우, (# 시하네, 예.) 겨우런데? {아 겨우, (# 겨울에, 예.) 겨울인데?}

10103 @ 인재 (# 시하네.) 시아네. {이제 (# 겨울에.) 시아네.}

10103 # 예. {예.}

10103 # 그렇잖아 이제 그 거진말 험다고 나매드리 인자 그 뭐 모더게 험 사람드리 히싸차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짓말 한다고 남자들이 인제 그 뭐 못하게 한 사람들이 했쌍잖아요.}

10103 @ 응. {응.}

10103 # 각씨보고 오라고 허거등, 그 저 서뱅이 그러케 고지를 안 드릉개 좀 따라와바라. {각씨보고 오라고 하거등, 그 저 서방을 끝이를 안 들으니까 좀 따라와봐라.}

10103 # 근디 해마동 그러. {그런데 해마다 그러.}

10103 @ 아, 해마다 그래요? {@아, 해마다 그래요?}

10103 # 해마동 그르케 당산제를 지내러 가면 나와서 이썸. {해마다 그렇게 당산제를 지내러 가면 나와서 있어.}

10103 @ 응. {응.}

10103 # 그러고는 그냥 그이튼날 보머는 깨:까지 업써저. {그리고 그냥 그 이튼날 보머는 깨끗이 없어져.}

10103 @ 응:. {응.}

10103 # 깨까지 업는디, 그 당산 똥꾸넉::, 나무 똥꾸넉 미시 요만::치가 뺨닥::뺨닥형게 그게 구렁이 지비대요. {깨끗이 없는데, 그 당산 똥구멍, 나무 똥구멍 밀이 요만큼이 반들반들한 것이, 그것이 구렁이 집이래요.}

10103 @ 아::! {아!}

10103 # 근디 거가 그르케 새롬::새롬 허고 탁 이따가 인자 출썸그는 어디루 드려가버리고 따수면 거그가 새롬거리고 인는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새롬새롬 하고 탁 있다가 이제 출 적에는 어디로 들어가버리고 따뜻하면 거기에 새롬거리고 있는데.}

10103 # 거기서 머 버석, 머 버섯 가통거 따다 머그먼 그 사례미 그양 중네사네 고쟁이 나고, 나무 비면 그러고 그렁당개. {거기서 뭐 버섯, 뭐 버섯 같은거 따다 먹으면 그 사람이 그냥 죽네사네 고장이 나고, 나무 베면 그러고 그렁다니까.}

10103 @ 손, 소늘 하여트네 대머는... {손, 손을 하여튼 대머은.}

10103 # # 예. 거그는 손만 대따허면 몰썸. {예. 거기는 손만 땀다하면 못 썸.}

10103 @ 아 여기, 마을 뒤에 어디에가 이썸요? {아 여기, 마을 뒤에 어디에가 있어요?}

10103 # 바::로 여그요. {바로 여기요.}

10103 @ 아 요 뒤에요? {아, 요 뒤에요.}

10103 # 애, 바로 거기요. {예. 바로 거기요.}

10103 # 근디 그르케 무섭땅개. {그런데 그렇게 무섭다니까.}

10103 # 그런 뒤로는 그 머스매가 나무 비어다가 개밥 쌀문 머:시매가 해필 당산 나무에가 무다::너니 막땡이 머스매가 몽매다라 죽어버릴써. {그런 뒤로는 그 사내아이가 나무 베다가 개밥 삶은 사내아이가 하필 당산나무에 아무 이 유없이 막둥이 사내아이가 목매달아 죽어버렸어.}

10103 @ 어, 그 개밥. {어, 그 개밥.}

10103 # 쌀:문 지비. {삶은 집에.}

10103 @ 지베? {집에?}

10103 # 잉. {응.}

10103 @ 아, 그러머는 그 남자 아저씨가 죽꼬, (# 영.) 또 그 아드리 그러구요.

10103 # 궁게. {@ 아, 그러머는 그 남자 아저씨가 죽고, (# 영.) 또 그 아들이 그 러구요.}

10103 # 머시마가 뭐냐 몽매다라 주거거든뇨. { 사내아이가 먼저 목매달아 죽었거 든요.}

10103 @ 아, 먼저? {아, 먼저?}

10103 # 웅. {응.}

10103 @ 먼쌀 때나요? {몇 살 때나요?}

10103 # 수:물 아호빙가 야다링가 머걸써. 근디 연애자랑 이써가꼬. {스물아홉인가 여덟인가 먹었어. 그런데 연애 자랑이 있어갖고.}

10103 # 애. {예.}

10103 # 크내기도 참 조코 인저 주글 이가 엄는다, 그 무다니 머시매가 주거버릴 써. {아가씨도 참 좋고, 이제 죽을 리가 없는데 그 이유 없이 사내아이가 죽어버렸어.}

10103 # 차랑 가꼬와서 무나피다 딱 바치노코, 전주다가 크내기허고 살리미랑 헌 디, 하루저너그 머 차소리가 나서 봉개, 차를 무나피다 바치더랴. {차를 갖 고 와서 문 앞에다 딱 받쳐놓고, 전주에다가 아가씨하고 살림이랑 하는데, 하루저녁에 뭐 차소리가 나서 보니까, 차를 문 앞에다 받치더래.}

10103 # 그리서, 어머니 그러고 두루오더랴, 그리서, 왜 니가 와, 그렇게, 그양 오 고자과서 와써, 궁개 불르드린땅개 당산 하라부지가. {그래서, 어머니 그러 고 들어오더래, 그래서, 왜 네가 와, 그러니까, 그냥 오고싶어서 왔어, 그러 니까 불리들었다니까 당산 할아버지가.}

10103 @ 응. {응.}

10103 # 지비까지 와가꼬넌. {집에까지 와가지고는.}

10103 # 아, 저그, 바:메 그날 나제, 그날 저녁게 쏘:내기가 오고 바래미 부러싼는 디 그 우꺼테 개가 다 지서, 거가 대래대래 달릴쑹개. {아, 저기, 밤에 그날 낮에, 그날 저녁에 소나기가 오고 바람이 불어쑤는데, 그 위에 개가 다 쫓 어, 거기에 대롱대롱 달렸으니까.}

10103 # 그리서 인잔 아치그 인잔 모다 추:워서 안질따가 이르케 요만때나 강개,

저 저 아래 싱장노서 봉개로, 뭐시 시커먼 거시 대래::대래:: 험다고, 비닐리  
가 걸친능가 어쩐능가 그양 그러구는 예상으로 아라떠니, 저그매가 봉개로,  
차쏘그다가 봉개 유서를 써노코 주거뜨래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모  
두 추워서 안져 있다가 이렇게 이맘때나 가니까, 저 저 아래 신작로에서 보  
니까, 뭇이 시커먼 것이 대롱대롱 한다고, 비닐이 걸쳤는가 어쩐능가 그냥  
그러고는 예삿일로 알았더니, 자기엄마가 보니까, 차 속에다가 보니까 유서  
를 써놓고 죽었더래요.}

10103 # 인자, 어머니 여기 속쌍한 일도 업꼬 무단시 내 매:미 그양 요상시러서  
좀 나쁜 지슬 헐꺼시다고, 그르케 유서를 써놔뜨라. {이제, 어머니 여기 속  
쌍한 일도 없고 이유없이 내 마음이 그냥 요상스러워서 좀 나쁜 짓을 할 것  
이라고, 그렇게 유서를 써 놔드래.}

10103 # 그리서 인제, 이상스럽따 허고 창문도 여려노코, 그런디 그 사람 바시 고:  
위여가 이씨, 바로 그양, 여그서 주그먼 여그가 바시 인는디, 바티를 강게  
그르케 매달려 가꾸 이씨. {그래서 이제, 이상스럽다 하고 창문도 열어 놓  
고, 그런데 그 사람 발이 그 위에 있어, 바로 그양, 여기서 죽으면 여기서  
발이 있는데, 발에를 가니까 그렇게 매달려 갖고 있어.}

10103 # 속쌍헌 일도 업꾸, 궁게 그거이 참 허사로 아라서는 안 돼요, 당산나무를.  
{속쌍한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 참 허사로 알알아서는 안 돼요, 당산나  
무를.}

10103 @ 당산나무를. {당산나무를.}

10103 # 애, 그리가꾸 그케 죽꼬더니. {예. 그래갖고 그렇게 죽고 하더니.}

10103 # 한 이:녀닝가 이쥬게 저그 아배가 그르케 급짜키 밥 먹고 나오다가 오도  
바이럴 탄는디 기양, 오도바이 뒤에다 가마이를 시런는디 기양, 오토바이  
기양 픽 자빠지더니 기양 주거버려가꾸, 옥꾸 사래미 다 쪼차가서 봉개로,  
벌써 누늘 까봉개로 물론대가꾸 의료위네서 데리다 기양 거그서 치상히썌  
요. {한 이 년인가 있으니까 제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밥 먹고 나오다가  
오토바이를 탔는데, 그냥 오토바이 뒤에다 가마니를 실었는데 그냥, 오토바  
이가 그냥 픽 자빠지더니 그냥 죽어버려 갖고, 웃곳 사람이 다 쫓아가서 보  
니까, 벌써 눈을 까보니까 못 쓴다고 해갖고, 의료원에 데려다 그냥 거기서  
치상했어요.}

10103 # 참 그건. {참 그것.}

10103 @ 그 때 그 사라면 한 면 싸리나 돼쓸 때예요? {그 때 그 사람은 한 몇 살  
이나 됐을 때예요?}

10103 # 그 사라면 포도:시 항갑 지내고 이녀닝가 이따 주거썌요. {그 사람은 겨  
우 환갑 지내고 이 년인가 있다 죽었어요.}

10103 @ 그럼 한 예순두리나. # 예. {@그럼 한 예순둘이나. # 예.}

10103 # 향갑잔치도 잘:: 허고 그런는디, 그런디 그 당산나무 손대가꼬 그지븐 아주 망쫂 드리버려써쵸요. {환갑잔치도 잘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당산나무 손대갖고 그 집은 아주 망쫂 들어버렸었어요.}

10103 @ 지금도 그 살고 이쵸요? {지금도 그 살고 있어요?}

10103 # 이쵸 여그, 바로 옆 바로 그 어쵸, 할마니 여자는 사려야지. {있어요. 바로 그. 어쵸요, 할머니, 여자는 살아야지.}

10103 @ 응. {응.}

10103 # 크나드러고 여자허고 둘 사려, 따라나 이꼬헌디. {큰아들하고 여자하고 둘 살아, 딸 하나 있고 한테.}

10103 # 크나드른 저 여수로 가고, 여수서 버려무근다고 가고, 각씨는 기양, 사랴요, 농사 지코. {큰아들은 저 여수로 가고, 여수에서 멀어먹는다고 가고, 각씨는 그냥 살아요, 농사 짓고.}

10103 # 아이구 참! {아이고 참!}

10103 # 그렇게 당산나무가 무섭꼬, 저네 어린덜 마리 콕 마자요, 뭐 허는 거 보면, 머시라도 가마::니 허는 그걸 보면. {그러니까 당산나무가 무섭고, 전에 어른들 말이 꼭 맞아요, 뭐 하는 것 보면, 뭇이라도 가만히 하는 그것을 보면.}

10105 @ 그 지금 마으리, 이 원철리 동네가 옴::나레하고, 그 어르신 어려쵸 때 시집오셔쵸 때하고 어트케 달라져쵸요? {그 지금 마을이, 이 원천리 동네가 옛날하고, 그 어르신 어렸을 때 시집오셨을 때하고 어떻게 달라졌어요?}

10105 # 그 때는 참 구식때라 말도 모던는디, 지그른 인자 신시글 지깅개, 거다 절문 사람드리 신시그로 나강개 따라갈빠끼요. {그 때는 참 구식때가 말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신식을 지키니까, 거기다 젊은 사람들이 신식으로 나가니까 따라갈밖에.}

10105 @ 아니, 저 마을, 동네 마으리 어트케, 모양이요, 옴나러구. {아니, 저 마을, 동네 마을이 어떻게, 모양이요, 옛날하고.}

10105 # 옴나레는 조다 초가지비. {옛날에는 모두 초가지집이고,}

10105 애. {예.}

10105 기양 이 고사또 이맨:써거게 사래미 드리댕이고, 차도 모더고 힌는디, 지그른 시나부로 이르게 고살또 널롭꼬, 그 이 저런 거시기도 깨끄더고, 마으리 겁나게 달라져쵸요, 인자는. {그냥 이 고살도 요만씩하게 사람이 들어다니고, 차도 못 오고 했는데, 지금은 시나부로 이렇게 고살도 넓고, 그 이 저런 것들도 깨끗하고, 마을이 많이 달라졌지요, 이제는.}

10105 @ 고 마을 사람들 지븐 어때요? 그때가 마나쵸요? 지그미 마나쵸요? {그 마을 사람들 집은 어때요? 그때가 많았어요? 지금이 많았어요?}

10105 # 지그::미나 그때나 똑까튼디 조다 개시를 히쵸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데 모두 개수를 했지요.}

10105 @ 아 싹, 새로. {아 싹, 새로.}

10105 # 새로 낚꼬 기양 이르케 저 후타리도 조다 다르로 싹고. {새로 짓고 그냥 이렇게 저 울타리도 모두 담으로 싹고.}

10105 # 나 시집 와서만 히도 이 담빠기 업써썌요. 조::다 그 솔깁이를 찌다가 그냥 후타리를 맨드라버렘썌요. {나 시집와서만 해도 이 담벽이 없었어요. 모두 그 솔가지를 찌다가 그냥 울타리를 만들어버렸어요.}

10105 @ 애 애. {예 예.}

10105 # 그르케 사란는디, 겐나게 개시되야썌요. {그렇게 살았는데, 많이 개수되었어요.}

10105 @ 고, 그러면 그 당시, 그 때하고 사람, 동네 사람 수짜는 비스대요? {그, 그러면 그 당시, 그때하고 사람, 동네 사람 숫자는 비슷해요?}

10105 # 마니 드러져썌요. {많이 덜어졌어요.}

10105 @ 아, 마니. 그때는 한 얼마나 돼썌쓰까요? {아, 많이. 그때는 한 얼마나 됐었을까요?}

10105 # 그때는 예릴 드러서 한 지비 그양 청년더리고 무어시고 그양 막 야닐곱 먹썌 겐:숙떠리 되안는디, 다 도시로 나가고, 또 인재 마니 죽꼬, 늘그니드 른 마니 죽꼬, 빈집또 마느고, 지금. {그때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그냥 청년들이고 무엇이고 그냥 막 예닐곱 명씩 식구들이 되었는데, 다 도시로 나가고, 또 이제 많이 죽고, 늘그니들은 많이 죽고, 빈집도 많고, 지금.}

10105 @ 아 지그른 빈집또 마나요? {아 지금은 빈집도 많아요?}

10105 # 빈:지비 한 열때까구 되야요. {빈집이 한 열댓 가구 되어요.}

10105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105 # 그냥 아덜떠른 나가버리고 할마이덜 주거버리고, 그렇게 빈지비 마:녀. {그냥 아들들은 나가버리고 할머니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빈집이 많아요.}

10105 # 산당 거시 집찌비 하나 둘, 그리고는 업썌. {산다는 것이 집집이 하나 둘, 그리고는 없어.}

10105 @ 외, 외지에서 드러와서 사는 사라믄 업썌요? {외,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10105 # 이썌요. 인자 집 비여논 지별 거시경개로, 저런 서울썌 살다가 인자 복짜 버먼 땅이라도 판다고 마니 드뤄요. {있어요. 이제 집 비워놓은 집을 거시니하니까, 저런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복잡하면 땅이라도 판다고 많이 들어와요.}

10105 # 대찌비나 드러와썌요. 이 오바네, 우리바네도 두 집 드러오고, 저 새:터도 두 집 드러오고. {댓 집이나 들어왔어요. 이 5반에, 우리 반에도 두 집 들어오고, 저 새터도 두 집 들어오고.}

10105 @ 아 월래 여기 살다가 인제 객찌 나가면 사람드리 드러웁거요? {아, 원래



여기 살다가 이제 객지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온 것어요?

10105 # 응, 버러머꼬로 간다고 간는다, 버리도 안 되고 그렇게 그런가, 다 드리오  
 덩만뇨 다시. {응. 벌어먹으려고 간다고 갔는데, 벌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가, 다 들어오더구만요 다시.}

10105 @ 여기하고는 광계 업씨 전혀 다른 사لامي 드리오고 그런 사라몬 업꼬요?  
 {여기하고는 관계 없이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 사람은 없고요?}

10105 # 외치에서도 드뤄요. 외치에서도 인제. {외치에서도 들어와요. 외지에서서도  
 이제.}

10105 @ 그 먼, 머치나 드러와써요? {그 몇, 몇이나 들어왔어요?}

10105 # 외치서::, 세 집 뜨환능가 봐요. {외지서, 세 집 들어왔는가 봐요.}

10105 # 서울써 살다 드러와따거덩가, 나이 머거따고 드러와서 살랑가. {서울에서  
 살다 들어왔다고 하던가, 나이 먹었다고 들어와서 살른가}

10105 @ 고 옛날하고 지금 뭐 풍습 가튼게 달라진 건 머가 이써요? {그 옛날하고  
 지금 뭐 풍습 같은 것이 달라진 것은 뭐가 있어요?}

10105 # 풍스비랑 거뚜 뭐, 맨든 거뚜 달라져찌요. {풍습이란 것도 뭐, 만든 것도  
 달라졌지요.}

10105 @ 뭐 어트케 만드러. {뭐 어떻게 만들어.}

10105 # 엔:나리는 뭐 우리가 질쌔 히서 다 그러구 사란는다, 시방 질쌔 베비 업  
 씨. {옛날에는 뭐 우리가 길쌔 해서 다 그러고 살았는데, 시방 길쌔 법이  
 없어.}

10105 @ 엔나레 질쌔 마니 해써요? {옛날에 길쌔 많이 했어요?}

10105 # 하이구, 질쌔 마니 허대이, 말두 모데요 기양. 요때는 이케 안저쓸 시간도  
 업꼬, 바:미로는 열두 시 넘떠락 이러고, 미:영 잡꼬 삼 잡꼬. {하이고, 길쌔  
 많이 하다니, 말도 못해 그냥. 요때는 이렇게 앉았을 시간도 없고, 밤으로는  
 열두 시 넘도록 일하고, 무명 잣고 삼 잣고.}

10105 @ 애. {예.}

10105 # 그린는 머, 시방은 뭐 기양 방으서 바비 먹꼬, 방으서 다:: 모딩 거슬 허  
 지만, 엔나리는 다 부어그서 누니 오나 비가 오나 그양 부어그서 불 때서  
 히짜뇨. {그랬는데 뭐, 지금은 뭐 그냥 방에서 밥 해 먹고, 방에서 다 모든  
 것을 하지만, 옛날에는 다 부엌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부엌에서 불  
 때서 했잖아요.}

10105 @ 그, 그, 그때는 그 동네 뭐 새:미는 어디가 이써써요? {그, 그, 그때는 그  
 동네 뭐 샘은 어디에 있었어요?}

10105 # 새암, 저그 저, 오르자면 그 방아칸 읍써요? 방아칸 여푸가 동네 씨애미  
 요. {샘. 저그 저오르자면 그 방앗간 없어요? 방앗간 옆에가 동네 샘이예  
 요.}

10105 @ 응. {응.}

10105 # 이게 크::게 그냥 파노코 동네 싸람드리 거그서 다 무ړ 지러다 먹꼬 그  
 린는디 인저. {이렇게 크게 그냥 파놓고 동네사람들이 거기서 다 물을 길어  
 다 먹고 그랬는데, 이제.}

10105 # 그 시'암도 저르케 읍새버리고. {그 샘도 저렇게 없애버리고.}

10105 @ 쌍 메꿔져 버려견네요. {쌍 메꿔져 버렸겠네요.}

10105 @ # 메꿔 버려썬요. {메꿔 버렸어요.}

10105 # 메꿔서 그 집째버려썬. 방아간집. {메꿔서 그 집 지어버렸어. 방앗간집.}

10105 @ 아, 방아간 거기가? {아, 바앗간 거기가?}

10105 # 예, 그리가고 집째버리고. {예, 그래가지고 집 지어버리고.}

10105 # 집::찌비 인제 또 이르게 인저 시아멸 지비서 파:가고, 두름바그로 인저  
 지러 먹더니 인제, 조개 또 한조게서 작뚜시아멸 박더니, 또 작뚜시아 함 허더  
 니, 작뚜새미 읍새징개 수도로 와 히버려. {집집이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샘  
 을 집에서 파갔고, 두레박으로 이제 길어 먹더니 이제, 조금 후에 또 한 쪽  
 에서 작두샘을 박더니, 또 작두샘 하더니, 작두샘이 없어지니까 수도로 와  
 해버려.}

10105 # 시방 벌써 시아미 세 번 뱅경되야부러꾸만뇨. {시방 벌써 샘이 세 번 변  
 경되어버렸구만요.}

10105 @ 동네 새메서 두레박 새메서. {동네샘에서 두레박샘에서.}

10105 # 애타. {예.}

10105 # 두름박시아, 동네싸암, 인제 작뚜시아 그러더이, 인저는 뭐 수도로 조다  
 형개로. {두레박샘, 동네샘, 이제 작두샘 그러더니, 이제는 뭐 수도로 모두  
 하니까.}

## 1.2. 일생 의례

###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고, 우남 하감니는 어떤 동네예요? {고, 운암 학암리는 어떤 동네예요?}

10201 # 하감니는 그 일테머는, 여그도 그러지만, 하감니는 더 더군다나 저, 거시  
 기, 하:우남 보, 보 그 근처라 그가 다 수전꺼시여. {학암리는 그 이틀테면,  
 여기도 그렇지만, 학암리는 더 더군다나 저, 거시기, 하운암 보, 보 그 근처  
 라 거기가 다 수전 것이야.}

10201 @ 예? {예?}

10201 # 수전. {수전.}

10201 @ 슈전이요? {수전이요?}

10201 # 애타, 수저닌제, 그 저 보 망는 그 땡기때서 정부, 그리서 기양, 물:: 그리고

머스그 물 드와 버리머는 베리버려 거가. {예. 수전 이제, 그 저 보 막는 그 땅이라고 해서 정부, 그래서 그냥 물, 그리고 무엇이고 물 들어와 버리머는 버려버려 거기가.}

10201 # 근디 인제 고 동네에서 나가게 헐라고 정부이서 다:: 도늘 쥐썌요, 지깨비고 땅깨비고. {그런데 그 동네에서 나가게 하려고 정부에서 다 돈을 줬어요, 집값이고 땅값이고.}

10201 # 거그다 무를 막 이케 드러가꼬 지비고 노니고 바다가 되야버려, 거그 저 우남보를 트면. {거기에다 물을 막 이렇게 들어갖고 집이고 논이고 바다가 되야버려, 거기 저 운암보를 트면.}

10201 @ 애. {예.}

10201 # 그런디 인제 요새는 원청 안 나가고 나갈떠도 읍꼬 돈도 짹꼬 현 사라문 거그서 버티고 산디, 그냥 죽:게 농사진다고 노는 뺨드터니 이썌개로 농사진다고 모 싱거노면 그양 비조게 오고 고 보 터버리갑 쏘가 되야버려. {그런데 이제 요새는 원청 안 나가고 나갈 데도 없고 돈도 작고 한 사람은 거기서 버티고 사는데, 그냥 죽게 농사진다고 노는 번듯하니 있으니까 농사진다고 모 심어놓으면 그냥 비 조금 오고 그 보 터버리면 소가 되야버려.}

10201 @ 응. {응.}

10201 # 그러고 인제 산전만 조개씩 히먹꼬 그려, 저네는 나 이썌 썌그는 그리 안 히썌요, 그런디. {그러고 이제 산전만 조금씩 해먹고 그려, 전에는, 나 있을 적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10201 # 완저이 기양 거가 쏘가 되야버려썌. {완전히 그냥 거기가 소가 되야버렸어.}

10201 # 마니 나가고 인자 참 복잡번 사람만 거그서 사라요. {많이 나가고 이제 참 복잡한 사람만 거기서 살아요.}

10201 @ 아, 지금 현재요? { 아, 지금 현재요?}

10201 # 애. {예.}

10201 @ 그:: 우리 어르시는 형제부는 어트케 되썌썌요? {그 우리 어르신은 형제부는 어떻게 되썌썌요?}

10201 # 아들 하나고, 남동상, 아드른 하나고 여자는 다:서시요. {아들 하나고, 남동생, 아들은 하나고 여자는 다섯이요.}

10201 @ 일남 오녀예요. {일남 오녀예요.}

10201 # 여자드른 하나도 안 죽꼬 남동생은 주거버리고. {여자들은 하나도 안 죽고 남동생은 죽어버리고.}

10201 @ 아:! {아!}

10201 @ 나이가 더 어련는데 그러썌네요. {나이가 더 어렸는데 그러썌네요.}

10201 # 아이구 남동생요? 하면뇨. {아이구 남동생요? 그럼요.}

10201 # 가 인제 칠십 닐게보. {# 개가 이제 칠십일곱이요.}

10201 @ 지금 사라쓰면? {지금 살았으면?}

10201 # 애. 근디 시방 한 오년 되야요, 주근 지. 술 머거싸가꼬. {예. 그런데 시방 한 오 년 되어요, 죽은 지. 술 먹어쑤아 갖고.}

10201 @ 그리도 뭐 오래 사셨네요. {그래도 뭐 오래 사셨네요.}

10201 @ 허허허허. {허허허허.}

10201 # 너무나 오래 살죠, 지금. {너무나 오래 살죠, 지금.}

10201 # 공개 인제는 기영:넉또 마니 업써져 버리고, 존 피부도 인제 못 써져버리고 그래요. 오래 상개. {그러니까 이제는 기억력도 많이 없어서 버리고, 좋은 피부도 이제 못 써져버리고 그래요, 오래 사니까.}

10201 @ 고 부모니면. { 그 부모님은.}

10201 #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10201 @ 애 애, 아버지 어머니는 계속 그 하가메서 (# 예.) 사셔서요? {예 예, 아버지 어머니는 계속 그 학암리에서 (# 예.) 사셨어요?}

10201 #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엔:날부터 거그서 사라때요.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옛날부터 거기서 살았대요.}

10201 @ 어머니 그 친정은, 외가찌븐 어디셔요? {어머니 그 친정은 외갓집은 어디셔요?}

10201 # 나:마니요. {남원이요.}

10201 @ 나면? (# 예.) 나면, 나면 어디요? {남원? (# 예.) 남원, 남원 어디요?}

10201 # 나:만 미륵꼬리라고 허대요, 저네 에려서 거그 외가찹 데꼬댕이면, 외가찌비 가자거면, 인자 저그 삼필네 지비 다 와따, 허고 이 동네가 뭐여, 한 열세 사린가 머거서 따라가봐쑤요. {남원 미륵골이라고 하대요. 전에 어려서 거기 외갓집 데리고 다니면, 외갓집이 가자고 하면, 이제 저기 삼촌네 집에 다 왔다, 하고 이 동네가 뭐야, 한 열세 살인가 먹어서 따라가봤어요.}

10201 애. {예.}

10201 # 이견 미륵:꼴 똥네라곤다, 그러딩만. {이견 미륵골 동네라고 한다, 그러더구만.}

10201 @ 그게 나뉘된 무슨 며닌가는 물루구요? {그게 남원 무슨 면인가는 모르구요?}

10201 # 나만며니라구는 에리서 히쑤개 몰라, 나만며니라고 허능는거, 삼촌도 댕기도 머 그렇거 우리는 또 무러보도 아너고 전성으로 보고 그리쑤. {남원면이라고는 어려서 했으니까 몰라. 남원면이라고 하는 거, 삼촌도 다녀도 뭐 그런 거 우리는 또 물어보지도 안하고 건성으로 보고 그랬쑤.}

10201 # 외삼촌드리 서:인디 기양 그때는 에링개 뭐 자상스럽게 무러보도 아너고. {외삼촌들이 셋인데, 그냥 그때는 어려우니까 뭐 자상스럽게 물어보지도 안하고.}

10201 @ 다 농사 지시면서 사셨꾸요? {다 농사 지시면서 사셨구고요?}

10201 # 애. {예.}

##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0203 @ 그 하가메서 사셨는데 어트케 이 원철리로 겨로늘 하시게 돼쎄요? {그 학암에서 사셨는데 어떻게 이 원천리로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10203 # 그르케 그때 날리가 낭개, 크내기드를 다 모지비 모집보낸다고, 이 몸빼가 그때 나쎄요. 몸빼드를 히빔 이피가꼬, 기양 카 그르딩 크내기드를 다 홀려늘 시기자뇨. {그렇게 그때 난리가 나니까, 큰애기를 다 모집 모집 보낸다고, 이 몸빼가 그때 났어요. 몸빼들을 해입 해 입혀갖고, 그냥 그 그러던 큰애기들을 다 혼련을 시키잖아요.}

10203 # 궁개 아버지가, 저거 놔두서는 안되거따고, 기양 시지비나 보내버린다고, 나이도 예린디, 열릴곱싸레 중매를 너팅만뇨.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거 놔두어서는 안되겠다고, 그냥 시집이나 보내버린다고, 나이도 어린데, 열일곱 살에 중매를 넣더구만요.}

10203 @ 어!! {어!}

10203 @ 누:가 중매를 해쎄요? {누가 중매를 했어요?}

10203 # 요, 우리 저 고무라고 이쎄요, 이 동네, 도라가서쑹개 그제, 고무가 엔나레 댐배장사를 허고 땡긴는디, 그 고모보고 저거 어따 예워야거따고 형개, 아이고 존 자리 이쎄개 그럼 예우세, 키는 저러케 날씨너고 저거 놔두면 못 쓰거따고 게가꼬, 급짜키 그르케 시집와쎄요 기양. {요, 우리 저 고무라고 있어요, 이 동네,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 고모가 옛날에 댐배장사를 하고 다녔는데, 그 고모보고 저거 어디에다 여워야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좋은 자리 있으니까 그럼 여위세, 키는 저렇게 날씬하고 저거 놔두면 못 쓰겠다고 해갖고, 갑자기 그렇게 시집왔어요, 그냥.}

10203 @ 응. {응.}

10202 @ 그때 그러며는 하라버지는 먼 썰 되쎄쎄요? {그때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몇 살 되셨어요?}

10202 # 그 양바넌 수스물두:리고, 나는 열틸고비고, 그르키 와쎄요. {그 양반은 스물들이고, 나는 열일곱이고, 그렇게 왔어요.}

10203 # 궁개 그 양반도 장개갈 나이도 아인디 기양. {그러니까 그양반도 장가갈 나이도 아닌데 그냥.}

10203 @ 그 당시에는 보통 먼쌀씨기나 머거썰 때 가쎄요? {그 당시에는 보통 몇 살씩이나 먹었을 때 갔어요?}

10203 #그 때도 기양 여레쎄쌀또, 여레세쌀 머근 지지바들또 여우고, 나:매들또 기양 한 이십쌀 머근 사람도 여우고, 그때는 그러데요. {그때도 그냥 열여 살

도, 열여섯 살 먹은 여자들도 여위고, 남자들도 그냥 한 이십 살 먹은 사람도 여위고, 그 때는 그러데요.}

10203 @ 고 그때 겨론하고 그래쓸 때 뭐 사주도 보고 뭐 그르케 해썬요? {고 그때 결혼하고 그랬을 때 뭐 사주도 보고 뭐 그렇게 했어요.}

10203 # 하먼뇨. {그럼요.}

10203 @ 사주 그런건 어트케 봐썬요. {사주 그런 것은 어떻게 봤어요.}

10203 # 사주 보고 막 구합뽀고. {사주 보고 막 궁합 보고.}

10203 @ 애. {예.}

10203 @ 그런 건 누가 봐썬요? {그런 건 누가 봐썬요?}

10203 # 그건 이제 점:쟁이가 봐주고, 또 사주본 사례미 이썬요, 글로, 채그로, {그것은 이제 점쟁이가 봐주고, 또 사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글로, 책으로.}

10203 # 우리 외아라버지가 (@ 애.) 사주도 보고 약또 지코, 하냐또 지코 그런 냥 바니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 예.) 사주도 보고 약도 짓고, 한약도 짓고 그런 양반이요.}

10203 @ 아, 외하라버지가요? (# 애, 나만.) 어 어디에서? (# 나만썬.) {아, 외할아버지가요? (# 예.) 어 어디에서? (# 남원에서.)}

10203 # 나:만서 현디 어머니가 거기를 가딩만뇨, 친정으럴, 하나썬한티 쪼께 가따 와바야거따. {남원서 하는데, 어머니가 거기를 가더구만요. 친정에를, 할아버지한테 좀 갔다와봐야겠다.}

10203 # 그러더니 하나썬한티 가따 와서, 우리 인자 친정아버지가 뭐라고딩가 그렇게. {그러더니 할아버지한테 갔다 와서, 우리 이제 친정아버지가 뭐라고 하딘가 그러니까.}

10203 # 조키는 현디, 저 나는 말뽀고 우리 쥘냥바는 거시기 소뽀라 큰짐성까지 만나서 조코 잘 쌀기는 현다는디 늘거서 영개미 머냐 주꼰따고데 그려. {좋은 한테, 저 나는 말 뽀고, 우리 주인양반은 거시기 소 뽀라, 큰 짐승까지 만나서 좋고 잘 살기는 한데, 늙어서 영감이 먼저 죽겠다고 하데, 그려.}

10203 # 그리서 내가 크내기때도 내가 머냐 주거야지 어트케 나:매가 모냐 주거 형개, 사주가 그런단다. {그래서 내가 큰애기때도 내가 먼저 죽어야지, 어떻게 남자가 먼저 죽어 하니까, 사주가 그렇단다.}

10203 # 하라부지가 그리도 그 지비로 가면 쥘찬타거더라 그리서. {할아버지가 그래도 그 집으로 가면 쥘창다고 하더라, 그래서.}

10203 # 하이고, 머냐 주근 거시 뽀, 뽀시 쥘차녀 그러고는 운꼬 마란는다. {하이고, 먼저 죽는 것이 뽀, 뽀이 쥘창아 그렇게하고는 웃고 말았는데.}

10203 # 그러케 사주랑 다 봐썬요. {그렇게 사주랑 다 봤어요.}

10203 @ 지금 지나 노코 보니까 그 사주 봉게 마자썬요? {지금 지나 놓고 보니까 그 사주 본 것이 맞았어요?}

10203 # 마자요. 모냐 저러케 시비년, 심늬년이나 모냐 죽꼬 나는 시방까지 살고.  
 {맞아요. 먼저 저렇게 십이 년, 십육 년이나 먼저 죽고 나는 시방까지 살고.}

10203 @ 허허허. {허허허.}

10203 # 막:꼬 머시고 어른덜 헌 말씨미 다 마떼요. {맞고 뵈이고 어른들 한 말씀이 다 맞데요.}

10203 @ 그때 그 겨론 할 때 어트케 해가지고 오션능가 좀 이야기좀 해 주세요.  
 {때 그 결혼할 때 어떻게 해가지고 오셨는가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10203 # 그거슨 가:매 타고 와썌요. {그것은 가마 타고 왔어요.}

10203 @ 오, 지금 그 하가메서 여기 원철리가 얼마나 돼요? {오, 지금 그 학암에서 여기 원천리가 얼마나 돼요?}

10203 # 이십년이요. {이십 년요.}

10203 @ 이 이십니? {이 이십 리?}

0203 # 애. {예.}

10203 @ 이십니? {이십 리?}

0203 # 이십니. {이십 리.}

10203 @ 그럼 이십니 끼를 가마 타고 와썌요? {그럼 이십 리 길을 가마 타고 왔어요?}

10203 # 이십니 끼를 기양 너:이 가매 떠미더구만뇨 사인기다고. {이십 리 길을 그냥 넷이 가매 떠매더구만요, 사인가마라고.}

10203 # 그리가고 선딸 수무날 완는디, 음녁 선딸 수무날 완는디, 누니 요로케 와가꾸 말도 모던디. {그래갖고 선딸 스무날 왔는데, 음력 선달 스무날 왔는데, 눈이 요렇게 와갖고 말도 못 할 정도인데.}

10203 @ 어 그 이십니 끼를 그르케 가마 타고 완네요. {어, 그 이십 리 길을 그렇게 가마 타고 왔네요.}

10203 # 가매 타고 와썌요. {가마 타고 왔어요.}

10203 # 누니 이르게 완는디 기양, 인저 우리지비서 예는 지내가꼬는 인저, 둘이다 그 양반도 가매 타고 나도 가매 타고. {눈이 이렇게 왔는데 그냥, 이제 우리집에서 예는 지내고는 이제 둘이다 그 양반도 가마 타고 나도 가마 타고.}

10203 # 그리가고 여기털 두론디, 그때는 기양 여기 웅개, 사립, 고사시나 이르게 생이고. {그래 갖고 여기를 들어오는데, 그때는 그냥 여기 오니까, 사립, 고살이나 이렇게 생기고.}

10203 @ 조바가꼬요? {좁아가지고요?}

10203 # 집또 어설프고, 심::나너딩만뇨. {집도 어설프고 심란하드만요.}

10203 # 그런디 인자는 마니 개시되야서. {그런데 이제는 많이 개수되어서.}

10203 @ 고 가마 소게서 축꼬 그래썌 꺼 아네요? # 추어요. {@ 그 가마 속에서

- 춤고 그랬을 거 아네요? # 추워요.}
- 10203 # 그 때:미고 오는데 어트게 춤따고, 그 사람들도 따멀 흘리고 막 오는데 나는 텅개. {그 때매고 오는데 어떻게 춤다고, 그 삶들도 땀을 흘리고 막 오는데 나는 힘드니까.}
- 10203 @ 그 추워서 어트게 해써요? {그 추워서 어떻게 했어요?}
- 10203 # 기양은, 추워도 기양 안자써쪄요. 취 취 춤따 쏘리도 모더고 부끄러서. {그냥, 추워도 그냥 앉았었지요. 추어 추어 춤다 소리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 10203 @ 그래도 시집 오니까 조아써요? 어때서요? {그래도 시집오니까 좋았어요? 어땀어요?}
- 10203 # 조케 뭐 조아요, 어쩐중도 모르고 기양, 이게 왜니리여 시푸고 떨리기만 허고. { 좋게는 뭐 좋아요, 어쩐 줄도 모르고 그냥, 이게 웬 일이여 싶고 떨리기만 하고.}
- 10203 # 아:무중도 몰라써요. 열릴곱 쌀 머거써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열일곱 살 먹었어도.}
- 10203 @ 응. {응.}
- 10203 # 그냥 호강으로만 아부지가, 그르케 오매랑 아부지랑 키워서 거시기 아:무중도 몰라써요. {그냥 호강으로만 아버지가, 그렇게 엄마랑 아버지랑 키워서 거시기 아무것도 몰랐어요.}

### 1.2.5. 시집살이에 대한 경험담

- 10218 # 여그 웅개 기양 어트케 일도 그양 거짜머게 시기고. {여기 오니까 그냥 어떻게 일도 그냥 거창하게 시키고.}
- 10218 @ 이 일, 시집싸리 마니 시켜요? {이 일, 시집살이 많이 시켜요?}
- 10218 # 시집싸리레이, 저너그로 삼 사무라고 오매가 인자 어머니가 삼 사무라고 머는 당시는 나제 이케 한 소곰씩 자머는 재미 안 웅개. {시집살이라, 저너으로 삼 삼으라고 엄마가 이제 어머니가 삼 삼으라고 하면은 당신은 낮에 이렇게 한 소곰씩 자면은 잠이 안 오니까.}
- 10218 @ 응. {응.}
- 10218 # 열뚜시, 지그므로 히서는 열뚜 시 다 기양 넘넌더락, 넘떠락 사물 사무면 그양 아이구, 자올리기도 허고 어::찌 재미 와서, 추접쌀 마리지만 화장실 가 부치까네 가 안자서 조께 한 소곰씩 자오로고 오면 나사. {열두 시, 지금으로 해서는 열두 시 다 그냥 넘도록, 넘도록 삼을 삼으면 그냥 아이고, 졸립기도 하고 어찌 잠이 와서, 추접한 말이지만, 화장실 가서 앉아서 조금 한 소곰씩 자고 오면 나아.}



10218 @ 어! {어!}

10218 # 어트케 시집사리 허고, 밥또 생::전 부어그서 불 때가꼬 바비짜뇨. {어떻게 시집살이 하고, 밥도 생전 부엌에서 불 때갓고 밥 했잖아요.}

10218 # 부석떡 아푸서 함번씩 떠먹제. 어디 머 상: 와서 바벌 먹게요. {부뚜막 앞에서 한 번씩 떠먹지, 어디 뭐 상 와서 밥을 먹게요.}

10218 # 함번 인제, 그때는 부끄러서 인자 실랑 아푸서 밥뚜 몬머거찌, 그양 포도::시 먹꼬 그런디. {한 번 이제, 그때는 부끄러서 이제 신랑 앞에서 밥도 못 먹었지, 그냥 겨우 먹고 그랬는데.}

10218 # 거그서 부석짜게서 바블 머궁개로 세수를 허고 드러가더니 다시 나오더라고, 나오더니 부어떼기맹이로 거그서 밤명는다고 방으로 드로라고 그려, 그리서. {거기서 부뚜막에서 밥을 먹으니까 세수를 하고 들어가더니 다시 나오더라고, 나오더니 부엌데기처럼 거기서 밥 먹는다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려, 그래서.}

10218 # 아 당시니나 가서 자시라고, 머 어른들 인는디 어트기 내 맘대로 허냐고 그러고 이썬떠니. {아 당신이나 가서 자시라고, 뭐 어른들 있는데 어떻게 내 맘대로 하냐고 그러고 있었더니.}

10218 # 인저 아부지보고 시아바니보고, 궁게 시아바니가 참:: 예빠라고 히썬요. {이제 아버지보고 시아버지보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참 예빠라고 했어요.}

10218 @ 애. {예.}

10218 # 막 데려라고라 그려, 그리서. {데려오라고 그려, 그래서.}

10218 # 두루와서 인자 여그서 상을 머근디, 땅으다 노코 머궁개로 이르게 상우다가 바블 올리노팁만뇨.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상을 먹는데, 땅에다 놓고 먹으니까 이렇게 상 위에다 밥을 올려놓더만요.}

10218 # 근디 이벌 벌리고 바블 몸머꺼썬, 부끄러서. {그런데 입을 벌리고 밥을 못 먹겠어, 부끄러워서.}

10218 # 그러떠니 그양 어머니가 그양 그 밥 막 먹꼬 정지 치러 나장개 그양 막::응 여자리를 상:으다가 밥 메기고 저분질 땅땅 허게 현다고 배우지 모던 노미라고 막 실랑을 막 어트게 야다늘 허더라구. {그랬더니 그냥 어머니가 그냥 그 밥 막 먹고 부엌 치우러 나가니까 그냥 막, 응 여자들을 상에다가 밥 먹이고 젓가락질 땅땅 하게 현다고 배우지 못한 놈이라고 막 신랑을 막 어찌나 야단을 하더라구.}

10218 # 실랑보고 그리썬, 부지람는 소리 히가꼬 요거더명네, 그러곤자. {신랑보고 그랬어, 부질없는 소리 해갓고 욕 얻어먹네, 그러고는 이제.}

10218 # 그러고는 그날 저녁그, 아 뭐디겨 암디서나 먹께 내비두제, 그리가꼬 그 꾸지령을 먹꼬 그 야단 허느냐고 그렇게. {그러고는 그날 저녁에, 아 똥하러 아무데서나 먹게 내버려두지, 그래갓고 그 꾸지람을 맞고 그 야단 하느

냐고 그러니까.}

10218 # 아 그뎜 부엌떼기마냥 부엌짜그서 머거? 그리서. {아 그러면 부엌떼기마냥 부뚜막에서 먹어? 그래서.}

10218 # 아 부엌떼기는 부엌떼기자나. {아 부엌떼기는 부엌떼기잖아.}

10218 # 그런데로는 머 애기를 세개나 나터락 정지서 바블 머거찌, 방으로 모뎌버렌써. {그런 뒤로는 뭘 애기를 셋이나 낳도록 부엌에서 밥을 먹었지, 방으로 못 와버렸어.}

10218 # 으트게 야다늘 허던지. {어떻게 야단을 하던지.}

10218 @ 어. {어.}

10218 # 으트게 시머. {어떻게 심해.}

10218 # 아이구::! 애기럴 업꼬 그양 뭇지슬 해도 애기 니려노라 쏘리도 모더고. {아이구! 애기를 업고 그냥 뭇 짓을 해도 애기 내려놓으라 소리도 못하고.}

10218 # 그짜기 실랭이 구닌 가버렁개로 머 완저니 인자 머. {그적에 신랑이 군인가버리니까 뭇 완전히 이제 뭇.}

10218 @ 아! 겨론 해노코 나서 군대를 가쎄요? {아! 결혼 해놓고 나서 군대를 갔어요?}

10218 # 애, 게런 히가꼬 애기 하나 나노코는 기양 구니늘 가버려쎄요. {예, 결혼 해갖고 애기 하나 낳아놓고는 그냥 군인을 가버렸어요.}

10218 # 그리가꼬 팔 년마네 와쎄요, 팔 년마네. {그래갖고 팔 년 만에 왔어요, 팔 년 만에.}

10218 # 그때는 구닌 한번 가면 일본놈때 히떼상, 그리가꼬 한번 가머는 휴가뺨또 업꼬, 인자 그 우리 영개미 배운 고시 이쎄가꼬 지그므로 히서는 멘장질도 아깁 정도로 필찌기나 머 배운 거시나 점자는 거시나 그래요. {그때는 군인 한 번 가면 일본놈때 히떼상, 그래갖고 한 번 가면은 휴가뺨도 없고, 이제 그 우리 영감이 배운 것이 있어갖고 지금으로 해서는 멘장질도 아까울 정도로 필적이나 뭇 배운 것이나 점잖은 것이나 그래요.}

10218 @ 애. {예.}

10218 # 다 지금 뭇 암재 아라봐도 아러지만 아주 기양 그르케 점자너고 배운 거 또 마너고 그러, 그런디. {다 지금 뭇 아무때나 알아봐도 알겠지만 아주 그냥 그렇게 점잖하고 배운 것도 많고 그러, 그런데.}

10218 # 그뎜저 뭇 멘써기라도 살라고 어트게 노력글 허는 파닌디, 기양 일본놈더리 그르케 데려가버려쎄요. 그리가꼬넌. {그때 이제 뭇 먼서기라도 살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는 판인데, 그냥 일본놈들이 그렇게 데려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10218 # 기양 그 사람 구닌가면 기양 압뎌가 그 태국끼를 두르고 기양 막:: 여그서 안벽 간촌 다가더락 동네사람더리 인자 느려서가꼬는 만세를 부르고 막 그르케 한시머덩만뇨. {그냥 그 사람 군인 가면 그냥 앞뎌가 그 태극기를

- 두르고 그냥 막 여기서 안벽 관촌 다 가도록 동네사람들이 이제 늘어서갖고 만세를 부르고 막 그렇게 한심하더구만요.}
- 10218 # 그리더니 그냥 가가꼬는, 그리도 인제 배웅 거시 이쑥개로, 홀려늘 마치고는 인자 다른 걸로 갈치고, 다른 갈킹 거시로 허제 다른 거슨 안히썩어요. {그러더니 그냥 가갖고는, 그래도 이제 배운 것이 있으니까, 훈련을 마치고는 이제 다른 것으로 가르치고, 다른 가르치는 것으로 하지 다른 것은 안했어요.}
- 10218 # 훈련 갈치고 인자 이르키 조다 문서때 가꾸댕임서 어트게어트게 갈라주고 그런 거슬 히때요. {훈련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모두 문서대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어떻게 갈라주고 그런 것을 했대요.}
- 10218 # 그리가가꼬는 인자 그르케 허구, 논산씨 그린는디, 논산씨 그냥 지비 한번 와따 가안디, 그 길로 제주도로 보내버려썩. {그래갖고는 이제 그렇게 하고, 논산에서 그랬는데, 논산에서 그렇게 하면 집에 한 번 왔다 가야 하는데, 그 길로 제주도로 보내버렸어.}
- 10218 @ 어하! {어!}
- 10218 # 제주도로 보내가꼬 제주도에 가서 그 훈련 갈치고 막 거기서 히가꼬는, 인제 후너네 나올라면 오래 처:므로 함번 칠년 채 남서 휴가 함번 와명만 뇨. {제주도로 보내갖고 제주도에 가서 그 훈련 가르치고 막 거기서 해갖고는, 이제 후년에 나오려면 오래 처음으로 한 번 칠년 채 넘으면서 휴가 함번 왔더만요.}
- 10218 @ 어 칠 년 마네 침:으로? {어 칠 년 만에 처음으로.}
- 10218 # 예. {예.}
- 10218 @ 아이고. {@ # @ 이고.}
- 10218 # 근디 애:기가 세 살 머거서 구니를 간는디 여란 살 머거서 와썩. {그런데 애기가 세 살 먹어서 군인을 갓는데 열한 살 먹어서 왔어.}
- 10218 @ 허허허. {허허허.}
- 10218 # 공개 저 알뜰 모를뜰 허고 가가꼬는. {그러니까 저 알 듯 모를 듯 하고 가갖고는.}
- 10218 @ 모다라봐컨네. {못 알아보았겠네.}
- 10218 # 모다라보고, 인자 웅개로 인자 아부지도 이꼬 저 오마이도 이꼬헿개, 지금 싸라밍개 안꼬 그러제 애기드를 물파기다 안는 꼴도 모뽏고 으른드리, 싸가지 업따고, 어른들 아프 애기들 보듬는다고. {못 알아보고 이제 오니까 이제 아버지도 있고 저 어머니도 있고 하니까, 지금 사람이니까 안고 그러지 애기들을 무릎에다 안는 꼴도 못 보고 어른들이, 싸가지 없다고, 어른들 앞에 애기들 보듬는다고.}
- 10218 # 공개 안뜰 모르뜰 허고 가가꼬는, 애기가 와서 구닌 오설 입꼬 웅개 하나 버지 보고, 하라부지 하라부지 저게 누구여, 그러더랴.

10218 @ 응. {응.}

10218 # 공개 그게 너그 아버지다 형개로, 아:부지가 내가 어디가 이씨 하고, 아버지 아니라고 그 쫓아내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안듯 모르듯 하고 가갖고는, 애기가 와서 군인 옷을 입고 오니까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게 누구요?,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게 네 아버지다 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어디가 있어, 하고 아버지 아니라고 그 쫓아내라고 그러더라.}

10218 # 아니 나가 아버지다, 달래고 인자 저 모퉁이서 소늘 까불까불 힌는개버 이리 오라고 조깨 만쳐볼라고 그러개로, 하라버지 어떤 구니니 나를 소늘 까불라 오라고, 그러더라. {아니 내가 아버지다, 달래고 이제 저 모퉁이에서 손을 까불까불 했는가봐. 이리 오라고 조금 만쳐보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어떤 군인이 나를 손을 까불러 오라고, 그러더라.}

10218 # 그리서 느그 아부닝개 가거라 가거라 형개, 아녀 아녀, 애기를 못 뽀듬꼬 가씨요, 다시 휴가 와가꼬. {그래서 네 아버지이니까 가거라 가거라 하니까, 아니아 아니다, 애기를 못 보듬고 갔어요, 다시 휴가 와갔고.}

10218 # 딱:: 그때는 보름 일평만.

10218 @ 예. {예.}

10218 # 보름마네 가는데 애기를 소늘 못 짜바보고 그냥 가씨, 커가꼬는 지금 우리 아드리 원두린다, 참! 그르케 아버지 한버늘 사랑스럽게 모더고 그양 질래 크고. {딱 그때는 보름 있더구만. 보름 만에 가는데 애기를 손을 못 잡아보고 그냥 갔어. 커갖고는 지금 우리 아들이 원들인데, 참! 그렇게 아버지 한버늘 사람스럽게 못하고 그냥 내내 크고.}

10218 # 그러자 인제 저 구닌 가따 와서 또 저 거시기 조깨 삼시 또 타과느로만 자꾸 땡깡개, 지그른 각씨더리 따라댕이지만 그때는 못 따라가게효, 시어마 이가.

10218 @ 음. {음.}

10218 # 어디 절문 거떠리 그런디를 따라댕기야고. {그러자 이제 저 군인 갔다와서 또 저 거시기 조금 삼시 또 타관으로만 자꾸 다니니까, 지금은 각시들이 따라다니지만 그때는 못 따라가게 해요, 시어머니가, 어디 젊은 것들이 그런 테를 따라다니냐고.}

10218 # 그리가꼬 내가 못 따라댕이고 질락 그럭저럭 살다 그양 살만형개, 어머니 살 도라가시고 아버지 도라가시고 인자 조깨 겐:수기다 허고 서로 사랑허고 살라정개 주거부런씨. {그래가지고 내가 못 따라다니고 내내 그럭저럭 살다 그냥 살 만 하니까, 어머니 살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좀 권속 다 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하니까 죽어버렸어.}

10218 @ 허허허 어이구. {허허허 어이구.}

10218 # 그 타과네 가서가지고는 그러면 뭐 무슨 이를 허서씨요? {그 타관에 가서 가지고는 그럼 뭐 무슨 일을 하셨어요?}

10218 # 그 양반? {그 양반?}

10218 @ 애. {예.}

10218 # 그 일터면 지그므로 히서는 멘써기쥬. 그런 이를 인자 허는디. {그 이를 테면 지금으로 해서는 면서기쥬. 그런 일을 이제 하는데}

10218 # 여그서 가트먼 저::그 장수 그런디로 가써쥬요. {여기서 같으면 저기 장수 그런 데로 갔었어요.}

10218 @ 아! {아!}

10218 # 장수 가튼데 그런디 가서 이를 보는데, 지그른 펜:지를, 저나가 이쥬개 뭐 잘 거시걸 꺼또 업찌마는, 펜:지를 한 자썩 와, 그럼 모리게 그양 어따 감춰 노코 익제. {장수 같은데 그런디 가서 이를 보는데, 지금은 편지를, 전화가 있으니 뭐 잘 거시기 할 것도 없지만은, 편지를 한 자썩 와, 그럼 모리게 그냥 어디에 감춰놓고 읽지.}

10218 # 뭐라고 막 펜:지 완냐고 또 시어마이가 잡뚜그러, 오라고다 거그 살자고 다 그러고 잡떼. {뭐라고 막 편지 완냐고 또 시어머니가 잡드리하고 그래, 오라고 하더냐 거기 살자고 하더냐 그러고 잡드래해.}

10218 # 모리게 조계썩 일거보며는, 내가 며 메친날 거그를 간다고 그르케 마를 허고 그러, 인자 와따가. {모르게 조금썩 읽어보며은, 내가 뭐 며칠날 거기를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 인자 왔다가.}

10218 # 지그른 이르케 세상이 급제기 조아져썩, 아이고 엔나레는 그런 지건덜또 후딱후딱 휘가도 모도고, 거그 여그 집또 잘 못 땡기고. {지금은 이렇게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 아이고 옛날에는 그런 직원들도 후딱후딱 휴가도 못 오고, 거기 여그 집도 잘 못 다니고.}

10218 # 그러고 저 지를 마:니 큰노를 꼭 각꼬 살덩만노, 어디가든지 조다 마따. {그러고 저 짐을 많이, 큰 것을 꼭 갖고 살더구만요, 어디 가든지 모두 말아.}

10218 # 우체구그도 기양 가머는 그 돈, 금전거래를 딱 열쇠를 만끼버리고, 그렇게 개로 비고 나오도 모더고 그르케 사라떠요. {우체국에도 그냥 가면은 그 돈, 금전거래를 딱 열쇠를 맡겨버리고, 그러니까 비우고 나오도 못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10218 # 내 세상은 요상시럽게 사라버려썩. {내 세상은 요상스럽게 살아버렸어.}

10218 # # 허허허. {허허허.}

10204 @ 그 겨론 할 때는 혼수는 뭘 해가지고 와요? {그 결혼할 때는 혼수는 뭘 해가지고 와요?}

10204 # 그 그때는 부:자찌비고 인제 거시건 사라미나 이불 히가꼬고 농 히가꼬고, 그런 거더고 인제. {그 그때는 부жат집이고 이제 거시건 사람이나 이불 해 갖고 오고, 농 해갖고 오고, 그런 것하고 이제.}

10204 # 처빠냐 사성이란 거시 와요 또 인제, 시지블 올라고면 인제, 요마년 중우

- 때기다 사성 씨고, 이제 옥감 하나 너코 히서 미리 시 보내딩만뇨. {첫번에는 사성이란 것이 와요 또 이제, 시집을 오려고 하면 이제, 요만한 종이쪽지에다 사성 쓰고, 이제 옷감 하나 넣고 해서 미리 보내더만요.}
- 10204 # 그런 대미는 인자 또 날바지가 와. 날 바다따고. 날바드내 총:각 폐네서 와. {그런 다음에는 이제 또 날받이가 와. 날 받았다고. 날 받은 해 총각 편에서 와.}
- 10204 # 총각 폐네서 인제 메친 날 날 바다따고 그쪼그 종우떼기만 오고, 그 다음에는 인자 계론허머는 이부리야 뉘이야, 엥간헝건 그때는 다 힌는디, 지그른 머 냉장고 머딘찌만, 그때는 베비 업썰개 크:게 인자 잘 히준 사라미 농허고 이부러고. {총각 편에서 이제 며칠 날 날 받았다고 그쪽의 종이쪽지만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하면은 이불이야 농이야, 어지간한 것은 그때는 다 했는데, 지금은 뭐 냉장고 뭐 있지만, 그때는 법이 없으니까 크게 이제 잘 해준 사람이 농하고 이불하고.}
- 10204 @ 그림 고걸 이십 니 끼를 그걸 메고 와요? {그림 그걸 이십 리 길을 그걸 메고 와요?}
- 10204 # 인저 저와 저와. 머시미 저, 지고 와. {이제 저 와 저 와, 머슴이 저, 지고 와.}
- 10204 @ 머시미? {머슴이?}
- 10204 # 애. {예.}
- 10204 # 그러고, 이바지도 기양 니열 시집 올라면 오늘 두 가마이씩 히 와, 그 뉘 지랄 히뎡가 몰라. {그러고 이바지도 그냥 내일 시집 오려면 오늘 두 가마니씩 해 와, 그 뉘 지랄 했던가 몰라.}
- 10204 # 인절미허고 떠거고 적 뿌치고, 뭐 과일 사고 뒤편 자바서 한 다리씩 느코 수러고 막 그리서 가파. {인절미하고 떡하고 적 부치고, 뭐 과일 사고 돼지 잡아서 한 다리씩 넣고 술하고 막 그렇게 해서 갖고와.}
- 10204 @ 그 뉘 짜라미 떼메고 와야건네요? {그 뉘 사람이 떼메고 와야겠네요.}
- 10204 # 가마이다 너서 두 사라미 질머지고 와야요. {가마니다 넣어서 두 사람이 짊어지고 와야해요.}
- 10204 # 그뉘 부자찌비로 시집간다고 또 얼마나 또 동네싸람더리 조아비라거고. {그러면 부잣집으로 시집간다고 또 얼마나 또 동네사람들이 부러워하고.}
- 10204 # 그러더니 대치나 옛날부터 부자로 사라썩요. {그러더니 대체로 옛날부터 부자로 살았어요.}
- 10204 @ 아, 그. {아, 그.}
- 10204 # 이 집또. {이 집도}
- 10204 @ 아! {아!}
- 10204 # 머심 두고. {머슴 두고.}
- 10204 @ 응. {응.}

10204 # 부자로 상개로 그르케 허고, 우리지비도 머글 만치 살고 아버지가 지끄르  
로 바서는 이장지를 형개 귀영 거시 업꼬. {부자로 사니까 그렇게 하고, 우  
리집도 먹을 만큼 살고 아버지가 지금으로 바서는 이장질을 하니까 귀한 것  
이 없고.}

10204 @ 고 그 당시 그러며는 인제 이불, 이부른 뭘 뭘 해가지고 와요? {고 그  
당시 그러면은 이제 이불, 이불은 무엇, 무엇을 해 가지고 와요?}

10204 @ 이불, 요, 이불. 또 인자 시어머니 이불, 요. 그르케 그런 거슬 히가꼬고  
인제. {이불, 요, 이불. 또 이제 시어머니 이불, 요. 그렇게 그런 것을 해갖  
고 오고 이제.}

10204 # 또 인사온. {또 인사웃.}

10204 @ 예? {예?}

10204 # 인사오시라고. {인사웃이라고.}

10204 @ 인사오시 뭐여? {인사웃이 뭐요?}

10204 # 인저 저 시아바니온, 시어머니온, 시누덜온, 그게 인사오시여. {이제 저  
시아버지웃, 시어머니웃, 시누들 웃, 그게 인사웃이여.}

10204 @ 응. {응.}

10204 @ 예, 예다늘. {예, 예단을.}

10204 # 예다늘 그르케 그런 거슬 인사오시라고 허. {예단을 그렇게 그런 것을 인  
사웃이라고 해.}

10204 @ 예. {예.}

10204 # 그리가고 조::다 인자 겐숙뜰 이씨면 시아재까지 다 양말째기라도 사가파  
야지 안 사가꼬면 지랄 히싸코 또. {그래 갖고 모두 이제 식구들 있으면 시  
아주버니까지도 다 양말짝이라도 사갖고 와야지 안 사갖고 오면 지랄해쌓고  
또.}

10204 # 엄는 사라믄 그냥 이렇거 아니가꼐 사라믄 인저 각씨를 떼미다 내지비서  
예 지내고 아무 거또 아니가꼬는 내가 조다 일탄 히서 이피고. {없는 사람  
은 그냥 이런 것 안 해갖고 온 사람은 이제 각시를 떼메다 내 집에서 예 지  
내고 아무 것도 안 해갖고는 내가 모두 일탄 해서 입히고.}

10204 # 부자찢 싸라미나 그렁 걸 허까 조:다 기양 크내기만 데려다가 내지비서  
조다 오디피고 다 그르키 히서 그러요. {부갓집 사람이나 그런 것을 할까  
모두 그냥 큰애기만 데려다가 내 집에서 모두 옷 입히고 다 그렇게 해서 그  
래요.}

10204 @ 고 이불도 인제 뭘 여름니불 겨울리불 뭘 이런 거또 따루따루 다 준비를  
해요? {고 이불도 이제 뭘 여름 이불 겨울 이불 뭘 이런 것도 따로따로 다  
준비를 해요?}

10204 # 예, 옴나레는 인자 이르케 뉘비이불 여름니부른, 그러곤자 소캐놔서 허고,  
뭘 샘배로 또, 샘배 난 놈 빠라서 샘배이불 여르멘. {예. 옛날에는 이제 이

렇게 누비이불 여름이불은, 그리고 이제 솜 놓아서 하고, 뭐 삼베로 또, 삼베 난 것 빨아서 삼베이불 여름에는.}

10204 # 그르케 히서 다 히가꼬 완느디, 하이구 날리 나서 다 읍쌔버리고. {그렇게 해서 다 해갓고 왔는데, 하이구 난리 나서 다 없애버리고.}

10204 @ 고 이불도 인제 뭐 여름니불 겨울리불 뭐 이런 거또 따루따루 다 준비를 해요? 음. {음.}

10204 @ 그 할트네 이불보따리만 해두 뭐. {그 하여튼 이불보따리만 해도 뭐.}

10204 # 히, 이르케 생인눔 세 보따리씩. {히, 이렇게 생긴 것 세 보따리씩.}

10204 @ 세 보따리? {세 보따리?}

10204 # 예. 인저 막 시집까면 주옥::커니 그양 그 하인더리 그누를 질머지고 드와야 혀. {예. 이제 막 시집가면 죽-하니 그냥 그 하인들이 그것을 끓여지고 들어와야 해.}

10204 # 그렇게 막 이 동네싸람도 각씨 자르던따고 칭찬허고, 우리 동네싸람도 부자쩍 실랑 조코 잘 가따고 칭찬허고 칭찬 받꼬 사라썬요. {그러니까 막 이 동네사람도 각시 잘 얻었다고 칭찬하고, 우리 동네사람도 부갓집 신탄 좋고 잘 갔다고 칭찬하고, 칭찬 받고 살았어요.}

10204 @ 허허허. {허허허.}

10204 # 부자썬썬요. 기양 머심 두고. {부자였어요. 그냥 머슴 두고.}

10205 @ 고 겨론 해가지고 오니까 시대게 식꾸드른 누구누구 이썬썬요? {고 결혼 해가지고 오니까 시댁에 식구들은 누구누구 있었어요?}

10205 # 고모 하나 이꼬. {고모 하나 있고.}

10205 @ 예, 인자 우선 시아버지. {예, 이제 우선 시아버지.}

10205 # 시아부지, 시어머니, 시아재, 또 시누.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또 시누.}

10205 @ 시누? {시누?}

10205 # 응. 그러쿠 큰시누 시집 가버리고. {응. 그리고 큰시누 시집 가버리고.}

10205 # 예. 인자 또 아조 인자 큰시수근 일본 화태 가가꼬 시방도 모도고 주거버리고, 거그서 그러곤자 동서만 이뎡만뇨, 동서, 호레미로. {예, 이제 또 아주 이제 큰시숙은 일본 화태 가갓고 시방도 못 오고 죽어버리고 거기서, 그리고 이제 동서만 있더만요, 동서, 훌에미로.}

10205 @ 응. {응.}

10205 # 또 저나 오시네. {또 전화오시네.}



## 1.2. 일생 의례(SJB\_IS\_26)

###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 10201 @ 원래 이 동네에서? # 아니 @ 엽동네 저쪽에서? {@ 원래 이 동네에서? # 아니. @ 엽동네 저쪽에서?}
- 10201 # 자 아래 하감니서 사라써써. 그래가꼬 포돌찌 여그 올라와써. {저 아래 학암리에서 살았었어. 그래가지고 겨우 여기에 올라왔어.}
- 10201 @ 포도시 올라와써요? {겨우 올라왔어요?}
- 10203 @ 그럼 댜 쌀 때 오써써써요? {그럼 댜 살 때 오셨었어요?}
- 10203 # 열릴곱 때, 열릴곱 쌀 때. {열일곱 때, 열일곱 살 때.}
- 10203 @ 열릴곱 쌀 때? # 응. {@ 열일곱 살 때? # 응.}
- 10203 # 한참 날리나서, 저 일본놈더리 모지비 간다히가꾸 그양 크두아너노물 예 워버려써. {한참 난리 나서, 저 일본놈들이 모집해 간다고 해서 그냥 크지도 않은 놈을 여의어버렸어.}
- 10203 @ 열릴고비면 옛날 치고는 적당하게 오신 거네, 일찍 온 건뚜 아니네. {열일곱이면 옛날 치고는 적당하게 오신 것이네, 일찍 온 것도 아니네.}
- 10203 # 그런디도 기양 한 이십쌀 머거서 여울란디 날리 나서 크내기덜 가따가 모집헌다 쏘리 듣꼬 그양 아버지가 급짜키 예워버려써. {그런데도 그냥 한 이십 살 먹어서 여울려고 했는데 난리 나서 처녀들 갖다가 모집한다 소리 듣고 그냥 아버지가 급하게 여의어버렸어.}
- 10203 @ 그니까 그때가 일정시대쥬? {그러니까 그 때가 일정시대쥬?}
- 10203 # 일정시대 때. {일정시대 때}
- 10203 # 일본시대 때 막 모라간다고 기양 한쪼기서 그렇게 기양 예으나버리자고 히가꼬, 그리서 와버려써. {일본시대 때 막 몰아간다고 그냥 한쪽에서 그러니까, 그냥 여의어나버리자고 해갖고, 그래서 와버렸어.}
- 10201 # 크내기때도 호강허고 커가꼬 사네도 안 가보고 지비서 아버지가 그 뭇 땡:질때면 온, 비단 떠다가 주머는 온 만 맨드라서 그양 넘덜또 주고, 너미 야도 가조면 그런거또 히주고, 지비서만 그릴찌, 드레를 안 가봐서 몰라. {처녀 때도 호강하고 커갖고 산에도 안 가보고 집에서 아버지가 그 뭇 명절 때면 옷, 비단 떠다가 주면 옷만 만들어서 그냥 남들도 주고, 남의 것도 가지고 오면 그런 것도 해 주고, 집에서만 그랬지, 들에를 안 가봐서 몰라.}
- 10201 # 인제 여그와서사 드레 가써써. {이제 여기에 와서야 들에 갔었지.}
- 10201 @ 그러면 유보카게 사신거네. {그러면 유복하게 사신거네.}
- 10201 # 어, 나 그러케 머 고상하고 안 사려써. {응, 나 그렇게 뭇 고생하고 안 살았어.}
- 10201 # 친정서는 아버지가 다 그러고저러고, 여그와서 인자 이르게 받:뚜 매보고,

노네도 가봐찌, 어뜨게 생인중 몰라써요. {친정에서는 아버지가 다 그러고 저러고, 여기에 와서 이제 이렇게 밭도 매보고 논에도 가봤지, 어떻게 생긴 줄을 몰랐어요.}

10201 @ 길쌈 가튼 거는 안 해써요? 질쌈? {길쌈 같은 것은 안 했어요? 길쌈?}

10201 # 질쌈 히찌. {길쌈 했지.}

10201 # 샘:배, 샘:배 질쌈, 미영질쌈, 멍지배길쌈, 질싸든 잘히찌. {삼배, 삼배길쌈, 무명길쌈, 명주배길쌈, 길쌈은 잘 했어.}

10201 @ 그거두 친정에 이쓸때두 히찌? {그것도 친정에 있을 때도 했어?}

10201 # 친정으서도 그양 다르르러니, 그런거또 나라서 메:서, 그양 짜서 그르케 히버러찌. {친정에서도 그냥 다르르 하니, 그런 것도 낱아서, 메서, 그냥 짜서 그렇게 해버렸어.}

10201 # 그렇게 이름 나써찌. {# 그러니까 이름 났었어.}

10201 # 엔나레 베 잘 짜머는 얌전허고 일 자런다고 히찌. 그리찌요. {# 옛날에 베 잘 짜면은 얌전하고 일 잘 한다고 했어. 그랬지요.}

10201 # 그런디 그양 미영, 샘:배, 멍지배 그런거 나라서, 메:서, 짜:서, 그리 내노먼 사람드리 조아비라고 그리찌. {그런데 그냥 무명배, 삼배, 명주배 그런 것을 낱아서, 메서, 짜서, 그렇게 내놓으면 사람들이 좋게 보인다고 그랬어.}

10201 @ 솜씨는 이쓰션나 보네. {솜씨는 있으셨나 보네.}

10201 # 인는가, 엄는가, 그런거는 잘히써요.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은 잘 했어요.}

10201 # 그가꼬 인자 그 동네서 인자 두루메기 가튼거, 막 그 초상 나면 제복 가튼거 비라고 하면, 그런 거또 베풀고. {그래 가지고, 그 동네에서 이제 두루마기 같은 거, 막 그 초상 나면 제복 같은 거 베풀고 하면, 그런 것도 베풀고.}

10201 @ 비는 게 뭐야? {베는 것이 뭐야?}

10201 # 인저 찰:라서, 인자 맨드라서 쥐. 그렇길 맨드라 주고 그런진만 히와찌, 드레는 안 가봐찌. {이제 잘라서, 이제 만들어서 쥐.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그런 짓만 해왔지, 들에는 안 가봤어.}

10201 # 여그 와서 드레가서, 애기 나가꾸는 그양, 고상을 히찌. {여기 와서 들에 가서, 아기 나갓고는 그냥, 고생을 했지.}

### 1.2.5. 시집살이에 대한 경험담

10218 @ 시집 오셔서 아주 힘드셨겐네, 안 하던 거 해서. {시집 오셔서 아주 힘드셨겠네, 안 하던 거 해서.}

- 10218 # 안 허던 거슬 히서 그양 으::트케 시미 들던가, 저녁파느로 애기 업꼬 드리와서그양 밥 한 수까락 쭈주고는 기양 밥또 안 먹꼬 자버리고 그리썬. 피곤히서 안히만 노코. 예고. {안 하던 것을 해서 그냥 어떻게 힘이 들던가, 저녁으로 아기 업고 들어와서 그냥 밥 한 숟가락 해주고는 그냥 밥도 안 먹고 자버리고 그랬어. 피곤해서 안에만 넣고, 예구.}
- 10218 @ 근데 여기 시집 오셨을 때도, 여기 시댁도 좀. {그런데 여기 시집 오셨을 때도, 여기 시댁도 좀.}
- 10218 # 팬찬허니 사라썬. 마니, 궁게 농사가 마능게 고생이여. {팬찮게 살았어. 많이, 그러니까 농사가 많으니까 고생이여.}
- 10218 # 머심 바:비줄라, 머심온 빠라줄라, 기양 그런디 따라댕임서, 조다 시어마이 따라댕임서 시누혈라. {머슴 밥 해주랴, 머슴옷 빨아주랴, 그양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모두 시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시중 들라.}
- 10218 # 크내기 때는 크내기대고 인저 몬내세우고, 모더게 허고, 여그서는 그양. (@ 메누리니까 다 해야지.) 아이고, 조다 히야여. {큰애기 때는 큰애기라고 이제 못 내세우고, 못 하게 하고, 여기서는 그냥. (@ 며느리이니까 다 해야지.) # 아이고, 모두 해야해.}
- 10218 # 저녀그로, 당시는 나스로 한 소곰씩 장게, 시어마이는 저녀그로 재미 안와. {저녁으로, 당신은 낮에 한 번씩 자니까, 시어머니는 저녁으로 잠이 안와.}
- 10218 # 그먼 지그므로 마레서는 열두 시까지 그먼 사:물 상꼬, 그럴라면 그양 재미 와서 주꼴썬. {그러면 지금으로 말해서는 열두 시까지 삼을 삼고, 그렇게 하려면 그냥 잠이 와서 죽겠어.}
- 10218 # 오매는 자멸 안 자고, 그먼 그 애기나 조께 깨쓰면 조커썬. 가차 애기도 양께, 이누무 애기가. {어머니는 잠을 안 자고, 그러면 그 애기나 좀 깼으면 좋겠어. 참 아기도 안 깨, 이놈의 애기가.}
- 10218 # 그러면 인제 화장시례 간다고, 내가 가서 화장실 부지까네서 이르케 자올로고 오면 조께 나사.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 간다고, 내가 가서 화장실 측간에서 이렇게 졸고 오면 조금 나아.}
- 10218 # 그리 자라썬릴 안 혀. {그렇게 자라는 소리를 안 해.}
- 10218 # 그 애:기도 양께, 요사랄로메 애기나 쪼께 깨쓰면 조컨는다. {그 아기도 안 깨, 오살놈의 애기나 좀 깼으면 좋겠는데.}
- 10218 # 예구::, 시방 싸람드른 일두 아녀, 시집싸리가 그르케 옴나리는 시미썬. {예구, 지금 사람들은 일도 아니야, 시집살이가 그렇게 옛날에는 심했어.}
- 10218 # 상:으다가 바물 머거? 어디 부똥우, 정제, 불 때구, 그 소테서 불 때서 밥 히머근 부똥 안자서 밥 한 수까락 떠 머거야지, 상:으서, 어디 상으서를 머거? {상에서 밥을 먹어? 어디 부뚜막, 부엌, 불 때고, 그 술에서 불 때서 밥 해 먹은 부뚜막 앉아서 밥 한 숟가락 떠 먹어야지, 상에서, 어디 상에서를 먹어?}

- 10218 # 궁게 한버는 실:랭인가 원 나부랭인가가 왜 저 부엌떼기가디 정지에서 명  
냐고 그러. {그러니까 한 번은 신랑이 원 나부랭인가가 왜 저 부엌떼기간디  
부엌에서 먹냐고 그래.}
- 10218 # 그리서 인자 가파서 따~이서 머궁게 시아바이가 여그다 올리놔라 그리고  
올리놔, 막 시어마이 막 어이서 시아바니 아푸, 으른덜 아프 저분 땅땅질  
함서 저분질허고 밥 머그야고 베라글 내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서 땅에  
서 먹으니까 시아버지가 여기다 올리놔라 그러면서 올리놔, 막 시어머니가  
막 어디서 시아버지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젓가락 땅땅 하면서 젓가락질  
하면서 밥 먹느냐고 벼락을 내네.}
- 10218 # 그 뒤로는 다::새 오라고히도 안 오고 막. {그 뒤로는 다시 오라고 해도  
안 오고.}
- 10218 # 인제 저너그 조지제, 실랑을. 거그서 밥 한수까락 머그면 되네, 뭐디 가파  
라 가져가라 허더니 그케 시어머니한테 데진 더런 소리를 듣게 허냐고 히떠  
니, 아 그 부엌떼기맹이로 정지서 머궁게 베기 시룽게 가꼬라고 그랜는디  
어마이가 그렁구만, 그러더라고. {이제 저녁에 조렸지, 실랑을. 거기서 밥  
한 숟가락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가지고 와라 가져가라 해서 그렇게 시어  
머니한테 더러운 소리를 듣게 하냐고 했더니, 아 그 부엌떼기처럼 부엌에서  
먹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가지고오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러는구만, 그러  
더라고.}
- 10218 # 아이고 저네는 말도 모디써. 시뱅잉게로 이르게 상으서 바블 머꼬 어찌고  
허지, 생:이 머여, 똑 정지 부석작 안저서 한 수까락씩 먹꼬. {아이고 전에는  
말도 못했어. 지금이니까 이렇게 상에서 밥을 먹고 어찌고 하지, 상이  
뭐여, 꼭 부엌 부뚜막 앉아서 한 숟가락씩 먹고.}
- 10218 # 궁게 그런닐 생가거면 우리 메누리드른 저 혈때로 다 두구 그양. {그러니  
까 그런 일 생각하면 우리 며느리들은 자기 할대로 다 두고 그냥.}
- 10218 @ 요즘 그러케 해따간 다 도망가지. (# 그러케 허면 안 돼. 도망가, 안 사  
라, 누가 살가디?)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다 도망가지. (# 그렇게 하면  
안 돼. 도망가, 안 살아, 누가 살간?)}
- 10218 # 옛날링게 혈쭈읍시 사라제, 아이구. {옛날이니까 할 수 없이 살았지, 아이  
구.}
- 10218 @ 그러며는 여기 시집 오셔서두 질쌘두 하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집 오셔서도 질쌘도 하고 그러신 거예요?}
- 10218 # 하아, 여그 와서두 질쌘, 미영질쌘, 샘배질쌘, 그런 질쌘 그렁건 인자, (@  
그럼 그 삼두 시면썩요, 여기서?) {하아, 여기 와서도 질쌘, 무명질쌘, 삼배  
질쌘, 그런 질쌘 그런 것은 이제, (@ 그럼 그 삼도 심었어요, 여기서?)}
- 10218 # 하아, 저 바티다가, 바티다 싱거가꾸 인자 오월딸 되머는 인자 그누물 그  
뜨건디 가서 살:먼자, 내가 아너지, 머심들 썩고 나매더리 허지. {하아, 저

- 밭에다가, 밭에다 심어가지고 이제 오월 달 되면은 이제 그것을 그 뜨거운데 가서 삶으면 이제, 내가 안 하지, 머슴들 쓰고 남자들이 하지.}
- 10218 # 그래가꼬 베끼서 인자 꾸:어서 너러노면. (@ 누가 오나보네. 누가 오나, 왜케 날리지?) 개가, 뭐 오간? {# 그래 가지고 벗겨서 이제 짜서 넣어 놓으면. (@ 누가 오나보네, 누가 오나, 왜 이렇게 난리지?) 개가, 무엇이 오간?}
- 10218 # 인저 그눔 짜:서, 무르파그다 사:마서 질싸믈 다 해째. {이제 그것을 짜서, 무릎에다 삼아서 길쌈을 다 했지.}
- 10218 # 말두 모더, 올리고 내리고, 물레 잡꼬, 하이쿠, 인저 베짜야 마지매기여. {말도 못 해, 올리고 내리고, 물레 잡고, 아이구, 이제 베 짜야 마지막이여.}
- 10218 @ 그 한 겨우리자나? 겨울, 보메, 보메 짜나? 이른보메? (# 보메, 보메 짜.) {그 한 겨울이잖아? 겨울, 봄에, 봄에 짜나? 이른봄에? (# 봄에, 봄에 짜.)}
- 10218 @ 저 어머님, 친정엄마두 그거를 한, 한 칠십 드시도록 하셔쵸요. (# 아이구, 오래 했네.) {제 어머님, 친정엄마도 그것을 한, 한 칠십 드리도록 하셔어요. (# 아이구, 오래 했네.)}
- 10218 @ 그래 가지구 어릴 때 그거를 다: 봐짜. {그래 가지고 어릴 때 그것을 다 봤지.}
- 10218 @ 삼 시머서 (# 짜서) 삼 찌서 (# 짜:가꼬, 찌서) 찌서 받껴서 (# 줌무리다가 그노멸 또 히서 에이구,) 짜서 삼 삼꾸, 정말 올리고 내리고, 물레질 하구.) {@ 삼 심어서 (# 짜서) 삼 찌서 (# 짜가지고, 찌서) 찌서 벗겨서 (# 잣물에다 그것을 또 해서 에이고,) 짜서 삼 삼고, 정말 올리고 내리고, 물레질 하고.}
- 10218 # 암디라두 인저 배를 짜서 내놔야 다한당게, 징그라 징그러. {아무튼 이제 배를 짜서 내놓아야 다 한다니까, 징그러 징그러.}

#### 1.4.1. 목화, 삼, 모시의 재배와 길쌈

- 10402 @ 근데 인제 저는 그 삼베삼 질쌈 하는 거는 받는데, 명지삼 하는 건 못쵸쵸요. 좀 달라요, 그게?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삼베삼 길쌈 하는 것은 봤는데, 명주삼 하는 것은 못 봤어요. 좀 달라요, 그게?}
- 10402 # 미영? (@ 예 미영.) {명? (@ 예, 명.)}
- 10218 # 미영 질싸면 인자 씨아시가 이씨, 씨아시가 이씨가꼬 다 씨아시다 히서, 또 인저 화:렐 맨드라서 타. {무명길쌈은 이제 씨앗이 있어, 씨앗이 있어서 다 씨앗에 해서, 또 이제 활을 만들어서 타.}
- 10402 @ 씨아시라능게 인제 씨 빼는 거야? (# 응, 씨 빼는 거.) {씨앗이라는 것이 이제 씨 빼는 거야? (# 응, 씨 빼는 거.)}
- 10402 # 가꼬 인자 화:렐 맨드라서 인자 통통 태머는, 그리민자 봉얼봉얼:: 허니

- 조다 피어져. {그래서 이제 활을 만들어서 이제 통통 타면은, 그러면 이제 부~허니 모두 퍼져.}
- 10402 # 그러면자 꼬치를 이르케, 막때기를 놔가꼬 인자 그 미영을 요만::치 탄너 멀 놔가꼬는 인자 이르케 돌돌돌돌 모르면 모라져. {그러면 이제 꼬치를 이렇게, 막대기를 놓아 가지고 이제 그 무명을 요만큼 탄 것을 놓아갖고는 이제 이렇게 돌돌돌돌 말면 말아져.}
- 10402 # 인저 요마너게 질게 모라가꼬는, 고노몰 인저 물:레다가 돌림서 이르케 졸졸졸졸 빼면자 실로 나와. {이제 요만하게 길게 말아가지고는, 그것을 이제 물레에다가 돌리면서 이렇게 졸졸졸졸 빼면은 실로 나와.}
- 10402 @ 그러며는 어디는 굴꼬 어디는 알꼬 그러건네? {그러면은 어디는 굵고 어디는 얇고 그러겠네?}
- 10402 # 궁게 어찌든 잘 짜사야여. 잘 모더면 기양 울통불통하게 굴꼬잘꼬 못 쏙게, 그거뚜 인제 이르케 베빌베빌베빌 험서 이르케, 이르케 이르케 험서 그 물레지를 허머는 가느롬:: 허니 조케 나와. {그러니까 어쨌든 잘 자아야 해. 잘 못하면 그냥 울통불통하게 굵고잘고 못 쓰니까, 그것도 이제 이렇게 베빌베빌베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 물레질을 하면은 가늘게 하니 좋게 나와.}
- 10402 # 그르케 히서 인자 그누믄 날:기만 해 인제, 물레이다 자사가꼬 마당으다 이르케 날:기만 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은 날기만 해 이제, 물레에다 자아가지고 마당에다 이렇게 날기만 해.}
- 10402 # 샘:배맹이로 나라고꼬, 그건 샘:배보단 쉬워. {삼베처럼 날아갖고, 그건 삼베보다는 쉬워.}
- 10402 # 샘:배는 무레서만 사라, 그거슨 또. (@ 마저.) {삼베는 물에서만 살아, 그것은 또. (@ 맞아.)}
- 10402 # 응, 근디인저 이리가꼬 그누믄 나:라가꼬 배 매서 짜머는 쉰디, 샘:배는 물로:: 물로 사라, 그냥 껍딱 베낄찌기버툼 짜:가꼬 또, (@ 썰 때도 물 먹이지.) 물로 물로 사라, 사문, 근디 미영은 그거시 아녀, 또 마른 자리로만 도라, 궁게 쉬어. {응,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것을 날아갖고 배 매서 짜면은 쉬운데, 삼베는 물로 물로 살아, 그냥 껍데기 벗길 때부터 짜갖고 또, (@ 썰 때도 물 먹이지.) 물로 물로 살아, 삼은. 그런데 무명은 그것이 아니야, 또 마른 자리로만 돌아, 그러니까 쉬워.}

## 1.2. 일생의례 (SJB\_IS\_31)

###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0205 @ 구: 인제 시누::가 인꾸 시수::큰 일보느로 그러케 가시고 ... {그 이제 시누가 있고, 시숙은 일본으로 그렇게 가시고...}

10205 # 일번 화태. {일본 화태.}

10205 @ 화태요? {화태요?}

10205 # 어:, 일번써도 또 다시: 하태라군데가 인똥만요. {응, 일본에서도 또 다시 하태라고 하는 데가 있더만요.}

10205 @ 애:. {예.}

10205 # 그리가고 영: 아노고, 그냥 거그서 도라가시따 그레요. {그래가지고 영 안 오고, 그냥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그레요.}

10205 @ 으:. {응.}

10205 # 요세는 그 사람드리:: 산 사람드런 마:니 와서 거시거등마넌. {요사이는 그 사람들이 산 사람들은 많이 와서 거시기 하드마는.}

10205 @ 고 인제 시수:기 그러고, 또 그 시 시동 (# 시아재? 시아재.)시동생언 업꼬요? {그 이제 시숙이 그러고, 또 그 시 시동 (# 시동생? 시동생.) 시동생은 업고요?}

10205 # 인썸썸요 하나. {있었어요 하나.}

10205 # 그리가고, 시동생이 좀 쫘 미려녀. {그래가지고, 시동생이 좀 쫘 미려해.}

10205 @ 응. {응.}

10205 # 미려네가고 각씨가 살다가 기냥 가버리고, (@ 응.) 그 혼차된 시아:재럴 이날때까지 내가 인따가 ... {미려해가지고 각씨가 살다가 그냥 가버리고, (@ 응.) 그 혼자된 시동생을 이 날 이때까지 내가 있다가...}

10205 # 시방 오년되얏꼬만요, 주근지 근디. {지금 오년 되었그만요, 죽은지 그러데.}

10205 # 방:으서 아급따럴 똥싸고 주걸썸요. {방에서 아홉달을 똥 싸고 죽었어요.}

10205 @ 응. {응.}

10205 @ 고 시동생언 머라고 불러요? {그 시동생은 뭐라고 불러요?}

10205 # 백뽕기. {백뽕기.}

10205 @ 애? {예?}

10205 # 백뽕기. {백뽕기.}

10205 @ 어:, 아니아니 근디 인제 그 부를때는? (# 부를쩌그?) {응, 아니아니 그런데 이제 그 부를 때는? (# 부를 때에?)}

10205 @ 어. {응.}

10205 # 시아:재라고 부르고, 보통 시아재라 그러느니 그냥 아재: 그러케 부르고.  
 {시아재라고 부르고, 보통 시동생이라 그러느니 그냥 아재 그렇게 부르고.}  
 10205 @ 구: 시누:: '남편은 머라고 불려요? {그 시누 남편은 뭐라고 불려요?}  
 10205 # 씨누 남편은, 거시기라고 제. {시누 남편은, 거시기라고 하지.}  
 10205 # 씨누남편이라고, 아 안 안드를 찌그는 허고, 그라너면 아:저씨라고. {시누  
 남편이라고, 아 안 안 들을 적에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저씨라고.}  
 10205 @ 아:! 아저씨? 드를 때넌? {아! 아저씨? 들을 때는?}  
 10205 # 애. {예.}

### 1.2.3. 전통적 결혼식

10207 @ 구 엔날:: 그 계론시::근 얻 어디에서 헐썌요? {그 옛날 그 결혼식은 얻  
 어디에서 했어요?}  
 10207 # '소넨 바든 사라면 친정 마당으서 허고, 손 암바꼬 가나넨 사라면 그냥 이  
 집, 저 남자 마당 와서 허고. {손을 받은 사람은 친정 마당에서 하고, 손 안  
 받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이 집, 저 남자 마당에 와서 하고.}  
 10207 @ 남자 마당에서 허고? {남자 마당에서 하고?}  
 10207 # 애, 이 우리는 친정으서 헐썌요. {예, 이 우리는 친청에서 했어요.}  
 10207 @ 그 겨론시::글 어떤:: 겨슬, 머:슬 줌비를 해가꼬 헐썌요? {그 결혼식을  
 어떤 것을, 뭇을 준비를 해가지고 했어요?}  
 10207 # 여자는 쪽또리 원삼 쓰고... {여지는 족도리 원삼 쓰고...}  
 10207 # 머시라듬만 그겁뽕고, 그걸 남자 온 인꼬. {무엇이라고 하드만 그것보고,  
 그것 남자 옷 있고.}  
 10207 # 사:모관대. {사모관대.}  
 10207 @ 응. {응.}  
 10207 # 공개 인재 중:매쟁이더리 인재 또. {그러니까 이제 중매쟁이들이 이제  
 또.}  
 10207 # 온 질:머지고 두러와가 중:매 신:사람더리. {옷 짚어지고 들어와가지고 중  
 매 슌 사람들이.}  
 10207 # 마당으서 그사람더리 다 이캐 술 주:고 받꼬, 술 제짜그로 냉기고, 제짜그  
 서 이짜그로 냉기고 현 사라미 인자 중매쟁이가 '헐때요, (@ 중매쟁이가?  
 애::) 중매쟁이가. {마당에서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술 주고 받고, 술 저쪽  
 으로 넘기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기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매쟁이가 했대  
 요, (@ 중매쟁이가? 예.) 중매쟁이가.}  
 10208 @ 그 상:은 어터케 머:슬 차련썌요, 상에다가? (# 상어는.) {그 상은 어떻게  
 무엇을 차렸어요, 상에다가? (# 상어는.)}  
 10208 # 뭐: 오리::? 오리 그 무수로:: 오리 기리가꼬 요짜그는 노코, 이짜근 '멧태



노코. {뭐 오리? 오리 그 무로 오리 그려가지고 이쪽에는 놓고, 이쪽은 명태 놓고.}

10208 @ 어:, 무수로? {응, 무로?}

10208 # 애, 무수로 오:리릴 기리가꼬, 거다 배:추 물리서 요짜그는 노코, 오린쪼근 각씨페네넨 그건 노코, 실랑페네넨 '멧태 노코. {예, 무로 오리를 그려가지고, 거기에다 배추 떨어져서 이쪽에는 놓궁, 오린 쪽은 각씨편에는 그건 놓고, 실랑편에는 멧태 놓ㅎ고.}

10208 # 그러고 인자. {그리고 이제.}

10208 # 그 병:, 엔나레 그 흐:연 조숨뽕? (@ 예.) 그그따가 인자 술노코 양쪼그다 노코, 글로 따라주드만. {그 병, 옛날에 그 하얀 조선병? (@ 예.) 거기에다가 이제 술 놓고 양쪽에다 놓고, 그것으로 따라주더만.}

10207 @ 그때 페:백또 하고 그래요? (# 페백 이인씨요, 아:: 페백 인쥬:.) {그때 페백또 하고 그래요? (# 페백 있었어요, 아! 페백 있지요.}

10207 # 페:바근 인자 시집... {페백은 이제 시집...}

10207 @ 시지부로 와가꼬? {시집으로 와가지고?}

10207 # 응, 시지불 와가꼬 인자 고리 페바글 보낸쥬이. {응,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그리 페백을 보냈지.}

10207 @ 응. {응.}

10207 @ 고 천:날빠면 어떻... {그 첫날밤은 어떻...}

10207 # 천:날빠무는 무:, 굴 때는 머 무서꾸 그렇게 기양 움무그다 거 상얼 노터만노. {첫날밤에는 뭐, 그 때는 뭐 무섭고 그러니까 그냥 웃목에다 그 상을 놓더만요.}

10207 # 수리랑 거저 걸:게 쟁게 두루완는다. {술이라 그 저 걸게 차려 들어왔는데.}

10207 # 저거시 머:싱가:: 허고 채다보다 그냥. {저것이 무엇인가 하고 쳐다보고 그냥.}

10207 # 자건는디 시방 요샌나른 그러케까지는 먼 신시그로 되야서 아니지마넨 앵:가넨 사람드린 그노멸 가따 두:리 술도 먹꼬 그리안대요. {자겠는데 지금 요샌날은 그렇게까지는 뭇 신식으로 되어서 아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놈을 갖다 둘이 술도 먹고 그래야한대요.}

10207 @ 어!! {어!}

10207 # 근디 그럴쪼도 모루고, 실:랑도 그러케 그리랑 배운 사래미 그런 쥬또 아너고. {그런데 그럴 지도 모르고, 신랑도 그렇게 글이랑 배운 사람이 그것 쥬도 앳하고.}

10207 # 그러디요. 그리서 인자. {그러데요. 그래서 이제.}

10207 # 시아:제가 그 쪼개 모지랜 시아제가 왈뎡만 방으로. {시동생이 그 조금 모자란 시동생이 왔더만 방으로.}

10207 @ 아! 방으로? {아! 방으로?}

10207 # 응, 우리 두:리 안저인데 여가 안저꼬, 여가 안전는다, 그러테~이. {응, 우리 둘이 앉아 있는데 여기애가 앉아있고, 여기가 안자있는데, 그러테.}

10207 # 새아재가 내 여푸와서 성준 자:. {시동생이 내 옆에 와서 형도 자.}

10207 # 그러고는 내 여푸서 폭 자들만. {그러고는 내 옆에서 폭 자더만.}

10207 @ 허허허허. {허허허허.}

10207 # 공개로 실랭이, 야! 나가서 자, 나가서 자 공개. {그러니까 신랑이, 야! 나가서 자, 나가서 자 그러니까.}

10207 # 나도 여기서 잘채미여. {나도 여기서 잘 것이야.}

10207 # 이불 존노밍개 잘채미여. {이불 좋은 놈이니까 잘 것이야.}

10207 @ 응. {응.}

10207 # 그구 잘:라고, 허허허. {그리고 자려고, 허허허.}

10207 # 천:날 저니그는 머 겐수기라고 어치게 생긴지도 모루고 인재. {첫날 저녁에는 뭐 남편이라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루고 이제.}

10207 @ 응. {응.}

10207 # 염:방 살자영개 인자 권수진종 아란찌. {계속 살다보니까 이제 남편이지 알았지.}

10208 @ 그 게론식 할때 음식뜨런 머:슬 줌비를 헐써요? {그 결혼식 할 때 음식들은 무엇을 준비를 했어요?}

10208 # 기양 뒤야:지 잡꼬. {그냥 돼지 잡고.}

10208 @ 애. {예.}

10208 # 인자 머 명태:: 가통건또 인자 냄:비 찌게. {이제 뭐 명태 같은 것도 이제 냄비 찌게.}

10208 # 냄비는 인재 그 명:태, '홍어 그렇걸로 인재 냄비:: 허고, 뒤야지 자바서 쌀마서 인자 쓰러노코. {냄비는 이제 그 명태, 홍어 그런 것으로 이제 냄비 하고, 돼지 잡아서 삶아서 이제 썰어 놓고.}

10208 # 머 적, 묵 그렇거또. {뭐 전, 묵 그런 것도.}

10208 @ 정, 묵? {전, 묵?}

10208 # 애, 적까통건 묵까통건. {예, 전같은 것 묵같은 것.}

10208 @ 먼 떡꾸까통거슨 아낸써요? {뭇 떡국같은 것은 안했어요?}

10208 # 떡:꾸, 저는 인자 벨또로도 '쇠고기 사다가 (@ 예.) 떡꾸 꼬리서. {떡국, 전에는 이제 별도로 소고기 사다가 (@ 예.) 떡국 끓여서.}

10208 @ 떡꾸 꼬리서. {떡국 끓여서.}

10208 # 인는 사라미나 떡꾸꼬리지 떡꾸 양끄레요. {있는 사람이나 떡국 끓이지 떡국 안 끓여요.}

10208 @ 아:! {아!}

10208 # 인자, 인는 사라미나 '떡꾸 꼬리서 손님덜 오면 대저버까, 그러너면 보통

기양, 떡:, 적 그렇건노코 그냥 냄:비 조개 해서 주고 그러제. {이제, 있는  
 사람이나 떡국 끓여서 손님들 어떤 대접할까, 그렇지 않으면 보통 그냥, 떡,  
 전 그런 것 놓고 그냥 냄비 조금 해서 주고 그렇지.}

10208 # 다: 떡꾸기라고 안 주딩만요. {다 떡국이라고 안 주더만요.}

10208 @ 아! 떡꾸글 다 주능건... {아! 떡국을 다 주는 것은...}

10208 # 골고로 안줘, 엄:는 사라면 안줘. {골고루 안 줘, 없는 사람은 안 줘.}

10208 # 음은 사라미 그런데. {없는 사람이 그런데.}

10208 @ 머 국쭈::를 먹거나 머 그렇건, 국쭈도 행썬요? {뭐 국수를 먹거나 뭐 그  
 런 것, 국수도 했어요?}

10208 # 애, 국쭈:: 허는 사람도 인꼬. {예, 국수하는 사람도 있고.}

10208 @ 애. {예.}

10208 # 콩:너물 쌀마서 이짜게년 콩너물, 요짜게는 묵. {콩나물 삶아서 이쪽에는  
 콩나물, 이쪽에는 묵.}

10208 # 향:그러그다 그러케 염여피 논사람 인꼬. {한 그릇에다 그렇게 옆 옆에  
 놓은 사람 있고.}

10208 @ 애. {예.}

10208 # '엔날 가나네 빠지머는 가나년 사람드른 국쭈뺨또 업꼬. {옛날 가난해 빠  
 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국수 법도 업고.}

10208 # 그냥 묵: 꼬래서 요짜그션 무간 덤탱이, 요짜게서는 콩:너물 한덤벙이 그  
 리서... {그냥 묵 끓여서 이쪽에서는 묵 한 덩어리, 이쪽에서는 콩나물 한  
 덩어리 그래서...}

10208 # 떡: 저건 기양 어찌다 따라댕기고. {떡 저것은 그냥 어찌다 따라다니고.}

10209 @ 고 실랑이 처 이제 처가찌베 오자나요, 하가메. {그 신랑이 처 이제 처가  
 집에 오잖아요, 학암에.}

10209 @ 그러면 고 실랑 머 발빠닥 떼리고 머 그렇거 머... {그러면 그 신랑 뭐  
 발바닥 떼리고 뭐 그런것 뭐...}

10209 # '실랑 다라멍는다고. {신랑 다라먹는다고.}

10209 @ 어, 실랑 다라멍는다고. {응, 신랑 다라먹는다고.}

10209 # 다라머근다고 그양. {다라먹는다고 그양.}

10209 # 청년더리 기양 그 지비 아무거시 오늘 찌녀그 인자 지양온단다. {청년들  
 이 그냥 그 집에 아무것이 오늘 저녁에 이제 신행 온단다.}

10209 # 그러면 막 느러설썬요. {그러면 막 늘어섰어요.}

10209 @ 응. {응.}

10209 # 그러면 인자 명청헌 사람더른 검:나게 마자. {그러면 이제 명청한 사람들  
 은 겁나게 맞아.}

10209 # 메다라 노코 막 발빠다걸 뚜두리고 막. {매달아 놓고 막 발바닥을 두드리  
 고 막.}

10209 @ 왜 왜 때레? {왜 왜 때려?}

10209 # 며: 수리 멘마리냐? 뒤야지가 멘마리냐? 그러고먼 인자 막 부루라고 막 허먼 인자, 근디 우:리는. {뭐 술이 몇 말이야? 돼지가 몇 마리냐? 그렇게 하면 이제 막 불으라고 막 하면 이제, 그런데 우리는.}

10209 # 우리 실랭이 그릴써, 참:: 아버지가 고맙따고. {우리 신랑이 그랬어, 참 아버지가 고맙다고.}

10209 # 우리 아버지가 미시 딱:: 뒤야지 한다리 사다가 딱 마룻으다 거러노코, 막 켜리 세:통 바다다가 마마룻으다 놔:두고. {우리 아버지가 미리 딱 돼지 한다리 사다가 딱 마루에다 걸어 놓고, 막 켜리 세통 받아다가 마루에다 놓아 두고.}

10209 # 그러코 썩 불런써 기양 오기저네 그넬 오기저네, (@ 응: 미리.) 응, 저 그더리 처:드리오머는 저넬더리 우리 사으 발빠닥 뚜두린다고. {그리고 썩 불렸어 그냥 오기전에 그놈들 오기 전에, (@ 응 미리.) 응, 자기들이 처들어오면 저놈들이 우리 사위 발바닥 두드린다고.}

10209 # 썩:: 머시멜 시기가꼬 기양 청넬 다 오라구히라. {썩 머슴을 시켜가지고 그냥 청넬들 다 오라고 해라.}

10209 # 가꾸 안:체노코는 기양 미리서 상 축:: 놔두, 다 먹꼬 막:켄리 통개릴 세통개 디리노코, 뒤야지 다리 기양 너그가 먹꼬자폰대로 썰:마먹떠~이 꺾먹떠니라고 내:버링개 며. {그래 가지고 얹혀놓고는 그냥 미리서 상 축 놔두고, 다 먹고 막 켜리 통개를 세통개 드러놓고, 뒤야지 다리 그냥 너희가 먹고싶은대로 삶아 먹더니 구어 먹더니하라고 내어놓으니까 뭐.}

10209 # 일래 실:랭이 기양 실랑어고 인사만 시기제 조다 처묵꼬 기양 다라남성 미안타고 고맙따고만 어고 가더라고. {이내 신랑이 그냥 험랑하고 인사만 시키지 모두 처먹고 그냥 달아나면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만 하고 가드라고.}

10209 @ 발빠닥또 암마잔꼬? {발바닥도 안 맞았고.}

10209 # 암:마자썩요. 기양 인사만 시깁땅개... {안 맞았어요. 그냥 인사만 시켰다니까.}

10209 @ 썩 발빠다글 마:지시야 되는데, 허허허. {조금 발바닥을 맞으셔야 되는데, 허허허.}

10209 # 근디 인자 우리 아버지가 기양...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냥...}

10209 # 저넬 앵기면 청:넬넬 앵기면 직싸게 만는다. {저놈들 앵기면 청넬놈들 앵기면 죽도록 맞는다.}

10209 # 내가 그리기 저네 저케 예쁘고 존:사우렐 내가 말:찌 암마칠란다고 그냥 미리세 가꼬 어머~이 보고 줌:비 허라고 허드라고, 음식 줌비허고. {내가 그리기 전에 저렇게 예쁘고 좋은 사위를 내가 맞지 안 맞게하련다고 그냥 미리서 그래가지고 어머니 보고 준비를 하라고 하드라고, 음식 준비하고.}

10209 # 뒤야지 한다리 탁: 사다 저그다가 아푸다 거러노코 막... {돼지 한 다리  
 딱 사다 저기에다 앞에다 걸어놓고 막...}

10209 # 통:개쭈 막 이리케 큰:: 통개가 인짜네 엔:나레는 그 나:무로 째 통:개 인  
 썸, 그 술:. (@ 애 애, 나무 통개쥬.) 애, 골: 막 세:통개릴 가따. {통개 술  
 막 이렇게 큰 통개가 있잖아 옛날에는 그 나무로 째 통개 있어, 그 술. (@  
 예 예, 나무 통개지요.) 예, 그걸 막 세통개를 가져다.}

10209 # 마룽으다 부독씨레노코 그러개 머 '때릴리리 인썸야지요. {마루에다 부러  
 놓고 그러니까 뭐 때릴 일이 있어야지요.}

10209 # 궁개 기양 우리 영:개미 우리 아버지까지 영:니허고 존냥반 업따고 그양  
 매 함번도 암마자보고 그러케 힌따고, 그러케 원청 예빠라굳썸 사우릴. {그  
 러니까 그냥 우리 영감이 우리 아버지같이 영리하고 좋은 양반 없다고 그냥  
 매 한번도 안 맞아보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위낙 예빠라고 했어 사위  
 를.}

10209 @ 아:이고! 그러썸꾸나. {아이고! 그러썸구나.}

10209 # 애:, 검::나게 예빠라굳썸요 그. {예, 겁나게 예빠라고 했어요 그.}

10209 # 점자녕개 참 마무가 썸: 뜨리가꼬는, 우리 아나가 보통:: 거시건 양바니  
 안:디 기양, 마무가 썸: 뜨리가꼬 그노무 사:우랑개 벌벌 떨고 기양, 내가 얻  
 그런 녀드란테 멈 매릴 매체야고, 내가 머 암마친다고, 그가꼬는 인자. {젊  
 잼하니까 참 마음애가 썸: 들어가지고는, 우리 아버지가 보통 거시기한 양반  
 이 아난테 그냥, 마음애가 썸: 들어가지고 그놈의 사위라고 하니까 벌벌 떨  
 고 그냥, 내가 얻 그런 놈들에게 뭐 매를 맞게해야 하고, 내가 뭐 안 맞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10209 # 궁개 인자 조아 주거. {그러니까 이제 좋아 죽어.}

10209 @ 허허허. {허허허.}

10209 # 매:도 암만꼬... {매도 안 맞고...}

10209 @ 응. {응.}

10209 # 그러케 힌따고. {그렇게 했다고.}

#### 1.2.4.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10211 @ 고 인제 게론 하셔가지고 처:음 여기에서 인제 일년 (# 애.) 사썸썸끄만  
 요? {그 이제 결혼 하셔가지고 처:음 여기에서 이제 일년 (# 예.) 사썸썸끄  
 만요?}

10211 # 일년 살:고 인자, 처:무로 인자 처가찌비 가. {일년 살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처가집에 가.}

10211 @ 응. {응.}

10211 # 그라너면 그 아네 묻까, 일련 농사지어가꼬 이바지 해서 가꼬가야제. {그  
 령지 앓으면 그 안에 못가, 일련 농사지어가지고 이바지 해서 가지고 가야  
 지.}

10211 # 으냉, (@ 애.) 그 으냉가 으냉, 그리가꼬. {은행, (@ 예.) 그 은행가 은행,  
 그래가지고.}

10211 @ 으:냉에를 가요? {은행에를 가요?}

10211 # 으:냉 그 인자 처:무로 간자썰가 으냉이라 구려. {은행 그 이제 처음으로  
 가는 것을 은행이라 그래.}

10211 @ 아아, 으냉, 애... {아아, 은행, 예...}

10211 # 으냉 갈라 근다고. {은행 가려고 한다고.}

10211 # 그래서 가제, 지그면 머 금방 가따 금방 오고 날리더만. {그래서 가지, 지  
 금은 뭐 금방 갔다 오고 난리드만.}

10211 @ 응. {응.}

10211 # 그 그때년 그 그리야제 그라너면 세상 사능거슬 사능걸로 아녀. {그 그때  
 는 그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앓으면 세상사는 것을 사는 것으로 안해.}

10211 @ 그니까 인제 이 일련똥안 여기서 사시다가 또 군대를 가서가꼬 칠련똥아  
 늘 뭉뚱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련동안 여기서 사시다가 또 군대를 가  
 서가지고 칠련동안을 못 보셨네요?}

10211 # 아! 칠:련또~안 뭉뚱고, 또 인제 포도:시 나와서 일러닝가 상:개로 날리가  
 날짜녀, 인공. {아! 칠년 동안 못 보고, 또 이제 겨우 나와서 일련인가 사니  
 까 난리가 났잖아, 인공.}

10211 @ 애. {예.}

10211 # 잉공나리르 해가꼬 또 어트게 기냥 시시기 두목짜여. {인공난리를 해가지  
 고 또 어떻게 그냥 시숙이 두목이야.}

10211 @ 응. {응.}

10211 # 백씨가. {형님이.}

10211 @ 애:. {예.}

10211 # 두목짚디 기양, 매갑씨 기양, 그 언:두목 겁나게 고상얼 헨씨요. {두목인  
 데 그냥, 맥없이 그냥, 그 두목 겁나게 고생을 했어요.}

10211 @ 응. {응.}

10211 # 그가꼬 그양:바년 기양 두목짜로 어디로 가:버리고 기양, 성지가니다고 대  
 신 공개 큰:지비 (@ 애.) 큰지비 시:수기 백웅기라고언 사라미 기냥 권:: 두  
 목짜여. {그래가지고 그양반은 그양 두목으로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형제  
 간이라고 대신 그러니까 큰집에 (@ 예.) 큰집에 시숙이 백웅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큰 두목이야.}

10211 @ 응. {응}

10211 # 잉공때. {인공때.}

10211 @ 잉공때? {인공때?}

10211 # 애, 두목짜가꼬 그사람 어디로 가고, 땀마디 이 사람 불리댕김서 기양.  
{예, 두목이어가지고 그 사람 어디로 가고, ??땀맛하게 이 사람 불려다니면  
서 그냥.}

10211 # 막꼬 지neck살고 인자 그리가꼬. {맞고 징역살고 이제 그래가지고.}

10211 # 나와가꼬넌 무디로따 가버릴써. {나와가지고는 어디로 가버렸어.}

10211 # 무디로 가버릴써, 업써 지비가. {어디로 가버렸어, 없어 집에가.}

10211 # 인제 꺼제낙써. {이제 \*\*\*\*}

10211 # 멘:써그::로 간는가 머드로 가가꼬는, 멘써그로 가부르드만, 장수 가서 기  
양 또 살다가. {면서기로 왔는가 뭇하러 가가지고는, 면서기로 가버리드만,  
장수 가서 그냥 또 살다가.}

10211 # 인잔 구도 어트게 자:시근 나트라고요, 떠:러져 사라도. {이제 그래도 어  
떻게 자식은 낳더라구요, 떨어져 살아도.}

10211 @ 응, 허허허. {응, 허허허.}

10211 # 그리 인제, 그리다가 인잔 여영 여녕 창개 인제 지비 와서 막 살만형개로  
기양 아부지 도라가시 부리고, 어무이 도라가시 부리고. {그리고 이제, 그리  
다하 이제 연령 연령 차니까 이제 집에 와서 막 살만하니까 그냥 아버지 돌  
아가서 버리고, 어머니 돌아가서 버리고.}

10211 @ 응. {응.}

10212 @ 고 저기, 크나드님 나썬쓸때 인제 임신해가지고 낳:때, 그때 (@ 애.) 그  
때:: 함번 이야기좀 해주세요. {그 저기, 큰아드님 나셨을 때 이제 임신해가  
지고 낳 때, 그때 (@ 예.) 그때 한번 이야기좀 해주세요.}

10212 @ 입떠다고. {입뗏하고.}

10212 # 입뗏 낳쩌그는 그: 바:비 암만나따마리아. {입뗏 낳 적에는 그 밥이 안 맞  
났단 말이야.}

10212 @ 바:비? {밥이?}

10212 # 암만나. {안 맞나.}

10212 @ 애. {예.}

10212 # 바:벌 몸먹꼬 괴옥찐만 차::꼬 헤요. {밥을 못 먹고 구역질만 자꾸 헤요.}

10212 @ 애. {예.}

10212 # 괴옥찐만 기양 차::꼬허고 그냥 머, 음:성내릴 마트면 괴옥찌리 더나오고.  
{구역질만 그냥 자꾸하고 그냥 뭐, 음식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더 나오  
고.}

10212 @ 으. {응.}

10212 # 그리서... {그래서...}

10212 # 몸먹꼬 '까라저서 기양 누얼썬써요. {못 먹고 가라앉아서 그냥 누엇엇어  
요.}

10212 @ 애. {예.}

10212 # 누엇썰개로. {누어있으니까.}

10212 # 어:런덜:: 더리 그러더라고 스:: 저거 야겔쭈 지어다 메게알랑갑따고, 아: 부지가 씨아바~이가. {어른들들이 그러드라고 저것 약을 쯔 지어다 먹여야 하련가보다고,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10212 # 그렇게 '시어마이가 아시절 애기 시면 다 그렇거시여.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니 저 아기 서면 다 그런 것이야.}

10212 @ 응. {응.}

10212 # 할마이가 영감보고. {할머니가 영감보고.}

10212 @ 애. {예.}

10212 # 애기 시면 다 그렇거시여. {애기 서면 다 그런 것이야.}

10212 # 인자 그러다가 입땀 가란지면 켜차네 공개. {이제 그러다가 입땀 가라앉으면 켜찮아 그러니까.}

10212 # 저러케 도컨노무 할망구가 이씨까. {저렇게 독한놈의 할망구가 있을까.}

10212 # 자시기 바:벌 몸먹꼬 저러케 까라저가꼬 누언는디 그러케는 안는다고 인자 아버지가 가더만, 씨아바이가. {자식이 밥을 못 먹고 저렇게 가라앉아가지고 누어있는데 그러케는 앓는다고 이제 아버지가 가더만, 시아버지가.}

10212 # '약꾸글 가더이 야글 두쳐불 지어가꼬 왁뜨라고. {약국을 가더니 약을 두첩을 지어가지고 왔더라고.}

10212 # 어떠케 어떠케:: 아푸냐? 그러. {어떻게 어떻게 아프냐? 그래.}

10212 # 그리서, '아폰데는 엄는디 기시니 업꼬, 머 음성내를 마트면 괴옥찌리 나와요, 그턴떠니. {그래서, 아픈 데는 없는데 기운이 없고, 뭐 음식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나와요, 그랬더니.}

10212 # 가서 그러케 이애기럴 헨능가 야글 두쳐불 지어가꼬 와서.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약을 두 첩을 지어가지고 와서.}

10212 # 약:판지가 일쫓, 엔나레? {약 단지가 있지요, 예날에?}

10212 @ 애. {예.}

10212 # 그가꼬 개뎡정제서 쇠:주겔 꼬르면, 그 잉그락뿔 (@ 애.) 불뎡 막 장작뿔 잉글잉그런놈 인썰. {그래가지고 가마 부엌에서 쇠 죽을 끓이면, 그 잉글락뿔 (@ 애.) 불 뎡 막 장작뿔 잉글잉글한 놈 있어.}

10212 @ 애. {예.}

10212 # 그면 저:따 인자 머시 머 꼬진 잠 자버댕기라게가꼬 당그래로. {그러면 저기에다 이제 무엇이 뭐 꼬집 잠 잡아 당기라고 해가지고 당그래로.}

10212 # 꼬찌자꾸 뎡기가꼬는 거기다 대:리서. {꼬집어 잡아 당겨가지고는 거기에 다 달려서.}

10212 # 그리구 인자 야:겔 '짱개로. {그리고 이제 약을 짜니까.}

10212 # 그도 실:랭이 제가 짜개요 그리가꼬는 인자 짜:서 가짜뎡만. {그것도 신랑



이 제가 찰꺼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짜서 가져왔드만.}

10212 # 머:그보라고 그래 그리서... {먹어 보라고 그래 그래서...}

10212 # 이거 누가 지어가꼬 완냐고 또 누:워서도 그럴제. {이것 누가 지어가지고 왔냐고 또 누워서도 그랬지.}

10212 # 그럴터니 아:부지가 지어가꼬 완따고, '당시니 지가꼬 오면 인자 '날리낭 개, 무릉개.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어가지고 왔다고, 당신이 지어가지고 오면 이제 난리가 나니까, 물으니까.}

10212 @ 애:. {예.}

10212 # 누가 지어가꼬 완냐고 무릉개. {누가 지어가지고 왔냐고 물으니까.}

10212 # 저넌 시집싸리 그러케 할:마니드리 시기드만. {전에는 시집쌀이 그렇게 할머니들이 시키드만.}

10212 # 그리서, 아 아버지가 지가꼬 완는디, 야:근 내가 찰따고 머거보라고 그려. {그래서, 아 아버지가 지어가지고 왔는데, 약은 내가 찼다고 먹어보라고 그려.}

10212 # 그서 그놈 한침 목꼬 두침 머궁개, 인자 그 괴욕찐 낭건 갠:넌디. {그래서 그놈 한 침 먹고 두 침 목으니까, 이제 그 구역질 나는 것은 갠는데.}

10212 # 음식:기 기양 이베가 안:다. {음식이 그냥 입에가 안 다.}

10212 @ 애. {예.}

10212 # 내가 흐:는 음식또 기양 씨고 그려, 그리서. {내가 하는 음식도 그냥 쓰고 그래, 그래서.}

10212 # 그러자 저러자 시나:부로 바불 한수꾸락씩 머궁개로 갠찬텀만요. {그러자 저러가 천천히 밥을 한 숟가락씩 먹으니까 갠참더만요.}

10212 @ 응. {응.}

10212 # 그리서, 인젠 서너달 그러케 고상허다가, 야닐곱따룬 인재, 갠:차네가꼬 바벌 먹꼬는. {그래서, 이제 서너달 그렇게 고생하다가, 예닐곱달은 이제, 갠참아가지고 밥을 먹고는.}

10212 # 지그먼 애:기 날라면 뱅어느로 가지마넌. {지금은 애기 내려면 병원으로 가지는.}

10212 # 엔나런 '내일모레 날티머는 오늘부터 배가 아파. {옛날은 내일모레 날테면 오늘부터 배가 아파.}

10212 @ 애. {예.}

10212 # 배가 기양 아파가꼬 더일따가 덜일따가. {배가 그냥 아파가지고 더 있다 덜 있다.}

10212 # 그르먼, 오매보고 오매 그러케 배가아파, 배가아파 허면서. {그러면, 어머니보고 어머니 그렇게 배가 아파, 배가 아파 하면서.}

10212 # 메:칠인씨먼 그라녀. {며칠 있으면 그렇지않아.}

10212 # 수 저러케 마럴허까, 어르니 되야가꼬. {순 저렇게 말을 할까, 어른이 되

어가지고.}

10212 # 나 내린: 매미라도, 아이 썩 애:기 날라면 애기 도나라고 그렇거시다. 가  
튼 마리먼 그런치만, 며칠인썩먼 갠:차녀. {나 내린 마음이라도, 아이 저 애  
기 내려면 애기 도나라고 그런 것이다. 같은 말이면 그렇지만, 며칠 있으면  
괜찮아.}

10212 # 기양 시방가트먼 떼레쥐기버리고 잡뎀만, 그러케 마련디. {그냥 지금같은  
면 떼려 죽여버리고 싶드만, 그렇게 말하는데.}

10212 @ 예. {예.}

10212 # 나 그린썩 실랑보고, 어:트게 그러케 당신은 어매가 그러케 무:시커냐고.  
{나 그랬어 신랑보고,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어머니가 그렇게 무식하냐고.}

10212 @ 응. {응.}

10212 # 가턴 마리머는 그리 '마련다고 글떠니, 저네 어런드런 다 그렇거시여. 당  
신 이해혀. {같은 말이며는 그리 말한다고 그랬더니, 전에 어른들은 다 그  
런 것이야. 당신 이해해.}

10212 # 이해도 열뚜가지네, 그럼 막 머라글썩 그때. {이해도 열뚜가지네, 그럼 막  
뭐라 그랬어 그때.}

10212 # 그고 인자 저녕내:: 그리 한 이틀::런 조개 그러더니 인자 니얼 내라치게  
날 새면 그냥 바메는 머 숨도 못썩게 배가 아프고 기양 어퍼전따 뒤지버전  
따 허도 어트게 그양... {그리고 이제 저녁 내내 그리 한 이틀은 조금 그러  
더니 이네 내일 내일 아침에 날 새면 그냥 밤에는 뭐 숨도 못 쉬게 배가 아  
프고 그냥 엎어졌다 뒤짚어졌다 하기도 어떻게 그양...}

10212 # 아:치게 그러케 나리 버::녕개로 애기를 기양 나버리썩요. {아침에 그렇게  
날이 훑히니까 애기를 그냥 나버렸어요.}

10212 @ 애. {예.}

10212 # 아이구::! 천빠냐라 한도땅도 암비고, 실:랭이나 조개 두루와서 차바주면  
조치마닌 또 혼차라, 나는 사라미 인쓰머는 몬나요. {아이고! 처음이라 한도  
땅고 안 보이고, 신랑이나 조금 들어와서 잡아주면 좋지만은 또 혼자라, 나  
는 사람이 있으면 못 나요.}

10212 @ 어!! {어!}

10212 # 그 그 뒤아지 삼시랭이대요 그개. {그 그 돼지 삼신할머니래요 그것이야.}

10212 @ 아, 혼 혼자 나야돼요? {아, 혼 혼자 나야돼요?}

10212 # 애, '혼차 나요. {예, 환자 나요.}

10212 # 혼차 몸부르며다 기양 어트게 나노코는 인자, 그 여페서 그 시어머니가  
와서 (@ 시어머니는 배까테서만 허고, 몸뜨러오게 해 내가.) 아 방아네는  
모도게? (응, 사라미 인쓰면 절때 안나요.) {혼자 몸부림하다 그냥 어떻게  
날아놓고는 이제, 그 옆에서 그 시어머니가 와서 (@ 시어머니는 바깥에서  
만 하고, 못 들어오게 해 내가.)}

10212 # 애:기 저 일고별 낳지만, 일곱 다: 그리쎬. {애기 저 일곱을 낳지만, 일곱 다 그랬어.}

10212 @ 응. {응.}

10212 # 가꼬 뒤:아지 삼시랭이라고 현디. {그래가지고 돼지 삼신탈머니라고 하는데.}

10212 # 나:노코 괴암지르니까 어매가 두로드만. {낳아 놓고 고탈 지르니까 어머니가 들어오드만.}

10212 # 천 처대기는 어처게 기양 어쩐중도 몰라도, 두채 세채는 낳개는 하이고 무서서, 공개 시방 싸람더리 영리헛개 안날라구려. {첫 첫애기는 어떻게 그냥 어쩐줄도 몰라도, 둘째 셋째는 낳으니까 하이고 무서워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영리하니까 안 낳으려고 그래.}

10212 # 하나 나코 둘: 나고. {하나 낳고 둘 낳고.}

10212 # 막똥이 메느리는 가시내 하나 나코 안나부려, 무섭따고. {막똥이 며느리는 여자아이 하나 낳고 안 낳아버려, 무섭다고.}

10214 @ 고 인재 애기 나코 나서::는, 그 조리는 어떠케 헛쎬요? 그 이제 애기 낳고 나서는, 그 조리는 어떻게 헛어요?}

10214 # 조:리넨 일쭤이렐 몬나오게 허등만요. {조리는 일주일을 못 나오게 하드만요.}

10214 @ 얘. {예.}

10214 # 이제 그 국 꼬리다 주고, 시어마~이가. {이제 그 국 끓여다 주고, 시어머니가.}

10214 # 그렇거설 '아처그 머그먼 또 발비라그 쩌:깨쎬 먹쑈 공개. {그런 것을 아침에 먹으면 또 밥이라고 조금씩 먹지요 그러니까.}

10214 # 새꺼리 가따 준다고 또 그룩 가마~이 놔똥. {새참 가져다 준다고 또 그릇가만이 놓아두어.}

10214 # 또 와서 기양. {또 와서 그냥.}

10214 # 밤마니 암먹꼬, 늘궁거시 바비다 주머는 그양 이러케 가마::이 되야도 안:드러가면 어터께 머거요. {밥 많이 안 먹고, 늙은 것이 밥 해다 주머는 그냥 이렇게 가만이 되어도 안 드러가면 어떻게 먹어요.}

10214 # 그러고머는 인잔 실랑보고만 저너게 두로먼 막:: 머라구제. {그렇게 하면 이제 신랑보고만 저녁에 들어오면 막 뭐라고 하지.}

10214 # 암:머근 메끼시렐 바불 암머근다고 막:: 어중가넨 밥쑈께 헤쑈서 기양. {안 먹은 먹기 싫은 밥을 안 먹는다고 막 어중간한 밥 조금 해주면서 그냥.}

10214 # 두렁그러고 '투가리렐 내부침성 막 가꾸가고, '투가리다 그 엔날 '국또 주딩만요. {두런거리고 뚝배기를 내부디치면서 막 가져가고, 뚝배기에다 그 옛날 국도 주더만요.}

10214 @ 애. {예.}

10214 # 그러다곤 헐떠니, 아 그러케 아라 그러케 아라. {그러다곤 했더니, 아 그렇게 알아 그렇게 알아.}

10214 # 그러다 저러다 어떠케 세워리 너머간중 모르케 너머가버린는디, 일쭤이를 배까테 몬나오게 혀. {그러다 저러다 어떻게 세월이 넘어가는 줄 모르케 넘어가 버렸는데, 일주일을 바깥에 못 나오게 해.}

10214 @ 애. {예.}

10214 # 몬나와요 구러고 나오덜 모더:. {못 나와요 그리고 나오지를 못해.}

10214 # 그정도 왜가꼬. {그정도 되어가지고.}

10215 @ 그: 인제, 애 애기:: 먼 이레 찾꼬 머 (# 애.) 그런거선? {그 이제, 애 애기 뭐 이레 찾고 뭐 (# 예.) 그런 것은?}

10215 # 일:쭤일마네 이레. {일주일만에 이레.}

10215 # 천:니레. {첫 이레.}

10215 @ 애:. {예.}

10215 # 인자 보:롬 도라오면 두:니레. {이제보름 돌아오면 두 이레.}

10215 @ 애. {예.}

10215 # 또 이레가 도라오면 인자 세이레 그러고 인자. {또 이레가 돌아오면 이제 세 이레 그리고 이제.}

10215 @ (# 이레::.) 그때 이레때는 멀:: 쭤비럴 해고 그래요? {# 이레.} 그때 이레때는 뭘 준비를 하고 그래요?

10215 # 미역국 쪼리고, 바비노코 떡 떡 요매:넌 시리다 떡 쪼개 해노코. {미역국 끓이고, 밥해 놓고 떡 떡 이만한 시루에다 떡 조금 해놓고.}

10215 @ 어, 시루떡? {어, 시루떡?}

10215 # 애, 그러덩만요. {예, 그러더만요.}

10215 # 그가꼬 이레는 꼭 차자주지요, 일곰니레덜. {그래 가지고 이레는 꼭 찾아주지요, 일곱 이레를.}

10215 @ 애: 일곰니레요? {예 일곱 이레요?}

10215 # 애:. {예.}

10215 @ 고 배:길때넌 어트케 해요? {그 백일때는 어떻게 해요?}

10215 # 지그먼 배길때 거차머게 잔치도 허등만, 배:길때도 그양 떠:기노코, 그 뭐 오싱가 머 함뵈깡가 머 사이피고, 그때부텀 인자 도널 주머니다가 너:라궁가 주머~이 큰:넌 하나 맨드라서 여그다 채와주더라고. {지금은 백일때 거참하게 잔치도 하드만, 백일때고 그냥 떡해 놓고, 그 뭐 옷인가 뭐 한복인가 뭐 사 얹히고, 그때부터 이제 돈을 주머니에다가 넣어라 그런가 주머니 든 놈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채워주더라고.}

10215 @ 애. {예.}

10215 # 그먼 사:람더리 인자 배길때 밤:머그로 오라구먼 그 주머니다 도늘 너주

덩만요, 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백일때 밥 먹으로 오라고 하면 그 주머니에다 돈을 넣어주드만요, 예.}

10215 @ 허허허. {허허허.}

10215 @ 그 배길때는 무슨 떡글 해요? {그 백일때는 무슨 떡을 해요?}

10215 # 그때도 시리떠기여. (@ 시루떡?) 애. {드때도 시루떡이야. (@ 시루떡?) 예.}

10215 @ 시루떡. {시루떡.}

10215 # 거시기 빨:그런 판:너코 시루떠글 해안대요. {거시기 빨간 판 놓고 시루떡을 해야한대요.}

10215 # 삼시랑. {삼신할머니.}

10215 @ 으. {응.}

10215 # 근다고 그렇거슬 허궁만요. {그런다고 그런 것을 하는구만요.}

10215 # 지그먼 배길 도라오면 누구 잔치맹이로 어디 과네가서 그양. {지금은 백일 돌아오면 누구 잔치같이 어디 관에 가서 그냥.}

10215 # 허허허. {허허허.}

10215 @ 구 떠:글 해가지고 동넨 싸람덜한테 머 주고 그래요? {그 떡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에게 뭐 주고 그래요?}

10215 # 주든 아네요, 오라구혀. {주지은 않해요, 오라고 해.}

10215 @ 오라고? {오라고?}

10215 # 응: 오라구서 인자 머그라그제. {응. 오라고 해서 이제 머그라고 하지.}

10215 @ 돌:잔치때는? {돌잔치때는?}

10215 # 돌잔치때는 거차메 더. {돌잔치때는 거창해 더.}

10215 @ 어 어트케 해요, 돌잔치? {어 어떻게 해요, 돌잔치?}

10215 # 인자 동고간들또 다 오래 저 먼딤싸람도. {이제 동기간들도 다 오래 저 먼데 사람도.}

10215 @ 응. {응.}

10215 # 다 오래가꼬 그양. {다 오라고 해 가지고 그냥.}

10215 # 돌때넌 참:: 잔치를 혀. {돌때는 참 잔치를 해.}

10215 @ 그 음:서근 먼머슬 줌비를 혀? {그 음식은 무엇 무엇을 준비를 해?}

10215 # 음:서근 그러케혀 떠:거고, 저 미역국 꼬리고, 바:버고, 그 인제 잘: 현사래미 머 '냄비라도 하나 해서 인자 먼데 동고간덜 온사람덜 주고 그레요. {음식은 그렇게 해 떡하고, 저 미역국 끓이고, 밥하고, 그 이제 잘 한 사람이 뭐 냄비라도 하나 해서 이제 먼 데 동기간들 온 사람들 주고 그레요.}

10216 @ 그 자녀:분드를 이러케 키우시면서 좀 기억게 남는 일이 머가 인썬요?. {그 자녀분들을 이렇게 키우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이 뭐가 있어요?}

10216 # 아:덜뜰 키울썬그넌, 막 아들뜨리 재리럴 허자네요. {아들들 키울 적에는, 막 아들이 재리를 하잖아요.}

10216 @ 재리? {재리?}

10216 # 크:머는. {크머는.}

10216 @ 애. {예.}

10216 # 어디가서 그양 머 못치기를 막 노네가서 허다가 그양 아드러고 싸:우고.  
{어디 가서 그냥 뭐 못치기를 막 논에 가서 하다가 그냥 아이들하고 싸우고.}

10216 # 그러면 인재, 나는 인재 '절몽개 마란치만 막:: 할매랑 하나씨랑 쪼차가서 야더널 혀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젊으니까 말을 얹지만 막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쫓아가서 야단을 해요.}

10216 @ 응. {응.}

10216 # 지부와서 인자 아:부지나 나나 잡:되면 타시 그라넌다고 허머는 인자 아:너고. {집에 와서 이제 아버지나 나나 잡드리하면 다시 그렇게하지 않는다 고 하머는 이제 안 하고.}

10216 @ 그 재리::허능거시 인재 싸움하고, (# 싸우고.) 어, 고통게. {그 재리 하는 것이 이제 싸움하고, (# 싸우고.) 응, 그런 것이.}

10216 # 인자 막 저런 노네가서 막 저런 나락빠테 가서 나락뚜드리면 그양 진 막 수렁으 가서 기양 오시 다 빠져가고 재리럴 허고. {이제 막 저런 논에 가사 막 저런 나락밭에 가서 나락 두드리면 그냥 진 막 수렁에 가서 그냥 옷이 다 빠져가지고 재리를 하고.}

10216 @ 애. {예.}

10216 # 허허허. {허허허.}

10217 @ 그 동네에서넌 그 어르니 되머는 머 성년식 머 이렇거 하고 그랜썬요?  
{그 동네에서는 그 어른이 되머는 뭐 성년식 뭐 이런 것 하공 그랬어요?}

10217 # 그런거선 아녀데요. (@ 그런거선?) 애. {그런 것은 아하데요.(@ 그런 것은?) 예.}

### 1.2.5. 시집살이에 대한 경험담

10218 @ 그 시집 와가지고 이러케 시집싸리 하시면서, 그 헨썬뎌 인재 그런 고생 헨썬뎌거. {그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시집살이 하사면서, 그 했었던 이제 그런 고생했었던 것.}

10221 @ 고:골 엔날 하고 지금 싸람더러고 비교럴 해보면... {그것을 옛날 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10221 # 하이고! 지금 싸라면 누어 뎡:멕끼제 머 아무겔또 아니여, 시집싸리 허가디. {하이고!지금 사람은 누어서 떡 먹기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시집살이 하관데.}

10221 # 지그먼 메:누리가 시:어마이 노르더고, 시:어마이가 메누리 노르더: 지그먼. {지금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노릇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노릇해 지금은.}

10221 @ 허허. {허허.}

10221 # 하이구! 엔나레는, 그사람드런 하루도 안살고 가버려요. {하이구! 옛날에는, 그 사람들은 하루도 안 살고 가버려요.}

10218 @ 엔나레는 어트케 헨는데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10218 # 아 지금 저 엔나레는 아까 마렌찌마는 밥:또 제대로 몸먹꼬 기양 부석짜게 한술씩 떠먹꼬. {아 지금 저 옛날에는 아까 말했지마는 밥도 제대로 못먹고 그냥 부엌에 한 술씩 떠먹고.}

10218 # 드레:: 밤:때로 갈찌게 애기털 데:꼬가가꼬 애기털 텐, نوم빠다그나 받까장으나 뉘:피노코 이럴 허머는, 애기가 그양 열구리 발::그레 타고... {들에 발매러 갈 적에 애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애기를 텃, 논바닥에다 발 가장자리에나 눕혀놓고 일을 하며는, 애기가 그냥 얼굴이 발장게 타고...}

10218 # 시방은 비'얌도 엄넌디, 저네는 이러케 애기털 뉘피노코, 아이고 애기 머달라드런능가 조깨 가바야견따 그러고 가서 보면 막 저런데가 비'애미 도라댕겨. {지금은 뺨도 없는데, 전에는 이렇게 애기를 눕혀놓고, 아이고 애기 뉘 달려드는가 조금 가봐야겠다 그리고 가서 보면 막 저런 데가 뺨이 돌아다녀.}

10218 @ 어:. {응.}

10218 # 그러머는 시방 우리가트면 야! 그 이리고 지라리고 애기 무섭따 테꼬 가그라 해안담마리. {그러머는 지금 우리같으면 야! 그 일이고 지랄이고 애기 무섭다 데리고 가거라 해야 한다는 말이.}

10218 # 산:짐승이 어디를 양가, 시어마~이가. {산 짐승이 어디를 안 가, 시어머니가.}

10218 @ 어. {어.}

10218 # 산:짐승이 어디를 양가, 그러케 물:고 어찌고는 아넌다. {산 짐승이 어디를 안 가, 그렇게 물고 어찌고는 안 한다.}

10218 # 그 애기가 뜨거면 더우면 우런싸코... {그 애기가 뜨거우면 더우면 울었쌌고...}

10218 # 그러먼, 인자 '안쓰러서 가서 저설 메기먼, 그러케 자:주 점머겨싸면 머애기가 명칭허다냐 어쩐다냐. {그러먼, 이제 안쓰러워서 가서 젓을 먹이면, 그렇게 자주 젓 먹어싸면 뭐 애기가 명칭하다냐 어쩐다냐.}

10218 @ 허. {허.}

10218 # 그 시집싸릴 시게요. {그 시집살이 시켜요.}

10218 # 그러케 응다레서 절쪼깨 메:기먼 나도 조코 애기도 아눌고 공개, 뽕나무미테나 어디 받까상 먼 나무가 일짜네요, 그러고 인재 거가서 보듬꼬 저설

- 메기먼 그양, 점메긴다고. {그렇게 응달에서 젓 조금 먹이면 나도 좋고, 애기도 안 울고 그러니까, 뽕나무 밑에나 이디 받 가에 뽕 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보듬고 젓을 먹이면 그냥, 젓 먹인다고.}
- 10218 # 그라네도 허지마는 그러케 더 그릴쌍개 애기가 더 우렘싼다고 시집싸리를 시키고. {그렇지 안아도 하지마는 그렇게 더 고렘싼니까 애기가 더 울었썬는다고 시집살이를 시키고.}
- 10219 @ 그 엔나라고 지금하고, 제:사지내고 머 이런 명절때 좀 가타요, 달라요?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 제사 지내고 뭐 이런 명절때 조금 같아요, 달라요?}
- 10219 # 지:사 지내고, 그런 명절 도라옹거션, 모싱거션 똑까테요. {제사 지내고, 그런 명절 돌아오면서, 모신 것은 똑같아요.}
- 10219 @ 예. {예.}
- 10219 # 그런디 인재. {그런데 이제.}
- 10219 @ 준비하거나 이렇거션? {준비하거나 이런 것은?}
- 10219 # 준비가통거션, 꼭까지 준비렐 허는디, 그 세:배 땡기고 그거시 업써저 버릴제. {준비같은 것은, 똑같이 준비를 하는데, 그 세배 다니고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
- 10219 @ 으, 지그먼? {으, 지금은?}
- 10219 # 애, 저 그 어린덜 인는 지번 초닷새 너머야 안저요, 정제꾸니. {예, 저 그 어른들 있는 집은 초닷새 넘어야 앉아요, 부엌꾼이.}
- 10219 @ 애. {예.}
- 10219 # 근디 이르게 다:메서나 해가지고 정:제 불:때서, 떡국 꼬리서 손님덜 오면 대저벌라면 기양 꼬:실메기 부를 때쌍개 사라무가 주렁주렁 허고, 그리고 세배덜 머더로 완싸 그 아놔도 현디. {그런데 이렇게 담에서 해가지고 부엌 불 때서, 떡국 끓여서 손님들 오면 대접을 하려면 그냥 꼬을묵 불을 때썬으니까 사람에게 주렁주렁 하고, 그리고 세배들 뭐하러 왔어, 그 안 와도 하는데.}
- 10219 # 허허허. {허허허.}
- 10219 # 인자 한동네 사라면 살:까지 오고, 이제 타:과네 고'마부니 머 사두니네 머 머 요마치 친척된 사람은 인자 초닷새까지 와. {이제 한 동네 사람은 사흘까지 오고, 이제 타관에 고모부니 뭐 사돈이네 뭐 뭐 이만큼 친척된 사람은 이제 초닷새까지 와.}
- 10219 # 아이고! 저러케 머드로 옹고, 소그로 기양 실짱이 낭개. {아이고! 저렇게 뭐하러 오는고, 속으로 그냥 실증이 나니까.}
- 10219 @ 그러치요. {그렇지요.}
- 10219 # 정제서 불때서 비:나 바래미 불고, 불베치고 누:니나 와봐 기양 막. {부엌에서 불 때서 비나 바람이 불고, 불비치고 눈이나 와봐, 그냥 막.}



10219 # 그럼 저:: 큰 시야무서 물뚱으다 물 여서 지부로 가꼬 와가꼬, 종명이 지부가 무리나 인까디오. {그럼 저 큰 샘에서 물둥이에다 물 이어서 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종내 집에가 물이나 있판디오.}

10219 # 고노멀 뒤 동우씩 가따가 노머는 기양 금방 써버리고, 그놈 물지르서 그 그서 이고 여그 오면 소니 다 어러버러. {그놈을 두어 동이씩 갖어다가 노면 그냥 금방 써보리고, 그놈 물 길어서 거기서 이고 여기 오면 손이 다 얼어버러.}

10219 # 그러케 가따가, 이놈 손:님드리 완싸면 그럭또 시처양개 물도 들고, 아이고! 머더로 저러케 웅고, 내가. {그렇게 갖다가, 이놈 손님들이 왔싸면 그릇도 씻어야하고니까 물도 들고, 아이고! 뭐하러 저렇게 오는가, 내가.}

10219 # 이자 보로메는 인자 친청으를 간싸요, 인자 멘년 되얏쥬개. {이제 보름에는 이제 친정애를 갔어요, 이제 몇년 되었으니까.}

10219 # 오매 나, 아:푸다거고 여가 조개 정월파레 인썰라네. {엄마 나, 아프다고 하고 여기에서 조금 정월달에 있으려네.}

10219 # 오매보고 저 아이구! 세배완싸서 몬싸라 기양 사람덜 맘시. {엄마보고 저 아이구! 세배 왔싸어 못 살아 그냥 사람들 때문에.}

10219 # 그때가 재미다. {그때가 재미다.}

10219 # 아:부지가 그렇겄또 그런 소리 허능거 아니다, 예는 예대로 지켜야고, 그런 소리 형거 아니여. {아버니가 그런 것도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니다, 예는 예대로 지켜야하고,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니야.}

10219 # 사래미 사람지비를 와야제, 그런 소리 형거 아니여, 어서 가그라 어서 가. {사람이 사람 집을 와야지,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니야, 어서 가거라 어서 가.}

10219 # 팍:: 모던게 해요, 기양 가라고 아부지가. {팍 모질게 해요, 그냥 가라고 아버지가.}

10221 @ 그 요즘 절문 사람들 시집싸리 해능거:슨 어때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시집살이 하는 것은 어때요?}

10221 # 요세 시집싸는 사래미 업써. {요사이 시집살이하는 사람이 없어.}

10221 # 혹 여기 절문사람들도 맨 인찌마닌, 아 외이려 기양 막 각싸리 와서 가마:니 안전꼬, 뭇 도라오면 우리더리 다 해야혀. {혹 여기 젊은 사람들도 몇 있지마는, 아 오히려 그냥 막 각자 와서 가만히 앉아있고, 뭇 돌아오면 우리들이 다 해야해.}

10221 @ 응. {응.}

10221 # 각싸덜 안저서 애기덜 델꼬 히히덕끼리거나 허고 뭇, 화:토나 치고 놀기나 허제 정제 드레서 머 허가니 아녀:. {각싸들 앉아서 애기를 디리고 히히덕거리거나 하고 뭇, 화투나 치고 놀거나 하지, 부엌 들어서 뭐 하판디 안해.}

10221 # 그리서, 그 저:버네 우리 메누리더리 안저서 수:리나 먹꼬, 안저서 그레 술:더리나 먹꼬, 노다찌그로 안저서, 세상도 마자주글노무 세상이 도라왈따고 내가. {그래서, 그 저번에 우리 며느리들이 앉아서 술이나 먹고, 앉아서 그레 술들이나 먹고, 노는 자세로 앉아서, 세상도 맞아 죽을 놈의 세상이 도라왔다고 내가.}

10221 @ 응. {응.}

10221 # 저그서 이럼서, 저네는 어:런드리 이런지설 헨는디, 요세는 절문사람더리 안저서 왜 그케 세상얼 바짜웬는가 몰라 근때~이. {저기서 일하면서, 전에는 어른들이 이런 짓을 했는데, 요사이는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왜 그렇게 세상을 바짜되었는가 몰라 그랬더니.}

10221 # 큼메누리가 어머니가 머 헤기시령갑따 우리가 인나자 그려. {큰며느리가 어머니가 뭐 하시기 싫은신가보가 우리가 일어나자 그래.}

10221 # 헤:기실치 그먼 허고자파, 다리는 아픈 사라미, 체미니 일씨야제. {하기 싫지 그러면 하고 싶어, 다리는 아픈 사람이, 체면이 있어야지.}

10221 # 자식떨도 마자주글놈덜. {자식들도 맞아 죽을 놈들.}

10221 # 안드르너네 지집떨 데리꼬 수리나 처먹꼬 안저 화토나 띠고, 늘그녀는 정지서 이리케 두냐? {안 들은 때에 계집들 데리고 술이나 처먹고 앉아 화투나 떼고, 늙은이는 부엌에서 이렇게 두냐?}

10221 # 그러면 어머니 다시는 그라너게 허께. {그러면 어머니 다시는 그렇지 않게 할께.}

10221 # 아 머 머 마창가지더만 댜. {아 댜 댜 마창가지드만 댜.}

10221 @ 허허허. {허허허.}

10221 # 나:중으 오면 도로 그려. {나중에 오면 도로 그래.}

10221 # 요세는 세생이 그러케 해야 살:고. {요사이는 세상이 그렇게 해야 살고.}

10221 # 각씨더리 조개 시:머게 허먼 가버리제 안 사라. {각씨들이 조금 심하게 하면 가버리지 안 살아.}

10221 # 요세는 시머게 허먼, 그냥 쪼개 말:만 조개 크게해도 그냥, 이오너자고고 안살자고 막 그렇개로, 그런틈바그 무서서. {요사이는 심하게 하면, 그냥 조금 말만 조금 크게 해도 그냥, 이혼하자고 하고 안 살자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때문에 무서워서.}

10221 # 서르 실랑덜또 조시덜 허고, 우리도 내:비뒹버리고. {서로 신랑들도 조심 을 하고, 우리도 내버려 두고.}

10221 @ 완전 하여튼 시어머니가... {완전 하여튼 시어머니가...}

10221 # 바짜부런땅개 바짜져버릴쎄요. {바뀌어 바렸다니까 바뀌어져 버렸어요.}

10221 # 누:지비고 그려, 누지비고. {뉘 집이고 그래, 뉘 집이고.}

10221 # 기양:: 메눌레드런 고그부로 기양 벨질 다허지마넌, 할망구더른 엔날시그로 기양 그리도 멍질 도라오면 이거데야제 저거데야제 맨들고 목. {그냥 머

- 느리들은 고급으로 그냥 별 짓 다하지마는, 할머니들은 옛날 식으로 그냥 그래도 명절 돌아오면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만들고 못.}
- 10221 # 메누리도 엉간 노면 사가꼬 온대야, 사와버린대야 사. {머느리도 웬만한 높은 사가지고 온대, 사와버린대 사.}
- 10221 # 사가꼬 허지 머더게 어머~이 그렇거데, 사버려 사버려. {사가지고 하지 뭐하게 어머니 그런 것 해, 사버려 사버려.}
- 10221 # 너그는 도널 만칭개 돈도 아납잡찌만, 나년 도널 양병개 도니 아까서 이 령걸 맨드라야, 그러고 기양. {너희는 돈을 만치니까 돈도 안 아깝지만, 나는 돈을 안 버니까 돈이 아까워서 이런 것 만들어야, 그리고 그냥.}
- 10221 # '떡또 사재야. {떡도 사재.}
- 10221 @ 응. {응.}
- 10221 # 우리 자금메는 사가꼬 지사도 지내고 허지, 머드게 그렇거설 해야고. {우리 작은어머니는 사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하자, 뭐하게 그런 것을 해야 하냐고.}
- 10221 # 장년 시아네는 장:년 서레는 인절미릴 내가 쭈걸너코 마니 힌써, 그릴떠니. {작년 겨울에는 작년 설에는 인절미를 내가 쭈을 넣고 많이 했어, 그랬더니.}
- 10221 # 보파리릴 이놈도 보파리 저놈도 볼, 드려 대야. {보파리를 이놈도 보파리를 저놈도 보, 들어대야.}
- 10221 # 그리서, 야! 사자고 허더~이 니:미 늘근너니 땡맨드려 농개 환장어고 가져갈라고네 모다. {그래서 야! 사자고 하더니 니미 늙은년이 떡 만들어 놓으니까 환장하고 가져가려고 하네 모두.}
- 10221 # 공개로 콤메누리가 어머이 한테 그런 소리 드를라고 형가, 공개 사жат소리 절때 말라고. {그러니까 큰머느리가 어머니 한테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한가, 그러니까 사자는 소리 절때 말라고.}
- 10221 # 아 존 음서글 지비서 깨까지 농사진 너무리 해야제. {아 좋은 음식을 집에서 깨끗이 농사진 놔으로 해야지.}
- 10221 # 사린 음서글 먼::으로 현중 아라. {사는 음식을 무엇으로 한 줄 알아.}
- 10221 # 머시 드려간중 알고, 절:때 사жат소리 마라 어마 드른너네, 그러드라고. {뭇이 들어간 줄 알고, 절때 사지는 소리 마라 어머니 들은 때, 그러더라고.}
- 10221 # 나는 깨:까지 그냥 지비서 조코 나코 맨드라야제 '떼기고 음서기고 맨드라야제, 사년 음서기 안 조아요. {나는 깨끗이 그냥 집에서 좋고 넣고 만들어야지 떡이고 음식이고 만들어야지, 사는 음식이 안 좋아요.}
- 10221 @ 그러지요. {그렇지요.}
- 10221 # 애, 그릴싼뜨라고. 공개 요새 시집싸리가 업써. {예, 그랬쌌더라고. 그러니까 요사이 시집살이가 없어.}

### 1.2.6. 환갑잔치

- 10223 @ 그 이제 황갑:이 되면 황갑잔치 하고 그랜짜나요? (# 애, 애.) 그 어트케 해요, 황갑잔치는? {그 이제 환갑이 되면 환갑잔치 하고 그랬잖아요ㄱ? (# 예, 예.) 그 어떻게 해요, 환갑잔치는?}
- 10223 # 항:갑잔치년 인젠, 그:: 음서근 점:부 맨드라가꼬 거기서지만 인자 상:얼, 마당으로 노팅만요. {환갑잔치는 이제, 그 음식은 전부 맨들어가지고 거시기하지만 이제 상을, 마당으로 놓더만요.}
- 10223 @ 애, 그 음서글 멈머슬 어트케 해놓거요? {예, 그 음식을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놓은 것이요?}
- 10223 # 기양, 지양모시테끼 산 진 산: 지앵이라고, 사과, 배 그거를 참 골고루 혀. {그냥, 제사 모시듯이 산 진 산 제사라고, 사과, 배 그것을 참 골고루 해.}
- 10223 # 항갑잔치때넌. {환갑잔치때는.}
- 10223 # 그 인능걸 엄녕걸 다: 과이리랑거선 다 챙게노코. {그 있는 것 없는 것 다 과일이라는 것은 다 챙겨 놓고.}
- 10223 @ 응. {응.}
- 10223 # 해 막 이 막 고배거로 막 이러케 놔두고. {해 막 이 막 고봉으로 막 이렇게 놓아두고.}
- 10223 # 안절쓰면 술 주고, 저러고 새끼더리 그러등만 그려. {앉아 있으면 술 주고, 절하고 새끼들이 그러더만 그래.}
- 10223 # 음시기 마니 드러가. {음식이 많이 들어가.}
- 10223 @ 애. {예.}
- 10223 # 김::나게 장만형개. 그리가꼬 기양. {집나게 장만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 10223 # 자식 칭구덜, 영감 칭구더리 마::니 오면, 봉토가 막 보통 멘뻑씩 두루와요. {자식 친구들, 영감 친구들이 많이 오면, 봉투가 막 보통 몇 백씩 들어와요.}
- 10223 @ 응. {응.}
- 10223 # 저 우리 영감 항갑때넌 그때 세상만 해도 자식떠리 서이다 우체국까 인꼬, 제법 밤머그꼬 살:마녕개로. {저 우리 영감 환갑때는 그때 세상만 해도 자식들이 셋이 다 우체국에 가 있고, 제법 밥 먹고 살만하니까.}
- 10223 # 지그면 천짜가 며 암꺼또 아니지만, 그때넌 천이배기 두루왈뜨라고요. {지금은 천 자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천이백이 들어왔더라구요.}
- 10223 # 차가 저 우체구그서 저:: 새터까지 기양, 그때넌 차가 귀헐팬디 (@ 예.) 우체국 지권더리 기양 세간디서, 이:리서 오제 임실씨 오제 저 장:수 저 새첸 아드린 장:수가 인췌췌. {차가 저 우체국에서 저 새터까지 그냥, 그때는 차가 귀할 때인데 (@ 예.) 우체국 직원들이 그냥 세 곳에서, 이리에서 오지

임실에서 오지 저 장서 저 셋째 아들은 장수애가 있었어.}

10223 # 장:수도 오제 어디가 빠탈띠가 업썰썰. {장수도 오지 어디가 땀 곳이 없었어.}

10223 # 공개 동넝싸람더리 다 조아빈썰썰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 부러워했었어요.}

10223 @ 그땐 머 하며는 머 온또 멀 하고 (# 하!) 그러데요. (# 오션 함복.) {그때는 뭐 하며는 뭐 옷도 뭘 하고 (# 하!) 그러데요. (# 옷은 한복.)}

10223 # 함복 썩 (@ 함보걸 해서 디레요?) 애. {한복 썩 (@ 한복을 해사 드려요?) 예.}

10223 # 새로 함복 마:치서, 새끼덜또 암파트로 다 입꼬, 우리도 다 히주고, 그 우리드란테는 금반지 영가미랑 나랑 금반지 (@ 응:.) 고고시더만요. {새로 한복 맞추어서, 새끼들고 안밖으로 다 입고, 우리도 다 해주고, 그 우리들에게는 금반지 영감이랑 나랑 금반지 (@ 응.) 그것이드만요.}

10224 # 그런디 돔 마이 드러왈따게야 음서건디로 다드러가버리고 쥘:깨배끼 안나마. {그런데 돈 많이 들어왔다고 해야 음식하는 데로 다 들어가버리고 조금 밖에 안 남아.}

10224 @ 그러지요. {그렇지요.}

10224 # 수:러고, 기양 그런 거 과일 먼 생선, 되야지. {술하고, 그냥 그런 것 과일 뭇 생선, 돼지.}

10224 # 되야지럴 뒤:바리라 자바재치고 봉개, 다 드러가 벌고. {돼지를 두어마리 잡아제치고 보니까, 다 들어가 버리고.}

10223 @ 응. {응.}

10223 # 처널매 드런따게야 돔 먼, 육뽕 나만따구데야 뭐 사뽕 나만따구데야. {천얼마 들어왔다고 해야 돈 뭇, 육백 남았다고 하드냐 뭐 사백 남았다고 하드냐.}

10223 @ 응. {응.}

10223 # 명:는 디로 다드러가 버려. {먹는 데로 다 들어가 버려.}

10223 # 인:심만 어던제, 차지는 없어. {인심만 얻었지, 차지는 없어.}

10223 @ 응. {응.}

10223 # 다 제대로 드러가버려 기양. {다 제대로 들어가버려 그냥.}

10225 @ 그 인제 황가비다고 해서 나한테 초대바드면 어트케 해가지고 가요? {그이제 환갑이라고 해서 남한테 초대받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가요?}

10225 # 인제 초대바드면 입잔 또 가파야해 그노멸. {이제 초대받으면 이제 또 갇아야해 그놈을.}

10225 @ 음, 어트케 가파, 머:슬? {음, 어떻게 갇아, 무엇을?}

10225 # 인잔 그 사라미 먼 도라오거나 (@ 애.) 자식덜 여우나 허면 인자, 오마넌 가꼬면, 나는 음마넌 가꼬 가야허. {이제 그 사람이 뭇 돌아오거나 (@ 예.)}

자식들 여우거나 하면 이제, 오만원 가지고 오면, 나는 육만원 가지고 가야 해.}

10225 @ 응. {응.}

10225 # 그러해서 가파요. {그렇게 해서 갚아요.}

10225 # 공개 지금도 내일모레 대사가 두지비단디, 그 다 가파야 헐 또. {그러니까 지금도 내일모레 대사가 두 집이라고 하는데, 그 다 갚아야 해 또.}

10225 @ 응. {응.}

10225 # 오신능개비여 어:뎌 양반, 아까 오신다구더니. {오셨는 가봐 더뎌 양반, 아까 오신다고 하더니.}

### 1.2.7.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SJBJS\_32)

10226 @ 인제 그 사라마 주그면뇨, 장례를 치르는데 그 순서가 어떠케 돼요?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요, 장례를 치르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10226 # 저 도라가시면 {저, 돌아가시면?}

10226 @ 맨 처음에 숨이 이렇게 숨이

10226 # 도라가신 양바늘? {돌아가신 양반을?}

10226 @ 숨이 떨어지는 거슬 어떠케 알아요? {숨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10226 # 예, 그거또 여러가지요. 그냥 사그르니 간 양반도 이꼬, 그냥 막 팍 몸부리를 치고 {예, 그것도 여러 가지요, 그냥 사그르르 간 양반도 있고, 그냥 막 몸부림을 치고}

10226 # 그러다가 인제 조개 몸부리를 가라안꼬 그러면 막 패꼭질을 해요. 패꼭질을 막 패패꼭 패꼭 해싸타가 패꼭질이 시나브로 개면은 인자 수미 간 거시 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몸부림이 가라앉고 그러면 막 딸꼭질을 해요. 딸꼭질을 막 딸꼭 딸꼭 여러 번 하다가 딸꼭질이 천천히 가라앉으면 이제 숨이 멈춘 것이예요.}

10226 @ 그런디 인자 간능가 안 간능가는 어떠케 아라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10226 # 간능가 안가는가는 인자 아무 거시기도 업꼬 시나브로 가래끓른 거또 개고 패꼭질도 개고 흐면 그러면 인자 {돌아가셨는가 안 돌아가셨는가는 이제 아무 표시도 없고 천천히 가래 끓는 것도 개고 딸꼭질도 개고 하면, 그러면 이제}

10226 # 눈 뜨고 중는 사람도 인꼬 가마버리고 중는 사람도 인꼬 그래요. {눈을 뜨고 죽는 사람도 있고, 눈을 감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10226 # 인자 손바를 만치보면 손바리 파르르르 호고 손부텨 숨 거둔 사람도 인꼬

발부터 거둔 사람도 인꼬 그래요. {이제 손발을 반져보면 손발이 파르르하고 손부터 숨을 거둔 사람도 있고, 발부터 숨을 거둔 사람도 있고 그래요.}

10226 # 바를 이러케 뒤꿈치서부터 차고 올라가고 주근 사람도 인꼬, 손보텀 그런 사람든 이런 디가 시퍼래요. 손지비 시퍼래. {발을 이렇게 발뒤꿈치에서부터 차고 올라가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손부터 그런 사람은 이런 데가 시퍼래요. 손이 시퍼래.}

10226 # 그래 인자 주그머는 장작쪼개기, 지그믄 지럽떼기가 업쓰개 저럽떼기를 요만썩크게 뭉꺼가꼬 {그래 이제 죽으면 장작쪼개기, 지금은 겨릅대기가 없으니까 겨릅대를 이만썩 크게 묶어가지고}

10226 # 질게 여코는 이러케 세 개를 놔요. 새다리맹이로. 거그다가 올리노터마뇨. {길게 넣고 이렇게 세 개를 놓아요.}

10226 @ 사라믈? {사람을?}

10226 # 예. 초염홀 찌그는 기냥 놔뒀따가 인자 온 이피가꼬는 거그다가 올리놔요. {예, 초염할 적에는 그냥 놔두었다가 이제 옷 입혀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려놔요.}

10226 @ 지릅떼기에다가? {겨릅대에다가?}

10226 # 저릅떼기. {겨릅대.}

10226 @ 저릅떼기는 가느다란 흐자나요? {겨릅대는 가늘잖아요?}

10226 # 그런개 문꺼요. 이만썩 흐게 사드로 문꺼요. 그런개 질게 해노코, 사람 지레기만큼 진놈 히노코, 그 대메는 요러케 요러케 {그러니까 묶어요. 이만썩 하게 삼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길게 해놓고, 사람 길이만큼 긴 놈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10226 @ 사다리처럼. {사다리처럼.}

10226 # 새다리처럼 놔서 고 우게다가, 인자 온 이피가꼬 초요금 온 이피가꼬 거다 놔요. {사다리처럼 놔서 그 위에다, 이제 옷 입혀가지고, 초요금 옷 입혀가지고 거기다 놔요.}

10226 # 인자 외나 고놈 베끼고 널 소그 널라고 흘 찌그는 다시 썸베 오시로, 썸베온, 온 조다 소곧까지 다 썸베로 두루매기까지 다 히서 이피가꼬 또 베를 {이제 오히려 그놈 벗기고 널 속에 넣으려고 할 적에는 다시 삼베 옷으로, 삼베옷, 옷을 모두 속옷까지 다 삼베로 두루매기까지 다 해서 입혀가지고 또 베를}

10226 그게 요다고, 산 사라므로서는 요다고 빠치노코 그다가 시체를 노코 더퍼가꼬 위로 덤꼬 아래로 덤꼬, 더퍼가꼬 시체를 노코 우게로 덤꼬 아래로 덤꼬 일곱매를 무끄드마뇨. {그것이 요대요. 산 사람으로서는 요이라고 펼쳐놓고 거기다가 시체를 놓고, 덮어가지고 위로 덮고, 덮어가지고 시체를 놓고, 위로 덮고, 아래로 덮고, 일곱 매듭을 묶더마뇨.}

10226 @ 일곱매드블. 그런데 그 사람을 깨끄시 썬꼬 {일곱 매듭을. 그런데 그 사람을 깨끗이 씻고}

10226 # 얼구른 인자 손뿔 깎꼬 발뿔 깎꼬 그래간꼬 인자, 향물 골로 얼구를 깨까시 시끼등마뇨. {얼굴은 이제 손뿔 깎고, 발뿔 깎고, 그래가지고 이제, 향물 그것으로 얼굴을 깨끗이 씻기드마뇨.}

10226 @ 향물로, 그건 어떤 사라마 씨겨요? {향물로, 그것은 어떤 사람이 씻겨요?}

10226 # 그건 인자 여른 사라마 뭉꼬고 막 널싸 여코 그런 사라마 {그것은 이제 얹힌 사람이 뭉고, 막 널에다 넣고 그런 사람이}

10226 @ 고건, 여러 번 해본 사라마 {그것은, 여러 번 해본 사람이}

10226 # 아 하, 그 양바니 호제. 안 해본 사라마 모태요. 어룸방 해서 모태. {아 하, 그 양반이 하지.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어룸방 해서 못해.}

10226 @ 며, 뭐해서요? {며, 뭐해서요?}

10226 # 어리둥절 해서 모태. 안 해본 사라마 혈쫘을 모런개. 그리고 인자 아는 사라마 그거슬 별도로. 인자 호머는. {어리둥절해서 못해. 안 해본 사람은 할 줄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이 그것을 별도로. 이제 하먼은}

10226 # 그런개 예를 들면 저런 디로 장례식 호러 가버리지마는 호는 사라마 싸글 별도로 더 줘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곳으로 장례식 하러 가버지만 하는 사람은 샅을 별도로 더 줘야 돼요.}

10226 @ 싸글. {샅을.}

10226 # 예. 보통 만원 줄테면, 그런 사라마 삼마넌. 메기기도 잘 메기고. {예. 보통 만원 줄 경우면, 그런 사람은 삼만원. 메기기도 잘 메기고.}

10226 @ 사라마 처으메 딱 주그며는 바께 나와서 음식글 해서 노코 {사람이 처음에 딱 죽으면 밖에 나와서 음식을 해서 놓고}

10226 # 그건 인자 사재뻘. {그건 이제 사잣밥.}

10226 @ 고건 어떠 {그것은 어떠}

10226 # 사재빠븐 이제 된장호고 꼬사리나 조개 쌀마노코 소금노코 밥 서너 그럭 호고 일곱 접씨 {사잣밥은 이제 된장하고, 고사리나 조금 삶아가지고 소금 놓고 밥 서너 그릇 하고, 일곱 접시}

10226 @ 예, 큰 그러근 세 개 {예, 큰 그릇은 세 개}

10226 # 일곱 접씨 췌개씩 접씨다 해서 {일곱 접시, 작은 접시다 해서}

10226 @ 어디 인제 마당에다가? {어디 이제 마당에다가?}

10226 # 마당으다가 쌀막따 놔따가 사람 저 사람 도라가설따고 곡크고 주근 사람 오슬 지붕에다 던지노코는 싹 뿌리부러. 바비랑, 동우다가 물갈따 낱따가 동우에다 푸러서 싹 던져버려. {마당에다가, 고살에 놔뒀다가 사람 저 사람 돌아가셨다고 곡하고, 죽은 사람 옷을 지붕에다 던져놓고는 싹 뿌려버려. 밥이랑, 동우에다 물을 가져다 뒀다가 동우에다 풀어서 싹 던져버려.}



- 10226 @ 그러면 상주드른 오슨 어떠케? {그러면 상주들은 옷은 어떻게?}
- 10226 # 상주들 오슨 인제 도라가시기 저네는 두루매기를 남자들만 이피제. 여자 더런 기양 이따가 이제 널 소그다 여코 염호면 조다 이거 샘베로 히서 여자 더런 치매 입꼬 남자더런 인자 두루매기 이러케 입꼬 두루매기 다 꺾고 {상주들 옷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두루매기를 남자들만 입지. 여자들은 그냥 이따가 이제 널 속에다 넣고 염하면 모두 이것 삼베로 해서, 여자들은 치마 입고, 남자들은 이제 두루매기 이렇게 입고, 두루매기 다 꺾고}
- 10226 # 인자 두루매기만 이블 찌그는 인자 한 손만 꺾고 한 소는 인자 아무케나 {이제 두루매기만 입을 적에는 이제 한 손만 꺾고, 한 손은 이제 아무렇게나}
- 10226 @ 어떤 소늘? {어떤 손을?}
- 10226 # 외약소는 남자가 주그머는 외약소는 안 꺾고 {왼손은 남자가 죽으면 왼손은 안 꺾고}
- 10226 @ 예. {예.}
- 10226 # 여자가 주그머는 오른소는 안 꺾고 그러키 히서 인자 염흔 뒤에는 싹 두 개 다 이버버려. 양쪼그 폴또글 다 꺾버려. {여자가 죽으면 오른손은 안 꺾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염한 뒤에는 싹 두 개 다 입어버려.}
- 10226 @ 머, 머리에 쓰고 이런 거슨 머라고 그래요? {머, 머리에 쓰고 이런 것은 뭐라고 그래요?}
- 10226 # 건. 건. {건. 건.}
- 10226 @ 요 바레 차는 거슨? {이, 발에 차는 것은?}
- 10226 # 바레다 요리 흐는 거슨 행저니고 머리다 흐는 건 권 또 이븐 거슨 상부. {발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전이고, 머리다 하는 것은 건, 또 입은 것은 상복.}
- 10226 @ 어떤 사라문 오슬 안 입꼬 머리만 쓰고 이런 사람도 일뜨마뇨. {어떤 사람은 옷을 안 입고 머리만 쓰고 이런 사람도 있더마뇨?}
- 10226 # 그런 사라문 인자 자근지비나 사춘 그런 사라미고, 자식떠런 모다 상보글 입꼬, 친척떠런 권만 써고, 친자식떠런 오슬 입꼬. {그런 사람은 이제 작은 집이나 사춘 그런 사람이고, 자식들은 모두 상복을 입고, 친척들은 건만 쓰고, 친자식들은 옷을 입고.}
- 10226 @ 고 인제 거 널 해가지고 해서 인제 해서 나갈 때는 어떠케 해서 나가요? {그 이제 거 널 해가지고 해서 이제 해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서 나가요?}
- 10226 # 나갈 찌그는 일곱매 무꾼 산내끼가 인썸요. 지그문 외울베로 마니 흐지마는 나갈 찌그는 인제 자식떠리 다 드려요. 넘드리 안 들고, 자식드리 인제 하나다면 자근집 겐수기라도 테꼬 구석구서기 거치서 나가등마뇨. {나갈 적에는 일곱매 묶은 새끼가 있어요. 지금은 외울베로 많이 하지만 나갈 적에는 이제 자식들이 다 들어요. 남들이 안 들고, 자식들이 이제 하나다면 작

은집 식구라도 데리고 구석구석을 거쳐서 나가드마뇨.}

10226 @ 저 인자 인사를 하는구마뇨? {저 이제 인사를 하는구마뇨?}

10226 # 인사하고 나 간다는 시그로. 그러케 해서 나가드마뇨. {인사하고 나 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가드마뇨.}

10226 @ 나갈 때 머 바가지를? {나갈 때 뭐 바가지를?}

10226 # 바가지를 어퍼노코 발바야제. 팍 소리가 나야 저승에 간대요. 그게 저승 아라드끼라고. {바가지를 얹어놓고 밟아야지. 팍 소리가 나야 저승에 간대요. 그것이 저승에 알아들으라고.}

10226 @ 아, 나 간다 저승에다가. {아, 나 간다 저승에다가}

10226 # 예, 바가치 깨는 소리드리 들린대요. 뽀비 그런개 몰라요. 하하, 아라드론가 안 아라드론가. 하하. {예, 바가지 깨는 소릴들이 들린대요. 뽀비 그런니까 몰라요. 하하, 알아듣는가 안 알아듣는가. 하하.}

10226 @ 그러케 해가지고 인제 바가치를 깨고 나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가치를 깨고 나가서}

10226 # 생이 우게다 노치요. {상여 위에다 놓지요.}

10226 @ 생이는 어디에서 해가지고 와요? {상여는 어디에서 해가지고 와요?}

10226 # 생이는 인제 우게 덮는 거는 해가꼬 와도 미테 널 놓 거슨 다 짜요. 막대기가 인썸. {상여는 이제 위에 덮는 것은 해가지고 와도 밑에 널 놓는 것은 다 짜요. 막대기가 있어.}

10226 @ 아, 동네에가? {아, 동네에가?}

10226 # 막때기가 이썸가꼬 인자 한 볼 딱 짜노머는 그 인자 가따노코 파묻꼬는 막때기를 가꼬 와. 가꼬와갠꼬 저런 다리미테 비 안마즌디다 가따놔뒤따가 인자 누가 주그면 그놈가따 떼미고 가고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한벌 딱 짜놓으면 그 이제 갖다놓고 파묻고 막대기를 가지고 와. 가지고와갠꼬 저런 다리 밑에 비 안 맞은데다가 갖다놔다가 이제 누가 죽으면 그놈을 가져다 떼메고 가고}

10226 @ 지금도 그러케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10226 # 지금도 히요. 그런디 인자 {지금도 해요. 그런데 이제}

10226 @ 동네에서는 어디에가 이썸요? {동네에서는 어디에가 있어요?}

10226 # 저그 다리미티가 인는디 지그문 죄다 장례시그로 가버린개 호들 안해. 어찌다가 인자 오도가도 모든 사람 하나씩 가따가 기냥. 현 생이 어디서 가따가 기냥 둘러 씨워서 가져가부리고 그지, 조다 주거따 호면 장례시그로 가. 인는 노미고 엄는 노미고. {저기 다리밑에가 있는데 지금은 모두 장례식으로 가버리니까 하지를 안해. 어찌다가 이제 오도가도 못한 사람 하나씩 갖다가 그냥. 현 상여를 어디서 갖다가 그냥 둘러 씨워서 가져가버리고 그러지. 모두 죽어다 하면 장례식으로 가. 있는 놈이고 없는 놈이고.}

10226 @ 그러면 그 때는 동네에서 다리미테 거기다가 가따 놔요? {그러면 그때는

- 동네에서 다리밑에 거기다가 갖다 놔요?}
- 10226 # 거기다 놔. 가따 묻꼬는 뭉꺼서 거그다 갇따놔요. {거기다 놔. 갖다 묻고는 뭉꺼서 거기다 갖다놔요.}
- 10226 @ 그러면 사람드리 그 다리 밑에는 무서서 잘 안가겠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리밑에는 무서워서 잘 안 가겠네요?}
- 10226 # 여자더런 무서서 거그를 잘 안가요. 남자더런 보통으로 알지마는. 허허. 허이고 나 어저께도, 이야기흐다가 땀 소리 흐능만. {여자들은 무서워서 거기를 잘 안 가요. 남자들은 보통으로 알지만. 허허. 아이고, 나 어제도,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소리 하는구만.}
- 10226 # 어저끄 고무 영개미 주거는디, 인자 고무 아덜더리 저거 아버지를 파다가 납골당으로다 낸다고 여그서 노블 어더서 뺑마년을 주길래 내가 노블 서이를 어더서 하나패 삼십마년씨기쥬. 그래. 십마너는 먹매, 산신제 떠 그런 거슬 다 내가 산는디, 거그를 메를 파러 가서봉개 뚱더를 인자 쉐 얻꼬 인자 아덜덜 딸네더리 완더마뇨. 서울써 내일 또 와요. {어제 고모 영감이 죽었는데, 이제 고모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파다가 납골당으로다 넣는다고 여기서 뚱을 얻어서 백만원을 주길래, 내가 뚱을 셋을 얻어서 하나앞에 삼십만원썩이쥬. 그래. 십만원은 먹매, 산신제 뭐 그런 것을 다 내가 샀는데, 거기를 산소를 파러 가서보니까, 뚱들을 셋 얻고 이제 아들들, 딸들이 왔더만요. 서울에서 내일 또 와요.}
- 10226 # 그리서 오늘 저녁에 와 자고 내일 갇따 혼다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와 자고 내일 갖다 한다고}
- 10226 # 아, 그리서 노블 어더서 가봐떠니 뚱떠리 그냥 이블 벌리고는 그냥 못 판디야, 무서서. 그리서 인자 왜 그리냐? 그렇게로 시비년 되얀는디 육타리 하나도 안 땔때요. {아, 그래서 뚱을얻어서 가봤더니 뚱들이 그냥 입을 벌리고는 그냥 못 판다고 해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왜 그리냐? 그러니까 십이년 되었는데 육탈이 하나도 안 땔대요.}
- 10226 @ 아니, 거 파기 저네는 몰라쥬 거 아녀요? {아니, 그 파기 전에는 몰랐을 것 아닌가요?}
- 10226 # 모르지요. {모르지요.}
- 10226 @ 인자 파서 보니까 {이제 파서 보니까}
- 10226 # 저석떨도 그노를 뺑따구가 인자 육타리 되면 뺑따구 흐기 나오머는 고노를 뺑쓰다 주서다마갇꼬 가서 저 태운디 가서 태워갇꼬 갇꼬갈라고 단지랑 갇꼬와떠마뇨. 태와서 재 갇꼬 간다고. {자식들도 그 뚱을 뺑다귀가 이제 육탈이 되면 뺑다귀 흙이 나오면 그 뚱을 박스에다 주어담아가지고 가서 저 태운데 가서 태워가지고 가지고가려고 단지랑 가지고 왔더만요. 태워서 재를 가지고 간다고.}
- 10226 # 아, 이 사람더리 와 버리쥬. 아이, 다 허고 왈쥬? 그렇게 바로 이쥬 사라

미랑 저쪽 사라미랑 다 친저른 사라민디, 다 호고 와써? 근개 하이, 몬 해라. 몬 파 거떠야. 파노키는 파났는디 손도 몬 땀따고 그래. 뽕따구 다 주서 담기로 호고 가꺼던. {아, 이 사람들이 와 버렸어. 아이, 다 하고 왔어? 그러니까 바로 이쪽 사람이랑 저쪽 사람이랑 다 친절한 사람인데, 다 하고 왔어? 그러니까 아이, 못 해요. 못 파겠다는 거요. 파놓기는 파났는데 손도 못 땀다고 그래. 뽕다귀를 다 주어담기로 하고 갔거든.}

10226 # 그렇게 삼십마년씩 줘써요. 뽕따구 주서담글랑개 그라느면 보통 시보마년씩 빼끼 안줘. 그런개 그런 구진 일흔다고 삼십마년씩 쫓는디, 이쪽 사라몬 또 벨도로 더 쫓제. 거 쪼개 거시기 호라고. {그러니까 삼십만원씩 쫓어요. 뽕다귀 주어담을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십오만원씩밖에 안 줘. 그러니까 그런 구진 일흔다고 삼십만원씩 쫓는데, 이쪽 사람은 벨도로 더 쫓지. 그 조급 거시기 하라고.}

10226 # 아,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와부러써. '왜 이러케 와?' 혼개 '아이구, 무서서 손 몬 대라.' '왜?' 육타리 안 땀따고. 그런개 인자 아더리 차를 간꼬 가서 테꼬 가부런써. {아,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와버렸어. '왜 이렇게 와?' 하니까 '아이구, 무서워서 손 못 대요.' '왜?' 육타리가 안 땀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버렸어.}

10226 # '따라가봐 자네가' 그랬더니 아덜도 몬 가. 저가 인는디, 나도 차를 타고 간는디 기냥, 그대로 인더래요, 시비년 땀는디, 그리서 본개로 사리 뽕그리 해간꼬 그대로 기냥 누를 뜨고 인는디 머 아덜덜도 이러케 너머가다 기냥 다라나버려. 기냥 다라와버려. {'따라가봐 자네가' 그랬더니 아들도 못 가. 저기 있는데, 나도 차를 타고 갔는데 그냥, 그대로 있더래요. 십이년 땀는데, 그래서 보니까 살이 빨갱게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눈을 뜨고 있는데, 뭐 아들도 이렇게 넘어가다 그냥 달아나버려. 그냥 달려와버려.}

10226 # 그리간꼬는 인자 그러케 피슬 파자머는 면사무소다가 신청을 히야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산소를 파려고 하면 면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10226 # 신청을 힌는디, 신청허고 머슬 또 바다야 현다등만 바다간꼬 인자 임실 거시기다가 사람덜 주그먼 간디, 그 사람한테 신청을 또 해써요.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고 뭇을 또 받아야 한다더만. 받아가지고 이제 임실 거시기다가 사람들 죽으면 가는 데, 그 사람한테 신청을 또 했어요.}

10226 # 인자 그 사람더리 와서 널 새로 간꼬 오고 외올베 떠깁꼬 와서 인자 그 송장을 간꼬 가서 영구차에다 실꼬 태운디로 가안대요.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널을 새로 가지고 오고 외올베를 떠가지고 와서 이제 그 송장을 가지고 가서 영구차에다 싣고 태운데로 가야 한대요.}

10226 # 그런다고 가랑 모다 너인가 다서인가 저녀게 와 자고 내일 아쳐게 워료일 날 일찌감치 면사무소로 어디로 도라다닌다고 히서, 아이구, 나 사람 주그

- 면 그러케 무선가 봐요. 사라미. {그런다고 그 아리랑 모두 넷인가 닷스인가 저녁에 와 자고, 내일 아침에 월요일날 일찍 면사무소로 어디로 돌아다닌다고 해서, 아이구, 나 사람 죽으면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사람이.}
- 10226 # 아덜도 기냥 안 갈라고, 딸덜도 다 디리바보고는 안 갈라고, 꿈자리 사납다고. {아들도 그냥 안 가려고, 딸들도 다 들어다보고는 안 가려고, 꿈자리 사납다고.}
- 10226 @ 고, 이제 육타리 안 된 거슨 땅이 머, 무리 차서 그런 걸까요? {그, 이제 육탈이 안 된 것은 땅이 뭐, 물이 차서 그런 것일까요?}
- 10226 # 그런게 무른 안 찰따고 허드요. 그런디 육타리 안 된거는 땡이 안 조태야. 안 조면 그러케 육타리 안 되고, 칠년된 사람도 육타리 다 뽕판디 시비너니나 되안는디 그러케 한나도 육타리 안 되고 {그러니까 물은 안 찼다고 하데요. 그런데 육탈이 안 된 것은 땅이 안 좋대. 안 좋으면 그렇게 육탈이 안 되고, 칠년된 사람도 육탈이 다 뽕판데 십이년이나 되었는데 그렇게 한나도 육탈이 안 되고.}
- 10226 @ 그런디 왜 그대로 놔두지 납골당으로 모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대로 놔두지 납골당으로 모신다고 그래요?}
- 10226 # 요새는 왜 그리 사라를 태워서 내버리고 납골당으다가 너코 그러드만. {요새는 왜 그렇게 사람을 태워서 내버리고 납골당에다가 넣고 그러더구만.}
- 10226 @ 뭐, 그동안에 해로워서 그런 거시 아니고요? {뭐, 그동안에 해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 10226 # 그, 지반니 안 조완때요. 기냥 지가 매급씨 중풍으로 떠러질라다가 날꼬 또 저거 누나가 자진기 타고가다 획 교통사고 나서 주거버리고, 또 아덜 하나가 지랄병을 호고 근대요. {그 집안이 안 좋았대요. 그냥 자기가 매급씨 중풍으로 떨어질려고 하다가 낫고 또 자기 누나가 자전거 타고가다 획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고, 또 아들 하나가 지랄병을 하고 근런대요.}
- 10226 # 무다니 그라넨 사라미 그리서 어디가서 무러본개로 영개미 모셔간꼬 가서 파보면 그대로 이썰텐개 파고라고 공개 기냥 아더리 그런 소리듣고 불갑시 완써. 치안본부가 이썰썩요. 서울. {무단히 그렇지 않던 사람이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영감이 모셔가지고 가서 파보면 그대로 있을테니까 파보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갑자기 왔어. 치안본부가 있었어요. 서울.}
- 10226 # '근디, 이모, 이모, 아버지를 어티케 땡기야 거썩요', 그리서 '아이야, 놔두라. 엉간흐면.' '아니요, 땡기야요, 모썩대요. 가 눈빠기로 가 파보머는 머 지쟁이 이따고 그리요.' '그려', 그리서 '몰르겔따. 누가 꺼울러지고 물찬디도 아니고 존딘디', 그래떠니, 아닌게 아니라 가서 봉개 그리키 생기썩요. {그런데, '이모, 이모, 아버지를 어떻게 읍겨야 것어요.' 그래서 '아이야, 놔두어라. 어지간하면.' '아니요. 읍겨야 돼요. 못썩대요. 가서 눈빠기로 가서 파보

면 뭐 지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 그래서 '모르겠다. 누가 기울어지고 물이 찬 곳도 아니고 좋은 데인데' 그랬더니, 아닌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10226 @ 고, 인제 그러케 해서 초상을 치르고 나면 인제 또 며칠 후에 또 가서 보고 그러지요잉?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초상을 치르고 나면 이제 또 며칠 후에 가서 보고 그러지요?}

10226 # 사밀, 사밀 후에 가는 거슨 부모 도리로 머 짐생이나 행이나 손대고 그럴 깨미 사밀 일따가 가지요. {삼일, 삼일 후에 가는 것은 부모 도리로 뭐 짐승이나 행여나 손대고 그럴까 봐서 삼일 있다가 가지요.}

10226 @ 사밀 후에 가는 거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삼일 후에 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10226 # 사밀 보러 간다고 그래요. 사례미 그러케 깨까던 사례미 그러케 생기쓰까 몰라요. {삼일 보러 간다고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깨끗하던 사람이 그렇게 생겼을까 몰라요.}

10226 @ 인제 상여를 이러케 메고 갈 때 누가 메고 가요? {이제 상여를 이렇게 메고 갈 때 누가 메고 가요?}

10226 # 인자 그 저네는 노블 어딘는디 요 중년에는 다 자식덜 친구더리 제를 묻더마노. 생이 메고가는 제. {이제 그 전에는 놉을 얻었는데, 이 중년에는 다 지식들 친구들이 제를 묻더만요.}

10226 @ 제는 무슨 제라고 그래요? {제는 무슨 제라고 그래요?}

10226 # 생이제라고 그래요. 생이제를 무더갈꼬 이제 부모가 도라가설따고 그러면 생이, 거 제군덜만 와. 제군더리 메고 가요. 자식 업는 사람더런 기양 지기 송장 히비리고, 저 구리마에나 어따가 싣꼬 가서 묻꼬 그러등마노. {상여계라고 그래요. 상여계를 해가지고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상여, 그 제군들만 와. 제군들이 메고 가요. 자식 업는 사람들은 그냥 지계송장 해버리고, 저 달구지에나 어디다가 싣고 가서 묻고 그러더만요.}

10228 @ 그때 그 머 메고 가면서 노래도 불르고 그러지요? {그때 그 머 메고 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지요?}

10228 # 노래를 불러싸트요. 그리고 아프서 머, 머라고 핑경내드림서 호고 그러등만. 사람드리. 그런디 그런거는 기억을 안혀. 그런 거선 여자 떼라. {노래를 불러썰더요. 그리고 앞에서 머, 머라고 풍경흔들면서 하고 그러더만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것은 기억을 안 해. 그런 것은 여자라서.}

## 1.2.8. 제사에 대한 이야기

10230 @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는 어떤 종류드리 이썬요? 맨처으메. {제사를 지내

는데 제사는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10230 # 인제 천지사는 인자 이 다례 주그먼 다음 이 다례 천뽕, 이기 천 지사다  
고 빼깁지사를 지내고, 또 인자 배깁지사를 지낸 다매는 방지사, 방지사 인  
자 배까치서 방이로 모시는 지사는 천뽕지사라고 고리고, 그랜는디 머 지그  
른 그걸또 저걸또 아느고 그냥 주거부르면 그냥 사알마네 가서 복도 해딱  
메서 가서 사밀 가서 버셔버리고, 머 지사도 안 지낸개비여. 이런 사라믄  
꼭 지내지만 절믄 사람더런 하나도 피료 업따고 안 지내버려. {이제 첫방제  
사는 이제 이 달에 죽으면 다음 이 달에 첫 방, 이것이 첫 제사다고 밖에제  
사를 지내고, 또 이제 밖에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방제사, 방제사 이제 밖에  
서 방으로 모시는 제사는 첫방제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머 지금은 그것도  
저것도 안 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삼일만에 가서 복도 빨리 산소에 가  
서 삼일 가서 벗어버리고, 뭐 제사도 안 지낸 모양이여. 이런 사람은 꼭 지  
내지만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필요 없다고 안 지내버려.}

10231 @ 엔나레는 고 언제, 얼마마네 보글 다 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언제,  
얼마만에 복을 다 벗는 거예요?}

10231 # 엔나레는 에 이러케 일년마네, 일년마네 그 일테면 거 오늘 주그먼 오늘  
일너니 되얏쓰먼 지사를 지내면 그때 보글 버셔요. {옛날에는 에 이렇게 일  
년만에, 일년만에 그 예를 들면 그 오늘 죽으면 오늘 일년이 되었으면 제사  
를 지내면 그때 복을 벗어요.}

10231 @ 고먼 고 일년 동아네는 어떠케 해요? {그러면 그 일년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10231 # 제청을 해노코 {제청을 해놓고}

10231 @ 제청을? 어따가 해요? {제청을? 어디에다가 해요?}

10231 # 마룽이나 방으다가는 안 해요? 방으다는. 마룽 인는 사라믄 마룽, 마룽  
업는 사라믄 뜰방, 뜰방으다 벽짜그다 인제 맨드라간꼬 {마루나 방에다가  
한 해요? 방에다는. 마루가 있는 사람은 마루, 마루가 없는 사람은 뜰방, 뜰  
방에다 벽쪽에다 이제 만드러가지고}

10231 @ 어떠케 생겼쎄요? {어떻게 생겼어요?}

10231 # 고게 어떠케 생겨? 머 이런 상 노코 지블 저요. 이러케 해간꼬 인제 상을  
여그다가 놔. {그것이이 어떻게 생겨? 뭐 이런 상을 놓고 집을 지어요. 이  
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을 여기다가 놔.}

10231 @ 지븐 뭇로 지어요? {집은 무엇으로 지어요?}

10231 # 지븐 요로케 머 판자떼기나 그런 머 막대기 대서 지어간꼬 거다 종우 발  
라서, 지어노코 상 여다 놔두면 여그가서 인자 밤나 머 서서 삼시세때 바블  
갈따 놔요. {집은 이렇게 뭐 판자나 그런 뭐 막대기를 대서 지어가지고 거  
기다 종이를 발라서, 지어놓고 상을 여기다 놔두면 이제 항상 뭐 서서,삼시  
세 때 밥을 갖다 놔요.}

10231 @ 일년 내내요? {일년 내내요?}

10231 # 일년 내. 인자 나제는 안 주지만 저녁 아침, 고로고 보름 도라오면 또 그 성복제 지낸다고 보름마네 모다 밥 채려노코 울고, 엔나레는 그랜는디 지그 른 머 법또 업꼬, 세상이 다 망쪼가 드러버린썩쇼. {일년 내. 이제 낮에는 안 주지만 저녁, 아침, 그리고 보름 돌아오면 또 그 성복제 지낸다고 보름 만에 모두 밥 차려놓고 울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법도 없고, 세상이 다 망할 징조가 들어버렸어쇼.}

10231 @ 히히. 그래도 더 잘 살 자나요? 허허허. {히히. 그래도 더 잘 살잖아요? 허허허.}

10231 # 그런개 사고가 나싸코 모썩. {그러니까 사고가 나쌍고 못 썩.}

10231 @ 허허허허. {허허허허허.}

10231 # 잘 살고 켜흐기는 혼디, 사고가 나싸차내요? 암시랑토 안흔 사람더리 그냥 죽꼬 머, 그때는 머 심장병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몰란는디 심장병으로 주 건네 머 정풍으로 주 건네 머 사고가 나싸차나, 조시믈 아는개, 그런 예를 안 지킨개, {잘 살고 편하기는 한테, 사고가 나쌍잖아요? 아무일도 안 한 사람들이 그냥 죽고 뭐, 그때는 뭐 심장병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몰랐는데 심장병으로 죽었네 뭐 정풍으로 죽었네 뭐 사고가 나쌍잖아. 조심을 안 하니까 그런 예를 안 지키니까}

10231 # 아까 당산제맹이로 예를 지내야한디 그런 거 머 피료업따고 당산나무를 비여다가 부를 때고 그냥 벨 지랄 다홍개 사고가 나싸. {아까 당산제처럼 예를 지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뭐 필요없다고 당산나무를 베어다가 불을 때고 그냥 벨 지랄 다 하니까 사고가 나싸.}

10231 @ 그러지요. 그러면 천뽕 지사를 지내고 나서는? {그러지요. 그러면 첫뽕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10231 # 인자 방으로 가. {이제 방으로 가.}

10231 @ 인자 방에서. {이제 방에서.}

10231 # 방으로 인제, 그 천뽕 지사지내고 사알마네 바블 그 마룽으다가, 제 그거 슌 썩 뜨더버리고 인자 부를 태워버리고 업꼬, 그 자리다가 상 하나에다 노코 거다 밥 조깨 노코는 인자 지방을 썩서 백짱으다 부치가꼬, 지방호고 바브고 상을 가꼬 방으로 드리가요. 드리감서 인자 방으로 가시자고 산 사람이 이야기히디끼 인자 방으로 가시자고 그래가꼬 방으다 가따 노코 {방으로 이제, 그 첫뽕 제사지내고 삼일만에 밥을 그 마루에다가, 제 그것은 썩 뜯어 버리고 이제 불을 태워버리고 없고, 그 자리에다가 상 하나에다 놓고 거기다 밥 조금 놓고 이제 지방을 썩서 벽에다 부쳐가지고, 지방하고 밥하고 상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이제 방으로 가시자고 산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제 방으로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방에다 갖다 놓고}

10231 # 거그서 지앙 모시고 인자 질내 방지사를 지내덩마뇨. {거기서 제사 모시



고 이제 계속 방제사를 지내더만요.}

10230 @ 방제사를 지내다가, 아버지 할아버지 해서 이제 사네 가서 또 며 지낼 때도 있죠? {방제사를 지내다가, 아버지, 할아버지 해서 이제 산에 가서 또 뭐 지낼 때도 있죠?}

10230 # 시앙을 모시제. 오대가 너므머는 사네 가서 음서글 해가꼬 시앙을 모셔요. {시제를 모시지. 오대가 넘으면 산에 가서 음식을 해가지고 시제를 모셔요.}

10230 @ 고건 언제 해는거예요? {그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10230 # 그거슨 인제 날바다뎡만뇨. 그나를 안 허고 시아네나 출 때 주그머는 거 시앙을 몬 모시로 간개 그 날짜를 놔두고, 예를 드러서 구월 시워레 나를 바다요. 나를 바다가꼬 가서 검나게 음서글 해가꼬 기양 멘 석짜글 가꼬 가서 시앙을 모셔. {그것은 이제 날받아 하더만요. 그 날을 안 하고 시안에나 추울 때 죽으머는 거 시제를 몬 모시러 가니까 그 날짜를 놔두고, 예를 들어서 구월 시월에 날을 받아요. 날을 받아가지고 가서 많이 음식을 해가지고 그냥 몇 석작을 가지고 가서 시제를 모셔.}

10230 # 그래가꼬 애더리 지그미야 그러체 애드리 기양 책보가꼬 조타고 음식 어드러 온다고 사느로 하나씩 따라다니고 그랜ندي 시방 아드른 줘도 안머거. 그러케 세상이 조아져버렘써. 그런개 지그른 머 시앙 모신다고 히야 조깨써 히가꼬 가서 기양 내까상으로 누가 살몬 그다 싹 부서줘불고 석작 채 부서 줘불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지금이야 그렇지 아이들이 그냥 책보가지고 좋다고 음식 얻으러 온다고 산으로 하나씩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아들은 줘도 안 먹어. 그렇게 세상이 좋아져버렸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시제 모신다고 해야 조금씩 해가지고 가서 그냥 냇가에 누가 살면 거기다 싹 부어줘버리고 석작 채 부어줘버리고.}

10231 @ 그 제사지낼 때는 어떠케 음식 준비를 하고, 제사 지내는 순서가 어떠케 돼요? {그 제사지낼 때는 어떻게 음식 준비를 하고, 제사 지내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10232 # 인자 음식 준비 다 해가꼬 {이제 음식 준비 다 해가지고}

10232 @ 그 제사 음식근 여자가 장에 가서 사와요 남자가 장에 가서 사와요? {그 제사 음식은 여자가 장에 가서 사와요, 남자가 장에 가서 사와요?}

10232 # 인자 남자가, 여자가 인제 머리가 두느고 생가글 모던 사라몬 남자드리 가고, 그라느면 여자더리 주로 음서글 맨든개, 먼머 사야겄따고 인자 가서 조다 사가꼬 와서 음서글 장만해서 지앙 때 인자 노코, 지방 써노코, 새끼 더리 다 와서 흐면, 젤로 장내미 버텨 술자늘 개덩만뇨. 젤로 장내미. {이제 남자가, 여자가 이제 머리가 둔하고 생각을 못한 사람은 남자들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이 주로 음식을 만드니까 무엇무엇을 사야겄다고 이제 가서 모두 사가지고 와서 음식을 장남해서 ㅈ제사 때 이제 놓고, 지방 써놓

고 자식들이 다 와서 하면, 제일 안남이 먼저 술잔을 올리더만요. 제일 장남이.}

10231 # 술잔 개고 또 그 다메 또 순서대로 동상, 또 동상 그런 대미는 인자 사춘더리, 자근집 사춘더리 그러케 호고 열두씨 되머는 딱 불도 끄고 음식 다 먹꼬 열두씨 되면 철쭉을 해버려. 열두씨 아네는 자도 아너고 지양 모심서 안저서 이애기호고 그래요. {술잔 올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순서대로 동생, 또 동생 그런 다음에는 이제 사촌들이, 작은집 사촌들이 그렇게 하고, 열두시 되면 떡 불도 끄고 음식 다 먹고, 열두시 되면 철수를 해버려. 열두시 안에는 자도 앓고 제사 모시면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래요.}

10231 @ 인제 상 다 해서 고거 서로 가치 먹꼬요? {이제 상 다 해서 그것 서로 같이 먹고요?}

10231 # 동구간덜 다 갈라줘버리고 {동기간들 다 갈라줘버리고}

10231 @ 서로 가치 먹꼬 그러는 거슨 머라고 그래요? {서로 같이 먹고 그러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10231 # 그냥 지양 모신개로 음복혼다고 그러. 음복. 음부근다고 그리요. {그냥 제사 모시니까 음복한다고 그래. 음복. 음복한다고 그래요.}

10231 @ 고 인제 음보글 호는데 거 동네에서 머 떴기랑 저기랑 어더머그로 오고 그러든 안 해요? {그 이제 음복을 하는데 그 동네에서 뭐 떡이랑 적이랑 얻어먹으러 오고 그러지는 안 해요?}

10231 # 어더머그로는 안 오고 인자 조깨 가참께 고 사라르고, 조깨 산 사람, 우리가 가따 주제. {얻어먹으려는 안 오고 이제 조금 가까운 그 사람하고, 조깨 산 사람에게, 우리가 가져다 주지.}

10231 @ 그날 저녁게요? {그날 저녁에요?}

10231 # 나제, 아쳐그. {낮에, 아침에}

10231 @ 그 다음날? {그 다음날?}

10231 # 아쳐그, 저녁그 지양을 모셔쓰면 지양 모신네이 그러고 가따 주지요. 시방은 어더머그로 오는 베비 업써. 시방은. {아침, 저녁에 제사를 모셨으면 제사 모셨네 그렇게 말하고 갖다 주지요. 지금은 얻어먹으러 오는 법이 없어. 지금은.}

10231 @ 아니 엔나레. 사랑방가튼 데서. {아니 옛날에. 사랑방같은 데에서}

10231 # 엔나레 사랑방가튼데서 단자온다고 기양 메깁디서 와. 막 장난헐라고 어쩔 때는 떡찌 노머는 떡 시루를 가져가부리고 그러 사랑꾼드리. {옛날에 사랑방가튼 데에서 단자온다고 그냥 몇간데에서 와. 막 장난하러고 어떨 때는 떡찌 놓으면 떡 시루를 가져가버리고 그러, 사랑꾼들이.}

10231 @ 영, 그 아직 지사도 안 지낸는디? {영, 그 아직 제사고 안 재냈는데?}

10231 # 한번 마룽으다가 떠글 찌노코 다 인자 상노코 떡 개서 상으다 놀란개 떡 시루가 업써. 아이고, 이 떡드를 머흘라간디, 저그 타관 사랑꾼더리 떡 시루

를 들고 가부썰. 데울 사라미. 나중에 아라본개. {한번 마루에다 떡을 썰놓고 다 이제 상놓고 떡 괴서 상에다 놓으려고 하니까 떡시루가 없어. 아이고, 이떡들을 뭐하려고, 저기 타관 사랑꾼들이 떡 시루를 들고 가버렸어. 데울 사람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10231 # 그리가꾸는 우리 하라부지가 가서 기양 이 놈들 몽둥이로 쳐 주긴다고 너므 어른 떡해논 거슬 그랜따고 혼개로 다 도망가부리고 누가 만날라고 호간디. 호호 허허.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가서 그냥 이 놈들 몸둥이로 쳐죽인다고 남의 어른 떡해놓은 것을 그랬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누가 만나

10231 @ 그러면 떡또 업씨 그러면 지사를 지내겐네요. {그러면 떡도 없이 그러면 제사를 지냈겠네요?}

10231 # 그때는 그러치. 그리고 그때 시상만 해도 장난도 시르고 그랜는디 지그문 도둑노미라고 그러. 도둑노브로 모라간꼬. 탁또 자바머그먼 말도 업꼬 그랜는디 시방은 한 마리만 자바다 머거도 도둥뇌미여. {그때는 그렇지. 그리고 그때 세상만 해도 장난도 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도둑놈이라고 그러. 도둑놈으로 몰아갖고. 닭도 잡아먹으면 말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마리만 잡아다 먹어도 도둑놈이여.}

10232 @ 고 인제 지사 모실 때는 머슬 준비를 해요? {그 이제 제사 모실 때는 무엇을 준비를 해요?}

10232 # 그냥 머 실과 머 배, 사과, 꼬감 그렇질 다 허고 인자 넘새도. {그냥 뭐 실과 뭐 배, 사과, 꽃감 그런 것을 다 하고 이제 나물도.}

10232 @ 넘새는 먼머요? {나물은 무엇 무엇이요?}

10232 # 꼬사리너물, 무시너물, 숙찌, 뚜부 지지고 머 생선가튼 거 지저노코 굴비는 꺾노코, {고사리나물, 무나물, 숙지, 두부 지지고 뭐 생선같은 것 지저놓고 굴비는 꺾놓고.}

10232 @ 생서는 먼머슬 뵈요? {생선은 무엇무엇을 뵈요?}

10232 # 생서는 머 멩태나 거 흥해나나 그러거 다 지저노코 뚜부 지저노코 {생선은 뭐 멩태나 그 흥어나 그런거 다 지저놓고 두부 지저놓고.}

10232 @ 고 인제 지사 음식게 노며는 안 되는 거뜨리 머가 이썬요? {그 이제 제사 음식에 놓으면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10232 # 지사 음식게 안 논거슨 머슬 안 논다고 그러등만. 몬노케 호딩만. {제사 음식에 안 놓는 것은 뭇을 안 놓는다고 그러더만, 못 놓게 하더만.}

10232 @ 머슬, 비느리 업꼬 머 이런 거슨? {무엇을, 비늘이 없고 뭐 이런 것은?}

10232 # 그런거슨 상과니 업꼬 호박너무를 안 논다고 그러드요. 호박너무를.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호박나물을 안 놓는다고 그러데요. 호박나물을.}

10232 @ 호박너물? 왜 그런대요? {호박나물? 왜 그런대요?}

10232 # 그건 몬노케 호대요. 호박너무른 지양 모신디 안 논다고. 호박적또 몬 부

치게 하고, 저네 어른드리 그러데요. {그것은 못 놓게 하데요. 호박나물은 제사 모신데 안 놓는다고. 호박적도 못 부치게 하고, 전에 어른들이 그러데요.}

10233 @ 그 다으메 지사모실 때 어떤 사라믄 몸 모시게 하고 고린 거슨? {그 다음에 제사모실 때 어떤 사람은 못 모시게 하고 그런 것은?}

10233 # 저 사람주근 디 가따 온 사람. 구즌디 가따와따고 지앙을 몸 모시게 혀. {저 사람 죽은 데 갔다 온 사람. 구즌 데 갔다 왔다고 제사를 못 모시게 해.}

10233 @ 음, 그런 사라믄요? {음, 그런 사람은요?}

10233 # 귀시니 몸 드리오게 혼다고 테렌디 가따와따고 몸 드리오게 혼다고 몸 모시게 하더라고.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한다고 더러운 데 갔다왔다고 못 들어오게 한다고 못 모시게 하더라고.}

10233 @ 요새는 제사 모시는 방버비 옛날하고 머 달라진게 뭐가 이써요? {요새는 제사 모시는 방법이 옛날하고 뭐 달라진게 뭐가 있어요?}

10233 # 달라져부런찌. {달라져 버렸지.}

10233 @ 어떻게 달라져써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10233 # 엔나레는 골고로 하고, 우리 때는 기양 내 음식, 농사진 거스로 머슬 하고 착시리 힌는디 지그믄 다 사다와버리고 그런개 달라져버릴쥌. 그냥 머 제기고 떼기고 기냥 조다 사다가 허드요. 우리는 안적까지 그리 안 해봤는디 사다 모시버려. 우리 자근집도 본개. 그리서 아이코 이러케 시상이 달라져버릴따. 퍼느게만 살라고 하고 달라져버릴써. {옛날에는 골고루 하고, 우리 때는 그냥 내 음식, 농사진 것으로 무엇을 하고 착실하게 했는데, 지금은 다 사다와버리고 그러니까 달라져 버렸쥌. 그냥 뭐 적이고 떡이고 그냥 모두 사다가 하데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해봤는데 사다 보셔버려. 우리 작은집도 보니까. 그래서 아이구, 이렇게 세상이 달라져버렸다. 편하게만 살라고 하고 달라져 버렸어.}

10232 @ 제사 때는 떠근 어떤 떡드를 해요? {제사 때는 어떤 떡들을 해요?}

10232 # 제사 때는 인제 방지사는 이런 시루떡만 호는디 배깁지사는 막 흰떡, 인절미, 또 시루떡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지끄믄 사다와버린개 한가지고 안와보고 그러등마뇨. 안 지내부러, 지사도. 이럴테면 다섯 뽕상이면 젤로 어린 지사 때 기냥 다섯뽕상을 다 지내버려. 지사도 안 지내야. {제사 때는 이제 방제사는 이런 시루떡만 하는데 밖에제사는 막 흰떡, 인절미, 또 시루떡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지금은 사다와버리니까 한 가지고, 안 와보고 그러더만요. 안 지내버려. 제사도. 이럴테면 다섯 봉상이면 제일 어린 제사 때 그냥 다섯 봉상을 다 지내버려. 제사도 안 지내.}

10233 @ 합동으로요? {합동으로요?}

10233 # 합동으로 지내부리더라고. 아, 어떻게 이러케 합동으로 지내냐? 우리 자

근집보텀도 지사가 니 봉상인디, 자근아부지 때 하루저녁게만 소리를 호고는 소리를 안혀. {합동으로 지내버리더라고. 아, 어떻게 이렇게 합동으로 지내냐? 우리 작은집부터도 제사가 네 봉상인데, 작은아버지 때 하룻저녁에만 소리를 하고는 소리를 안 해.}

10233 # 그리서 아이, 오늘 저녁그 사흘 초이튼나린디 또 올 열산날 인찌. 그러더니 안 지내 성, 오늘 저녁그만 지내고 안 지내버려. 아이고 이럴 쭈가 인찌? 아이고 그러지 마. 그도 내 정성대로 밥 한그럭인개 히나. 안 히라. 그러더라고. 안지내버려. 수채 안 지내버린 사람도 인찌. 수채 안 지내버리더라고 지사를. {그래서 '아이, 오늘 저녁에 사흘 초이튼날인데 또 올 열사흘날 있지?' 그랬더니 '안 지내 형, 오늘 저녁에만 지내고 안 지내버려.' '아이고, 이럴 수가 있어? 아이고 그러지 마. 그래도 내 정성대로 밥 그럭이니까 밥 그릇이니까 해 놔.' '안 해요.' 그러더라고. 안 지내버려. 완전히 안 지내버리더라고 제사를.}

10233 @ 안 지낼라고 교회다닌다등만. {안 지낼려고 교회다닌다등만.}

10233 # 그래가지고 교회가서, 안 지낼라고 교회간디 음서근 장만해갠꼬 교회꾼들 오라고 해가꼬 뽕 돌려안져서 쳐묵더라고. 여 뒤희비도 본개. 이런 마자주 글노므 세상이 이쓰까?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안 지낼려고 교회가는데 음식은 장만해갠꼬 교회꾼들 오라고 해가지고 빙 돌려안져서 쳐먹더라고. 여기 뒷집도 보니까. 이런 맞아죽을 놈의 세상이 있을까?}

10233 # 그런개 여그 저 티배블 영개미 튼디, 티밥쟁이라고 혼 지븐 영개미 주건는디 인자 메누리가 서울서 산디 조다 음서글 산는가 힌는가 다 히가꼬와서 인자 천뽕지사다고 지앙을 모시러 완는디 씨어마이가 괴회를 다닌디 큰 상가따와서 그럭채 다 노터래요. 그리서 먼 지사를 어머니는 저러케 지낼란고 호고 아더리 쳐다봤떠야. {그러니까 여그 저 티밥을 영감이 튼데, 티밥쟁이라고 한 집이 영감이 죽었는데 이제 며느리가 서울에서 사는데, 모두 음식을 샀는가 했는가 다 해가지고 와서 이제 첫방제사라고 제사를 모시러 왔는데, 시어머닌가 괴회를 다니는데 큰 상 갖다와서 그릇채 다 놓터래요. 그래서 먼 제사를 어머니는 저렇게 지낼란가 하고 아들이 쳐다봤대.}

10233 # 그때떠니 교회꾼드리 꾸적꾸적 괴회꾼드리 오터래요. 그러더니 뽕 돌려안져서 먹거버리터래야. {그랬더니 교회꾼들이 꾸역꾸역 교회꾼들이 오터래요. 그러더니 빙 돌려안져서 먹거버리터래.}

10233 # 공개 그 사람덜 이썬 저그는 안마또 아느고 보내노코는 어머니가 너무나 못뻔 지슬흔다고 아버지를 생각코 음서글 해쥬 괴회꾼들 줄라고 음식글 해까디 이러케 줄레가 암만 잘몬이날따고 호지만 이럴 쭈가 이썬야고 이 다메는 지사고 먹고 뽕지리고 나 받거름 안 흘틴개 어머니 혼차 그러고저러고 호라고 호더니 오년가늘 다시 안 와부러. 아더리. 서울서 산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있을 적에는 아무런 말도 안하고 보내놓고는 어머니는 너무나 못

된 것을 한다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음식을 했지, 교회꾼들 주려고 음식을 했을까, 이렇게 줄레가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이럴 수가 있어야고 이 다음에는 제사고 뭐엇이고 명절이고 나 발걸음 안 할테니까 어머니 혼자 그러고 저러고 하라고 하더니 오년간을 다시 안 봐버려. 아들이. 서울에서 사는데.}

10233 @ 그러니까 어머니 계꾼드리? {그러니까, 어머니 계꾼들이?}

10233 # 교회꾼들. 교회꾼들. 교회. 그 사람들만 가따가 메기버리고 지사란 거슨 뵈비 업더래. 그런개로 기도하면 먹는다고 혼다냐? 가꼬 아다리 안 와부런 당개요. 처나 뭇똥 노르 버르쟁이더를 혼단개. 교회 땡김선. {교회꾼들. 교회꾼들. 교회. 그 사람들만 갖다가 먹여버리고 제사란 것은 법이 없더래. 그러니까 기도하면 먹는다고 한다냐? 그래가지고 아들이 안 와버린다니까요. 천하에 못된 놈의 버르장이들을 한다니까. 교회다니면서.}

### 1.3. 생업활동

#### 1.3.1. 논농사

10301 @ 이제 거 저기 뭐야 논 농사 짓는 거, 고걸 좀 여쭙볼게요. {이제 거 저기 뭐야, 논농사 짓는 거, 그것을 좀 여쭙볼게요?}

10301 # 벼, 나라기 이쓰면 그 품종드리 여러 개 인쥬? 어떤 품종이 이썬요? {벼, 나라기 있으면 그 품종들이 여러 개 있어요?}

10301 # 머, 요새 이반 머다 농사를 놔버린지가 오래라, {뭐, 요새 거의 모두 농사를 놔버린지가 오래되어서.}10301

10301 @ 엔나레, 엔나레 이썬편 거. {옛날에, 옛날에 있었던 거.}

10301 # 엔나레는 그냥, 거 머시냐 마니난 거시, 그거보고 먼 나라기라고, 통일벼, 통일벼, 머 일반 벼, 차나락 그랜는디, 요새는 머 조다 달라졌띠요. 나락 이르미. {옛날에는 그냥, 거 뭇이나 많이 난 것이, 그것보고 먼 나라기라고, 통일벼, 통일벼, 뭐 일반 벼, 차나락 그렸는데, 요새는 뭐 모두 달라졌다요. 나락 이름이.}

10301 @ 그런데 근디 고 그거또 일찍 나는 게 인쥬 느께 나는 게 인쥬? {그런데 그런데 고 그것도 일찍 나는 것이 있고, 늦게 나는 것이 있고?}

10301 # 통일벼가 일찍 나. {통일벼가 일찍 나.}

10301 @ 일찍 나는 거슬 보고 무슨? {일찍 나는 것을 보고 무슨?}

10301 # 오나라. {올나라}

10301 @ 느께 나는 거슨요? {늦게 나는 것은요?}

- 10301 # 늦게 는나라. {늦게, 늦나라.}
- 10301 @ 오나라 호고 는나라 호고 두 개만 이썬요? 머 중간에 나고 고런 거는?  
{올나라 하고, 늦나라 하고 두 개만 있어요? 뭐 중간에 나고 그런 것은?}
- 10301 # 남품벼라고 호든가 그런거는 남품벼는 중간에 인때요. 요새는 남품벼가  
마니 나온다고 호드요. 그노미. 쌀도 그노미 조코. {남품벼라고 하던가, 그  
런 것은 남품벼는중간에 있대요. 요새는 남품벼가 많이 나온다고 하대요.  
그 노미. 쌀도 그 노미 좋고.}
- 10302 @ 이 나라 벼 농사를 짓는 거슨, 맨 처음에 어떠케 시자글 해요? {이 나라,  
벼농사를 짓는 것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요?}
- 10302 # 맨 처음에는 담과따가 못짜리를 호지요. {맨 처음에 담갓다가 못자리를 하  
지요.}
- 10302 @ 맨 처음에 담그는 거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담그는 것을 보  
고 뭐라고 그래요?}
- 10302 # 종자 담근다고 그래요. 나라 종자. {종자 담근다고 그래요. 나라 종자.}
- 10302 @ 나라 종자 담근다. {나라 종자 담근다.}
- 10302 # 그때는 머 판뺨또 업꼬 요샌개 파니 생긴제, 판뺨또 업고 그냥 노늘 가라  
갇꼬 무를 대서 씨리로 밭마요. 막 밭브면 납짜호저 부려. {그때는 뭐 판뺨  
도 없고, 요새니까 판이 생겼지. 판뺨도 없고 그냥 논을 갈아갇고 물을 대  
서 씨리로 밭마요. 막 밭으면 납작해져 버려.}
- 10302 # 그러면 이제 당그래로 글그머는 매꼬므지 아니요? 그러면 인자 고를 한  
두럭씩 밭마갇꼬 고를 쳐서 와따가따 흘 정도로 맨드라갇꼬는, 걸따가 인제  
오늘 히쓰면 모리썸 무를 대면 딱 가라 안찌 아니요? 땡이 가라안지면 나라  
글, 썸나라글 건지갇꼬 뿌려어. {그러면 이제 당그래로 굶으면 반듯하지 않  
아요? 그러면 이제 골을 한 두럭씩 밭아갇고 골을 쳐서 왔다갔다 할 정도로  
만들아갇고는, 거기다가 이제 오늘 했으면 모레썸 물을 대면 딱 가라얏잖아  
요? 땡이 가라얏으면 나라글, 썸나라글 건져갇고 뿌려.}
- 10302 # 뿌리고는 물만 대노머는 다 썸기 난디 지그몬 파네다가 혼개 파네다가 혼  
개 못짜리파네다가 히서 호글 더퍼갇꼬 거다 또 고를 저서 네 파늘 네 개씩  
저서 양썸글 노아갇꼬는 거시기를 대썸기나 철싸나 이리케 화를 매요. 화를  
매서 비닐을 씨워나요. {부리고는 물만 대놓으면 다 썸이 나는데 지금은 판  
에다가 하니까 판에다가 하니까 못자리판에다가 해서 흙을 덮어가지고 거기  
다 또 골을 지어서 네 판을 네 개씩 저서 양썸글 놓아갇고는 거시기를 대썸  
이나 철싸나 이렇게 활을 매요. 활을 매서 비닐을 씨워놔요.}
- 10302 @ 고 인제 엔나레는 썸나라근 무레다가 얼마나 담가요? {그 이제 옛날에는  
썸나라글은 물에다가 얼마나 담가요?}
- 10302 # 일썸일. 일썸일 담가놔따가 건지서 못짜리 히는 대미는 {일썸일. 일썸일  
담가놔다가 건지서 못자리 하는 다음에는}

10302 @ 고 인제 썬나라글 해서 몬짜리를 해노면 몬짜리를 해쓸 때 한 얼마 정도나 해놔요? {그 이제 썬나라글 해서 못자리를 해놓으면 못자리를 했을 때 한 얼마 정도나 해놔요?}

10302 # 한 다리 돼야 모가 나와요. 아 아니, 모를 심거요. 시나브로 인자 썬기 나서 그 노미 무를 썬드썬드 해노면 자꼬 커지머는 큰대로 무를 대야 뽕쫓기 이만침씩 비게 히서 한 달 정도 되면 이러케 크면 소니로 뽕바다가 {한 달 이 돼야 모가 나와요. 아, 아니, 모를 심어요. 천천히 이제 썬기 나서 그 노미 물을 자박자박 해놓으면 자꾸 커지면 큰대로 물을 대. 뽕족 이만큼씩 베게 해서 한 달 정도 되면 이렇게 크면 손으로 뽕아다가.}

10302 @ 소노로 뽕는 거슬 머 혼다고 그래요? {손으로 뽕는 것을 뭐 한다고 그래요?}

10302 # 모쩰다고 그래. 모찌로 가자고 그래. {모쩰다고 그래. 모찌러 가자고 그래.}

10302 @ 그러케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10302 # 요만썬크게 문꺼가꼬 인자 나락, 논 죄다 썬기질해서 썬리질 히서 골라노코 인자 심굴라고 흘 썬그, 한 춤, 하나 문끈 거시 추미요. 몬짜리 한 춤씩, 윈 노네다 뿌리노체. {이만씩 하게 묶어갖고 이제 나각, 논 모두 썬기질해서 썬리질 해서 놀라놓고, 이제 심으려고 할 적에, 한 춤, 하나 묶은 것이 춤이요. 못자리 한 춤씩, 온 논에다 뿌려놓지.}

10302 # 뿌리노면 이러케 사람드리 여남명 서서 주를 떼 사라미 두게 이썬면, {뿌려놓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여남은 명 서서 줄을 떼 사람이 독에 있으면}

10302 @ 고 주리 떼 주리예요? {그 줄이 무슨 줄이예요?}

10302 # 모쥼. 모쥼를 이만큼 떠워노면 요만침씩 요만침씩 페르리 나썬요. 빨간 페를 표해논 디다가 다 한 포기씩 썬리지요. {못쥼. 못줄을 이만큼 떠워놓으면 이만큼씩 이만큼씩표를 했어요. 빨간 표를, 표해놓은 데에다가 한 포기씩 썬리지요.}

10302 # 시방은 기계로 혼개 머. {지금은 기계로 하니까 뭐.}

10302 @ 거 인자 그러케 해가지고 시머 노으면 나중에 인제 또 푸리. {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심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또 풀이}

10302 # 푸리 나. 또 호메이로 매야여. 호맹이로. {풀이 나. 또 호미로 매야 해. 호미로.}

10302 @ 풀 매는 거를 머라고 그래요? {풀 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10302 # 논 매로 가자고 그래. 논매로. 논매로 가자고 호고, 두벌 매고 초벌 매고, 노늘 이러케 매노코는. {논 매러 가자고 그래. 논매러. 논매러 가자고 하고, 두벌 매고, 노늘 이렇게 매놓고는}

10302 @ 뎀 버니나 매요? {뎀 버니나 매요?}

10302 # 세번 메요. 메는 대미는 인자 세버는 막 두레를 대요. 두레. 동네 사람들



리 다 반 사람더리 남자덜 치고는 다 나가갸꼬 뒤에서는 구설 치고 아페서는 막 어퍼져서 막 요로케 막 풀 뽀브문서 주문서 머라고 흠선 기양 노래 부름선 그러등마뇨. 두레맹이로. 두레메로 가네. 두레메로 가네 그러요. {세 번 매요. 매는 다음에는 이제 세 번은 막 두레를 해요. 두레. 동네 사람들이 다 반 사람들이 남자들 치고는 다 나가갸고 뒤에서는 굿을 하고 앞에서는 막 엮어져서 막 이렇게 막 풀 뽀브문서 주문르면서 뽀이라고 하면서 그냥 노래 부르면서 그러더만요.}

10302 # 그러면 인자 한 대새 기양 원동네를 다 그러케 윈 논바다글 다 반바니 반바니 그러케 땡김선 메버리먼 깨갸히요. {그러면 이제 한 댓새 그냥 온동네를 다 그렇게 온 논바닥을 다 반반하게 반반하게 그렇게 다니면서 매버리먼 깨갸해요.}

10302 # 그런 대미는 머, 지그문 야기라도 흐지마는 그때는 약또 업찌요. {그런 다음에는 뽀, 지금은 약이라도 하지만 그때는 약도 없지요.}

10302 @ 그리고 나서 가으리 되면 {그리고 나서 가을이 되면}

10302 # 그러면 인자 가으리 돼서 나라기 무드리 올라오머는 피를 뽀등마뇨. 피 나와, 푸리. {그러면 이제 가을이 돼서 나락이 무드리 올라오면 피를 뽀드만요. 피 나와, 풀이.}

10302 @ 피는 먼 버니나 뽀바요? {피는 몇 번이나 뽀아요?}

10302 # 한번 뽀바버리먼 인자 업써. 깨까시 뽀바버리먼. 피 뽀고는 놔두먼 누러먼 비여. {한번 뽀아버리먼 이제 없어. 깨갸이 뽀아버리먼. 피 뽀고 놔두먼 누렇게 되면 베어.}

10302 @ 벼하고 피가 구부니 잘 돼요? {벼하고 피가 구분이 잘 돼요?}

10302 # 하양. 피는 나락 모가지 안가트고 키도 클뿌니 아니라 싸래기 매니여. 피 모가지가. {하양. 피는 나락 모가지 안 갸고 키도 클뿐 아니라 싸래기 갸아. 피 모가지가.}

10302 @ 그런디 엔나레 배 고평 때는 피도 머겸따고 하는데? {그런데 옛날에 배 고평 때는 피도 먹었다고 하는데?}

10302 # 피 그놈 뽀바다가 찌어서 죽 끄리면 얼마나 끄습고 마시따고. 해해해. {피 그놈 뽀아다가 찢어서 죽 끓이면 얼마나 끄고소하고 맛있다고. 해해해.}

10302 @ 피죽 끄린다고. {피죽 끓인다고.}

10302 # 예, 피죽 거놈 찌갸꼬 바싹 말려서 찌먼 노래갸꼬 끄사요. {예. 피죽 그놈 찌갸고 바싹 말려서 찌먼 노래갸고 끄소해요.}

10302 @ 그런데 머글 거시 업쓰면 피주기라도 끄리머겸따고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면 피죽이라고 끓여먹었다고요?}

10302 # 하양, 머글 거시 업쓰면 그런 거 끄리먹꼬 저 주장으 수를 흐면 술찌갱이 어더다가 모다 끄리먹꼬 {하양, 먹을 것이 없으면 그런 것 끓여먹고 저 주

장의 술 하면 술찌꺼기 얻어다가 모두 끓여먹고.}

10302 @ 그러면 피도 곡식 일종이네? {그러면 피도 곡식 일종이네?}

10302 # 지금은 세상이 조탄개요. 엔나레는 고놈도 서로 뽀바다가 해무글라고 기양. {지금은 세상이 좋다니까요. 옛날에는 그 놈도 서로 뽀아다가 해먹으려고 그냥.}

10302 @ 고 인제 벼를 베면 벼를 베는 거를 보고 머? {그 이제 벼를 베면, 벼를 베는 것을 보고 뭐?}

10302 # 나락 비러간다고 그러. 나시로. 그래갸꼬 나락. 나시로 비여갸꼬 인자 너러노면 말르자내요? {나락 베러간다고 그래. 낫으로. 그래갸고 나락. 낫으로 베어갸고 이제 넣어놓으면 마르잖아요?}

10302 # 나라글 또 뭉끄로 가. 뭉끄로 가서 인자. {나락을 또 묶으러 가. 묶으러 가서 이제.}

10302 @ 아, 그러면 무조건 베가지고 쭉 너러와? {아, 그러면 무조건 베가지고 쭉 넣어와?}

10302 # 너러와. 쭉 너러노면 인제 나래기 말르머는 가서 이만씩 하게 한 다발씩 뭉끄지요. {넣어와. 쭉 넣어놓으면 이제 나락이 마르면 가서 이만씩 하게 한 다발씩 묶으지요.}

10302 @ 머치리나 말리야 돼요? {머칠이나 말려야 돼요?}

10302 # 그런개 나리 조머는 한 나잘 마르고, 나리 구즈면 어퍼따 뒤지버따 흐면 여를도 가고 그러. 비가 오면 저저부리면 뒤지브서 말리고 또 비가 오면 또 뒤집꼬. {그러니까 날이 좋으면 한 자절 마르고, 날이 구즈면 얹어다 뒤집었다 하면 열흘도 가고 그래. 비가 오면 젖어버리면 뒤집어서 말리고 또 비가 오면 또 뒤집꼬.}

10302 @ 그런데 요즈메 탈곡해가지고 도로에다 마니 말리드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탈곡해가지고 도로에다 많이 말리드라고요?}

10302 # 예, 요새는 기계로 막 흐던개. {예, 요새는 기계로 막 하더니까}

10302 @ 말리는데 갑작기 비가 와가지고 전부다 저전썩요, 그러면 괜찬나요? 또 말리기만 흐면. 썩 안트쥬? {말리는데 갑작기 비가 와가지고 전부다 젖었어요, 그러면 괜창아요? 또 말리기만 하면, 썩 안트쥬?}

10302 # 괜찬나요. 싸글 트게는 인자 오래 돼야 후딱 나리 조면 다시 말리면 괜찬느고 한 대썰, 한 야니레 비가 오면 썩 나. 미테서. 나라기 하게 썩 도다. 모다 그런거슨 쌀도 안 만나. 모썩 흐글흐글 바블 해노면. {괜창아요. 싸을 트게는 이제 오래 돼야 빨리 날이 좋으면 다시 말리면 괜창고 한 댓세, 한 야니레 비가 오면 썩 나. 밀에서. 나락이 하얗게 썩 돌아. 모두 그런 것은 쌀도 안 맛나. 못 썩. 흐글흐글 밥을 해놓으면.}

10302 @ 인제 묵꺼가지고 묵꺼서 어떠케 해요? {이제 묶어가지고 묶어서 어떻게 해요?}

- 10302 # 묵겨서 또 가리를 해놔. 후딱 묻 가져오면. {묵어서 또 가리를 해놔. 빨리 못 가져오면.}
- 10302 @ 가리는 어떠케 해요? {가리는 어떻게 해요?}
- 10302 # 요로케 요로케 나락. 거서기 다발을 요로케 노코 요로케 노코 흐면 네 가지가 되거덩요? 모가지가 여거도 인꼬 또 여그도 인꼬. 히노면 가리를 히노코년 고노를 인자 지기로 또 소 인는 사라믄 기냥 소로 가지고 오지마는 소 업는 사라믄 지기로 다 저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나락. 거서기 다발을 이렇게놓고 이렇게 놓고 하면 네 가지가 되거든요? 모가지가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해놓으면 가리를 해놓고는 그 놈을 이제 지게로 또 소 있는 사람은 그냥 소로 가지고 오지만 소 없는 사람은 지게로 다 저와야 돼요.}
- 10302 @ 어디 집 마당으로? {어디 집 마당으로?}
- 10302 # 마당으로 저다가 막 나락가래를 집채덩이맹이로, 나락가리도 또 혼 사라미 인썸. 아무라도 묻 혀. 뽕 똥고름호게 쟁이노코는 인자 또 홀태로 홀터야지요. 홀태가 인썸 또. {마당으로 저다가 막 나락가래를 집채덩이처럼, 나락가리도 또 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라도 못 해. 뽕 동그랗게 쟁이놓고는 이제 또 홀태로 훑어야지요. 홀태가 있어 또.}
- 10302 # 나락 농사 마는 사라믄 여남명 드러서서 홀트고 인자 농사 쪼깼 사라믄 하루 이틀 기양 홀터버리면 업꼬. {나락 농사 많은 사람은 여남은 명 드러서서 훑고 이제 농사 조금인 사람은 하루 이틀 그냥 홀터버리면 업고.}
- 10302 @ 고 인제 홀태로 홀꼬, 그러다가 인자 홀태가 업썸지고 나서 그 다매는 머가 나왓썸요? {그 이제 홀태로 훑고, 그러다가 이제 홀태가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왓어요?}
- 10302 # 홀태가 업썸지고 나서는 호룽기, 발로 이리키 이리키 발로 볼브면 막 이리키이리키 흐면 떠러진 거. 그거시 호룽기. {홀태가 없어지고 나서는 호룽기, 발로 이렇게 이렇게 발로 밟으면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떨어진 것. 그것이 호룽기.}
- 10302 # 호룽기 드러간개는 그냥 기계가 나와버린개 머. 해해. {호룽기 들어가니까는 그냥 기계가 나와버리니까 뭐. 해해.}
- 10302 @ 그러지요. 이리케 베를 베고 이리케 홀태로 홀꼬 이런 거슬 보고 뭐 한다고 그래요? {그러지요. 이렇게 벼를 베고 이렇게 홀태로 훑고 이런 것을 보고 뭐 한다고 그래요?}
- 10302 # 그거는 인자 나락 훑는다고 그리요. {그것은 이제 나락 훑는다고 그래요.}
- 10302 @ 고론 거슨 인자 타작? {거런 것은 이제 타작?}
- 10302 # 타작큰다 소리는 인자 북쇠미를 두드리서 타작이고, 이거는 훑는다고 하지요. {타작한다 소리는 이제 북쇠미를 두드리서 타작이고, 이거는 훑는다

고 하지요.}

10302 @ 북쇠미? {북쇠미?}

10302 # 예, 북쇠미 그 홀테 미티가 북쇠미가 마니 나요. 모가지 떠러지고 그러면 막 도리깨로 두드린 거슨 타자기고. {예. 북쇠미. 그 홀테 밑에가 북쇠미가 많이 나요. 모가지 떨어지고 그러면 막 도리깨로 두드린 것은 타작이고.}

10302 @ 아, 도리깨로 두드리는 거? {아, 도리깨로 두드리는 거?}

10302 # 애. {예}

### 1.3.1. 논농사(SJBJS\_33)

10301 # 오신 피수니른 아직 때 오면 그양 나제는 그냥 피고너다고 별떡 눅떠라고. {오신 교수님은 아침 때 오고는 낮에는 그냥 피곤허다고 별떡 눅떠라고.}

10301 # 허허허. {허허허.}

10304 @ 게 인자, 논농사 계속 여쭙볼께요. 농사지을 때 농기구드른 뭐가 이썬요? {그러니까 인자, 논농사 계속 여쭙볼께요. 농사지을 때 농기구들은 뭐가 있어요?}

10304 # 쟁:기, 고런 거시쥬. 쟁기. {쟁기, 그런 것이쥬. 쟁기.}

10304 # 쟁기로 강개. {쟁기로 가니까.}

10304 @ 예. {예.}

10304 @ 그 다으메 인제 고 지베 이르케 또 머 땅 파:고 머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자 집에 이렇게 또 뭐 땅 파고 뭐 이러는 거?}

10304 # 땅 파능 걸 췍이. {땅 파는 것 췍이.}

10304 @ 애. {예.}

10304 # 샅. {샅.}

10304 @ 애. {예.}

10304 @ 또 쪼그마능 거? {또 조그만 것?}

10304 # 호맹이. {호미.}

10304 @ 그 다메? {그 다음에}

10304 # 날. {낫.}

10304 @ 고 뽕쪼개가꼬 이러케? {그 뽕쪼해갓고 이렇게?}

10304 # 꼬:깁이쥬. 뽕쪼해가꼬는 꼬깁이. {곡괭이쥬. 뽕쪼해갓고는 곡괭이.}

10304 @ 그 다메 저그? {그 다음에 저기?}

10304 # 납짜궁 거슨 그냥 췍:이. {납작한 것은 그냥 췍이.}

10304 @ 고 두엄짜루 머 이런데 파내고? {그 두엄자리 뭐 이런 데 파내고?}

10304 # 소시랑. {소시랑.}

10304 @ 애. {예.}

10304 # 소시랑. {소시랑.}

10304 @ 애. {예.}

10304 # 호꾸. {호크.}

10304 @ 애. {예.}

10304 # 뒤엄 파넨 거슨. {두엄 파넨 것은.}

10305 @ 노네다가 물, 물대고 그럴 때넌 어떠케 무를 대요? {논에다가 물, 물대고 그럴 때는 어떻게 물을 대요?}

10305 # 그냥 순문 그 아네 개우리 이썰요. {그냥 수문 그 안에 개울이 있어요.}

10305 @ 애. {예.}

10305 # 개우리 이쓰면 인제, 노니 요게 기머는, 개우리 여가 이쓰면 물꼬를 내놔요, 노네 드리 가게. {개울리 있으면 이제, 논이 이것이 그것이며는, 개울이 여기가 있으면 물꼬를 내놓아요. 논에 들어가게.}

10305 @ 애. {예.}

10305 # 요마:느게 구머글 내노머는... {이만하게 구멍을 내놓으면...}

10305 # 인자 물델라면 인자 가서 순무늘 이러케 마개를 빼버리면 무리 드리 가고. {이제 물을 대려면 수문을 이렇게 마개를 빼버리면 물리 드리 가고.}

10305 @ 예. {예.}

10305 # 인제 논 무럴 구만 델라면 그노멸 각 마그면 무리 안 드리 가고 그러요. {이제 논 물을 그만 대려면 그 놈을 짝 막으면 안 들어가고 그래요.}

10305 @ 고, 엔나레 인제 고런 물꼬가 업꼬 그래쓸 때, 그래쓸 때는 어떠케 헨써요? {그, 옛날에 이제 그런 물꼬가 없고 그랬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10305 # 물꼬가 업꼬 그럴 때는 그양 막 우게서 푸머요. 기계로 막. {물꼬가 없고 그럴 때는 그냥 막 위에서 품어요. 기계로 막.}

10305 @ 기계로? {기계로?}

10305 # 애, 그. {예, 그.}

10305 @ 기계도 업쓸 때는? {기계도 없을 때는?}

10305 # 기계 업쓸 때는 기양 그 이러케 저 요마:넌 또 저 악꾸를 맨드라가꼬 또 랑서 이러케 이러케 두리서 양쪼그서 드리서 푸머올리고. {기계 없을 때는 그냥 그 이렇게 저 이만한 또 저 상자를 만들어갖고 도랑에서 이렇게 둘이서 양쪽에서 들어서 품어 올리고.}

10305 @ 아, 고로케 푸머 올리는 그렁 거슬 보고는 뭐라고? {아, 그렇게 품어 올리는 그런 것을 보고는 뭐라고?}

10305 # 바가:지라고 그러지요. 바가지로 푼다고. {바가지라고 그러지요. 바가지로 푼다고.}

10305 @ 응, 바가지로. {응, 바가지로.}

10305 @ 그먼 오늘 우리 바가지로 물 품으로 가세,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 바가지로 물 품으러 가세, 그래요?}

10305 # 예, 인재, 인재 노불 어들 찌그는? 혼차 모딩개. {예, 이제, 이제 낚을 얻을 적에는? 혼자 못하니까.}

10305 @ 애. {예.}

10305 # 오늘 우리 노네 물 품꼬 내이른 잔네야 품쏘. 그러게 푸마시를 헐씨요 늘. {오늘 우리 눈에 물 품고 내일은 자네 것 품세. 그렇게 품앗이를 했어요 늘.}

### 1.3.2. 밭농사

10307 @ 밭농사할 때는 거기에 어떤 곡식드를 해요? {밭농사할 때는 거기에 어떤 곡식들을 해요?}

10307 # 주로 콩얼 마니 싱그고 풀. {주로 콩을 많이 심고, 팔.}

10307 @ 예, {예.}

10307 # 또 인제:: 감자 노코. {또 이제 감자 놓고.}

10307 @ 응. {응.}

10307 # 저 하지감자 캐내고, 고구마릴 노코. {저 하지감지 캐내고, 고구마를 놓고.}

10307 @ 응. {응.}

10307 # 그래요. {그래요.}

10307 @ 여 여기는, 그 밭 또 빨::가케 김치담고 해능 거? {여 여기는, 그 밭 또 빨강게 김치담고 하는 것?}

10307 # 김치꺼리? {김치꺼리?}

10307 @ 예, 거 빨가케 해서. {예, 그 빨강게 해서.}

10307 # 꼬치? 꼬치? {고추? 고추.}

10307 @ 애. {예.}

10307 # 꼬치릴 여그는 주로 마니 해요, 밭농사. {고추를 여기는 주로 많이 해요, 밭농사.}

10308 @ 어 언제부터 거 꼬치를 그러케 해씨요? {어 언제부터 그 고추를 그렇게 했어요?}

10308 # 정월:: 그믐꼬, 음력 그믐꼬 모릴 부서가꼬. {정월 그믐께, 음력 그믐께 모를 부어갖고.}

10308 @ 예. {예.}

10308 # 다시 또 가시글 해요. {다시 또 가식을 해요.}

10308 @ 애. {예.}

10308 # 이 매::느게 인자 모럴 부서가꼬 이마느게 나머는 또 인자 하우스 소그다가. {이만하게 이제 모를 부어갖고 이만하게 나면 또 이제 하우스 속에.}

10308 @ 예. {예.}

10308 # 가시글 혀요. {가식을 해요.}

10308 # 바늘마는써근 거슬 조:다 왕기가꼬 고노미 인제 요마느게 크머는 뽀바서 인자 바트로 가요. {바늘만씩한 것을 모두 옮겨갖고 그 놈이 이제 이만 하게 크면 뽑아서 이제 밭으로 가요.}

10308 @ 응. {응.}

10308 # 그 엔나레는, 엔:나레도 꼬치럴. {그 옛날에는, 옛날에도 고추를.}

10308 # 엔나레는 그러케 아너고, 그냥, 씨를 뿌리썬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씨를 뿌렸어요.}

10308 @ 애. {예.}

10308 # 인자 거름 뿌리고 그 비료 뿌리고는 씨를 뿌리썬요. {이제 거름 뿌리고 그 비료 뿌리고는 씨를 뿌렸어요.}

10308 # 막 씨가씨럴 이러케 꼬치 씨럴. {막 씨앗을 이렇게 고추 씨를.}

10308 @ 예. {예.}

10308 # 뿌리면 이러케 나오면 자꾸 메지요. {뿌리면 이렇게 나오면 자꾸 매지요.}

10308 @ 그 엔나레도 꼬치를 여그는 그러케 마니 해썬요? {그 옛날에도 고추를 여기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10308 # 예, 여근 마:닐썬요. 엔나레도. {예, 여기는 많이 했어요. 옛날에도.}

10308 # 그럴썬도 요새가치는 마니 아네요. {그랬어도 요사이 같이는 많이 안 해요.}

10308 # 마니 따야 엔나레는 두 서서 가마니 딴는디, 요세는 마니헌 사람드른 막 오십가마이 팔십가마이 막 그러케 따지요. {많이 따야 옛날에는 두세 가마니 딴는데, 요세는 많이 한 사람들은 막 오십 가마니, 팔십 가마니 막 그렇게 따지요.}

10306 @ 그 꼬치 농사진꼬 며 이런 반농사지머는 풀드리 마:니 나자나요? {그 고추 농사짓고 뭐 이런 밭농사지머는 풀들이 많이 나잖아요?}

10306 # 응 받 메요, 메요. 메다가 인자 몬 이기면 막 크라묵소느로 지저버려. {응 밭 매요, 매요. 매다가 이제 못 이기면 막 크라묵손으로 지저버려.}

10306 @ 엔나레는? {옛날에는?}

10306 # 엔나레는 그냥 그노멸 다 메썬요. {옛날에는 그냥 그놈을 다 뺐어요.}

10306 @ 예 머스로 매요? {예 무엇으로 매요?}

10306 # 호맹이로. {호미로.}

10306 @ 호맹이로? {호미로?}

10306 # 호맹이로 놓 어더가꼬 멍개 인제 보리 싱귀서 보리 비고. {호미로 놓 얻

어갓고 매니까 이제 보리 심어서 보리 베고.}

10306 # 타작히노코 가면 그양 풀 따시 막 치어썩요. 푸리 치어서 그양 날마둥 거  
가서 안자서 맨다고 사라썩요. {타작해놓고 가면 그양 풀 때문에 막 치었어  
요. 풀이 치어서 그양 날마다 거기 가서 앉아서 맨다고 살았어요.}

10309 @ 그 보리::는 종류가 머 여러 종류가 이썩요? {그 보리는 종류가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10309 # 꺾보리허고 쌀보리허고 밀허고 세가지 헐썩요. {꺾보리하고 쌀보리하고  
밀하고 세 가지 했지요.}

10309 @ 미른 또 종류가 업썩요? {밀은 또 종류가 없어요?}

10309 # 밀, 밀 쥬류는 그냥 호미른 이러케 지러. 질고, 모가지가, 기양 조선미른  
짤막헤요. {밀, 밀 쥬류는 그냥 호밀은 이렇게 길어. 길고, 모가지가, 그냥  
조선밀은 짧아요.}

10309 @ 어 어떤뎐 미를 마니 키워썩요? {어 어떤 밀을 많이 키웠어요?}

10309 # 조선미를 마니 키워썩요. {조선밀을 많이 키웠어요.}

10309 @ 서선미를? {서선미를?}

10309 # 그 저, 호미른 어찌다가 같고. {그 저, 호밀은 어찌다가 같고.}

10309 @ 고 꺾보리허고 쌀보리가 인꼬. {그 꺾보리하고 쌀보리가 있고.}

10309 @ 애. {예.}

10309 # 또 머 보매도 같고. {또 뭐 봄에도 같고.}

10309 # 꺾보리, {꺾보리,}

10309 # 봄보리는 보매 저 설 쇠야서 같고. {봄보리는 봄에 저 설 쇠고서 같고.}

10309 @ 애. {예.}

10309 # 쌀보리는 기양 이르케 가으레 가라노면 인자 후년 보매 인자 커가꼬 패  
고. {쌀보리는 그냥 이렇게 가을에 갈아놓으면 이제 내년 봄에 이제 커가지  
고 피고.}

10309 @ 응. {응.}

10309 @ 그 꺾보리::? {그 꺾보리?}

10309 # 꺾보리리나 쌀보리나 똑까치 가라요, 같기는. {꺾보리나 쌀보리나 똑 같  
이 같아요. 같기는.}

10309 @ 보매도 같고, 가으레도 같고? {봄에도 같고, 가을에도 같고?}

10309 # 아니, 가으레는 봄보리배끼 안 가라요. {아니, 가을에는 봄보리밖에 안 갈  
아요.}

10309 @ 아, 가으레는? {아, 가을에는?}

10309 # 예, 봄보리가 일썩요 따로. {예, 봄보리가 있어요 따로?}

10309 @ 음, 쌀보리는요? {음, 쌀보리는요?}

10309 # 쌀보리도 가으레 같고, 꺾보리도 가으레 같고 그레요. {쌀보리도 가을에  
같고, 꺾보리도 가을에 같고 그레요?}



10309 @ 그 꺾뿌리나 쌀보리나 그냥 봄가으레 다 가는 거예요? {그 꺾보리나 쌀보리나 그냥 봄가을에 다 가는 것이에요?}

10309 # 보메는 안 갈고, 가으레 가라 논당개요? {봄에는 안 갈고, 가을에 갈아 놓는다니까요?}

10309 @ 가으레? {가을에?}

10309 # 예. {예.}

10309 @ 보메는 그러면? {봄에는 그러면?}

10309 # 봄보리가 인써 또 보메 가는 노미. {봄보리가 있어 또 봄에 가는 놈이.}

10309 @ 봄뿌리가? {봄보리가?}

10309 # 애. {예.}

10309 @ 고 고순 그먼 꺾뿌리나 쌀보리가 아니고요? {그 그것은 그러면 꺾보리나 쌀보리가 아니고요?}

10309 # 아니여. 그거또 똑가튼 보리가치 생긴디. {아니요. 그것도 똑같이 보리같이 생겼는데.}

10309 @ 애. {예.}

10309 # 쌀보리가치 생긴디 보메 가는 봄보리가 이써요. {쌀보리같이 생겼는데 봄에 가는 봄보리가 있어요.}

10309 # 근디 그거시 배:비 억시여. {그런데 그것이 밥이 억세.}

10309 @ 아. {아.}

10309 # 그렇게 잘 안 싱굴라그러지요, 봄보리털. {그러니까 잘 안 심으려고 그러지요. 봄보리털.}

10309 # 패서 추수할 찌그는 인제 가으레 싱군 뇌미나 봄보리나 똑가치 비어요. {피어서 추수할 때는 이제 가을에 심은 놈이나 봄보리나 똑같이 베요.}

10309 @ 애. {예.}

10309 @ 고, 그니까 고 봄뿌리:는, 봄보리는 그러머는 언제, 보메 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 봄보리는, 봄보리는 그러면 언제, 봄에 심는 것이에요?}

10309 # 애, 설 쇠야서 이월따래 가라요. {예, 설 쇠고서 이월달에 갈아요.}

10309 @ 아, 이워레요? {아, 이월에요?}

10309 # 애. {예.}

10309 @ 고, 이워레 가라가지고 고곤 이제 어떠케? {고, 이월에 갈아가지고 그것은 이제 어떻게?}

10309 # 똑가치 기양 보리가 나요, 나기는. {똑같이 그냥 보리가 나요, 나기는.}

10309 # 가으레 싱군 뇌미나 가으레 싱귀서 서를 쇠얏찌요? {가을에 심은 놈이나 가을에 심어서 설을 쇠었지요?}

10309 @ 예. {예.}

10309 # 그러고 봄보리는 설 쇠고 갈고, 그리서 똑가치 팬당개. {그리고 봄보리는 설 쇠고 갈고, 그래서 똑같이 핀다니까.}

10309 @ 아, 그 똑가치 꽤가지고 이제. {아, 그 똑같이 피어가지고 이제.}

10309 # 똑가치 여려요. {똑같이 열어요.}

10309 @ 열기는? {열기는?}

10309 # 애. {예.}

10309 @ 근데 왜 그러머는 보메 심꼬, 가으레 심꼬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면 봄에 심고, 가을에 심고 그래요?}

10309 # 공개 인재 보메 싱군 거슨 땅 엄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봄에 심는 것은 땅 없는 사람.}

10309 @ 아! {아!}

10309 # 땡 임자 이제, 시안에 갈 논 엄는 사래미 인자 바시 인자 추수럴 다 허고 보메 인자 안정 콩도 안 심고, 폰또 안 싱군 바테다가 봄보리럴 가랴요. {땅 임자 이제, 겨울에 갈 논 없는 사람이 이제 밭이 이제 추수를 다 하고 봄에 이제 아직 콩도 안 심고, 팔도 안 심은 밭에다가 봄보리를 갈아요.}

10309 @ 음. {음.}

10309 # 그노코 그놈 비어내고 인자 콩 싱글라고. {그래놓고 그 놈 베어내고 이제 콩 심으려고.}

10310 @ 고 보리를 갈 때는 금, 땅은 인제 어떻게 해가지고, 고 순서대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줘보세요. {고, 보리를 갈 때는 금, 땅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줘보세요.}

10310 # 애, 철빠냐 인제 갈라굴 찌그는 깍쟁기로 가랴요. {예, 첫번에 이제 갈려고 할 적에는 깍쟁기로 갈아요.}

10310 @ 깍쟁기로요? {깍쟁기로요?}

10310 # 애. {예.}

10310 # 가라가꼬 호고, 골 쳐서 인자 그다가 인자 거름 뿌리고. {갈아갓고 하고, 골 쳐서 이제 거기다가 거름 뿌리고.}

10310 @ 애. {예.}

10310 # 비루 뿌리고 거그다 인자 씨럴 막 이르게 소니로 뿌려. 한싱 싱군 거시 아니라. {비료 뿌리고 거기에다 이제 씨를 막 이렇게 손으로 뿌려. 하나씩 심은 것이 아니라.}

10310 @ 애. {예.}

10310 # 쪽쪽 뿌리가꼬는 인제. 갱이로 더퍼요. {쪽쪽 뿌려갓고는 이제, 팽이로 덮어요.}

10310 @ 예. {예.}

10310 # 막 갱 갱이럴 뚜디리서 이러케 생긴 흙덤벙이가 이씨면 고노멸 뚜디리가꼬 인자 때::꼬머니 더퍼요. {막 팽 팽이를 두드려서 이렇게 생긴 흙덩이가 있으면 그놈을 두드려가지고 이제 말끔하게 덮어요.}

10310 @ 애. {예.}

10310 # 그 가꼬 인제, 나:머는 인제 그냥, 보메 설 쇠야서 조깨 누니 마니, 왜 들떠요 땡이 뜨:지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면은 이제 그냥, 봄에 설 쇠어서 조금 눈이 많이, 왜 들떠요 땡이 뜨지 않아요?}

10311 @ 예. {예.}

10311 # 그러면 가서 발바줘. {그러면 가서 밟아줘.}

10311 @ 예. {예.}

10311 # 졸::졸. {졸졸.}

10311 @ 고 고걸 뭐::라고 그래요? 발바주는 걸? {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밟아주는 것을?}

10311 # 발바중 거슨 인자 보리밭 발부로 간다고 그래요. {밟아주는 것은 이제 보리밭 밟으러 간다고 그래요.}

10311 @ 애. {예.}

10311 # 가꼬 가서 꼭:꼭 모다 발바조요. {가지고 가서 꼭꼭 모두 밟아줘요.}

10311 # 그라너면 다 떠간꼬 주거버렁개. {그렇지 않으면 다 떠가지고 죽어버리니까.}

10311 @ 고: 이건 그니까 봄 봄, 초보메 해능 거요? {그, 이것은 그러니까 봄 봄, 초봄에 하는 것이에요?}

10311 # 애, 초보메 인자 요마널 찌그 발바요. {예, 초봄에 이제 이만 할 적에 밟아요.}

10311 @ 애. {예.}

10311 # 발바주면 고노미 인자 탄:따내간꼬 조다 커간꼬. {밟아주면 그 놈이 이제 단단해가지고 모두 커가지고.}

10311 @ 그 발볼 때 무슨 노래 부르고 머 그렇건 업써요? {거, 밟을 때 무슨 노래 부르고 그런 것은 없어요?}

10311 # 그렇건 업써요 기양. 켜숙득 가지고 땡김서 발봉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식구들 가지고 다니면서 밟으니까}

10312 @ 밟농사 할 때는 진매기는 먼 뻔씨기나 해요? {밟농사할 때는 김매기는 몇 번씩이나 해요?}

10312 # 지심? {김매기?}

10312 @ 애. {예.}

10312 # 세:버니요. {세 번이요.}

10312 @ 아! {아!}

10312 # 초볼, 두:볼, 세볼 인자 만두리럴 허지요. {초벌, 두벌, 세벌, 이제 만두리를 하지요.}

10312 @ 고: 논농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밟농사할 때도 세번 허고 그래요? {그, 논농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밟농사할 때도 세 번 하고 그래요?}

10312 # 애, 세번써근 다 똑가치 메요. {예, 세 번씩씩은 다 똑같이 메요.}

10313 @ 고 미::를 이러케 키우면 고걸 몰:래 가가지고 꼬너다가. {그, 밭을 이러케 키우면 그것을 몰래 가지고 끊어다가.}

10313 # 꼬실라 묵꼬요, {꼬실라 먹고요.}

10313 @ 애, 고 고:론 그거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 그 그런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10313 # 저 저 보리타자건다고 그래요. 그냥. {저 저 보리타작한다고 그래요. 그냥.}

10313 @ 응. {응.}

10313 # 꼬실러서 보리타건다고, 밭도 그러고 보리도 그러고. {그을려서 보리타작한다고, 밭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10313 # 누:러머는 꼬너다가 막 불 노코 꼬실라요, 거그다. (@ 애.) 꼬실라서. {누러면 끊어다가 막 불 놓고 그을려요, 거기다. (@ 예.) 그을려서.}

10313 # 모다 머그먼, 보리타자그로 가자 그러고 윤꼬 그러고 땡게요. {모두 먹으면, 보리타작하러 가자 그리고 웃고 그러고 다녀요.}

10313 @ 그 보리타작근 인제 월래 지베서 이러케 베능 거또 보리타자기고? {그 보리타작은 이제 원래 집에서 이렇게 베는 것도 보리타작이고?}

10313 # 예. 그거또 인제 가서 꾸어서 멍는 거또 보리타자기고 그레요. {예, 그것도 이제 가서 구워서 먹는 것도 보리타작이라고 그래요.}

10313 @ 그러케 마니 해보셨쎄요? {그렇게 많이 해보셨어요?}

10313 # 저네 농사질 썩그는 히받썩요. {전에 농사질 적에는 해봤지요.}

10313 # 그냥 농사질 썩그는 고놈 비어다가 막 마당으서 두드려서 {그냥 농사질 적에는 그 놈 베어다가 막 마당에서 두드려서}

10313 # 하이구, 보리타작 헐 썩그 더워 그양. {아이고, 보리타작할 적에 더워 그냥.}

10313 @ 아니 인자 보리타작말고, 몰래 친구드러고 이러케 해능걸. {아니 이제 보리타작 말고, 몰래 친구들 하고 이렇게 하는 것.}

10313 # 꼬실라 머궁 거시요? {그을려 먹는 것이요?}

10313 @ 애. {예.}

10313 # 그건 크네기더리라 부모드리 모더게 해요. {그것은 처녀들이라 부모들이 못 하게 해요.}

10313 @ 음. {음.}

10313 # 지지바드리 그런디 땡김서 그런진 현다고. 머시매드리 그런지슬 마니 허지요. {여자들이 그런데 다니면서 그런 짓 한다고. 남자아이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지요.}

10313 @ 크네기드론 몬 해쓰꼬마뇨? {처녀들은 못 했었그만요?}

10313 # 모드게 부무드리. {못하게 부모들이.}

10313 # 지그먼 머, 크네기덜, 각씨덜 구벼리 업찌마는. {지금은 뭐, 처녀들, 각씨

들 구별이 없지마는.}

10313 # 엔나레는 크네기드리 클 찌그 거참허게 조시멀 시켜써, 부모드리. {옛날  
에는 처녀들 클 적에는 매우 조심을 시켜서, 부모들이.}

10313 @ 예 예를 들면 어터케 조심하게들 해? {예 예를 들면 어떻게 조심하게들  
해?}

10313 # 그냥, 머 행이나 머시매드러고 놀깨미도 조심시키고 {그냥 뭐 행여나 남  
자아이들 하고 놀까봐서도 조심시키고}

10313 # 저 모실또 못 가게 허고 꼭 지비서 어머니허고 인자 이리나 허라고 허고.  
{저 모실도 못 가게 하고 꼭 집에서 어머니하고 이제 일이나 하라고 하고.}

10313 # 거, 어린덜한티도 인재. {그, 어른들한테도 이제.}

10313 # 인사도 조시미서 허라고고. {인사도 조심해서 하라고 하고.}

10313 # 그냥, 까뽀까불도 모더게 허고 조시를 시킨쎄요. {그냥, 까불도 못 하게  
하고 조심을 시켰어요.}

10313 @ 고 밀, 보리, 또 뭐 콩. {그, 밀, 보리, 또 뭐 콩,}

10313 # 호밀, 콩, {호밀, 콩,}

10313 @ 콩가튼 건또 그러케 꼬실라 먹꼬 그래쎄요? {콩같은 것도 그을려 먹고  
그랬어요?}

10313 # 콩언 몬 꼬실라 머거요. {콩은 안 그을려 먹어요.}

10313 @ 어! {어!}

10313 # 그냥 미러고 보리허고나 꼬실라 머그까, 그런 콩가튼 거선 몬 꼬실라 머  
거요. {그냥 밀하고 보리하고나 그을려 먹을까, 그런 콩같은 것은 못 그을  
려 먹어요.}

10313 @ 닥, 다기나 머 이런 건또 좀 몰래 훔쳐먹꼬 뭐 그런 거 {닭. 닭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몰래 훔쳐먹고 뭐 그런 거.}

10313 # 머시매더리. {남자아이들이.}

10313 @ 예. {예.}

10313 # 머심더리, 청년더리 기양 다글 이러케 키우머는 와서 기양, 다글 자바가  
부리고, 먹꼬 그래요. {머슴들이, 청년들이 그냥 닭을 이렇게 키우머는 와서  
그냥, 닭을 잡아가버리고, 먹고 그래요.}

10313 # 아이, 누가 그렁공 힌떠니 그양 한 이십 쌀 때, 한 수물 서너 너던 쌀 된  
청년더리 그러케 기양 사:랑으서 놀다가. {아이, 누가 그런가 했더니 그냥  
한 이십 살 때, 한 스물 서너, 너덧 살 된 청년들이 그렇게 그냥 사랑에서  
놀다가.}

10313 # 아무거시네 집으가 닥 훔치자 그러면 다글 닥짱째 드러다 저 고사테다 노  
코 당만 자바다 먹꼬 그래쎄요. {아무네 집에가 닭 훔치자 그러면 닭을 닭  
장 채 들어다가 저 고살에다 놓고 닭만 자바다 먹고 그랬어요.}

10313 @ 닥짱채 들고 가버려? {닭장 채 들고 가버려?}

10313 # 닭짹채 그양 멘놈드리 와서 드러다가 . {닭장 채 그양 몇 놈들이 와서 들어다가.}

10313 # 저::그, 신장노다 노코는, 지그므로씨는 신장노지만 인재, 지레다 노코는 그냥 주서다 머거버려. {저기, 신작로에 놓고는, 지금은 신작로이지만 이제, 길에다 놓고 그냥 주어다 먹어버려.}

10313 @ 허허. {허허.}

10313 # 그먼 인자 나중에 아라보면 어린놈더러고 누구누구 와서 닭 잡아다 머견 따고 그러케 소무니 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알아보면 어린놈들 하고 누구누구 와서 닭 잡아다 먹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요.}

10313 @ 그 그러머는 가서 그 도로 내노라고 뭐라고 그래요, 어때요? {그그 러면 가서 그 도로 내놓으라고 뭐라고 그래요, 어때요?}

10313 # 어:런더런 가서, 너그 이노무 자석떨 우리 지비서 닭 자바다가 먹거면 도 동놈드리다고 그러머는. {어른들은 가서, 너의 이놈의 자식들 우리 집에서 닭 잡아다가 먹었던 도둑놈들이라고 그러면.}

10313 # 안 자바다가 머견따고 막 빠더. {안 잡아다가 먹었다고 막 버터.}

10313 @ 예. {예.}

10313 # 하나씨덜한테 막 달라들고 그러. 그런 놈더리. {할아버지들한테 막 달라 들고 그래. 그런 놈들이.}

10313 # 그럼 막 하나씨드리 그러, 하이그, 불고자가튼 놈덜, 배우도 모던 노무 자 썩떠리 잘못헐따 아너고 막 달라든다고 까따끄먼 마자주께 생기떠라고 그러고 오딩마는 하나씨더리. {그러면 막 할아버지들이 그래, 아이고, 불고자같은 놈들, 배우지도 못한 놈의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안하고 막 달라든다고 잘못했다가는 맞아죽게 생겼더라고 그러고 오더만은 할아버지들이.}

10313 @ 고: 지베서는 그러케 쪼끔 흠쳐가고 그런 적 업썰썰요? {그 집에서는 그렇게 조금 흠쳐가고 그런 적 없었어요?}

10313 # 업썰썰요. {없었어요.}

10313 @ 고: 다글 그러케 흠쳐가고, 또 뭐? {그 닭을 그렇게 흠쳐가고, 또 뭐?}

10313 # 닭가튼 거 흠쳐가고 장난헐라고 그양 떡시루 찌노면 떡또 가져가고. {닭같은 것 흠쳐가고 장난하려고 그냥 떡시루 찌놓으면 떡도 가져가고.}

10313 @ 응. {응.}

10313 # 퇴끼가튼 걷또 키우면 기양 몰래 가져가고 그래요. {토끼같은 것도 키우면 그냥 몰래 가져가고 그래요.}

10313 # 큰 짐승은 못 가져가도 그런 자자는 짐승은 사랑꾼더리, 그때는 머시멀 마이 둥개, {큰 짐승은 못 가져가도 그런 작은 짐승은 사랑꾼들이, 그때는 머슴을 많이 두니까.}

10313 # 인는 사라멀 마니 둥개, 사랑꾼더리 그러케 그냥, 머심더리 귀를 찌고, 머시미 야, 우리 지비 다기 멘 마리다. 저그덜까지 안저서 궁가비여. {있는사

람은 많이 두니까, 사랑꾼들이 그냥, 머슴들이 귀를 짜고, 머슴이 야, 우리  
집이 닭이 몇 마리다. 자기들끼리 앉아서 그런 모양이여.}

10313 # 우리 지븐 대기 기양 멘 마린디, 대기 조타그먼, 자부로 가자. {우리 집은  
닭이 그냥 몇 마린데, 닭이 좋다 그러면, 잡으러 가자.}

10313 # 그러고 갈치줘, 인자. 머시미 갈치주면 가, 자바다 묵꼬 그랜썬요 공개.  
{그러케 하고 가르쳐 주어, 이제. 머슴이 가르쳐주면 아, 잡아다 먹고 그랬  
어요 그러니까.}

10313 @ 허허허. {허허허.}

10313 # 머시미 갈치줘가꼬 자바다 무건따고 머심더럴 막 조저대제. {머슴이 가르  
쳐줘가지고 잡아다 먹었다고 머슴들을 막 다구쳐.}

10314 @ 고, 인제 보리찌비나 밀찌비이 이쓰면, 고 집뜨른 어떠케, 머슬, 사용을  
해요? {그, 이제 보리짚이나 밀짚이 있으면, 그 짚들은 어떻게, 무엇을, 사  
용을 해요?}

10314 # 그, 보리::때 밀때는 태와버리고, {그 보릿짚, 밀짚은 태워버리고,}

10314 @ 예. {예.}

10314 # 지전 나락지분 뭉꺼서 소주고. {짚은, 나락짚은 묶어서 소를 주고.}

10314 # 그렇긴 태와버리요, 기양. {그런 것은 태워버려요. 그냥.}

10314 # 알맹이만 빼먹꼬, 그 지번 다 태와부려. {알맹이만 빼먹고, 그 짚은 다 태  
워버려.}

10314 @ 고::론 지부로 무슨 머? {그런 짚으로 무슨 뭐?}

10314 @ 방서글 만들거나, 머 가지고 놀고, 그런 거슨 안 해요? {방석을 만들거  
나, 뭐 가지고 놀고, 그런 것은 안 해요?}

10314 # 그 밀때년 도랭이럴 혹시 맨든디. {그 밀짚은 도롱이를 혹시 만드는데.}

10314 @ 뭐요? {뭐요?}

10314 # 도랭이라고, 비가 오머는 둘러 씨고, (@ 애.) 비 암 막게 둘러씨는 그런  
도랭이년 영꺼요. {도롱이라고, 비가 오면 둘러쓰고, (@ 예.) 비 안 맞게 둘  
러쓰는 그런 도롱이는 엮어요.}

10314 @ 애. {예.}

10314 # 보리때는 그러도 저러도 모더고 그냥 다 때버려. {보릿짚은 그것도 저것  
도 못하고 그냥 다 때버려.}

10314 @ 아, 보리때는 아무 쓸때가 엽구마뇨? {아, 보릿짚은 아무 쓸데가 없구만  
요?}

10314 # 애. 불배끼는 안 때고, 밀:때는 혹시 그리키 허먼는 인자 영감덜, 자작시  
런 영감더리 도랭이럴 맹그라요. {예. 불밖에는 안 때고, 밀짚은 혹시 그렇  
게 하면 이제 영감들, 짓곳은 영감들이 도롱이를 만들어요.}

10315 @ 여:게서는 고추를 그러케 마니 농사를 진꼬요, 고 또 뭐 과일 농사는 여  
기 마니 안 해요? {여기서는 고추를 그렇게 많이 농사를 짓고요, 그 또 뭐

- 과일 농사는 여기 많이 안 해요?}
- 10315 # 이 동네는 아네티 저너메 대우리란디는 복숭, 또 배. {이 동네는 안 하는데 저 너머 대우란 데는 복숭아, 또 배.}
- 10315 @ 거 복숭은 어터케 키워요? {그, 복숭아는 어떻게 키워요?}
- 10315 # 복숭은 나무가 막 저러게 커::게 기 크면. {복숭아 나무가 막 저렇게 크게 그 크면.}
- 10315 # 열매가 열면 싸주데요. 종우떼기로. 양. {열매가 열면 싸주던데요. 종이로. 그냥.}
- 10315 # 싸주면 기양 종우떼기. 소그서 쿵가 봐요. {싸주면 그냥 종이로. 속에서 쿵가 봐요.}
- 10315 @ 엔나레는 그러케 뭐 종우떼기로 싸고. {옛날에는 그렇게 뭐 종이로 싸고.}
- 10315 # 그렇길 아느고 기양, 기양 놔두머는 껌따그 인자 이그면, 놀짱:허머는 이 근능갑따 허고, 따서 먹기도 허고, 팔기도 허고, 파는 건또 배랑 업써요. 기양. 배가 고평개 모다. {그런 것 안하고 그냥, 그냥 놔두면 껌질이 이제 익으면, 노랗게 되면 익었는 모양이다 하고, 따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파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배가 고평니까 모두.}
- 10315 # 사랑꾼드리나 기양 거시건 사람더리 따:머거버리고 그러지만 요새는 점문 썩그로 막 바테다 그렁 거슬 형개 파라먹꼬. {사랑꾼들이나 그냥 거시기 한 사람들이 따먹어버리고 그러지만 요사이는 전문적으로 막 밭에다 그런 것을 하니까 팔아먹고.}
- 10315 # 차메::는 여그서 머 마니 안 키워써요? {참외는 여기서 뭐 많이 안 키워어요?}
- 10315 # 차외:도, 저:런 드리 요새는 조다 노니로 쳐버릴찌마는 바:시 마니써요. {참외도, 저런 들에, 요사이는 모두 논으로 만들어버렸지만 밭이 많았어요.}
- 10315 # 그먼 기양 차외노코, 수방 노코 . {그러면 그냥 참외 놓고, 수박 놓고.}
- 10315 @ 고: 차외는 어떠케 키워요? {그, 참외는 어떻게 키워요?}
- 10315 # 차외는 그양 요만::써거게 구덩이럴 파드마뇨. 그래가꼬 소그다가 거르멀 막 쟁에요 거름. {참외는 그냥 이만씩하게 구덩이를 파더만요. 그래갖고 속에다가 거름을 막 쟁이요 거름.}
- 10315 # 거름 쟁이고, 거그다 이러케 세 개씩글 싱구더만. {거름쟁이고, 거기다 이렇게 세 개씩을 심더만요.}
- 10315 @ 아! {아!}
- 10315 # 싱구먼 인자 뽕외:기 나머년, 시나:브로 크면 인자 그뇌미 인자 뽕까지가 돌리면 두 가지만 두고 썩 뜨더버리등만. {심으면 이제 뽕족이 나면, 서서히 크면 이제 그 높이가 이제 몇 가지가 뽕으면 두 가지만 두고 썩 뜯어버리더구만.}



10315 @ 아, 가지가 여러개 나오며는요? {아, 가지가 여러 개 나오면요?}

10315 # 여러개가 나오면 잘다고. {여러 개 나오면 잘다고.}

10315 @ 두 가지만. {두 가지만.}

10315 # 두 가지만 두고 싹 뜨더부리데요. 그러케 키우등만. {두 가지만 두고 싹 뜯어버리데요. 그렇게 키우더만.}

10315 # 그 외 키운 사람드런 노::상 바테 가 살덩만요. {그 외 키운 사람들은 항상 밭에 가 살더만요.}

10315 @ 아! {아!}

10315 # 꼬시 여러개 다리면 서너개썰만, 한 주레 서너개썰만 냉기고 싹 떠내버리야 크제. {꽃이 여러 개 달리면 서너 개썩만, 한 줄에 서너 개썩만 남기고 싹 떼어내버려야 크지.}

10315 # 여러 개가 달리면 잘대요. {여러 개가 달리면 잘대요.}

10315 @ 아! {아!}

10315 # 공개 그양 노상 거가 사라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거기 가 살아요.}

10315 @ 응. {응.}

10315 # 운 지버주고. {눈 집어주고.}

10315 @ 우 운 짐는 건 어떻게 해요? {우 운 짐는 것은 어떻게 해요?}

10315 # 우니, 꼬터리 입싹 제일 꼬터리가 그냥 수부거니 이쓰면 꼬터리털 모디 모디 두고는 싹 꼬너버려. {운, 꼬트머리 싹 제일 꼬트머리가 그냥 수북하게 있으면 꼬트머리를 마디 마디 두고는 싹 끊어버려.}

10315 @ 아, {아,}

10315 # 그러케 우너고 그 엽순 뜨더내고. {그렇게 눈 하고 그 옆 순 뜯어내고.}

10317 @ 고: 바뚜기나 들 머 이런데 풀, 풀드리 마니 나지요? {그, 밭독이나 들 뭐 이런데 풀, 풀들이 많이 나지요?}

10317 # 애. {예}

10317 @ 그 무슨 풀드리 나요? 풀 이름드리요? {그 무슨 물들이 나요? 풀 이름들이요?}

10317 # 그냥, 보통 거시기가 마니 나지요. 비름, {그냥, 보통 거시기가 많이 나지요. 비름.}

10317 @ 비름? {비름?}

10317 # 애. 비름푸리 마이 나고, 바라구가 마이 나고 {예. 비름풀이 많이 나고, 바랭이가 많이 나고.}

10317 @ 바라구요? {바랭이요?}

10317 # 애. {예.}

10317 @ 또, {또,}

10317 # 그러고는 또 잠푸리랑 거슨 되랑업꼬 고노미 크면 팍, 논뚜러건 피:. {그리고는 또 잡풀이란 것은 대중없고 그놈이 크면 팍, 논두렁은 피:}

10317 @ 예. {예.}

10317 # 그 피가 마니 저네 노네서 떨어져 나고, 거그는 세 가지 푸리고. {그 피가 많이 전에, 논에서 떨어져 나고, 거기는 세 가지 풀이고.}

10317 @ 예. {예.}

10317 # 바뚜러근 그냥 바라구허고 비름가통 거, 머 그렇 거만 나고. {밭둑은 그냥 바랭이하고 비름같은 것, 뭐 그런 것만 나고.}

10317 @ 꼬 꼬순 무슨 꼬뜨리 마니 피어요? 사니나 들, 이런 바테? {꽃 꽃은 무슨 꽃들이 많이 피어요?}

10317 # 사네는 보미면 진달리꽃. {산에는 봄이면 진달래꽃.}

10317 @ 예. {예.}

10317 # 인자, 진달리꼬시 이쓰면 또 개진달리 꼬시 다메는 피고. {이제, 진달래꽃이 있으면 또 개진달래꽃이 다음에는 피고}

10317 @ 진달래하고 개진달래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진달래하고 개진달래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10317 # 새칼도 달르고 개진달래는 곧병오리가 크고, 그냥 기양 진달래는 작고. {색깔도 다르고, 개진달래는 꽃봉우리가 크고, 그냥 그냥 진달래는 작고.}

10317 @ 새까른 어떻게? {새칼은 어떻게?}

10317 # 볼고::롬해가꼬. {봄으스름해가지고.}

10317 @ 어떤 거시 더 지내요? {어떤 것이 더 진해요?}

10317 # 그 개진달래가 지내요. {그 개진달래가 진해요.}

10317 # 개진달래가요? {개진달래가요?}

10317 @ 고 개진다래는, 어떻게 머글 쭈 인능 거예요? {개진달래는, 어떤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이예요?}

10317 # 그건 암 머거요. {그것은 안 먹어요.}

10317 @ 개진달래는? {개진달래는?}

10317 # 애, 기냥 진다래꼬순 따다 멍는디, 따다가 그노면 인재 머 술도 당그고 머 헌디, 개진달래는 암 머거요. {예, 그냥 진달래꽃은 따다 먹는데, 따다가 그 놈은 이제 뭐 술도 담고 뭐 하는데, 개진다래는 안 먹어요.}

### 1.3.3.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10318 @ 고:: 인재 탈곡, 추수를 하자나요? {그 탈곡, 추수를 하잖아요?}

10318 # 애. {예.}

10318 @ 그 엔날 하던 걸 하고, 요새 하는 거 하고는 어떻게 달라져썬요? {그 옛날 하던 것 하고, 요사이 하는 것 하고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10318 # 나라기랑. {나락이랑.}

10318 @ 애, 나라기나 보리나. {예, 나락이나 보리나.}

10318 # 그 이리케 달쭈랑 낱자로는 똑가튼디 두드룽 거시 틀리쥬. {그 이렇게 달  
수나 낱자로는 똑같은데 두드리는 것이 다르쥬.}

10318 @ 어떠케? {어떻게?}

10318 # 여 엔나레는 홀테로 홀꼬. {여 옛날에는 홀태로 홀고.}

10318 # 그 노미 지그먼 막 기계로 홀터버링개 마이 달라저짜네요? {그 놈이 지금  
은 막 기계로 홀어버리니까 많이 달라졌잖아요?}

10318 @ 애. {예.}

10318 @ 고 엔나레는 보리 타작하고 이런 거 어떠케 해요? 그 순서를 쯔 한번 자  
세히? {그 옛날에는 보리타작하고 이런 것 어떻게 해요? 그 순서를 쯔 한번  
자세히?}

10318 # 보리타자그는 인자 보리털 비어서 내려가꼬. {보리타작은 이제 보리를 베  
어서 널어가지고.}

10318 @ 애. {예.}

10318 # 마르먼 또 뭉겨요. 뭉겨다 지비다가 노코. 그거 인제 막 도리깨라고 또  
이썬요. 도리깨로 투디리요. {마르먼 또 뭉어요. 뭉어다 집에다가 놓고. 그  
것 이제 막 도리깨라고 또 있어요. 도리깨로 두드려요.}

10318 # 투드르고 인자 보리떼는 내빠리고 알맹이는 인자 까불라서 먹꼬. {두드리  
고 이제 보릿짚은 내버리고 알맹이는 이제 까불어서 먹고.}

10318 # 밀가튼 겉또 그러고요. 근디. {밀같은 것도 그러고요. 그런데.}

10318 @ 콩은요? {콩은요?}

10318 # 콩도 이르게 요떼 시방 주다 되짜짜나요? 뽕바노면. {콩도 이렇게 요즘  
지금 모두 모아놔잖아요? 뽕아놓으면.}

10318 # 뭉겨다 지비서 막 투디려. {뭉어다 집에서 막 두드려.}

10318 @ 멀로 투드리요? {무엇으로 두드려요?}

10318 # 도리째로 투디리고. {도리깨로 두드리고.}

10318 # 도리째 엽꼬 여자드른 방맹이로 투들고. {도리깨 없고 여자들은 방망이로  
두드리고.}

10318 @ 애. {예.}

10318 # 공개 요새 바:빠요. 지금 막. {그러니까 요새 바빠요. 지금 막.}

10318 @ 응. {응.}

10318 # 어저꼬 비가 와서 그러제 기양. {어제 비가 와서 그렇지 그냥.}

10318 # 콩 두둔 사람, 팔 두둔 사람, 기양 날린디 {콩 두드린 사람, 팔 두드린 사  
람, 그냥 난리인데.}

10318 @ 고 콩이나 포시나 똑가치 도리깨로 두드리요? {고 콩이나 팔이나 똑같이  
도리깨로 두드려요?}

10318 # 또가치 도리째로 두드려요. {똑같이 도리깨로 두드려요.}

10318 # 남매드린는 사람 도리째로 두들지 방맹이로 안 두드려요. {남자들 있는 사람 도리째로 두드리지 방망이로 안 두드려요.}

10318 @ 그 인제 두드리고 나머는 거기에 아리 잘 드른 겐또 인꼬, 잘 안드른 겐또 인꼬 그러지요? {그 이제 두드리고 나면 거기에 알이 잘 든 것도 있고, 잘 안 든 것도 있고 그러지요?}

10318 # 공개 두드리고 나머는 잘 영그면 아리 국꼬. {그러니까 두드리고 나면 잘 영글면 알이 굵고.}

10318 @ 애. {예.}

10318 # 인제 몬 영그르고 기양 가무미나 타고 그러면 아리 잘고. {이제 못 영글면 그냥 가름이나 타고 그러면 알이 잘고.}

10318 @ 고 인제 아리 업: 업:씨 그냥 이러케 꺾떼기만 인는 거? {고 이제 알이 업 없이 그냥 이렇게 꺾떼기만 있는 것?}

10318 # 꺾떼기만 인는 거또 인꼬. {꺾떼기만 있는 것도 있고.}

10318 @ 고론 거슨 머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10318 # 고거슨 인제 저 주건따고 그쵸. {그것은 이제 저 죽었다고 그러쵸.}

10318 # 알맹이가 안 들고 주거부런따고. {알맹이가 안 들고 죽어버렸다고.}

10318 @ 쪽 쪽쟁이가 돼간꼬. {쪽 쪽쟁이가 돼가지고.}

10318 # 맨: 쪽쟁이빠끼다고. {모두 쪽쟁이밖에 없다고.}

  

10319 @ 그 인제 곡씨:글 다 추수를 해가지고 인제 방아를 찼짜나요? 그 방아는 먼 뭐가 이씨요? 방아. {그 이제 곡식을 다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방아를 찼잖아요? 그 방아는 뭐가 있어요? 방아}

10319 # 방아는 인자 엔나레는 독방아, 드들빵아, 그런는디 지그른 그른 겐또 다:: 업씨져버리고. {방아는 이제 옛날에는 돌방아, 디딜방아,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다 없어져버리고.}

10319 @ 독 뚝빵아는 뭐예요? {돌 돌방아는 뭐예요?}

10319 # 독빵아는 인장 화도그 크::게 히노코, 가운데다가 이러케 이마:는 몽뎡이 렬 바가노코 큰: 되기로, 도그다가 명에렐 너서 맨드라서 소가 꼬지고 뎡기. 뎡: 뎡: 도라뎡김선 보리나 나라기나 까요. {돌방아는 그냥 확독을 크게 해 놓고, 가운데가 이렇게 이만한 몽둥이를 박아놓고 큰: 돌이요, 돌에다 명에를 넣어서 만들아서 소가 끌고 다녀. 뎡: 뎡: 돌아다니면서 보리나 나락이나 까요.}

10319 @ 애. {예.}

10319 # 그거시 독빵애고. {그것이 돌방아이고.}

10319 # 드딜빵아는 사람드리 발로 드더서, 드더서 찌는 거시 드들빵애고. {디딜방아는 사람들이 발로 디더서, 디더서 찌는 것이 디딜방아이고.}

10319 @ 고 독빵아가 여기 이썬썬요? {돌방아가 여기 있었어요?}

10319 # 애, 썬 저 아래, 이썬는디 인제 업썬져버리고 거다 지벌 지어썬요. {예, 저 저 아래, 있었는데 이제 없어져버리고 거기에다 집을 지었어요.}

10319 @ 그러면 그 요 소:가 이러케 하능 거슨 누:구네 소로 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 소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네 소로 하는 거예요?}

10319 # 인자 다 지비서 가꾸와서 혀. 멩애만 썬가꼬. 멩애라고 이썬요 또. {이제 다 집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해요. 멩애만 썬가지고. 멩애라고 있었어요 또.}

10319 @ 멩애는 뭘예요? {멩애는 뭘예요?}

10319 # 멩애, 여그다가 소 등어리다가 이러케 나무로 요로케 맨드라갈꼬 뒤지버 썬거시 멩애. {멩애, 여기에다가 소 등허리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 들어가지고 뒤집어 썬 것이 멩애.}

10319 # 내 소가 업썬면 기냥 너무 소 어더갈꼬 와서 거가 품 가파주고. {내 소가 없으면 그냥 남의 소 얻어가지고 와서 거기가 품 갠아주고.}

10319 @ 애. {예.}

10319 @ 고: 드들빵아가 이썬면 고 방아가 이러케 바로 툭툭 사라미 밭꼬 그러자 나요? {고 디딜방아가 있으면 그 방아가 이렇게 바로 툭툭 사람이 밭고 그러잖아요?}

10319 # 애. {예.}

10319 @ 이름드리 어떠케 돼요? {이름들이 어떻게 돼요?}

10319 # 드:들빵아, 그거는. {디딜방아, 그거는.}

10319 @ 예, 근디 이제 사라미 밭는? {예, 그런데 사람이 밭는?}

10319 # 사라미 밭 밭부면 다리고. {사람이 밭 밭으면 다리고.}

10319 # 다리를 밭바야어고. {다리를 밭아야 하고.}

10319 @ 애. {예.}

10319 # 저그서 또 인자 드들빵 쿵:쿵 썬는 여 뒤여가 도구통이 이썬요. {저기서 또 이제 디딜방아 쿵 쿵 썬는 이 뒤에가 도구통이 있어요.}

10319 @ 예. {예.}

10319 # 도구통 소그다가 인제 이러케 이마넌 몽뎡이로 도구뎡을 맨드라가꼬 밭로 팍:팍: 두디면 팍: 팍: 그걸 썬치요. 그기 드들방아. {도구통 속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만한 몽뎡이로 두곳대를 만드아가지고 밭로 팍 팍 디디면 팍 팍 그것을 썬지요. 그것이 디딜방아.}

10319 @ 고 이 나무:로 이러케 썬는 요곤 뽕고는 이르미 뭘라구레요? {고 이 나무로 이렇게 썬는 이것보고는 이름이 뭘라고 그래요?}

10319 # 거 저 도곶뎡, 드들방애 도구뎡. {그 저 도곶대, 디딜방아 도곶대.}

10319 @ 애, 디들방애 도구뎡. {예. 디딜방아 도곶대.}

10320 @ 고 밀방아는 어떠케 썬어요? {그 밀방아는 어떻게 썬어요?}

10320 # 밀방아도 똑가테요. 보린빵 보리방아허고. {밀방아도 똑같아요. 보리방 보

리방아하고.}

10320 @ 어트케? {어떻게?}

10320 # 부서간꼬 인재 물 조개 부서서. {부어가지고 물 조금 부어서.}

10320 @ 애. {예.}

10320 # 찌면. {찌면.}

10320 @ 방아야 거기에다가? {방아 거기에다가?}

10320 # 무:털 부서요. {물을 부어요.}

10320 @ 부털 부서요? {물을 부어요?}

10320 # 애. {예.}

10320 @ 음, 왜? {음, 왜?}

10320 # 파싹 말라썩개 찌 그놈 부러서 찌어지라고. {바싹 말랐으니까 쥔 그놈 불어서 찌어지라고.}

10320 @ 어! {어!}

10320 # 보리나 미리나. {보리나 밀이나.}

10320 # 도구통으다 부서노코 무털 줘요. {도구통에다 부어놓고 물을 줘요.}

10320 @ 음. {음.}

10320 # 무털 축초::거이 줘간꼬. {물을 축축이 줘가지고}

10320 @ 마니 부스면 안 되요? {많이 부으면 안 되요?}

10320 # 죽가치 마니 부스면 안 되고, 쪼::개 보송보송하게 부서간꼬 찌머넌 껍이 싹::버서져요. 껍떼기가. {죽같이 많이 부으면 안 되고, 조금 보송보송하게 부어가지고 쪼으면 껍질이 싹 벗어져요. 껍질이.}

10320 @ 그 사라미 드들빵아에서 사라미 발바서요? {그 사람이 디딜방아에서 사람이 밟아서요?}

10320 # 애, 사라미 발바서. {예, 사람이 밟아서.}

10320 # 지비서도 도구통으다 찌면 고로고. {집에서도 도구통에다 찌면 그렇게 되고.}

10320 @ 금 고 드들빵아에서 마니 해썩요 아니면 지베서. {금 고 디딜방아에서 많이 했어요 아니면 집에서.}

10320 # 드들빵에서 마니 해썩요. 지비서 어썩다가 찌코. {디딜방아에서 많이 했지요. 집에서 어썩다가 쪼고.}

10320 # 요샌 나레 인재 도구통이 생강개로 도구통으서도 찌는디, 인자는 아조 기계서 찌버링개. {요새 날에 이제 도구통이 생겼으니까 도구통에서도 쪼는데, 이제 아주 기계에서 찌어버리니까.}

10320 # 그또 저거또 다 아너고. {그것도 저것도 다 안 하고.}

10320 @ 그면 저 고 드들빵아에서 해가꼬 찌 찌머는 {그러면 저 그 디딜방아에서 해가지고 쪼으면}

10320 # 깍 껍떼기 까불라야해 쟁이로. {깍 껍떼기를 까불라야해 키로}

10320 @ 쟁이로? {키로?}

10320 # 애, 행이로 까불라가지고. {애, 키로 까불라가지고.}

10320 # 인자 바배 버글라먼 학:또그다 또 가라요. {이제 밥 해먹으려면 학에다가 또 갈아요.}

10320 @ 아, 어특? {아, 어똥?}

10320 # 확뚝, 이마넌 확뚝 인짜내요? 거그다가 막, 부서갈꼬 폰또그로 갈면 인자 폭:, 보리나 미리나 보:여면 씨쳐서 밥 허지요. {확, 이만한 확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부서가지고 풀독으로 갈면 이제 폭 보리나 밀이나 뽕양게 되면 찢어서 밥 하지요.}

10320 @ 그 학:또기, 학또기 인꼬, 그다메 요로케 키가 커가지고 {그 학이, 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10320 # 도구통, {도구통}

10320 @ 아, 고건 도구통? {아, 그것은 도구통?}

10320 # 저 독 뚝또구통. {저 돌 돌도구통.}

10320 @ 애. {예.}

10320 # 그러고 인자 뒤아내는 또 이러케 생긴 돌맹이가 파진노먼 학뚝 (@ 학또 기고?) 학도기고. {그리고 이제 뒤안에는 또 이렇게 생긴 돌맹이가 파진 학 이고. (@ 학이고?) 학이고.}

10320 @ 고 도구통은 나무로 생긴 거또 인꼬. {고 도구통은 나무로 생긴 것도 있 고.}

10320 # 애. 이제 쪼깨 인꼬 잘 산단 사라문 독도구통을 사다 노코, 파서 사다가 노코. {예. 이제 조금 있고 잘 산단 사람은 돌도구통을 사다놓고, 파서 사다 가 놓고.}

10320 # 그냥 어:꼬 애탄 사라문 느냥 이르게 몽뎡이 썬:놈 똥꾸넉 가따가 파서 나무도구통 맨들고. {이제 없고 애끓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몽뎡이 썬 놈 똥꾸멍을 갖다가 파서 나무도구통 만들고.}

10320 @ 음:. {음.}

10320 @ 그 다으메 뎡:: 만들고 그럴 때 이 치는 거요, {그 다음에 떡 만들고 그 럽 때 이 치는 것은요?}

10320 # 메? {메?}

10320 @ 애. {예.}

10320 # 메:. {메.}

10320 @ 애. {예.}

10320 @ 고 고롱 건는 여기 이썬요? {그 그런 것은 여기 있어요?}

10320 # 시방은 업썬요. 엔나레는 이썬는디 업썬.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 는데 없어.}

10320 # 엔나레는 학또기나 도구통이나 떡 칠 찌그는 그거시라야 천는디 지금 업

써져버릴써 인자. 기계 나옴선부터. {옛날에는 확이나 도구통이나 떡 칠 적에는 그것이라야 찼는데 지금은 없어져버렸어 이제. 기계 나오면서부터.}

10320 @ 고 떠근 학또게다가 처요? (# 애.) 아니면 도구통에다 처요? {고 떡은 확에다가 처요? (# 예.) 아니면 도구통에다 처요?}

10320 # 학또그다 처요. {확에다 처요.}

10320 @ 학또게다가. {확에다가.}

10320 # 애, 칠 찌그는. 인제 쌀로 몽글게 떡 까래 맨들라고 가루 맨들 찌그는 도구통으다 찢꼬 {예. 칠 적에는. 이제 쌀로 몽글게 떡가래 만들려고 가루 맨들 적에 도구통에다 찢고.}

10320 @ 음, 가루만들 때는? {음, 가루만들 때는?}

10320 # 애. 그 가루 맨드라갈꼬, 인절미나 그렇건 헐라면 인제 학또그다 치고. {예. 그 가루 만들어 가지고, 인절미나 그런 것 하려면 이제 확에다 치고.}

10321 @ 보리::를 인제 점부 찢코나면 그 껍질, 껍떠근 어따가 써요? {보리를 이제 전부 찢고나면 그 껍질, 껍떼기는 어디에다가 써요?}

10321 # 돼야지 베겨. {돼지 먹여.}

10321 @ 아. {아.}

10321 # 뒤야지나 소나. {돼지나 소나.}

10321 @ 보리는? {보리는?}

10321 # 애. 보리나 나래기나 그렇 거선 인자 껍찌른 다 뒤야지 주고 소 줘요. {예. 보리나 나락이나 그런 것은 이제 껍질은 다 돼지 주고 소 줘요.}

10321 @ 밀: 가튼 거슨요? {밀: 같은 것은요?}

10321 # 밀거떡도. {밀 같은 것도.}

10321 @ 밀도? {밀도?}

10321 # 다 껍떼기란 거선 보리, 밀 그렇건 다 소 줘요. {다 껍떼기란 것은 보리, 밀 그런 것은 다 소 줘요.}

10321 # 나래기나 조:다 그 저버고 저라고거던요? {나락이나 모두 그 겨, 겨라고 하거든요?}

10321 @ 애. {예.}

10321 # 저는 조:다 짐승 메기요. {겨는 모두 짐승 먹여요.}

10321 @ 아, 이 저는 머 보리나 나래기나 (# 똑까튼 저여.) 미리나 다 똑 가치 저예요? {아, 이 저는 뭐 보리나 나락이나 (# 똑같은 겨요.) 밀이나 다 똑같은 저요?}

10321 # 애, 저요, 저. {예. 저요, 저.}

10321 @ 근디 고 저도 머 쪼끔 굴궁 거 인꼬 가능 거 인꼬 뭐 (# 그거선 인제...) 종류가? {그런데 그 저도 머 조금 굵은 것 있고 가는 것 있고 뭐 (# 그것은 이제...) 종류가?}

10321 # 초볼 찢노면 초볼 찌고. {초벌찢 늬은 초벌겨이고.},



10321 @ 애. {예.}

10321 # 두벌쩜 노면 조개 암마내도 싸리나 보리나 까까냉개 보소롬허거던요? {두벌쩜 놈은 아무래도 쌀이나 보리나 깎아내니까 부드럽거든요?}

10321 @ 애. {예.}

10321 # 공개 속저. {그러니까 속겨.}

10321 @ 응. {응.}

10321 # 속저는 사람도 먹꼬 그래쎄요. 저네 배 고푸면. {속겨는 사람도 먹고 그랬어요. 전에 배 고프면.}

10321 @ 어 어떠케요? {어 어떻게요?}

10321 # 그 막 개떡 찌갠꼬 기냥. {그 막 개떡 찌가지고 그냥.}

10321 @ 개떡근 어터케 쥘요? {개떡은 어떻게 쥘요?}

10321 # 개떡근 인자 물: 소금 너코 인자 간 맨드라서. {개떡은 이제 물 소금 넣고 이제 간 만들아서.}

10321 @ 우선 인저 요 속저가 나오며는, (# 속저 나온 노무로.) 그 속저를. {우선 이제 이 속저가 나오면, (# 속겨 나온 놈으로.) 그 속겨를.}

10321 @ 애. {예.}

10321 # 다시 인자 흰체로 쳐요. {다시 이제 고운체로 쳐요.}

10321 @ 아, 속저를. {아, 속겨를}

10321 # 음. {음.}

10321 @ 흰체로? {고운체로?}

10321 # 흰체로. {고운체로.}

10321 @ 된? {된?}

10321 # 봐야 봐야. {봐아 봐아.}

10321 @ 흰 흰체로? {흰 흰 체로?}

10321 # 애. 흰체로 처가꼬. {예. 고운체로 처가지고.}

10321 # 우에치는 내:버리고 짐성 주고 인자, 미테치는 물너코 반주글 해서 {위에 것은 내버리고 짐승주고, 밑에 것은 물 넣고 반죽을해서.}

10321 # 지금 밀가루 반죽 허디끼 반주글 해갠꼬 납작하게 이만썩 개:떡글 쥘서 머그면 보리저는 썩싸리도 안 도큰디, 나락저는 도케서 몸 머거. 썩고 참도케요. {지금 밀가루 반죽하듯이 반죽을 해가지고 납작하게 이만썩하게 개떡을 쥘서 먹으면 보리겨는 썩쓰름해도 안 독한데, 쌀겨는 독해서 못 먹어. 썩고 참 독해요.}

10321 @ 보리저는 썩쌀허고 마시 인쥘요? {보리겨는 썩쓰름하고 맛이 있어요?}

10321 # 그냥 그대로 머거요? {그냥 그대로 먹어요?}

10321 # 어: 그런대로 머글마내. {어 그런대로 먹을만 해.}

10321 # 배가 고푸개 기양 그대로 먹더라고, 엄는 사람덜 보면. {배가 고프니까 그냥 그대로 먹더라고, 없는 사람들 보면.}

10321 # 우리는 아내 머거봐서 모른다. {우리는 안해 먹어봐서 모르는데.}

10321 # 그거또 귀미리라고 어더 머그로 갠썰썰요, 우리는. {그것도 귀물이라고 얻어 먹으러 갔었어요, 우리는.}

10321 @ 아:. {아.}

10321 # 아이고. 개떡찐단다 가자 가새 가새 그래갠꼬, 그냥 모르게, 시어마이덜 모르게 싸리나 보리싸리나 한 사발씩 모르게 퍼갠꼬 가서 그놈 주고. {아이고, 개떡찐단다 가자 가새 가새 그래가지고, 그냥 모르게, 시어머니들 모르게 쌀이나 보리쌀을 한 사발씩 모르게 퍼가지고 가서 그놈 주고.}

10321 @ 바뀔 머거요? {바뀔 먹어요?}

10321 # 바껴서 하나 머그면 몸 머거요 기양, 매급씨 갠따가 곡썰만 넘덜 줘찌. 몬 머근다고 모르게 뒤아지 갠따 줘부러. {바껴서 한 개씩 먹으면 못 먹어요 그냥, 괜히 갖다가 곡식만 남들 줘지. 못 먹는다고 모르게 돼지 갖다 줘버려.}

10321 @ 응 꺼끌꺼끌허고. {응 꺼끌꺼끌하고.}

10321 # 꺼끄러고 씨고 참 나락찌가 보매는 그러케 생긴씨도 씨요. 쓰고 막 몸 머거. {꺼끄럽고 쓰고, 참 쌀겨가 봄에는 그렇게 생겼어도 씨요. 쓰고 막 못 먹어.}

10321 @ 그러니까 고 인제 빈체로 처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제 고운체로 처가지고.}

10321 # 음, 인자 빈눔치면 미테 몽근뇌미 {음, 이제 고운체로 치면 밑에 몽근 뇌이.}

10321 # 미테로 널:고. {밑으로 널고.}

10321 @ 예. {예.}

10321 # 거친 놈, 우에네는, 거친 놈 되야지 주고. {거친 놈, 위에 것은, 거친 놈 돼지 주고.}

10321 @ 고::긋허고 무라고 서끄머는 이게 그냥 쫘득쫘득 해져요? {그것하고 물하고 섞으면 이게 그냥 쫘득쫘득 해져요?}

10321 # 쫘:꿈만 무를 처갠꼬 조무락 조무락 허머는. {조금만 물을 처가지고 조무락조무락 하면.}

10321 # 조개 쫘득쫘득 해요. {조금 쫘득쫘득 해요.}

10321 @ 그러케 해갠꼬 그 어따가, 솔탄지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디에다가, 솔탄지에다가.}

10321 # 솔탄지에다가 정거리 지르고. {솔탄지에다가 거는 것 지르고.}

10321 @ 정거리는 뭐예요? {정그레는 뭐예요?}

10321 # 소코리가튼 거 납짜근 놈 일짜내요? {소코리 같은 것 납작한 것 있잖아요?}

10321 @ 았. {예.}

10321 # 적 부치면 논 채반지 {부침개 부치면 놓는 채반.}

10321 @ 예. {예.}

10321 # 그렇 거 노코 썬. {그런 것 놓고 썬.}

10321 @ 그니까 그 채반지하고 경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채반하고 경그레하고는 다른 거예요?}

10321 # 경거리는 미티다 머슬 놓 거시 경거리고, 우에는 채반지고. {경그레는 밑에다 무엇을 놓은 것이 경그레이고, 위에는 채반이고.}

10321 @ 어. {어.}

10321 # 물 안 다케, (@ 음.) 무란다케 미테다가 막때기나 머 경거리덜 지르제. {물 안 당게, (@ 음.) 물 안 당게 막대기나 뭐 경그레를 지르지. }

10321 @ 아:, 그니까 저기 콩나물 키울 때 콩나물 시루 미테 빠지지 마라고, 요로케 요로케 논는 거? {아, 그러니까 저기 콩나물 키울 때 콩나물 시루 밑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놓는 것.}

10321 # 그제 경거리. {그것이 경그레.}

10321 @ 아:. {아.}

10321 # 그리가꼬, {그래갖고,}

10321 # 고골 노코 채반지를 노코. {그걸 놓고 채반을 놓고.}

10321 # 채반지를 놔야 무리 안 쟁기지요. {채반을 놓아야 물이 안 잠기지요.}

10321 @ 채반지 거기에다가 이 개떡 소글 (# 개떡글 올리노코 썬지요.) 주물릉 거슬 (# 애, 납짜거니 맨드라서.) {채반지 거기에다가 이 개떡 속을 (# 개떡을 올려 놓고 썬지요.) 주무른 것을 (# 예, 납작하니 만들어서.)}

10321 @ 요::고슨 그러면 개떡근 언제, 주로 해멍는 거요? {이것은, 개떡은 언제, 주로 해먹는 거예요?}

10321 # 여르메요. {여름에요.}

10321 @ 아:! 여르메. {아! 여름에.}

10321 # 여르메. {여름에.}

10321 @ 그먼 여르메는 썬 얹짜나요? {그러면 여름에는 썬이 없잖아요?}

10321 # 공개 맨 보리배비나 얹는 사람드른 밀배비나 밀쭈기나 그런 거슬 꼬리먹꼬. {그러니까 맨 보리밥이나 얹는 사람들은 밀밥이나 밀죽이나 그런 것을 끓여먹고}

10321 # 인는 사라븐 인자 보리쌀 가라서 썬너코 히먹꼬. {있는 사람은 이제 보리쌀 갈아서 썬놓고 해먹고.}

10321 @ 그니까 썬 썬:개떡근, 썬썬 개떡근? {그러니까 썬개떡은, 썬저개떡은?}

10321 # 애, 썬. {예, 썬요.}

10321 @ 예, 근데 요 썬저 개떡근 주로 언제 해요? {예, 그런데 이 썬저개떡은 주로 언제 해요?}

10321 # 그렇 거슨 인자 양식 얹는 사람드리: . {그런 것은 이제 양식 얹는 사람들이.}

10321 # 시아네고 언제고 기양 원청 배고푸면 히멍는 거고, 방해편 사람덜한테 도래서 그걸또 업썩개. {겨울이고 언제고 그냥 워낙 배 고프고 그러면 해먹는 것이고, 그리고 방아편 사람덜한테 달라고 해서 그것도 없으니까.}

10321 @ 음.

10321 # 농사지어서 방해편 사람보고 나 저 한 바가지 줘:. {농사지어서 방아편 사람보고 나저 한 바가지 줘.}

10321 # 그서 그러 그러고 주면 그러케 히서 무건따고 흠선 바까무그로 가면 진짜 몸 먹곺썩요. {그래서 그러 그러고 주면 찌서 먹었다고 하면서 바꿔먹으러 가면 진짜 못 먹겠어요.}

10321 @ 구: 저에는 그머는 초벌찌하고 속찌하고 그러케 두 종류가 인네요? {그러면 전에는 초벌저하고 속저하고 그렇게 두 종류가 있네요?}

10321 # 예:. {예.}

10321 # 초:벌 찼노문 저고. {초벌찼 놈은 저고.}

10321 @ 애. {예.}

10321 # 인자 나중에 인자 몽글게:: 까끈 노문 인자... (@ 구건 속찌라고.) 속찌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몽글게 깎은 놈은 이제... (@ 그것은 속저라고.) 속저라고.}

10322 @ 그 인제 곡씨글 타자거고 나면 고거뜨를 어따가 갑따 놔뒀요? {곡식을 타작하고 나면 그것들을 어디에다가 갖다 놔뒀요?}

10322 # 그냥 까불라서 죄다 도장으다 널치. {그냥 까불어서 모두 광에다 넣지요.}

10322 @ 머 머 그냥 어따가 다마서 놔요? {뭐 뭐 어디에다가 담아서 놔요?}

10322 # 그러치요. 시방은 머 잘구가 썩찌만 엔나레는 도가지, 도가지다 너서 고자게야 도장으다 여치요. {그렇지요. 지금은 뭐 자루가 많지만 옛날에는 독아지, 독아지에다 넣어서 고작해야 광에다 넣지요.}

10322 @ 그 다으메 도가지허고, 그다메 지푸라기로 뭐 이러케 만드라서. {그 다음에 독아지하고, 그 다음에 지푸라기로 뭐 이렇게 만들어서.}

10322 # 가:마니.

10322 @ 애. {예.}

10322 # 가마~이 찼 노메다 가마이다 너서. {가마니 찼 놈에다 가마니에다 너어서.}

10322 # 마:느면 인자 가마니다 붙꼬, 쪼그만씩궁건 도가니다 너코. { 많으면 이제 가마니에다 붓고, 조금만 한 것은 독아지에 넣고.}

10322 @ 그::러면 가마니가 이러케 머 머개씩 되며는 이버네는 뭘, 얼마나 나왈따 그렐썩요? {그러면 가마니가 이렇게 뭐 몇 개씩 되면 이번에는 뭘, 얼마나 나왔다 그래요?}

10322 # 가마니가 저네 저네언 인자 세 가마니 되얀디, 잘 뵈따면 너던 가마이

되머는 이버네는 잘 돼야서 향 가마이가 더 부런따고고. {가마니가 전에 전에는 이제 세 가마니 되었는데, 잘 됐다면 너덧 가마니 되면 이번에는 잘 되어서 한 가마니가 더 붙었다고 그러고.}

10322 # 엽썌져버닌 더 승녀니 들머는 인자 세 가마니되얏면 노미 향 가마니도 될 쭈가 인꼬 몬 될 쭈가 인꼬 그러지요. {없어져버린 더 흥년이 들면 이제 세 가마니 되었던 것이 한 가마니도 될 수가 있고, 못 될 수가 있고 그러지요.}

10322 @ 썬를:: 이러케 두 가마니를 뭐라고, 썬:른 세능 게 단위가 이썌요? {썬을 이렇게 두 가마니를 뭐라고, 썬은 세는 것이 단위가 있어요?}

10322 가:마니. {가마니.}

10322 @ 가마니 말고. 뭐 이버네는 면. {가마니 말고, 뭐 이번에는 며}

10322 # 멘 멘 거이라고? {몇 몇 거이라고?}

10322 @ 아니, 뭐 고추가트면 먼 근 머 이렇 거처럼, 썬리나 이렇길. {아니, 뭐 고추 같으면 몇 근 이런 것처럼, 썬이나 이런 것.}

10322 # 그거슨 인자 먼 가마니 그러썌요. {그것은 이제 몇 가마니 그러지요.}

10322 @ 머 먼 썌날따? {몇 썌 났다?}

10322 # 그건 인자 나:라그로 멘 썌날따고. {그것은 이제 나락으로 몇 썌 났다고.}

10322 @ 아아! 나락으로 헐 때는 먼 썌? {아아! 나락으로 할 때는 몇 썌?}

10322 # 나락으로 인제 두 가마니가 한 세미거든요. {나락으로 이제 두 가마니가 한 썌이거든요.}

10322 @ 어! {어!}

10322 # 인제 열 가마니면 다섯 썌 날따고고, 여섯개면 석 썌 날따고고. {이제 열 가마니면 다섯 썌 났다고 하고, 여섯개면 석 썌 났다고 하고.}

10322 @ 나락길 때만 한 썌, 두 썌 해고. {나락일 때만 한 썌, 두 썌 하고.}

10322 # 애, 썬:른 인자 가마니라고구요. (@ 썬리 썬릴 때는 가마니로 해구요.) 가마이라고. {예, 썬은 이제 가마니니라고 하고요. (@ 썬이 썬일 때는 가마니로 하고요.) 가마니이라고.}

10322 @ 그다메 인제 위에 이렇길 그 도가지나 그런데다가 안 녀코, (# 가마이로?) 인자 큰:: 이런 먼?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런 것을 그 독아지나 그런데다가 안 넣고 (# 가마니로?) 이제 큰 이런 뭐?}

10322 # 두지? {뒤주?}

10322 @ 예. {예.}

10322 # 두지에다가 분는다고요? {뒤주에다가 붓는다고요?}

10322 @ 예. {예.}

10322 # 썬 나라글. {썬 나락을.}

10322 # 마당으다 노코 큰:: 두제, 영꺼갈꼬 막 거그다가 한 이십가마이, 삼십가마이럴 막 붙썌요. 멘 썌멀 부서 거다가. {마당에다 놓은 큰 뒤주, 엮어가지고

- 막 거기에다가 한 이십 가마니, 삼십 가마니를 막 붓지요. 몇 섬을 부어 거  
기다.}
- 10322 # 부서날때가 인제 방애찢찢그 퍼다가 방애찌코. {부어났다가 이제 방아 찢  
적에 퍼다가 방아 찢고.}
- 10323 @ 그 도가지를 인제 호그로도 해서 도가지를 만들고, 지부로는 또 머 만드  
능 건 업썬요? {그 독아지를 이제 흙으로도 해서 독아지를 만들고, 짚으로  
는 또 뭐 만드는 것 없어요?}
- 10323 # 지번 인제: 가마니고, 맥파리고. {짚은 이제 가마니이고, 맥둥구미고}
- 10323 @ 맥, 맥파리는 뭐예요? {맥, 맥둥구미는 뭐예요?}
- 10323 # 맥파리는 인제 이러케 인제 지:부로 덕썬맹이로 영꺼요. {맥둥구미는 이  
제 이렇게 이제 짚으로 멍석처럼 엮어요.}
- 10323 @ 애. {예}
- 10323 # 덕썬근 알지요? {멍석은 알지요?}
- 10323 @ 그러치요. {그렇지요.}
- 10323 # 애. 덕썬맹이로 영꺼가꼬 똥고::로머이 요로케 형 거시 맥파리. {예. 멍석  
처럼 엮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한 것이 맥둥구미.}
- 10323 @ 그 노피는 한 얼마 정도나 돼요? {그 높이는 한 얼마 정도나 돼요?}
- 10323 # 노피는 한 요 정도 되야요. {높이는 한 이 정도 되어요.}
- 10323 @ 키 한 반절 정도요? {키 한 반절 정도요?}
- 10323 # 애 그먼 인제. {예. 그러면 이제.}
- 10323 # 공개 인제 한 섬짜리, 한 섬짜리는 두 가마니된 뇌미 한 섬짜리 맥파리  
고. {그러니까 이제 한 섬짜리, 한 섬짜리는 두 가마니된 뇌미 한 섬짜리  
맥둥구미고.}
- 10323 # 인자 두 섬짜리 뇌미 네가마니 드러간 맥파리가 일꼬, 인자 고걸또 뎌까  
지로 영썬요. {이제 두 섬짜리 뇌, 네 가마니 들어간 맥둥구미가 있고, 이제  
그것도 몇 가지로 엮지요.}
- 10323 @ 예:. {예.}
- 10323 # 큰놈, 자근놈. {큰 놈, 작은 놈.}
- 10323 @ 그다메 이 그 곡썬뜨를 인제, 머글 곡썬기 인꼬, 내년 보메 씨::로 뿌릴  
곡썬기 인꼬 그러지요? 고론 거슨 어떠케? {그 다음에 곡식들을 이제, 먹을  
곡식이 있고, 내년 봄에 씨로 뿌릴 곡식이 있고 그러지요? 그런 것은 어떻  
게?}
- 10323 # 그거선... {그것은...}
- 10323 @ 보과늘 해요? {보관을 해요?}
- 10323 # 후녀네 씨가시 혈뇌밍개로 가마니다 두자. 그리서 가마니로 두고. {내년  
에 씨앗할 뇌이니까 가마니다 두자. 그래서 가마니로 두고.}
- 10323 # 머글로든 기냥 맥파리로 기양 수퉁이다 그러케 노코. {먹을 것은 그냥 맥

동구미로 그냥 독아지에다 그렇게 놓고.}

10323 @ 수탱이다가, 수탱이는 뭐요? {수탱이다다가, 수탱이가 뭐예요?}

10323 # 수탱이 도가지. {수탱이 독아지.}

10323 @ 아! {아!}

10323 # 도가지다 너. {독아지다 넣어.}

10323 @ 응, 도가지다가. {응, 독아지에다가.}

10323 @ 그 추수를 다 하고나면 그 인제 지비나 이런 걸 가지고 지:부로는 뭐슬 만드려요? {그 추수를 다 하고나면 그 이제 짚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짚으로는 무엇을 만들어요?}

10323 # 지번 인자 소 메기고, 덕썰 맨들고, 가마이 짜고 거걸 빼끼요. {짚은 이제 소 먹이고, 멍석 만들고, 가마니 짜고 그것 밖에 없어요.}

10323 @ 또 그다메 그 또 먼 똥그:라머게 이러케 만드러간꼬 안줄 때. {또 그다음에 그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앓을 때.}

10323 # 꼴무끄리 안질개. {꼴무끄리 안질개.}

10323 @ 애. {예.}

10323 # 또 저런 저. {또 저런 저.}

10323 # 거시기, 산:태미, 그렁걸 맨드랴요. 그렁걸 짜, 머:심더리. {거시기, 삼태기, 그런 것 만들어요, 짜, 머슴한테}

10323 # 시아네 머심덜 안 놀릴라고, 산:태미 짜라, 덕썰 짜라 {겨울에 머슴들 안 놀리려고, 삼태기 짜라, 멍석 짜라}

10323 # 덕썰걸 일년 내 농사질꼬 나갈라면 한넙썩글 짜서 내놓아야 나가게 허지 그라느면 몬 나가게 험디야. {멍석을 일년 내 농사짓고 나가려면 한 닢썩을 짜서 내놓아야 나가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가게 한 대.}

10323 # 공개 바멸 안자, 바멸 안자. {그러니까 밤을 안자, 밤을 안자.}

10323 # 애를 타고 바르도 막 짜. {애를 태우면서 밤에도 막 짜.}

10323 @ 응 고, 몬 놀게. {응 그, 못 놀게.}

10323 # 애, 몬놀게 헐라고, 밤 메기썩개. {예, 못 놀게 하려고, 밥 먹었으니까.}

10323 # 농사질썩꼬는 데지게 농사징개 시아네나 놀게 해안단 말이제. {농사질 적에는 죽도록 농사지었으니까 겨울에나 놀게 해야 할 텐데 말이지.}

10323 @ 호호호. {호호호.}

10323 # 그런거슬 허라고 허더라고. {그런 것을 하라고 하더라고.}

10323 # 또 막 가마니도 열넙썩 하룻저녀기면 짜내노라고. {또 막 가마니도 열 닢썩 하룻저녁이면 짜내놓으라고.}

10323 @ 마:니 짜야건네요, 놀도 모드건네요. {많:이 짜야겠네요, 놀지도 못하겠네요.}

10323 # 원 자른 사람더런 하루저녀게 댜넙썩 짜요. {원래 잘한 사람들은 하룻저녁에 댜 닢썩 짜요.}

10323 # 팍: 잘 지르고 이러케 호고 호는 사람드른 댄넵씩 짜. {팍: 잘 지르고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댕 뇨씩 짜.}

10323 @ 가마니 짜는 틀. {가마니 짜는 틀.}

10323 # 애, 이씨요. {예, 이씨요.}

10323 @ 고 이러케 허는 요런 거슨 이르미 뭐예요? {그 이렇게 하는 것은 이름이 뭐예요?}

10323 # 가:마이 틀. {가마니 틀.}

10323 @ 애, 근데 이제 가마니트레서도 요로케 내려서 축축... {예, 그런데 가마니 틀에서도 이렇게 내려서 축축...}

10323 # 그거슨 인제. {그것은 이제.}

10323 # 이러케 이러케 형 거슨 부기이라고 허드만, 가마이북.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은 북이라고 하드만, 가마니북.}

10323 @ 가마이북. {가마니북.}

10323 # 애 애 그러고 인자. {예 예 그리고 이제.}

10323 @ 여페서 이러케 찢릉 걷? {옆에서 이렇게 찢르는 것?}

10323 # 차, 창:때. {차, 창때.}

10323 @ 창때. {창때.}

10323 # 가마이 짜는 창때. {가마니 짜는 창때.}

10323 # 서서 천녕 걷 지둥이라고 허고. {서서 치는 것은 지둥이라고 하고}

10324 @ 고 겨우::레 땔까면 이제 (# 나무.) 애, 고령 거슨 어트케 장마늘 해요? {그 겨울에 땔감은 이제 (# 나무.)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장만을 해요?}

10324 # 고건 인자 솔나무, 인잔 서:리가 와가꼬 단풍들자너요? {그건 이제 소나무, 이제 서리가 와가지고 단풍들잖아요?}

10324 @ 애. {예.}

10324 # 그먼 막:: 솔나무가 막 입새기 다 떠러져버려 뽕그르니. {그러면 소나무가 막 잎이 다 떨어져버려 뽕갈게.}

10324 @ 애. {예.}

10324 # 그먼 인자 갈퀴로 글거다가 쟁에노쥬. {그러면 갈퀴로 굵어다가 쟁여 놓쥬.}

10324 @ 고:거슨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10324 # 갈:퀴나무. {갈퀴나무.}

10324 @ 갈퀴나무? {갈퀴나무?}

10324 # 애, 그러고 인자 또 낭:구에 달리서 그 옴나무 그 가쟁이: 건 삭:팔가지 고놈 따다가 쟁이날따가 시아네 따고 때고. {예, 그리고 또 나무에 달려서 그 옆나무 그 가지: 그건 삭정이 그 놈 따다가 쟁여왔다가 겨울에 때고 때고.}

10324 @ 그 다메 좀 굴:근나무. {그 다음에 좀 굵은나무.}



10324 # 장작. {장작.}

10324 @ 장자근 뭘로? {장작은 뭘로?}

10324 # 장자근 솔나무 뭐 저는 참나무 인제 선넌놈 비어다가 꽤:노면 장작. {장작은 소나무 뭐 전에 참나무 이제 서 있는 놈을 베어다가 꽤놓으면 장작.}

10324 @ 뭘로 꽤요? {무엇으로 꽤요?}

10324 # 도치. {도끼.}

10325 @ 고 겨우::레는 이 이제, 뭐야 채소나 이렇 거슬 추우니까. {그 겨울에는 이 이제, 뭐 채소나 이런 것을 추우니까.}

10325 # 조:다 짐치다마버리제. {모두 김치담아버리지.}

10325 @ 고:거슬 어터케 하능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325 # 그건 인제 뭐 이 달 마릴 경 가트 예를 그러면 인자 참바람 나면, 뽕바다가 이자 소그르다 간쳐서, 양니미가꼬 김치 다마서 막 단, 시방은 여 냉장고가 이썩개 그러지마는 엔나레는 배깁따 그노를 양 다: 단지다 인지 다마노코는 꺼:지기로 막 덮썩요. {그건 이제 뭐 이 달 말일 경 같은 예를 그러면 이제 찬바람 나면, 뽕아다가 이제 소금에다 간 쳐서, 양념해가지고 김치담아서 막 단, 지금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밖에다 그 놈을 그냥 다 단지에다 이제 담아놓고는 거적으로 막 덮썩요.}

10325 # 누노면 언다고. {눈 오면 언다고.}

10325 @ 예. {예.}

10325 # 지벌 영꺼갸꼬. {짚을 엮어가지고.}

10325 @ 영꺼가꼬요? {엮어가지고요?}

10325 # 애, 꺼:지기를 맨드라서 다 더퍼놔요. {예, 거적을 만들어서 다 덮어놔요.}

10325 # 다 해동허면 여러노코. {다 해동하면 열어놓고.}

10325 @ 또 그러치 아느머는 이제 땅을...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땅을...}

10325 # 땅언 파서 문능 거슨 동치미가튼 거 묻꼬. {땅은 파서 묻는 것은 동치미같은 거 묻고.}

10325 @ 아, 거 김치는 문능 게 아니꼬요? {아, 그 김치는 묻는 것이 아니꼬요?}

10325 # 잘 안 무더요, 그런 거선. {잘 안 묻어요. 그런 것은.}

10325 # 동치미릴 마니 묻제. {동치미를 많이 묻지.}

10325 @ 무우:넌 겨우레 머글 쭈가 엽짜나요, 엽써서. {무는 겨울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없어서.}

10325 # 무더다, 무더받따가 머거요. {묻어다, 묻어봤다가 먹어요}

10325 @ 어떠케, 어따? {어떻게, 어디에?}

10325 # 땅얼 파서, 지:피 파갸꼬 거다가 무더가꼬는 우에다가 이러케 지브로 유지개미를 맨드라서 요로케해서, 무더노코 이자. {땅을 파서,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묻어가지고는 위에다가 이렇게 짚으로 유지개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묻어놓고 이제.}

10325 @ 유:지개미? {유지개미?}

10325 # 유지뱅이라고 지벌... {유지뱅이라고 짚을...}

10325 @ 애. {예.}

10325 # 날개짱으로 영꺼서 핵: 둘러서 따:습께 허라고, 그 지비 따습때요. {날개로 엮어서 핵 둘러서 따뜻하게 하려고, 그 짚이 따뜻하대요.}

10325 @ 고걸 뽕: 둘러서 이러케 허능 거슬 유지뱅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뽕: 둘러서 하는 것을 유지뱅이라고 그래요?}

10325 # 유지뱅이여, 유지뱅이럴 인자 이러케 히노코. {유지뱅이요, 유지뱅이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10325 # 구멍만 여그다 쪼:개 내노코 먹고자푸먼 거그서 하나씩 구멍 소그써 빼다가 먹꼬. {구멍만 여기다 조금 내놓고 먹고 싶으면 거기서 하나씩 구멍 속에서 빼다가 먹고.}

10325 @ 고, 잘못허머는... {그, 잘 못하면...}

10325 # 어러. {얼어}

10325 @ 예, 얼고 또, {예, 얼고 또.}

10325 # 썩어버리고, {썩어버리고.}

10325 @ 썩꼬, 바람 드러가고 잉. {썩고, 바람 들어가고 잉.}

10325 # 애, 근디 바래미 드러가나 안 드러가나, 바람 들덩마뇨. 무수가. {예, 그런데 바람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바람 들더만요. 무가.}

10325 @ 바:른 어떠케 해요? {밤은 어떻게 해요?}

10325 # 바:먼 인재 밤나무서 이 가을 도라오면 인자 파럴팔 도라오면 영글머는 그뇌미 이러케 짹: 바미 버러지면 거그서 알빠미 빠지쥬. {밤은 이제 밤나무에서 이 가을 돌아오면 이제 팔월 달 돌아오면 영글면 그 놈이 이렇게 짹 벌어지면 거기서 알밤이 빠지쥬.}

10325 @ 고걸 인제 겨우레는 어떠케 보과늘 해요? {그걸 겨울에 어떻게 보관을 해요?}

10325 # 겨우레는. {겨울에는.}

10325 # 오래 마니 둘 싸라먼 소금 무레다가 당군디. {오래 많이 둘 사람은 소금 물에다가 담그는데.}

10325 @ 소금 무레다가요? {소금 물에다가요?}

10325 # 애, 그러다가 일주일 당관따가 건져서 팔고 어찌고 헌데. {예, 그러다가 일주일 담갔다가 건져서 팔고 어떻게 하는데.}

10325 # 지그먼 야가빠져서 그르키 아너고 기양 야걸 핑긴대요. {지금은 약삭빨라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약을 풍긴대요.}

10325 @ 아:!, {아!}

10325 # 야글. {약을.}

10325 # 게그다가 세주 한 모금 너코, 무레다가 야글 타갈꼬는 바:덜 뒤쩍쥐쩍 히

- 서 쟁이완따가 한 일주일 인따가 팔면 버럭찌가 다 주거뿔고 업떼요. {거기다가 소주 한 모금 넣고, 물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밤을 뒤적뒤적 해서 쟁여놔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팔면 벌레가 다 죽어버리고 없대요.}
- 10325 # 그리고 우리 가정으서넌 찌러케 알:빼미 인자 드러오거나 사거나 허면 쌀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저렇게 알밤이 이제 들어오거나 사거나 허면 삶아요.}
- 10325 # 폭 쌀마따가 한말 가통 거, 그런 땀뻘 가통 거 쌀마간꼬 냉동으다 파썩얼꺠따가 다시 인자 오래된니네 머꺼나 인자 설췌야서 머글라고 허면 다시 찌요. {폭 삶아다가 한 말 같은 거 그런 닻 대 같은 거 삶아가지고 냉동에다 얼렸다가 다시 이제 오래됐을 때 먹거나 이제 설 췌서 먹을 것이라면 다시 찌요.}
- 10325 # 그러면 인자 노쿠지 말고 그거슨 아무라도 알아들 쏘리요. 노쿠지 말고 그냥 언대로 밤 찌드끼 다시 찌면 푸극푸극 푸극 그대로 돼야. {그러면 녹이지 말고 그것은 아무라도 알아들 소리요. 녹이지 말고 그냥 언대로 밤 찌듯이 다시 찌면 푸극푸극 푸극 그대로 돼.}
- 10325 @ 음, 노쿠지 말고 {음, 녹이지 말고.}
- 10325 # 애, 노쿠지 말고, 기양 찌야지, 노칸따는 썰췌썰췌 히여. {예. 녹이지 말고, 그냥 찌야지, 녹였다가 썰췌썰췌 하여.}
- 10325 @ 아:!! 고, 엔나레, 엔나레는 그 냉장고나 이렇 게 업췌췌 때는 어떠케? {아! 그, 옛날에, 옛날에 냉장고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 10325 # 업췌. {없어.}
- 10325 @ 그래췌 때는 어떠케 해췌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 10325 # 그릴 때넌 지양 그러케 무레다가 당관땅개요. {그릴 때는 제사, 그렇게 물에다가 담았다니까요.}
- 10325 @ 아:!! 소금 무레다가. {아! 소금물에다가.}
- 10325 # 소금무리다가 당가따 일주일 인따가. {소금물에다가 담가서 일주일 있다가.}
- 10325 # 나중에 지양 모실라고 혈 찌그 그노멸. {나중에 제사 모실려고 할 적에 그 놈을.}
- 10325 @ 그러머는 당가간꼬 나서 어따가 보관늘 해요? {그러면 담가가지고 나서 어디에다가 보관을 해요?}
- 10325 # 기양 가마이나야: 너서 인자 따순방으다 두제. {그냥 가마니나 넣어서 이제 따듯한 방에다 두지.}
- 10325 @ 아, 따순 방에다 뒷요? {아, 따듯한 방에다 뒷요?}
- 10325 # 예, 얼면 못 췌개. {예, 얼면 못 쓰니까.}
- 10325 @ 아! {아!}
- 10325 # 얼면 노그면 췌거버링개. {얼면 녹으면 췌어버리니까.}

10325 @ 아, 따순 방에다가. {아, 따뜻한 방에다가.}

10325 # 감자나, 뭐 고구마 이런 거슨요? {감자나 뭐 고구마 이런 것은요?}

10325 # 그거또 그러. 그거또 기양 따순 방으다 뒤편 찬방으다 뒤편가는 몸머거  
어려버리서. {그것도 그렇게 해요. 그것도 그냥 따뜻한 방에다 뒤편 찬방  
에다 뒤편가는 못 먹어 어려버리서.}

10325 @ 그: 고구마나 감자 이런 거슨 방에다가 이러케 해는데 어따가 다마서?  
{그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은 방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디다가 담아서?}

10325 # 엔나레는 고구마로 모다 살궁개 마니 혈 때는 막 수수때기로. {옛날에는  
고구마로 모두 살아가니까 많이 할 때는 막 수수때기로.}

10325 # 기양 영겨갈꼬 막 이러케 두지, 큰: 놈 매이로 연겨서 막 천장 달똥말똥  
허게 세워노코는 막 거다갈따가 붙자내요. {그냥 엮어가지고 막 이렇게 두  
지, 큰 놈처럼 엮어서 막 천장에 달똥말똥 하게 세워놓고는 막 거기에다가  
붙잡아요.}

10325 @ 고 고걸 이르물 뭐라고 그래요? 수수땡이로 이러케. {그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수수깥으로 이렇게.}

10325 # 고구마 여제, 고구마 두지. {고구마 넣지, 고구마 뒤편.}

10325 @ 고구마 두지. {고구마 뒤편.}

10325 # 애. {예.}

10325 # 그노를 시안내:: 짐치허고 다 머근 사라른 양서기 업썩개 기양 삼시세때  
골로 꼬니를 삼꼬 먹테요, 우리 뒤편 본개. {그 놈을 시안에 짐치하고 다  
먹은 사람은 양식이 없으니까 그냥 삼시세때 그것으로 꼬니를 삼고 먹테요,  
우리 뒤편 보니까.}

10325 @ 음, 고 고구마 두지를 만드라갈꼬요, 수수깥으로? {음, 그 고구마 뒤편을  
만들어가지고요, 수수깥으로?}

10325 # 애, 근디 머 시방언 그런 법또 업꼬 기양, 아이구 고구마 쪼개썩 캐면 빠  
쓰다 너서 딱 아램모그다가 모시노코 쪼개 하나썩 내먹꼬 그래요. {예, 그  
런데 머 지금은 그런 법도 없고 그냥, 아이구 고구마 조금썩 캐면 박스다  
넣어서 딱 아랫목에다 모셔놓고 조금썩 하나썩 내서 먹고 그래요.}

10326 @ 헤헤, 히히. 그:: 엔나레는 이 정긴뿌리 업썩쓸 때는? {헤헤, 히히. 그 옛  
날에는 이 전깃불이 없었을 때는?}

10326 # 호룽. 호룽땡. {호룽. 호룽불.}

10326 @ 고건 어떠케 생겼썩요? {그건 어떻게 생겼어요?}

10326 # 호룽땡, 요매::는 흐::연 호룽이라고 인식머는 뚜껑 불썩디가 이짜너요?  
{호룽불, 이만한 하얀 호룽불이라고 있으면 뚜껑 불 켜는 데가 있잖아요?}

10326 @ 애. {예.}

10326 # 그건 인자 심지가 이썩서 세구바다다 호룽으다 너:서 부를 쓰고 인자 호  
룽뿌리 떨어져부리면 인자 세구가 떨어져부리면 그또 불도 안 썩지고. {그

- 것은 이제 심지가 있어서 석유 받아다 호롱에다 넣어서 불을 쓰고 이제 호  
 룡불이 떨어져버리면 이제 석유가 떨어져버리면 그것도 이제 불이 안 켜지  
 고.}
- 10326 # 또 엔나레 인자 또 호롱뿔 업썰 찌그는 지:르믈 짜서 지르믈 짜간꼬 접씨  
 다가 공개 불또 오래 모썌요. {또 옛날엔 또 호롱불 없을 때는 기름을 짜서  
 기름을 짜가지고 접시다가 그러니까 불도 오래 못 썌요.}
- 10326 # 관수울 따다가 관수울뿔 저그만::치 노코 이르게 호:쓰렐 히서 배까티로  
 앵기넨 나가게 허고, 관수울뿔을 조개씩 놔서 쓰고 그러다가 인제 관수울뿔  
 리 인자 불나고 위허멍개로... {관솔 따다가 관솔불 저기만큼 놓고 이렇게  
 호스를 해서 밖으로 연기는 가게 하고, 관솔불을 조금씩 놔서 쓰고 그러다  
 가 이제 관솔불이 이제 불나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 10326 # 지:르믈 짜서, 들지르믈 짜간꼬 접씨 이때::넌디다 놔서 이러케 심:지를  
 모라서 거다가 접씨다가 노코 부릴 대노면 화:안한 고놈 보고는 기양 머 지  
 림 떠러지면 그걸또 부리 안썌징개 막 꺼버리고. {기름을 짜서, 들기름을  
 짜가지고 접시 이만한데다 놔서 이렇게 심지를 몰아서 거기다 접시다가 놓  
 고 불을 대놓으면 환한 그 놈 보고는 그냥 머 기름이 떨어지면 그것도 불이  
 안 켜지니까 막 꺼버리고.}
- 10326 # 인자 호롱뿔 생김선 쪼개 나사전는다. {이제 호롱불 생기면서 조금 나아  
 졌는데.}
- 10326 # 정긴뿔 생김개는 머 호롱뿔리고 머시고 다 업썌저부리고. 행행행이. {전  
 깃불 생긴 것은 머 호롱불이고 뿔이고 다 없어져버리고. 행행행이.}
- 10326 @ 그, 뭐야, 호롱뿔을 바쳐논는 거슨 뭐예요? {그, 뭐야, 호롱불을 받쳐놓는  
 것은 뭐예요?}
- 10326 # 그게, 등:잔 등잔. {그게, 등잔 등잔.}
- 10326 @ 등잔? {등잔?}
- 10326 # 네:. {예.}
- 10326 @ 고, 등자는 어디 지베서 만드러요? {그, 등잔은 어디 집에서 만들어요?}
- 10326 # 맨:드라요. {만들어요.}
- 10326 @ 지베서? {집에서?}
- 10326 # 요 요:마느게 히간꼬 맨들고, 인자 대만 이러케 히서 여그다 호롱 안치노  
 케만 파서 맨들고. {이 이만하게 해가지고 만들고, 이제 대만 이렇게 해서  
 여기다 호롱 안쳐놓게만 파서 만들고.}
- 10326 # 미테는 기냥 나무 께작맹이로 요로케 뺨::드시 나무 까까간꼬 네모 뺨드  
 드게 께작매이로 맨드라간꼬 거그다가 호롱을, 저 등자를 맨드라. {밑에는  
 그냥 나무 께작처럼 반듯이 나무를 깎아갖고 네모반듯하게 께작처럼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호롱을, 저 등잔을 만들어.}
- 10326 @ 관솔뿔은 어따가 피우는 거예요? 미테다가 멀 바추는 거슨? {관솔불은

어디에다가 피우는 거예요? 밑에다가 뭘 바치는 것은?)

10326 # 미티다가 인자 돌맹이 이: 돌맹이를 서너개 히노코, 인자 확:뚝 쪼까녕 거  
 술 돌맹이 확뚝 요마:너게 히노면 인자 거그다 관솔뿌를 때지요. {밑에다가  
 이제 돌맹이 이 돌맹이를 서너개 해놓고, 이제 확독 조그마한 것을 돌맹이  
 확독 이만하게 해놓으면 이제 거기다 관솔불을 때지요.}

10326 # 다른 디다는 타버링개. {다른 데다는 타버리니까.}

10326 @ 그러케 해간꼬 요 멀 아까 이러케 영기 나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무엇을 아까 이렇게 연기 나가라고...}

10326 # 영기 나가라고. {연기 나가라고.}

10326 @ 멀로 만드려요? {무엇으로 만드려요?}

10326 # 양철떼기이:. {양철}

10326 @ 애. {예.}

10326 # 그렇 걸로 요마느이 구머글 뿌려서, 예를 드려서 가운데다 놔안디 가상으  
 다, 문바까테에 달 쟁도로 히간꼬 거그다가 땡개, 먼:디 사람 비도 안히여,  
 쪼개. 관솔 쪼개서 그러케 허고. {그런 것으로 이만하게 구멍을 뚫어서, 예  
 를 들어서 가운데다 놓아야 하는데 가에다, 문밖에다 달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대니까, 먼 데에 사람은 보이지도 안 해요, 쪼금. 관솔 쪼개서  
 그렇게 하고.}

10326 @ 그면 양철통이 업써쓸 때는요? {그러면 양철통이 없을 때는요?}

10326 # 양철통이 업써쓸 찌그는 모다 그 저 저으음: 그럭 끝디 가서 동우가 인짜  
 녀요. {양철통이 없을 때는 모두 그 점, 그릇 굽는 데 가서 동이가 있잖아  
 요.}

10326 @ 애. {예.}

10326 # 동우가 이쓰면 동우럴 사다가 현 도근 비트러지고 모썰눔, 인자 내뿌릴  
 눔, 저메서 문 파라무글 눔 이씨른 그눔 주서다가 염방 이러케 대서 세개만  
 대서 배까테다 노면 대. {동이가 있으면 동이를 사다가 현 독은 비틀어지고  
 못쓸 눔, 이제 내버릴 눔, 점에서 못 팔아먹을 몸 있으면 그눔 주워다가 계  
 속 이렇게 대서 서너개만 대서 밖에다 놓으면 대.}

10326 # 나 쪼까내서는 그린는디 서너살 머거서 그런 거술 그러케 노터라고, 그리  
 서. {내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 서너살 먹어서 그런 것을 그렇게 놓더라고,  
 그래서.}

10326 # 아버지 이 머시여? 공개 거 대지 마. 거그 대면 손 디여 주근다고 그러드  
 라고. 형형. {아버지 이것 무엇이여? 그러니까 그 대지 마. 거기 대면 손 데  
 여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형형.}

10326 @ 그러니까 관솔뿌를 제일 처음에 허고, 그다메 이제 들지름 (# 지름뿔 들  
 지름뿔.) 접씨로 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관솔불을 제일 처음에 하고, 그 다  
 음에 들기름 (# 기글불 들기름불.) 접씨로 해서 하고요.}

10326 # 그고 인자 호롱. {그리고 이제 호롱.}

10326 @ 인자 호롱이 나오고요? {이제 호롱이 나오고요?}

10326 # 예. {예.}

10326 @ 그 다메 인자 어디 바케 나가고 그럴 때는 고 또 네모지게 이러케 짜가지고, 고 소게다가 너가지고 그건?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밖에 나가고 그럴 때는 그 또 네모지게 이렇게 짜가지고, 그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것은?}

10326 # 해: 갑꼬 나가요. 해, 고곤뵈고 해:라구려. {해가지고 나가요. 해, 그것보고 해라고 그래.}

10326 @ 해? {해?}

10326 # 응, 해잡꼬 나가. {응, 해 잡고 나가.}

10326 # 지그먼 후라씨가 인찌마는 어디 갈라면 해잡꼬 나가 인자. {지금은 랜턴이 있지만 어디 가려면 해잡고 나가 이제.}

10326 @ 그 다메 인제 어디 또 바케 길가에 나가고 그릴려면, 머야 저름 제름때기 가튼 걸 머?. {그 다음에 어디 또 밖에 길가에 나가고 그릴려면, 뭐야 겨름 겨름대 같은 걸 뭐?}

10326 # 그게 해:여. {그것이 해:여.}

10326 @ 아:!! {아!}

10326 # 그게 해애. {그것이 해.}

10326 @ 아:!! {아!}

10326 # 그따 인자 소그다가. {거기다 이제 속에다가.}

10326 # 그 관솔떼기 너갑꼬 저릅떼기다 히서 요마느게 맨드라갑꼬 불 땡기면 환::허면 그르케 갑꼬 나갑짜내요? {그 관솔을 넣어가지고 겨름대에다 해서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불당기면 환하면 가지고 나가잖아요?}

10326 (개 짖는 소리)

#### 1.3.4.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10327 @ 고: 엔나레는 고 이를 할려면 소가 이써야 되자나요? {그 옛날에는 일을 하려면 소가 있어야 되었잖아요?}

10327 # 내. {예.}

10327 @ 소? {소?}

10327 # 소. {소.}

10328 @ 그 소는 어떠케 길런써요? {그 소는 어떻게 길렀어요?}

10328 # 그냥 외양으다 메노코 쇠죽 꼬리메기고. {그냥 외양에다 매놓고 쇠죽 끓여 먹이고.}

10328 @ 맨 처음 고:골 머 자근 송아지. {맨 처음 그걸 뭐 작은 송아지.}

10328 # 송아치. {송아지.}

10328 @ 어디서 사와요? {어디서 사와요?}

10328 # 사오지요, 새끼난디서. {사오지요, 새끼난데서.}

10328 # 새끼난 지비서. {새끼난 집에서.}

10328 # 사다가. {사다가.}

10328 @ 아:, 시장에서 상 게 아니고, 동네? {아, 시장에서 산 것이 아니고, 동네?}

10328 # 동네서 인자 새끼난 지비. {동네에서 이제 새끼 난 집에서.}

10328 @ 고른 거슨 한 얼마씨기나 해썬썬요? {그런 것은 한 얼마씩이나 했었어요?}

10328 # 그때는 머 단냥, 열냥 그렇게 몰라요. 지그믄 막, 이백마넌, 배고심마넌 그런디. {그때는 뭐 단 냥, 열 냥 그러니까 몰라요. 지금은 막, 이백만원, 백오십만원 그랬는데,}

10328 # 저네 우리 아버지, 송아치 한 마리 사갠꼬 움선 아버지 얼마 쫘썩개. 단 냥 쫘따. 그래 단냉이 머싱고 히떠니, 지금 궁개 지금 마래썬는 머 오심마넌, 그런 소리여. {전에 우리 아버지, 송아지 한 마리 사가지고 오면서 아버지 얼마 주셨어요 하니까. 닷 냥 쫘다. 그래서 닷 냥이 무엇인가 했더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는 뭐 오십만원, 그런 소리여.}

10328 @ 애. {예.}

10328 # 그리갠꼬 단냥 쫘따 그려, 오매가. 오매, 거 단냥이 머여? 너그는 몰라. 행. 머 중우떼기 도니 아니고 납짜::전 이러케 생긴 쇠 돈니더만. 가운데 구멍 뚜러지고. {그래가지고 닷 냥 쫘다고 그래,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 닷 냥이 무엇이여? 너는 몰라. 행. 뭐 종이 돈이 아니고 납작한 이렇게 생긴 쇠 돈이드만. 가운데 구멍 뚫어지고.}

10328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28 # 엽전. {엽전.}

10328 @ 애. {예.}

10328 # 엽전가텅 거설 막 이러케 갠꼬 나가더라고. 단냥, 열냥 험서. {엽전같은 것을 막 이렇게 가지고 나가더라고. 닷 냥, 열 냥 하면서.}

10328 # 흥흥흥. {흥흥흥.}

10328 @ 고:걸, 그러면 인자 그 송아치를 사다가. {그것을, 그러면 이제 송아지를 사다가.}

10328 # 기양, 저 외야양:. {그냥, 저 외양간.}

10331 @ 예. {예.}

10331 # 외양을 지어갠꼬 거다가 메요. 메고 인자 중쏘나 되면 코를 뚫터마뇨. {외양간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매요. 매고 이제 중소나 되면 코를 뚫터만요.}



10331 @ 애. {예.}

10331 # 어데로 도망가머는 자버댕기머는 코털 안 뿌르면 안 따라강개 코털 뚫터 만요. {어디로 도망가면 잡아당기면 코를 안 뚫으면 안 따라가니까 코를 뚫 더만요.}

10331 @ 코는 어떠케 뿌리요? {코는 어떻게 뚫어요?}

10331 # 머 막때기로 뚫티요오? {뭐 막대기로 뚫던데요.}

10331 @ 애:. {예.}

10331 # 그냥 어찌 저 지둥으다가 소털 그냥 콧 모가지를 올까서 다라노코는, 뚫 년 사라미 일떠마뇨. {그냥 어찌 저 기둥에다가 소를 그냥 콧 모가지를 묶 어서 달아놓고는, 뚫는 사람이 있드만요.}

10331 @ 아:! 아무나 뚫는 거지 아니고요? {아! 아무나 뚫는 것이 아니고요?}

10331 # 아무나 못 뿌리. {아무나 못 뚫어.}

10331 # 소 코이다가 소닐 콧 이러케 너갈꼬 소닐 우리 아버지 봉개 이러케 손 바 로 자브면 소가 인때요. 구니기 뿌러질 떠가. {소 코에다가 손을 콧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을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이렇게 손을 바로 잡으면 소가 있대 요. 구멍이 뚫어질 데가.}

10331 @ 아:! 좀 알분데가? {아! 좀 얇은 데가?}

10331 # 애. 알분데가 이쌍개 이케 자바갈꼬는 이러케 나무때기로 코를 뚫팅만. {예, 얇은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이렇게 나무로 코를 뚫더만.}

10331 @ 그:머는 그 아파갈꼬는 막 팔딱팔딱 뛰걸네요 이? {그러면 그 아파가지 고 막 팔딱팔딱 뒤짚네요 이?}

10331 # 막 뛰고 나대요. 고놈 코를 뿌르면. 곧자 꼬뚜레 꼬바부리면 팬찬통만. {막 뛰고 나대요. 그놈 코를 뚫으면. 그리고 이제 코뚜레 꼽아버리면 팬찬 더만.}

10331 @ 예. {예.}

10331 @ 인자 그러케 해서 키우능구마뇨? {이제 그렇게 해서 키우만요?}

10331 # 애, 그리키 히서 인자 키우갈꼬 인자 암소년 한 이년 되면 새끼가 배고, 인자 황소는 기냥 클씨락 억씨디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워가지고 이 제 암소는 한 이년 되면 새끼가 배고, 이제 황소는 그냥 클수록 억세대요.}

10331 @ 애. {예.}

10331 # 막 내두리싸코 어디를 막 가도 양 시 씹: 허니, 여자드리 가면 달라들라 고 허고 억씨여. {막 내둘러쌓고 어디를 막 가도 막 씹: 하고, 여자들이 가 면 달려들려고 하고 억세요.}

10331 # 그렇게 그 향쇠는 막 굴레를 짜등마뇨, 막. {그러니까 그 황소는 막 굴레 를 짜드만요, 막.}

10331 @ 굴레요? {굴레요?}

10331 # 예. {예.}

10331 @ 굴레가 뭐요? {굴레가 뭐예요?}

10331 # 굴레를 막 얼구리다가 막 이러케 짜고 이러케 짜고 막 얼거. {굴레를 막 얼굴에다가 막 이렇게 짜고, 이렇게 짜고 막 얹어.}

10331 @ 애. {예.}

10331 # 산내키로 납짜그니 그래간꼬 자버댕기면 인자 오까 안 얼그면 그냥 막 억 씨당개. 막 떠바다 사라멸. {새끼로 납작하게 그래가지고 잡아당기면 이제 올까 안 얹으면 그냥 막 억세다니까. 막 떠받아 사람을.}

10328 @ 외양까:네서 소:가 뭐 밤 머글 쭈 인또록... {외양간에서 소가 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10328 # 구수. {구유.}

10328 @ 응. {응.}

10328 # 구수. 우도 시방 독꾸씨 인씨요. {구유. 우리도 지금 돌구유 있어요.}

10328 # 거시건 사람드리 메:빼늘 와서 파르라고 혼디 안 파라. 어른드리 저네 헛노미여. 하라부지 때부터 파판디 나, 나무는 아무라도 쟈는디 도그로 판노미 큰: 노미 이씨요. 그런 건 좀치로 몬 귀허. {거시기 한 사람은 몇 번을 와서 팔라고 하는데 안 팔아. 어른들이 전에 한 놈이여. 할아버지 때부터 팔았는데 나, 나무는 아무라도 많은데 돌로 판 놈이 큰: 놈이 있어요. 그런 건 좀체로 못 구해.}

10328 @ 그:건 어디에서 판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판 거예요?}

10328 # 엔나레 인자 그 학뚝 판 사래미 인는 사람드리 인자 역뿌로 불러간꼬 독또 시러다가. {옛날에 이제 그것 학뚝 판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부러 불러가지고 돌도 실어다가.}

10328 @ 아! 지베 와서 지베서 그 파능 (# 지베서 인자 파서.) 거예요? {아, 집에 와서 집에서 그 파는 (# 집에서 이제 파서.) 거예요?}

10328 # 그따 놔두고 그먼 생:저늘 그건 인씨도 깨지도 아느고 그렇게. {거기에다 놓아두고 생전을 그것은 있어도 깨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10328 @ 그러믄 그런 큰: 도근 어디서 가져와요? {그러면 그 큰 돌은 어디서 가져와요?}

10328 # 사옹개비여. 먼 바우땀뽕잉가 머싱가 사다가 지비서 파덩마뇨. {사오는 모양이여. 무슨 바위덩어리인가 무엇인가 사다가 집에서 파드만요.}

10328 @ 그러면 며칠 파겔네요? {그러면 며칠 파겠네요?}

10328 # 애, 그 기술짜드른 한사날 파요. {예, 그 기술자들은 한 사날 파요.}

10328 # 큰:: 바우땀뽕이가턴 노를 가따가 곱:께 가상을 폐서 맨들고, 가운데를 파고 궁개로. 정으로 막 쇠뚝방을 쇠뚝뽕이를 뚜들다 파요. {큰 바위덩어리같은 놈을 갖다가 곱:게 가를 파서 만들고, 가운데를 파고 그러니까. 정으로

막 쇠뿔치를 쇠뿔치를 두드려 파요.}

10328 @ 그: 판 사람드른 또 그먼 품싸글 줌 마니 주건네요? {그 판 사람들은 또  
그러면 품삯을 줌 많이 주겠네요?}

10328 # 도늘 마니 바다요. 기술짜다고 도늘 마니 바다. {돈을 많이 받아요. 기술  
자라고 돈은 많이 받아.}

10328 @ 그 인자 소:는 그먼 구수에다가 이러케 해서 인제. {그러면 소는 그러면  
구유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10328 # 집, 나락집 써러서 쇠주글 끄리서. {짚, 벧짚 썰어서 쇠죽을 끓여서.}

10328 @ 쇠주근 어떠케 끄려요? {쇠죽은 어떻게 끓여요?}

10328 # 솥:, 솥 일찌요? {솥:, 솥 있지요?}

10328 @ 애. {예.}

10328 # 소테다가 기양 물 분꼬 짐너코. {솥에다가 그냥 물 붓고 짚 넣코.}

10328 @ 지분 어떠케 거 길쭈경 거? {짚은 어떻게 그 길죽한 것?}

10328 # 써러. 조다. {썰어. 모두.}

10328 @ 멀로? {무엇으로?}

10328 # 작두로. 작두가 일썤 또. 이리키 생긴디. {작두로. 작두가 있어 또. 이렇게  
생겼는데.}

10328 # 이리케 넘찌근 쇠여. 쇠로 미테넌 인자 칼랄가테간꼬 {이렇게 넘적한 쇠  
여. 쇠로 밑에는 이제 칼날갈에가지고}

10328 # 작두로 이러케 써러서 고놈 기양 쇠주글 끄리서 거다가 인제. {작두로 이  
렇게 썰어서 그놈 그냥 쇠죽을 끓여서 거기다가 이제.}

10328 # 나락찌, 속찌 고놈 바다서 타간꼬 미기면 기양 금방 살찌고 참 소가 조아  
요. {나락저, 속저 그놈을 받아서 타가지고 먹이면 그냥 금방 살이 찌고 참  
소가 좋아요.}

10328 @ 그러케 그 뭐여 지비 업꼬 그러면 어떠케 해요? {그렇게 그 뭐야 짚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328 # 집 업꼬 지비 업꼬 짜근 사라면 초를 베요. 사네 가서. {짚 없고 짚이 적  
은 사람은 초를 베요. 산에 가서.}

10328 # 요때머는 저런 푸리 마넌 디 가서 초라고 히여, 초. {이만 때면 저런 풀  
이 많은 데 가서 초라고 해요, 초. }

10328 @ 초? {초?}

10328 # 음, 그걸 뽕고 초를 비여서 너러. {음, 그것을 보고 초를 베어서 널어.}

10328 # 너러간꼬 뭉꺼다가 쟁이노코. {널어가지고 묶어다가 쟁여놓고.}

10328 @ 응. {응.}

10328 # 메기요, 초. {먹여요, 초.}

10329 @ 소:가 인는디 자기가 도니 업써가지고 소를 못 사면. {소가 있는데 자기  
가 돈이 없어가지고 소를 못 사면.}

10329 # 너무야 갇따가 메기요. {남의 소를 갖다가 먹여요.}

10330 @ 어떠케 해요? {어떻게 해요?}

10330 # 너무야를 그거슨 그걸뽀고 엽쏘라 허등가? 머, 먼 소라고 혼디 이리미.  
{남의것을 그것은 그것보고 옆소라 하던가? 뭐, 뭘 소라고 한데 이름이.}

10330 # 송아치릴 또 나코 또 나코 인는 사람 멘 마리릴 몸 메깁개, 송아치 몬 사  
서 애:탄 사람더런 우리 송아치 한 바리갇따가 메길랑가? 그러면 아 주씨  
요. 그러면 가져가덜만. 가져가면 이제. {송아지를 또 낳고 또 낳고 있는 사  
람은 몇 마리 못 먹이니까, 송아지 못 사서 애탄 사람들은 우리 송아지 한  
마리 갖다가 먹일랑가? 그러면 아, 주세요. 그러면 가져가덜만. 가져가면 이  
제.}

10330 # 그 소가 커갇꼬 송아치를 나차나요? {그 소가 커가지고 송아지를 낳잖아  
요?}

10330 # 그러면 인자 송아치만 그 메긴 사람 주고 에미는 갇꼬 와버려. {그러면  
이제 송아지만 그 먹인 사람 주고 어미는 가지고 와버려.}

10330 @ 아:!. {아!}

10330 @ 월래 그 송아치가 에미가 되쓰면 그 에미는 가져오고. {원래 그 송아치  
가 어미가 되었으면 그 어미는 가져오고.}

10330 # 송아치가 나썬. 우리야가 너덜 주얼씨 소릴. {송아지가 낳았어. 우리 것이  
남을 주었어 소를.}

10330 # 송아치를 쥔넌디 그노미 커갇꼬 새끼를 나면 송아치는 인자 그 사람 줘버  
리고 에미만 가꼬와. {송아지를 주었는데 그 놈이 커가지고 새끼를 나면 송  
아지는 이제 그 사람 줘버리고 어미만 가지고 와.}

10330 @ 그러면 이제 그 송아치가 에미 되고 그래쓸 때는, 고 내가 갇따가 키우  
면 내 농사질 때 쓰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그 송아지가 어미 되고  
그랬을 때는, 내가 갖다가 키우면 내 농사지을 때 쓰고 그러는 것이지요?}

10330 # 하:!. 내 농사 질 때 맘대로 부리먹꼬 송아치만 한 바리 떠러징 거여. {하!  
내 농사 지을 때 마음대로 부려먹고 송아지만 한 마리 떨어진 것이여.}

10330 @ 어:!. 송아치만. {어! 송아지만.}

10330 # 그리서 엮는 사라미 연방 인자 인게 되고 부자를 맨들고 그리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 계속 이제 있게 되고 부자를 만들고 그래요.}

10329 @ 고 그 송아치, 그래쓸 때 이르미 뭐예요? 고로케 허는 건? {그 그 송아  
지, 그랬을 때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10329 # 근 송아치고, {그것은 송아지고.}

10329 @ 예, 고로케 너무집 소를 갇따가 키우는 거요? {예, 그렇게 남의 집 소를  
갇다가 키우는 것이요?}

10329 # 궁개로 그: 말 보고 머라고 허등만. {글니까 그: 말 보고 무엇이라고 하더  
만.}

10329 # 시아바이가 우리 소 한 마리 갸파 메기면 자네 머시네잉, 그러등만. 그 소리는 기에기 안 나네. 헤헹헹. {시아버지가 우리 소 한 마리 갸다 먹이면 자네 무엇이네잉, 그러더만. 그 소리는 기억이 안 나네. 헤헹헹.}

10329 @ 그니까 고때 는 이제 송아치만 주는 걸로 하고 다른 거슨 업꼬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송아지만 주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은 없고요?}

10329 # 그 아무꺼또 안 주고, 송아치가 크면, 소가 크면, 에미 되면, 날마둥 어따가 쟁기질 히서 버러서 머거도 상과니 업꼬, 일단 내 큰 소만 채자 오면, 송아치는 인자 그 지비. {그 아무 것도 안 주고, 송아지가 크면, 소가 크면, 어미 되면, 날마다 어디다가 쟁기질 해서 벌어서 먹어도 상관이 없고, 일단 내 큰 소만 찾아 오면, 송아지는 이제 그 집이.}

10329 @ 애. {예.}

10329 # 비:룩쏘라고 허더라고, 비럭소. {비럭소라고 하더라고, 비럭소.}

10329 @ 비럭소? {비럭소?}

10329 # 애. {예.}

10329 # 우리 비럭쏘 함 마리갸파 메기소. 그러머넌 조아라구려. {우리 비럭소 한 마리 갸다 먹이소. 그러면 좋아라고 해요.}

10329 @ 응. {응.}

10329 # 아 그 한 민년만 고상허머는 송아치가 한 마리 떠러징개. {아 한 몇 년만 고생하면 송아지가 한 마리 떨어지니까.}

10332 @ 그 소:가 인제 막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가고 그러자나요? 그럴 때 소를. {그 소가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가고 그러잖아요?}

10332 # 쟁:기지를 썬꼬요? {쟁기질을 할 적예요?}

10332 @ 쟁기질허고 막 그래쉴 때 머라고 마를 허자나요? {쟁기질하고 막 그랬을 때 뭐라고 말을 하잖아요?}

10332 # 지레도 가거나 쟁기질할 때 가면, 소가 요짜그로 가면 이라, 이리 이짜그로 가라고, 그리고 인제 저짜그로 가면 자라, 이리, 자라, 그라너요? {길에도 가거나 쟁기질할 때 가면, 소가 이쪽으로 가면 이라, 이리 이쪽으로 가라고,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가면 자라, 이라, 자라, 그렇지 않아요?}

10332 # 그러면 인제 자라, 그러면 요짜그로 가고, 이리 그러면 이짜그로 따라오고 그리요. {그러면 이제 자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이리 그러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그래요.}

10332 @ 그면 마를 잘 아라드러요? {그러면 말을 잘 알아들어요?}

10332 # 아라드러요, 소가. {알아들어요, 소가.}

10332 # 인자 거그 가다가 설씨라면, 위. {이제 거기 가다가 섰으라면, 위.}

10333 @ 그 소:도 인제 색, 색까레 따라서 고 이름드리 뭐가 달라요? {그 소도 이제 색, 색깔에 따라서 그 이름들이 뭐가 달라요?}

10333 # 그 색까리 인자 빨그런 노문 인자, 노랑새기라고 허고, 또 꺼:명소가 인씨

요. 터리 꺼멍소는 꺼멍소라고 히요. {색깔이 이제 빨간 놈은 이제, 노랑색 이라고 하고, 또 검은소가 있어요. 털이 검은소는 꺼멍소라고 해요.}

10333 # 가틴 소라도 파라머글라머는 꺼멍소는 가비 업씨요. {같은 소라도 팔아먹 으려면 검은소는 값이 없어요.}

10333 @ 아:! 노랑소가 더 조은 (# 애.) 조은거예요? (# 노랑소가 조은개지.) {아 하. 노랑소가 더 좋은 (# 예.) 좋은 거예요?}

10333 @ 왜 이를 더 잘 해서 그런가요? {왜 일을 더 잘 해서 그런가요?}

10333 # 마시 더른대요. {맛이 덜 하대요.}

10333 @ 아! 마시 업서요? {아, 맛이 없어요?}

10333 # 애, 마시 더려. {예, 맛이 덜해.}

10333 @ 이:른 어떤 소가 더 자래요? {일은 어떤 소가 더 잘 해요?}

10333 # 이:른 똑가테요. 이:른 소는 일 해기는. {일은 똑 같아요. 일은 소는 일 하 기는.}

10333 @ 어! {어!}

10333 # 근디 자바 머글 썸그, 백정 노미 그 노를 깔친대요. 마시 더런다고. {그런 데 잡아먹을 때에, 백정 놈이 그 놈을 깔친대요. 맛이 덜하다고.}

10334 @ 그 소:가 뿌리 이러케 나자나요? {그 소가 뿔이 이렇게 나잖아요?}

10334 # 고 뿌:레 따라서 어떠케 뿌리 난는가, 그런 모양에 따라서 뭐 이름드리 이씨요? {그 뿔에 따라서 어떻게 뿔이 났는가, 그런 모양에 따라서 뭐 이름 들이 있어요?}

10334 # 그거슨 인제 이 요로:케 구분 소가 인꼬, 황소는 기양 이러케 이러케 섰 꼬 그런디. {그것은 이제 이 이렇게 굵은 소가 있고, 황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섰고 그런데.}

10334 # 구분 소년 상과니 업는디 뿌리 이러케 아벌 요로케 수거간꼬 눈뚜쟁이 덤 는 소년 가비 업떼요. {굵은 소는 상관이 없는데 뿔이 이렇게 앞을 이렇게 숙여가지고 눈썹이 덮는 소는 값이 없대요.}

10334 @ 아! {아!}

10334 @ 고, 그런 건뜨른 뿔 모양에 따라서 뭐 이르미 인꼬 그러지는 아능가요? {그, 그런 것들은 뿔 모양에 따라서 뭐 이름이 있고 그러지는 않은가요?}

10334 # 그릉진 업씨요. {그런 것은 없지요.}

10334 # 향:소, 암소는 인씨도 팔 썸그 지장이 인꼬 그러제, 머 뭇 소, 뭇 소는 이 르미 업명마뇨. {황소, 암소는 있어도 팔 적에 지장이 있고 그러지. 뭇 뭇 소는 이름이 없드만요.}

10335 @ 고 소:가 나이 머견 쓸 때 뭇 쌀, 뭇 쌀 그렁 거슨 일씨요? {그 소가 나 이 먹었을 때 몇 살, 몇 살 그런 것은 있어요?}

10335 # 소 장시드리 이벌 떠들러보고 이를 보고년 뭇 짜리라고 허딩마뇨. 이거 세 살, 다선 쌀, 글먼 소가 여선 쌀 머그면 늘거서 뭇 쓴대요. {소 장수들이

입을 떠들어보고는 이를 보고는 몇 살이라고 하더만요. 이것 세 살, 다섯 살, 그러면 소가 여섯 살 먹으면 늙어서 못 쓴대요.}

10335 @ 아, 소가 여섯 살 머그먼? {아, 소가 여섯 살 먹으면?}

10335 # 애. {예.}

10335 @ 그머는 소:를 그러케 한 살, 두 살 그러케 마를 해요. 아니면 따로 뭐 (# 한 살, 두 살 그려.) {그러면 소를 그렇게 한 살, 두 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면 따로 뭐 (# 한 살 두 살 그래.)}

10335 @ 으응, 따로 뭐 부르는 마른 업꼬요? {으응, 따로 뭐 부르는 말은 없어요?}

10335 # 인자 저 일련운중, 이년중, 그러케는 히도. {이제 저 일년 중, 이년 중, 그렇게는 해도.}

10335 @ 애. {예.}

10335 # 한 살, 두 사리 알아듣제, 모른 사라문 일년중이 머신고, 이년중이 머신고 그러등마뇨. {한 살, 두 살 알아듣지, 모른 사람은 일년중이 무엇이고, 이년중이 무엇이고 그러드만요.}

10335 # 소는 여섯 살 너므머는 늘거빠린대요. {소는 여섯 살 너므면 늘거버린대요.}

10336 @ 그 소:가 인제 이게 조은 송가 나쁜 송가, 그 그런 거슨 어떠케 아라요? {그 소가 이제 좋은 소인가 나쁜 소인가, 그 그런 것은 어떻게 아라요?}

10336 # 그거는 조은 소, 나쁜 소는 인자 빠가 잘고 그러므는, 빠가 잘면 송아치 소가치 저 짝:꼬. {그것은 좋은 소, 나쁜 소는 이제 빠가 잘고 그러면, 빠가 잘면 송아지 소같이 저 작고.}

10336 @ 예. {예.}

10336 # 빠가 만치바서 어디 머 방똥이 빠를 만치보면 안대요, 안 사라면. {빠가 만져봐서 어디 뭐 엉덩이 빠를 만져보면 안대요, 아는 사람은.}

10336 @ 애. {예.}

10336 # 소 사러오면 방똥이 인는디, 꼬리인는디 만치바싸텅마뇨. {소 사러오면 엉덩이 있는데, 꼬리 있는데 만져보더만요.}

10336 # 그먼 이건 뭐 베랑 대소가 아니거만 그러등마뇨. {그러면 이것은 뭐 별로 대소가 아니것만 그러던만요.}

10336 # 인자 아는 사람 소장씨드른 딱 이러케 와서 방똥이 요그를 만치더라고. {이제 아는 사람은 소장수들은 딱 이렇게 와서 엉덩이 여기를 만지더라고.}

10336 @ 예. {예.}

10336 # 우리지비 소 사러 오면 그러면 이거 왜 아부지 소를 이리키 미기쏘? 소장 시드리 그리여. {우리 집이 소 사러 오면 그러면 이거 왜 아버지 소를 이렇게 먹였소? 소장수들이 그래요.}

10336 @ 애. {예.}

10336 # 어떻게 미기여? 그러면 소가 베라 대소가 아니네요. {어떻게 먹이여? 그러면 소가 별로 대소가 아니네요.}

10336 # 누니로 안 받는다 어떻게 아라? 아이고 하나비는 모린 소리 허지 마. {눈으로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아이, 할아버지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10336 # 대소가 아니그마. 그르더라고. {대소가 아니그만. 그르더라고.}

10336 # 그 보통 소제, 대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통 소지. 대소가 아니라고.}

10336 @ 그니까 그걸 어떻게 고르능가는 그 사람드리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고르능가는 그 사람들이}

10336 # 그근 모리지. {그것은 모리지.}

10336 @ 응. {응.}

10336 # 그 사람더른 아라도. 갈치주덜 아능개 몰라. {그 사람들은 알아도. 가르쳐 주지를 앓으니까 몰라.}

10336 @ 애. {예.}

10337 @ 엔나레 그 머슴드리 인써찌요? {옛날에 머슴들이 있었지요?}

10337 # 애애. {예예.}

10337 # 머스:믄 종류가 또 이써찌요? 머스미. {머슴은 종류가 또 있어요? 머슴이.}

10337 # 머슴 종류는 인제 거시기제. 저, 머시미라고도 아너고, 고여두룬다고 그러고. {머슴 종류는 이제 거시기제. 저, 머슴이라고도 안 하고, 고용 들어온다고 그러고.}

10337 @ 예? {예?}

10337 # 고여비여 머심믄 고여브로 산다카이. {고엽, 머슴은 고엽으로 산다고해.}

10337 # 머심살라 간다 쏘리덜 고여부로 가. {머슴 살러 간다 소리를 고엽하러 가.}

10337 # 나는 인자 미칠 이써면 고엽부러 간다. 그러더라고.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 고용하러 간다. 그러더라고.}

10337 @ 애.

10337 # 그리서 오매보고 어머니 고여브러 간다 쏘리가 머여? 그러면 머심 살라 간다 쏘리여 인마 그리더라고. {그래서 어머니보고 어머니 고용하러 간다 소리가 무엇이요? 그러면 머슴 살러 간다 소리여 이눔아 그러더라고.}

10338 @ 머슴도 애기드리 인꼬, 뭐 어른 인꼬. {머슴도 애기들이 있고, 뭐 어른 있고.}

10338 # 꼬마 머심, 인자 장정 머심. {꼬마 머슴, 이제 장정 머슴.}

10338 @ 꼬마 머시믄 주로 뭘 해는 거예요? {꼬마 머슴은 주로 뭘 하는 거예요?}

10338 # 꼬마덜 머시믄 인제 하도 업써 사라서 밥도 몸 메기고 그렇게 그 지비가 배비나 먹꼬 기양 까리나 비여라. 그렇게 꼬마 머시미고, {꼬마들 머슴은 이제 아주 없이 살아서 밥도 못 먹이고 그러니까 그 집에가 밥이나 먹고 그냥 풀이나 베라. 그러니까 꼬마 머슴이고.}



10338 @ 뭐, 깔머시미라고는? {뭐, 깔머슴이라고는?}

10338 # 깔머심. {깔머슴.}

10338 @ 깔머심. {깔머슴.}

10338 # 응, 깔머시미고. {응, 깔머슴이고.}

10338 # 인제 장정드른 인제 새경을 받짜녀요? {이제 장정들은 이제 새경을 받잖아요?}

10338 @ 애. {예.}

10338 # 일년간 살면 언제 쌀 다섯 가마니 짜리라드니, 열 가마니 짜리라드니, 그렇게 살고. {일년간 살면 이제 쌀 다섯 가마니 짜리라드니, 열 가마니 짜리라드니, 그렇게 살고.}

10338 @ 그 머심 중에서도 일 잘허는 머시문? {그 머슴 중에서도 일 잘하는 머슴은?}

10338 # 그제 열가마니 짜리. {그것이 열 가마니 짜리.}

10338 @ 음, 그런 머스문 무슨 머슴미라고? {음, 그런 머슴은 무슨 머슴이라고?}

10338 # 장정이라고 허딩만 {장정이라고 하더만.}

10338 @ 상머심? {상머슴?}

10338 # 상머심, 참. 잘 아르신만? {상머슴, 참. 잘 아시느만?}

10338 @ 깔머시문 머 깔담싸리 머 그런? {깔머슴은 뭐 깔담살이 뭐 그런?}

10338 # 깔담싸리 췌까능거 깔만 빈개. {깔담살이 작은 것 깔만 베니까.}

10338 @ 애. {예.}

10338 @ 고통걸 깔담사리 (#깔담싸리허로 가네:.) {그런 것을 (# 깔담살이 하러 가네 그러.)}

10338 # 열 서너살 머, 너덜 쌀 머금 건떠리 머시나 허건췌요? 배가 고평개 이럴 지비서 못 시기고 아, 이비나 살개 깔담싸리나 히라 그리케 히서 보내딩만. {열 서너 살 뭐, 너덜 살 먹은 것들이 뭐이나 하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일을 집에서 못 시키고 아, 입이나 살개 깔담살이나 해라 그렇게 해서 보내드만.}

10338 # 그러면 가더런 기양 인제 데:지게 와서 깔비고 어찌고, 심바람 허고는 선 딸그믐날 나갈 췌그는 빈 주먹 쥐고 가자네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냥 이제 죽도록 와서 꼴 베고 어찌고, 심부름 하고는 선달 그믐날 나갈 적에는 빈주먹 쥐고 가잖아요?}

10338 # 그러면 불쌍히서 췌네 마음씨 존 사라면 다른 쌀 덴말이라도 주고 모지랍 시럽게 도큰 걸뜨른 몸뚱이만 나가. {그러면 불쌍해서 주인네 마음씨 좋은 사람은 다만 쌀 덴말이라도 주고 모질게 독한 것들은 몸둥이만 나가.}

10338 # 밤만 메기고. {밥만 먹이고.}

10338 @ 밤만 메기고. {밥만 먹이고.}

10338 @ 상머시미 열 가마니요? {상 머슴이 열 가마니요?}

10338 # 응. {응.}

10338 # 상머시미 열 가마니. {상머슴이 열 가마니.}

10338 # 중머시먼 다섯 가마니, 네 가마니. {이제 중머슴이 다섯 가마니, 네 가마니.}

10339 @ 엔나레는 인제 그 자기 노니나 바치 업쓰니까 너무꼴 빌려갈꼬 해자나요? {옛날에는 이제 그 자기 논이나 밭이 없으니까 남의 걸 빌려가지고 하잖아요?}

10339 # 애, 너무건. {예, 남의 것.}

10339 @ 예, 고로케 너므꺼 빌려갈꼬 허는 거슬 머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남의 것 빌려가지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10339 # 갈라메기. {갈라메기.}

10339 @ 고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10339 # 인자 농사릴 지어갈꼬 예를 드려서 인자 나래기 열 가마니가 나면 다섯 가마니씩.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나락이 열 가마니가 나면 다섯 가마니씩.}

10339 @ 아, 반반씩. {아, 반반씩.}

10339 # 애. {예.}

10339 @ 주인이 쪼끔 더 허거나 그러지는 안코. {주인이 조금 더 하거나 그러지는 앓고.}

10339 # 인자 독살시런 사람드런 항 가마이 더 가지 가고. {이제 독한 사람들은 한 가마니 더 가져가고.}

10339 @ 애. {예.}

10339 # 기양 안 독살시런 사람드런 똑가치 가르고, 그라느면 인제 그냥, 삼부네 일 준 사람도 인꼬. {그냥 안 독한 사람들은 똑같이 가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삼분의 일 준 사람도 있고.}

10339 @ 아:!. {아!}

10339 # 그 삼부네 일 줄 때가 마닌는디, 그러고 봉개로 비루끔도 비싸고, 인편비 비싸다고 인자 막 갈라먹기요. {그 삼분의 일 줄 때가 많았는데, 그리고 보니까 비료값도 비싸고, 인건비 비싸다고 이제 막 갈라먹기요.}

10339 @ 말갈라먹기? {막갈라먹기?}

10339 # 똑가치 반반. {똑같이 반반.}

10339 @ 반반? {반반?}

10339 # 응. 반:바는 시방도 인찌마는 인자는 더 인편비가 비싸고, 쌀끄문 싸고 형개로, 그냥 진는 사래미 예를 드려서 열가마이가 나머는 진는 사라면 일곱 가마이 먹꼬, 논 임자는 세 가마이 배끼 안 조. {음, 반반은 지금도 있지마는 이제는 더 인건비가 비싸고, 쌀값은 싸고 그러니까, 그냥 짓는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열 가마니가 나면 짓는 사람은 일곱 가마니 먹고, 임자는

세 가마니밖에 안 줘.}

10339 @ 인자 더 쪼끔 주네요? {이제 더 조금 주네요?}

10339 # 인자 쪼깨배끼 안 줘요. 한 마지기에 한 가마이씩. {이제 조금밖에 안 줘요. 한 마지기에 한 가마니씩.}

10339 @ 엔나레는 주이니 더 마니 가졌는디요? {옛날에는 주인이 더 많이 가졌는 데요?}

10339 # 엔나레는 주이니 마니 가져갈꼬 똑가치 같르고 절반씩 똑가치 같란는디, 인자는 머. {옛날에는 주인이 많이 가져갔고 똑같이 가르고 절반씩 똑같이 갈랐는데, 이제는 뭐.}

10339 # 인편비 비싸고, 비루끔 비싸고. 그 이견저견 따지면 아무겔또 아니라고 기양, 한 마지기에 한 가마이씩배끼 안 줘요. {인견비 비싸고, 비료값 비싸다고. 그 이것저것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한 마지기에 한 가마니 썩밖에 안 줘요.}

10339 @ 응. {응.}

10339 # 공개로 우리 아덜리 내가 노늘 조개 사그라. 퇴지긴썩개 돈 두면 몰 썩개 노늘 조개 사랑개 메뉴리가 헌단 마리 요새 명청헌 사라미 논 사제, 사람가 툄 사람 논 안 산다고, 논 사서 넘 줘야 아:무겔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내가 논을 조금 사거라. 퇴직했으니까 돈 두면 못 쓰니까 논을 조금 사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헌단 말이 요새 명청헌 사람이 논 사지, 사람 같은 사람은 논 안 산다고, 논 사서 남 줘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10339 # 뭐, 짜랑가마이씩 받꼬, 함 마지기에 쌀 강 가마이 받꼬 주면, 뭐데야고 공개 명는 거보단 도는 두머는 어디로 갈 쭈가 인찌만 땅은 몰 떼미갈꼬 강 개 땅얼 사라고 헐제, 꼭 그러케만 따지면 안 된다고 나는 그러고, 메뉴리는 명청헌 사라미 논산대야. {뭐, 쌀 한 가마니씩 받고, 한 마지기에 쌀 한 가마니 받고 주면, 뭇하냐고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는 돈은 두면 어디로 갈 수가 있지만 땅은 못 가져가니까 땅을 사라고 했지, 꼭 그렇게만 따지면 안 된다고 나는 그러고, 며느리는 명청헌 사람이 논 산대 그래.}

10339 @ 흥흥. {흥흥}

10339 # 그놈 갑따 가마:이 놔두면 이자만 갑꼬도 먹고 남는디, 머드기 그 돈닐 너멀 존 니를 시기냐 논사서 넘 주면 그 사람 농사저갈꼬 그 사람만 존 닐 이지 내개는 한나 이데기 업따고. {그놈 갖다 놔두면 이자만 갖고도 먹고 남는데 뭇하러 돈을 남 좋은 일시키냐, 논사서 남 주면 그 사람 농사지어가 지고 그 사람만 좋은 일이지 나에게는 하나도 이득이 없다고.}

10339 # 하이구 각씨 각씨가 그래쌍개 서방이 몬 니기덩만, 우리 아더런 몬니겨. {아이구, 각씨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서방이 못 이기더구만, 우리 아들은 못 이겨.}

10339 @ 그러지요, 요새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지요. 요새는 누구나 다 그래요.}

10339 # 허허허 허허허. {허허허 허허허.}

10339 # 몬 이기더라고. 아이 허고자푼대로 혀. 나도. {못 이기더라고. 아이 하고 싶은대로 해. 나도.}

10339 @ 이 이길라면 시끄러지니까 {이 이기려면 시끄러워지니까.}

10339 # 사네 몬 사네 나. {사네 못 사네 나.}

10339 @ 애. {예.}

10339 # 공개 땀뻘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더라고.}

10339 @ 허허허, 다 그래요. {허허허, 다 그래요.}

10339 # 애. {예.}

10340 @ 품아시 허면 고곤 어떠케들 해요? {품앗이 하면 그것은 어떻게들 해요?}

10340 # 품아씨허면 인제 오닐 우리야럴 그 사라물 데꼬 허머는. {품앗이하면 이제 오늘 우리 것을 그 사람을 데리고 하머는}

10340 @ 모내기할 때 푸마씨? {모내기할 때 품앗이?}

10340 # 모내기할 때 푸마씨허면 인자 오닐 가서 모를 심구제. 그먼 인제 한 니얼 모레 인자 계속해서 너덜 지비 가서 내가 이를 해주면 우리 헐 찌그 그 사람드리 딱 와. 그제 푸마씨여. {모내기할 때 품앗이하면 이제 오늘 가서 모를 심지. 그러면 이제 한 내일 모레 이제 계속해서 너덜 집이 가서 일을 해주면 우리 할 적에 그 사람들이 딱 와. 그것이 품앗이여.}

10340 @ 그먼 모내기나 김매기나 다 타자기나 다 똑가태요? {그러면 모내기나 김매기나 다 타작이나 다 똑같애요?}

10340 # 다 똑가터. 근디 타자근 푸마씨가 업씨. {다 똑같애. 그런데 타작은 품앗이가 없어.}

10340 @ 아, 타자근? {아, 타작은?}

10340 # 응. {응.}

10340 @ 왜요? {왜요?}

10340 # 다 지기네나만 기양 메치리고 허제, 푸마씨가 업는디, 인자 모싱구고 밤매고 논매고 헐 찌그는 푸마씨가 인제. {다 자기네 것만 그냥 며칠이고 하지, 품앗이가 없는데, 이제 모심고 밭매고 논매고 할 적에는 품앗이가 있지.}

10340 @ 타자근 그니까 왜 푸마씨가 업씨요? {타작은 그러니까 왜 품앗이가 없어요?}

10340 # 푸마씨가 업꼬 그냥 다지기네야만 그냥 혀요. {품앗이가 없고 그냥 다 자기네 것만 그냥 해요.}

10340 @ 바지기마? {바지기마?}

10340 # 다지기네야만 혀. {다 자기네 것만 해.}

10340 @ 다지기마? {다지기마?}

10340 # 응, 이즈먼 나만 혀. 나만. {응, 이를 테면 나만 해.}

10340 @ 응, 다지기마? {응, 다지기마?}

10340 # 애, 다 즈그네야만 혀. {예, 다 자기네 것만 해.}

10340 @ 다 직. {다 직.}

10340 # 다. {다.}

10340 @ 예. {예}

10340 # 지기냐 {자기 것}

10340 @ 다 지기냐? {다 자기 것?}

10340 # 야. 막 너도 나도 막 비가 올라구먼 다 뚜두릴라고 혼개 푸마씨힐따가 마  
 나그 그 지비가 뚜드리부리면 비가 와부리면 베리버렁개 기냥 다지기냐.  
 {예. 막 너도 나도 비가 오려고 하면 다 두드리려고 하니까 품앗이했다가  
 만약 그 집이가 두드려버리면 비가 와버리면 버려버리니까 그냥 다 자기 것  
 만.}

10340 # 우리야가 우리아들 그양 허다가 비가 오면 흙트리날따가 더퍼날따가 또  
 뚜들고 그러제 근 푸마씨가 업씨. {우리 것이 우리 아들 그냥 하다가 비가  
 오면 모아왔다가 털어왔다가 또 두드리고 그러지 그것은 품앗이가 없어.}

10340 @ 아:! {아!}

10340 # 꼬치 따거나 그건 푸마씨가 인쥬. {고추 따거나 그것은 품앗이가 있쥬.}

10340 @ 예. {예.}

10340 @ 푸마씨::를 안 하고 도늘 바들 때는요? {품앗이를 안 하고 돈을 받을 때  
 는요?}

10340 # 그건 싸:그로 받제, 싹. {그것은 샅으로 받지, 샅.}

10340 @ 고:곤 그머는 먼 싸기라고 그래요? {그것은 그러면 뭘 샅이라고 그래  
 요?}

10340 # 인자 꼬치 따로 가머는 꼬치판 싹. {이제 고추 따러 가면 고추판 샅.}

10340 # 밤매러가면 반맨 싹. 그노문 그르케 해요. {발매러 가면 발맨 샅. 그놈은  
 그렇게 해요.}

10340 @ 저 그 품싸그로요? {저 그 품샅으로요?}

10340 # 응, 품싸그로. {응, 품샅으로.}

10340 @ 고 지붕 이고 그릴 때는요? {그 지붕 이고 그릴 때는요?}

10340 # 짐 일찌그는 노버더서 허고, 푸마씨가 업꼬. {짐 일적에는 놉 얻어서 하  
 고, 품앗이가 없고.}

10340 @ 아, 짐, 짐닐 때도. {아, 짐, 짐일 때도.}

10340 # 푸마씨가 업꼬, 날개 영끌 찌그만 푸마씨를 허제. {품앗이가 없고, 이영  
 엮을 적에만 품앗이를 하지.}

10340 @ 그니까 지붕 올릴 때는 업꼬. {그러니까 지붕 올릴 때는 없고.}

10340 # 응, 날개 영끌 찌그 지붕 올라갈라고 날개 영짜네요? {응, 이영 엮을 적  
 에 지붕 올라가려고 이영 엮잖아요?}

10340 # 그럴 때는 인제 두어:시 와서 그 사람더리 영끄머는 가서 한 이틀 가파주  
야고. {그럴 때는 이제 두엇이 와서 그 사람들이 엮으면 가서 한 이틀 갇아  
줘야 하고.}

10340 @ 그니깐, 타작하고 지붕올리기는 푸마씨가 업꼬, 인자 다른 거 날개 영꺼  
나 그럴 때는 푸마씨가 인꼬. {그러니까, 타작하고 지붕올리기는 품앗이가  
없고, 이제 다른 것 날개 엮거나 그럴 때는 품앗이가 있고.}

10340 # 밤매고 نوم매고 혈 찌그는 푸마씨가 인꼬. {발매고 نوم매고 할 적에는 품앗  
이가 있고.}

10341 @ 노불 얻어가지고 이를 하면 바불 주고 그러자나요? 고, 고론 거슨? {놉  
을 얻어가지고 일을 하면 밥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 그런 것은?}

10341 # 새:참. {새참.}

10341 @ 예. {예}

10341 # 고때는 멀:로 해서 줘요? {그때는 멀로 해서 줘요?}

10341 # 그냥, 반찬 장만해서 바베서 주는디, 인제 인꼬 잘히준 사라더런 벨또로  
참:: 피기를 사다가 막 히주고, 그렇게 엮는 사람드른 인자 피기도 업꼬 기  
양 간단히 히중개로 그런디는 양 갈라고 그제. {그냥, 반찬 장만해서 밥 해  
서 주는데, 이제 있고 잘 해준 사람들은 별도로 참 고기를 사다가 막 해주  
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이제 고기도 없고 그냥 간단히 해주니까 그런  
데는 안 가려고 그러지.}

10341 @ 아! 인자 고걸또 잘해준 지비만 갈라고. {아! 이제 그것도 잘해준 집이만  
가려고.}

10341 # 아! 잘해준 지비만 갈라고 그러제, 안 갈라구레. {아! 잘 해준 집이만 갈  
려고 그러제, 안 가려고 그래.}

10341 @ 히힃. {히힃.}

10341 # 아무거시 인제 이를 드려서 내가 꼭 그 지비야를 이럴 푸멀 전썰개 가파  
야한디 못 갈 행페네, 아이 아무거시네 지베 푸마나 흰썰개 가 가파줘. 그  
러면 양 가. 그리버려. {아무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꼭 그 집 일을 품  
을 지었으니까 갇아야 하는데 못 갈 형편이네, 아이 아무것이네 집에 품 하  
나 했으니까 가 갇아줘. 그러면 안 가. 그래버려.}

10341 # 그러면 인자 부:자로 자래주고 막 머시고 잘혼다면 아이, 내 그지비 꼭  
가안디 못 가네, 그러면 내가 가께. 나스고. 멍매배끼 업떠라고요. {그러면  
이제 부자로 잘 해주고 막 무엇이고 잘한다면 아이, 내 그 집에 꼭 가야하  
는데 못 가네, 그러면 내가 갈게. 나스고. 멍매밖에 없더라고요.}

10341 @ 고: 새참허고 그럴 때 반찬드를 무얼 그러니까 해줘요? {그, 새참하고 그  
럴 때 반찬들을 무엇을 그러니까 해줘요?}

10341 # 새:차면 반차니 벨 반찬니 업꼬. {새참은 반찬이 별 반찬이 없고.}

10341 @ 애. {예.}

10341 # 그냥 뭐 국수나 찜꼬, 그러케 히줄때도 인꼬, 인자 막 요새는 막 짜장 불러다 메기고 그러지마는 정시면 꼭 돼지찌게, 생선찌게 그런 구걸 마니 끼리서 대저불 허고. {그냥 뭐 국수나 삶고, 그렇게 해줄 때도 있고, 이제 막 요새는 막 자장 불러다 먹이고 그러지마는 점심은 꼭 돼지찌게, 생선찌게 그런 국을 많이 끓여서 대접을 하고.}

10341 @ 그러니까 노:불 대저불 잘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놈을 대접을 잘 해야 되네요?}

10341 # 애. 노별 대접 대저불 잘해야 가제, 앙 가. {예. 놈을 대접 대접을 잘 해야 가지, 안 가.}

10341 # 잘 해준다고 명매 잘해준다고 그러서 가제. 놈또 얻는 사람 못 어더요. {잘 해준다고 먹매 잘 해준다고 그래서 가지. 놈도 없는 사람은 못 얻어요.}

10341 @ 허허허. {허허허.}

10341 # 명매가 겁나게 드러가. {먹매가 겁나게 드러가.}

10341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41 # 공개, 요새 지방 타과네로 가머는 이 동네서 저쪽 너메만 가면 사마넌, 이 동네서는 삼마넌 그리요, 품쌈기. {그러니까, 요새 지금 타관으로 가면 이 동네에서 저쪽 넘어만 가면 사만원, 이 동네서는 삼만원 그래요, 품쌈이.}

10341 @ 아:! 똑가튼 품쌈긴데. {아! 똑같은 품쌈인데.}

10341 # 사마넌. {사만원.}

10341 @ 왜 왜 그 타과느로 가면 그래요? {왜 왜 그 타관으로 가면 그래요?}

10341 # 뽀르거썩요. {모르겠어요.}

10341 @ 가튼 며닌데도 그래요? {같은 면인데도 그래요?}

10341 # 가튼 메닌데도 여그서 저 재너머만 가도 사마넌. 이 동네는 삼마넌. {같은 면인데도 여기서 저 재너머만 가도 사만원, 이 동네는 삼만원.}

10341 # 그렇게로 기양, 잉가느면 다 압똥도 앙 개리고 현 사라문 타과느로 사마넌 받꼬 갈라고고, 그도 한 동네 싸람한티로 가야지 그케 돈 마넌 더 바드야고, 거시근 사람더런 기양 한 동네서 허는디, 하이구, 어떠키 요새 싹타멀 허드니 농사도 못 진다고 싹트요. {그러니까 그냥, 어지간하면 다 앞뒤도 안 가리고 하는 사람은 타관으로 사만원 받고 가려고 그러고, 그래도 한 동네 사람한테로 가야지 그렇게 돈 만원 더 받아야고, 거시기 한 사람들은 그냥 한 동네서 하는데, 아이구, 어떻게 요새 싹탐을 하는지 농사도 못 짓는다고 했싸요.}

10341 # 나는 공개 내놔버린개 드런 놈만 명는다. {나는 그러니까 내놓아버렸으니까 들어온 것만 먹는데.}

10341 (기침)

10341 @ 싸기 비싸다 싸다 뭐 그래싸코 마를 해싼는그마뇨. {샅이 비싸다 싸다 뭐 그렇게 말을 해대는그만요.}

10341 # 마리 마:내요. {말이 많아요.}

10341 # 기양, 돈 마넌 더 바들라고 타과느로 가? {그냥, 돈 만원 더 받으려고 타관으로 가?}

10341 # 부리나 나고 날리나바. 그도 내 동니 사라미 날째. 비트러싸코 그리요. {불이나 나고 난리나봐. 그래도 내 동네 사람이 낫지. 비틀어쌍고 그래요.}

10341 # 그리도 대강 타과느로 마니 가. 그 가면 대우를 혼대요. {그래도 대강 타관으로 많이 가. 그 가면 대우를 한대요.}

10341 @ 타과느로 가면? {타관으로 가면?}

10341 # 타과느로 가면 짹:또 더 주고 거차무게 대우릴 헐디야. {타고나으로 가면 쫘도 더 주고 거창하게 대우를 한대.}

10341 # 택씨로 시러다 주고 시러오고. {택시로 실어다 주고 실어오고.}

10341 # 허허허, 참. {허허허, 참.}

10341 # 요새 일도 (@ 완 완전 상저니네요.) 고그브로요. {요새 일도 (@ 완 완전 상전이네요.) 고급으로요.}

10341 # 애, 완저니 기양 고그부로만 사를라구려. {예. 완전히 고급으로만 살려고 그래.}

10341 # 기양 아쳐그로는 택씨 운젠쭈 기양 불나. {그냥 아침으로는 택시 운전수 그냥 불이 나.}

10341 @ 어! {어!}

10341 # 여그서 가자, 저그서 가자, 기양 불나, 참말로. {여기서 가자, 저기서 가자, 그냥 불나, 참말로.}

10341 # 우리 메뉴리부텀도 니열 즈그 친정, 직장니가 친정인디, 시방 이:리가 저 그 지비인디 친정이 오매가 업썸. {우리 며느리부터도 내일 자기 친정, 직장리가 친정인데, 지금 이리가 자기 집인데, 친정이 어머니가 없어.}

10341 @ 애. {예.}

10341 # 오매가 업꼬 인자 남동생만 인는디, 꼬치를 갈알는디, 꼬치 따주로 간다고 광수 택씨불러서 태와보내라고 형만. {어머니가 없고 이제 남동생만 있는데, 고추를 갈았는데, 고추 따주러 간다고 광수 택시 불러서 태워보내라고 하드만.}

10341 @ 그 택씨비도 마니 나올 꺼 아니예요? {그 택시비도 많이 나올 거 아니예요?}

10341 # 공개 택씨, 여기서 지장니 가는디 꼬치따러 가는디 이만이천오배건. {그러니까 택시, 여기서 지장리 가는데 꼬추 따러 가는데 이만이천오백원.}

10341 # 싸기는 혀. {싸기는 해.}



10341 @ 야! {야!}  
 10341 # 그리도 열:찌비면 이만 오쳐넌 아니여. {그래도 열 집이면 이만오천원 아니야.}  
 10341 @ 구루치요. {그렇지요.}  
 10341 # 와따갸따 와따갸따 형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니까.}  
 10341 @ 하이고! 쪼끔 쉬얼따가 허시쥬. {아이고! 조금 쉬었다가 하시쥬.}  
 10341 # 쉬어요. 허허허. {쉬어요. 허허허.}

### 1.3.2. 밭농사(SJB\_JS\_34)

10315 @ 그러면 그 바치 상당이 뭐 며 천평이나 되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그 밭이 상당히 뭐 몇 천 평이나 되는 모양이네요?}  
 10315 # 천평은 아이고, 요 아르게 이 푸대 캔 노미 배고십 평이라고대요. {천 평은 아니고, 이 아래 이 푸대 캔 놈이 백 오십 평}라고 하대요.}  
 10315 @ 아, 배고십 평에서 그러케 {아, 백 오십 평에서 그렇게.}  
 10315 # 말갸찌기. {말가웃.}  
 10315 @ 가, 그러면 마니 나오는 거네요? {그, 그러면 많이 나오는 것이네요?}  
 10315 # 마니 나왔쥬요. {많이 나왔어요.}  
 10315 @ 논농사보다 훨씬 난네요? {논농사보다 훨씬 낫네요?}  
 10315 # 논농사 그놈보다 멘 빼나, {논농사 그놈보다 몇 배나,}  
 10315 # 그 정도로 논농사는 한 필찌기 천 오십 췌인디, 천 오십평으로 멘 백가마이 캐겠쥬요. 그러케. {그 정도로 논농사는 한 필지가 천 오십 평인데, 천 오십 평으로 몇 백 가마니 캐겠어요. 그렇게.}  
 10315 # 나도 어제 가서 주서쥬는디, 하이구 감자가 그냥. 겹나게 조와. {나도 어제 가서 주워쥬는데, 아이구 감자가 그냥 겹나게 좋아.}  
 10315 @ 그러면 그 감자도 뭐, 고구마도 거르믈 마니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감자도 뭐, 고구마도 거름을 많이 해야 돼요?}  
 10315 # 거름 마니흐면 못 쥬요. 커서. 막 요마씨기나 짹짹 찢지고 혼디, 거르믈 안호야 돼요. {거름 많이 하면 못 쥬요. 커서. 막 이만씩이나 짹짹 찢지고 하는데, 거름은 안 해야 돼요.}  
 10315 @ 아, 오히려 거르믈 안 해야 {아, 오히려 거름을 안 해야}  
 10315 # 애, 거르믈 안 해야 자룩자룩 흐고 요만씩 허니 예쁘고 {예, 거름을 안 해야 잘룩하고 이만씩 하니 예쁘고}  
 10315 @ 그러믈 그 논농사 안 진코 고구마 농사 진는 거시 훨씬 낫겠네요? {그러면 그 논농사 안 짓고 고구마 농사 짓는 것이 훨씬 낫겠네요?}  
 10315 # 공개 누가 그케 마니 가지가간디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가져가간대요?}

10315 @ 아, 마니 팔떼가 업써서? {아, 많이 팔 데가 없어서?}

10315 # 공개 인자 서울써, 서울써 이 사라몬 마니 가져 가딩마뇨.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서울에서 이 사람은 많이 가져 가더구만요.}

10315 # 마니 산 사라미 두 박쓰 산대요. {많이 산 사람이 두 박스 산대요.}

10315 @ 그러켤쪼요. {그러겠지요.}

10315 # 얘, 그렇게로 이자, 서울써 마니 가지가갠꼬 마니 갈라묵꼬 서너 박쓰 보내라갠꼬 갈라무꼰따고 모지랜다고 또 부치랜다고 흐더마뇨.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많이 가져가갠고 많이 갈라먹고 서너 박스 보내라 해갠고 갈라먹었다고 모자란다고 또 부친란다고 하더만요.}

10315 @ 그래도 그 하이튼 팔 때만 이쓰면 논농사보다 훨씬 낫겄네요? {그래도 그 하여튼 팔 데만 있으면 논농사보다 훨씬 낫겄네요?}

10315 # 농워니라고 저그 오자면 농워닌디, 농원 싸라몬 꼬치농사를 하나도 안 해요. 고구마 농사만 흐지. {농원리라고 저기 오자면 농원인데, 농원 사람은 고추농사를 하나도 안 해요. 고구마 농사만 하지.}

10315 # 기양 남자 인는 사라미나 업는 사라미나 머글 낄 쪼깨 흐고는 안 해. 모두: 다 {그냥 남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먹을 것 조금 하고는 안 해. 모두: 다.}

10315 @ 뭐, 고구마는 풀 매고 어찌고 그럴 피료도 업쓸 꺼 아녀요? {뭐, 고구마는 풀 매고 어찌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아녀요?}

10315 # 푸른 이쑤요. 푸른 매야요. 푸른 매안디, 다른 농사매이로 야글 안 흔개, 그건 야글 아녀고 그양 {풀은 있어요. 풀은 매요. 풀은 매야 하는데, 다른 농사처럼 약을 안 하니까, 그것은 약을 안하고 그냥.}

10315 @ 심어만 노코 푸를 매주면 되겐네요? {심어만 놓고 풀을 매주면 되겄네요?}

10315 # 인자 두룩만 지서 비니루 둘러 씨어노코, 시머만 노코는 공개로 비용도 안 드러가고 {이제 두룩만 지어서 비닐 둘러씨워놓고, 심어만 놓고는 그러니까 비용도 안 들어가고.}

10315 @ 일꺼리도 만치 안코. {일거리도 많지 않고.}

10315 # 일꺼리도 안 흐고, 인자 켈 쪼그가 일꺼리가 마너. {일거리도 안 하고, 이제 켈 적에가 일거리가 많아.}

10315 @ 인자, 켈 때야 인제 돈 버니까 허허허. {이제, 켈 때야 이제 돈 버니까 허허허.}

10315 # 돈 병개 인자, 한 지븐 다서시 켜는디, 다서시라면 머 잘 히야 십오마너 니제. 품쌈기. 그러고는 뭐 썩 저그 꺼시제. {돈 버니까 이제, 한 집은 다섯이서 켜는데, 다섯이라면 뭐 잘 해야 십오만 원이지. 품쌈이. 그러고는 뭐 모두 자기 것이지.}

10315 @ 그제 훨씬 낫겄네요? {그것이 훨씬 낫겄네요?}

- 10315 # 애, 해마등 기양 그 사라믄 글로 수를 봐요. 하여간 그 사라믄. {예, 해마다 그냥 그 사람은 그것으로 수를 봐요. 하여간 그 사람은.}
- 10315 # 바리 널룽개 사:방따가 친척기 산개 서울로 어디 뭐, 군사니로 뭐 어디로 맨 사방썬 오라고 히서 메기노코는 거그서 다 돈 바다서 부치고 {밭이 넓으니까 사방에다가 친척이 사니까 서울로 어디 뭐, 군산으로 뭐 어디로 전부 사방에서 오라고 해서 먹여놓고 거기에서 다 돈 받아서 부치고}

## 1.4. 의생활

### 1.4.1. 목화, 삼, 모시의 재배와 길쌈

- 10401 @ 인제 그, 옛날 그, 온오테입꼬 살고 그런 거 인자 고 고린 거 좀 여쭙보게요? 그, 숨 목 {이제 그 옛날 그, 옷해 입고 뭐 살고 그런 것 이제 그 그런 것 좀 여쭙볼게요? 그, 숨 목}
- 10401 # 숨, 소캐 논 바지, 소캐넌 저구리, {숨, 숨 놓은 바지, 숨 놓은 저고리.}
- 10401 @ 애, 그 숨, 모와 고거슨 언제 시머요? {예, 그 숨, 목화 그것은 언제 심어요?}
- 10401 # 그거는 인제 보매 싱귀요. 그거또. 미영. {그것은 이제 봄에 심어요. 그것도 명.}
- 10401 @ 미영을? {명을?}
- 10401 # 이르미 미영. {이름이 명.}
- 10401 @ 고거는 보매 심꼬? {그것은 봄에 심고?}
- 10401 # 보매 심귀간꼬 이러케 가으리면 이거간꼬 조다 다래애, 다래가 이만씩 연노미 버려져요. {봄에 심귀갓고 이렇게 가을이면 익어갓고 모두 다래애, 다래가 이만큼씩 연 노미 벌어져요.}
- 10401 # 애. {예}
- 10401 # 버리지면 그 모와가 흐여이 피여. {벌어지면 그 목화가 하야니 피어.}
- 10401 # 피면 따다가 그노믄 인제 씨아씨다가 또 트러서 씨를 빼버리고 화리 인씨요, 활. 활로 탁탁 타머는 인제 부퀴부퀴호니 막 그러케 생긴쥬. {피면 따다가 그 노를 이제 씨아에다가 또 틀어서 씨를 빼버리고 활이 있어요. 활. 활로 탁탁 타면 이제 북슬북슬하게 막 그렇게 생기쥬.}
- 10401 # 그러면 인제 뭐 자리나 뭐 노코 그 노믄 납짜그게 모와를 덤뱅이로 타머는 납짜그게 피간꼬 자리에다 돌돌 모라서 하룻저녁 재면 납짜그니 자미 자요. {그러면 이제 뭐 자리나 뭐 놓고 그 노를 납작하게 목화를 뭉치로 타면 납작하게 펴갓고 자리에다 돌돌 몰아서 하룻저녁 재우면 납작하게 잠을 자요.}

10401 # 그러면 인자 오씨다 놔간꼬 꾸매서, 이리간따 저리간따 놔서 시침을 해요. 시침을 해서, 이브문, {그러면 이제 옷에다 놔갓고 꾸매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놓으면서 시침을 해요. 시침을 해서, 입으면,}

10401 @ 시침은 이리저리 완따간따 하는 거요? {시침은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요?}

10401 # 완따간따 안 흐라고, 바늘로 졸졸 시침을 혀. {왔다갔다 안 하라고, 바늘로 졸졸 시침을 해.}

10401 @ 아, 졸졸 이러케. {아, 졸졸 이렇게.}

10401 # 꾸매야. 그걸뽕고 시치미라구려. {꾸매. 그것보고 시침이라고 그래.}

10401 @ 그 이거슨 노네다가 시머요 바테다가 시머요? {그 이것은 논에다가 심어요 밭에다가 심어요?}

10401 # 바테다가. {밭에다가.}

10401 @ 바테다가? {밭에다가?}

10401 # 애. 노네다가는 안 돼요. 물 처서. 비만 와서도 주거요. {예. 밭에다가. 논에다가는 안 돼요. 물 써서. 비만 와도 죽어요.}

10401 @ 아아, 무를 시러해는 그마뇨? {아아, 물을 싫어하는 것이구만요?}

10401 # 그건 무를 시러해요. {그것은 물을 싫어해요.}

10401 @ 고, 이걸또, 미영도 거르믄 마니허고 그래요? {그, 이것도, 명도 거름을 많이 하고 그래요?}

10401 # 거르믄 해요. {거름을 해요.}

10401 @ 무슨 거르믄 해요? {무슨 거름을 해요?}

10401 # 소 키워머는 소 뒤엄, 그 노믄 썬귀간꼬 미영 날 썬그 막 쪽쪽: 허쳐간꼬 거르믄 마니 해요. {소 키우면 소 두엄, 그 노믄 썬혀갓고 명 날 적에 막 쪽: 쪽: 뿌려갓고 거름을 많이 해요.}

10402 @ 고 인저 미영을 소믄 타가지고, 씨아시에다가 해서, {그 이제 명을 솜을 타가지고, 씨아에다가 해서}

10402 # 씨아시에다가 인자 씨를 빼서, 활로 툭: 툭: 타면 이 노미 인자 봉얼봉얼 허니 그리저요. {씨아에다가 이제 씨를 빼서, 활로 툭: 툭: 타면 이 노미 이제 부얼부얼하게 그래저요. }

10402 # 씨아씨다 형거시 이맨씩 혼거시, 요만씩 호게 부러버려. {씨아에다 한 것이 이만씩한 것이 요만씩 하게 부풀어버려.}

10402 # 그러면 인자 아까 말대로 자리다가 싹: 퍼노코 돌: 돌: 모라서 하룻저녁 재와야 재믄 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대로 자리에다가 싹: 퍼놓고 돌: 돌: 말아서 하룻저녁 재워야 잠을 자요.}

10402 @ 고거슬 인자 이거슬 시를 만들 때 어떠케 해요? {그것을 이제 이것을 실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10402 # 시를 맨들 때는 시를 맨들 때는 인자 타간꼬 쑤씨때가 일썬요. 이때는 쑤

- 씨대. 모가지 꼬너부리고 그 꼬터리. {실을 만들 때는, 실을 만들 때는 이제 타갖고 수수대가 있어요. 이만한 수수대. 모가지 끊어버리고 그 꼬트머리,}
- 10402 # 고거슨자 가노름 현 누물 거 이 안바니나 노코는 거다가 납작그이, 요만 씨그 납작그이 노코는 그 쭈씨때로 놔간꼬 소니로 돌돌 모라요. {그것을 이제 가느다란 한 것을 이 안반에나 놓고 거기에다 납작하게, 이만씩 납작하게 놓고는 그 수숫대로 놔갖고 손으로 돌돌 말아요.}
- 10402 # 이 모라서 인제, 요마너게 인자 꼬치가 되머는 고 노를 인제 물레? 무레다가 인자 가라글 내간꼬, 가락그다가 집: 왜기요: 집:, 집: 이쓰면 그 끝 꺾따기 모라진 노미 이쓰머는 인자 고 노를 빼서 가라그다 찢러간꼬 그 꼬테다가 대고 졸졸졸 물레대로 졸졸졸 빼야. 그러면 인자 시리 되야. {이, 말아서 이제, 이만하게 이제 꼬치가 되면 그 놈을 이제 물레? 물레에다가 이제 가락을 내갖고, 가락에다가 찢: 새뻬기: 찢: 찢: 있으면 그 끝 꺾데기 말아진 놈이 있으면 이제 그 놈을 빼서 가락에다가 찢러갖고 그 꼬트머리에다 대고 졸졸졸 물레대로 졸졸졸 빼. 그러면 이제 실이 되어.}
- 10402 @ 그, 고, 인자 실로 해서 인제 나중에 오슬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제 실로 해서 나중에 옷을 만드는 거예요?}
- 10402 # 애. 실로 히간꼬 고 노르로 인자 바늘 꾸맨 바느질도 실로 맨들고, 또 이제 고노를 인제 또 마당으다 나라간꼬 메:서 베를 짜요. {예. 실로 해갖고 그 놈을 이제 바늘 꿰맨 바느질로 실로 만드고, 또 이제 그놈을 이제 또 마당에다 나라갖고 매서 베를 짜요.}
- 10402 @ 베는 베틀로? {베는 베틀로?}
- 10402 # 애, 베틀로 베를 짜간꼬 인자 오슬 맨들제, 빠라서. {예, 베틀로 베를 짜갖고 이제 옷을 만들지. 빨아서.}
- 10402 # 아이구, 머심두면 기양, 이런 마느제, 그 놈 서파레 그름 도라오면 파: 기양 재를 막 그다 너간꼬 쌀마서 발뻬서 오디필라면 거차르게 시미 드려요. {아이구, 머슴 두면 그냥, 일은 많지, 그놈 선달에 그름 돌아오면 그냥 재를 막 거기에다 넣어갖고 짧아서 밝아서 옷해 입힐려면 거창하게 힘이 들어요.}
- 10402 # 지그른 양젼무리나 인제. 온 그놈 입피서 내 보내안개. 히히히. {지금은 양젼물이나 있지. 옷 그놈 입혀서 내보내야 하니까. 히히히.}
- 10402 # 가시레치 고노를 미영을 핀노를 따서 그노멀 놔싸서 한 달반마네 오슬 맨들랑개로 자를 몬짜지요. {가을에 갓 그 놈을 명을 핀 놈을 따서 그 놈을 놔서 한 달반만에 옷을 만들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자지요.}
- 10402 @ 바쁘게 해야 돼요? {바쁘게 해야 돼요?}
- 10402 # 나락 두들고 콩 두들고 호자머는 히노코는 그누를 인자 미영을 자사서 베를 맨든당개, 바미로. {나락 두드리고, 콩 두드리고 하자면 해놓고는 이제 명을 자아서 베를 만든다니까.}

10402 그 호롱불 썬노코 베를 짜고 막 그랜지요. {그 호롱불 켜놓고 베를 짜고 막 그랜지요.}

10402 @ 자미 모지랴겔썬요? {잠이 모자랴겔썬요?}

10402 # 자미 모지랴다이? 예를 드리썬 지그므로서는 시가느로서는 두 시간도 자고, 세 시간도 자고, 그러니 또 시어마이더리 오래나 자게 호가디요? {잠이 모자라다니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서는 시간으로서는 두 시간도 자고, 세 시간도 자고, 그러니 또 시어머니들이 오래나 자게 하나요?}

10402 # 인자 세 시까지 베를 짜고는 포도썬 가서 잠부치서 잘만 호면 인자 아쳐 그 네 시쯤 되면 시어마이가 괴야를 질러, 바버라고. {이제 세 시까지 베를 짜고는 간신히 가서 잠을 자면 잘만 하면 이제 아침에 네 시쯤 되면 시어머니가 고향을 질러. 밥 하라고.}

10402 @ 흥흥흥. {흥흥흥.}

10402 # 일꾼들 밤먹꼬 일 나간다고면. 일찌감치썬 또 머거야 이를 간개로 여썬썬 경으로 썬 내보낼랑개 머시미고 일꾼드리고 내보낼랑개. {일꾼들 밥 먹고 일 나가야 한다며. 일찍 먹어야 일을 가니까 여섯시 경으로 썬 보내야 하니까 머슴이고 일꾼이고 내보내야 하니까.}

10411 # 하이구 옛날 시집싸리야 징그라. {아이구, 옛날 시집살이야 징그러워.}

10411 @ 아이구, 안 죽꼬 산 거시 참 다행이네요? 허허허. {아이구, 안 죽고 산 것이 다행이네요?}

10411 # 안 죽꼬 산 거시 다행이대양 징그라, 징그라. 공개 요새 사람더런 참 사람 산 걸 가터요. {안 죽고 산 것이 다행이다니 징그러 징그러.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참 사람 산 것 같아요.}

10411 @ 그 그러지요. {그 그러지요.}

10411 # 엔나레는 그누무 삼베놔서 이러케 동지선탈레 큰내 무레 가서 기양 드려서서 기양 빠를라면 기양 삼질상으라고 빨지. {옛날에는 그놈의 삼베 놓아서 이렇게 동지선탈에 큰넷물에 들어가서 그냥 빨려면 그냥 삼질상이라고 빨지.}

10403 @ 고, 삼베는 언제 시머요? {그, 삼베는 언제 심어요?}

10403 # 그거는 인제 설 쇄야서 이월파리 싱귀요. {그것은 이제 설 쇄어서 이월달에 심어요.}

10403 @ 설 쇄서 이월레요? {설 쇄서 이월레요?}

10403 # 애틀. {예.}

10403 # 이걸또 바테다가 시머야썬잉. 이걸또 노네다 시므면? {설 쇄서 이월레요? 이것도 밭에다가 심어야썬. 이것도 논에다 심으면?}

10403 # 노네다 싱구머는 {논에다 심으면은}

10403 @ 물썬갠꼬 {물 썬갠꼬}

10403 # 물썬갠꼬 안조와. {물썬 갠꼬 안 좋아.}

10404 # 근디 인자 바테다가 심거갸꼬 크:은 천짱으 다케 크머는 고노를 인자 조다 입씩 이러케 쳐버리고 인자 이러케 뭉꺼갸꼬는 삼꾸슬 호지요. {그런데 이제 밭에다가 심어갸고 큰 천장에 닿게 크면은 이제 잎사귀 이렇게 쳐버리고 이제 이렇게 묶어갸고는 삼굿을 하지요.}

10404 @ 삼꾼? {삼굿?}

10404 # 응, {응.}

10404 @ 고건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10404 # 삼꾸시라넌 거선 구데이를 파노코 가상을 뽕: 돌리서 판짜때기로 이러케 훅 안나오게 조다 뽕도리서 백짜글 조다 맨드라요. {삼굿이라는 것은 구덩이를 파놓고 가장자리를 뽕 돌려서 판짜때기로 이렇게 훅 안 나오게 모두 뽕 돌려서 벽을 모두 만들어요.}

10404 # 그리갸꼬는 인자 부씩작 크기 히노코는 거그다가 인제 막 이르케 생긴 몽텅이로 경그레이를 질러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엌 크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생긴 몽둥이로 경그레를 질러요.}

10404 # 이러케 막 경그레이를 질러노코는 거그다 무를 멘 양철뚱우 부서노코는 사물 쟁이여. {이렇게 막 경그레를 질러놓고는 거기에다 물을 몇 양동이 부어놓고는 삼을 쟁이여.}

10404 # 저릅떼기를 막 쟁이갸꼬는 부를 그 미티서 막 삼꾸든다고도 혼 시그로 막 큰 몽텅이갸따 기양 조밥 먹꼬 사물 느므면 인제 저녁밥 먹꼬 베끼게 맨드라베리야요. {겨릅대를 막 쟁이여갸고는 불을 그 밑에서 막 삼굿한다고도 하는 식으로 막 큰 몽둥이갸다가 그냥 아침밥 먹고 삼을 넣으면 이제 저녁밥 먹고 벗기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10404 # 그르케 쌀마서 내놔. {그렇게 삶아서 내놔.}

10404 @ 애, {예.}

10404 # 내노면 인자 저릅떼기 베끼갸꼬는 그누를 조다 너려서 말좌갸꼬 쟁이노코 {내놓으면 이제 겨릅대 벗겨갸고는 그것을 모두 널어서 말려갸고 쟁여 놓고}

10404 @ 고 이제 삼꾸슬 혈 때는 고고 여기 어디에 동네에 이쨌쨌요? {그 이제 삼굿을 할 때는 그 여기 어디에 동네에 있었어요?}

10404 # 저 아페 정지나무 미테 모정진디가 삼꾸슬 맨드란쨌요. {저 앞에 정자나무 밑에 모정 지은 데에 삼굿을 만들었어요.}

10404 @ 아항. 고건 동네서 공동으로 해는 거죠? {아아, 그건 동네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죠?}

10404 # 그건 임자가 일쨌요, 또. 그 사례미 인자 삼꾸설 맨드라노코는 인제 한 지비 멘 따발 꾸먼 싸글 바다요. {그것은 또 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삼굿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한 집이 몇 다발 구으면 샅을 받아요.}

10404 # 그렇게 사므로. {그러니까 삼으로.}

- 10404 @ 사므로? {삼으로?}
- 10404 # 사므로 인제 너는 두굴 끝따면 열 끈, 그노로. 한굴 끝따면 단끈. 그리키  
히간꼬는 인자 그 사라몬 인자 사므로 내머그머는 목돈 잡꼬, 그리간꼬 그  
노를 인제 저릅떼기를 뵈끼서 말리간꼬 {삼으로 이제 너는 두 굴 구웠다면  
열 근, 근으로. 한 굴 구웠다면 닷 근. 그렇게 해갓고는 이제 그 사람은 이  
제 삼으로 내먹으면 목돈 잡고, 그레갓고 그 놈을 이제 겨릅대를 벗겨서 말  
려갓고.}
- 10404 @ 고 인제 고걸 삼꾸슬 혈 때 한 집 건만 해야지 또 다른 집 꺾 하고 서끼  
며는 안 되건네요? {그 이제 그걸 삼굿을 할 때 한 집 것만 해야지, 또 다  
른 집 것하고 섞이면 안 되겠네요?}
- 10404 # 공개 다른 집 인자 구리 짜그머는 한 구리 한지바가 몬 되면 궤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집 이제 굴이 작으면은, 한 굴이 한 집 것이 못 되면 표를  
해요.}
- 10404 # 저릅떼기에다 삼파발 이만치 몽꺼간꼬 삼파바르다 지푸래기를 요만씩 히  
간꼬 췌미놔. {겨릅대에다가 삼다발 이만큼 묶어갓고 삼다발에다 지푸라기  
를 이만큼씩 해갓고 묶어놔.}
- 10404 @ 아, 누구네 꺼시다고. {아, 누구네 것이라고.}
- 10404 # 췌민 거션 이 집꺼, 안 췌민 거슨 저 집 꺼. {묶은 것은 이 집 거, 안 묶  
은 것은 저 집 거.}
- 10404 # 그리간꼬 인자 꼬지낼 찌그는 다지기만 차저가. {그레갓고 이제 꼬집어  
낼 적에는 다지기만 찾아가.}
- 10404 # 지푸래기 췌맨 건 내꺼시라고 내가 가져가고, 안 췌맨 건 인자 저 집꺼시  
라고 가져가고 그래요. {지푸라기 묶은 것 내것이라고 내가 가져가고, 안  
묶은 것은 이제 저 집 것이라고 가져가고 그래요.}
- 10404 @ 인제 그러케 해간꼬 인제 찢아서 꺾지를 번긴단 마리쥬? {이제 그렇게  
해갓고 이제 삶아서 꺾질을 벗긴 말이쥬?}
- 10404 # 공개 꺾때글 베끼간꼬 인자 말리서 인자 또 췌요. {그러니까 꺾질을 벗겨  
갓고 이제 말려서 이제 또 췌요.}
- 10404 @ 췌 때는 어떠케? {췌 때는 어떻게?}
- 10404 # 췌 때는 인제 여그다가 소네다가 요만치씩 그거슬 빠라간꼬 찌 또랑으가  
찢찢 빠라간꼬넌 토비랑거시 인씨요, 이러케 생긴 톱. 토브로 인자 대가리  
를 이러케 베끼내. 얹짜녀? 소네다 가마간꼬 췌야. 새새에 손꾸라게 너서,  
아하하하. {췌 때는 이제 여기에다가 손에다가 이만큼씩, 그것을 빨아갓고  
도랑에가 찢찢 빨아갓고는, 톱이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톱. 톱으로 이  
제 대가리를 이렇게 벗겨내. 얹아지잖아? 손에다 감아갓고 췌. 사이사이에  
손가락에 넣어서. 아하하하하.}
- 10404 # 손꾸라게 너 췌간꼬 인자 삼췌요. 그 삼짜면 물파기 기양 피가 찌찌 나드



- 락 {손가락에 넣어 찌갓고 이제 삼지요.}
- 10404 @ 그건제 여그다 이러케? {그것은 이제 여기다 이렇게?}
- 10404 # 애, 여그다 비빈개 인자 하도 비비싼개 물파그서 피가 짹짹 나유기양. {예, 여기에다 비비니까 이제 하도 비비싸니까 무르팍에 피가 짹짹 나오 그 냥.}
- 10404 # 그 정도되드락 비비갓고 인자 막 물레다가 자좌. 물레다 자스면 그양 툭 툭 모라저갓고 피어진 노미 툭툭 실맹이로 모라지쥬. 가느로므니. {그 정도 되도록 비벼갓고 이제 막 무릎에다가 자아. 물레다 자으면 그냥 툭툭 몰아 저갓고 퍼진 놈이 툭툭 실처럼 몰아지쥬. 가늘게.}
- 10404 # 그런개 물 아라드를랑가 몰라도 돌꼬시다가 인제 또 조다 올려요 막. 이러케 큰 돌꼬시다. 뽕뽕 도리서 올리갓고 {그러니까 뭘 알아들을란가 몰라도 돌겻에다가 이제 또 모두 올려요 막. 이렇게 큰 돌겻에다. 뽕뽕 돌려서 올려갓고.}
- 10404 @ 그건저 마당에서요? {그건 이제 마당에서요?}
- 10404 # 애, 마당으서도 허고, 올라치 뽕이 큰 뽕이 엔나레 이쓰면 뽕으서도 허고 그래갓고. {예, 마당에서도 하고, 우리같이 뽕이 큰 뽕이 옛날에 있으면 뽕에서도 하고 그래갓고.}
- 10404 # 고 노물 인제 기양 재애 부석썩, 저 짜군떼기라고 인짜네요? 짜구떼기. {예, 마당에서도 하고, 우리같이 큰 뽕이 옛날에 있으면 뽕에서도 하고, 그 래갓고 그 놈을 이제 재애 부석, 저 짜구떼기라고 있잖아요? 짜구떼기.}
- 10404 @ 짜구떼기요? {짜구떼기요?}
- 10404 # 애, 사네가면 짜구떼기라고 인썩요. 도깨 그거시 때면. {예, 산에 가면 짜 구떼기라고 있어요. 독해 그것이 때면.}
- 10404 @ 아, 그 먼. {아, 그 먼}
- 10404 # 재가. {재가.}
- 10404 @ 재가? 그 먼 풀 이름이예요? {재가? 그 뭘 풀 이름이예요?}
- 10404 # 그 이르미 짜구떼기요. 나무 이르미. {그 이름이 짜구떼기요. 나무 이름 이.}
- 10404 @ 아, 나무 이르미? {아, 나무 이름이?}
- 10404 # 애. 참 그거 머 그 유서르먼 말도 모대기양. 어디까지라도. {예, 참 그거 뭘 말로 하자면 말도 못 해, 그냥. 어디까지라도.}
- 10404 # 그린자 그놈 짜구떼기를 때갓고 그 재털 마당으다가 그양 크:은 집채뽕이 맹이로 막 짜구뽕이를 쟁이노코 부를 지르며는 다 타. {그러면 그 놈 짜구 떼기를 때갓고 그 재를 마당에다가 그냥 큰 집채뽕이처럼 막 짜구떼기 뽕치 를 쟁여놓고 불을 지르면 다 타.}
- 10404 # 주위에서 무를 막 어만디로 날라갈개미 막 군데군데 이제 지러다가 놔두 고는 폭: 타며는 재가 푸연노미 기양 겁나. 그러면. {주위에서 물을 막 다른

- 데로 날라갈까봐 막 군데군데 길어다가 놓아두고는 폭 타면은 재가 뿌연한 것이 그냥 겹나. 그러면}
- 10404 # 실꺼시 뽕:도래미 인는노를 갑따가 무리다가 당관따가 그 노를 인자 재를 무치요. {그러면 실껏이 빙 둥글게 있는 놈을 갖다가 물에다가 담갔다가 그 놈을 이제 재를 묻혀요.}
- 10404 # 사람도 기양 재 투성이가 되고 무치갈꼬는 그양 방으다가 인자 고 노를 인자 방으다가 쟁이여. 막 이러케. 여남개씩 갑따 쟁이고는. {사람도 그냥 재 투성이가 되고 묻혀갖고는 그냥 방에다가 이제 그 놈을 이제 방에다가 쟁이여. 막 이렇게. 여남개씩 갖가 재쟁이고는.}
- 10404 @ 머슬요? 재를? {무엇을요? 재를?}
- 10404 # 재무친 실꺼설. {재 묻힌 실껏을}
- 10404 @ 아아, 실꺼설. {아아, 실껏을}
- 10404 # 실꺼설 고노무게. {실껏을 그놈의게}
- 10404 @ 그러니까 그 재, 삼베시를 갑따가 재에다가 무친다고? {그러니까 그 재, 삼베 실을 갖다가 재에다가 묻힌다고?}
- 10404 # 시를 인자 그 껍딱 베짖다고, 호여게. {실을 이제 그 껍데기 벗길라고, 허연하게.}
- 10404 # 그래가꼬 막 재이다 무치갈꼬는 방으다가 막 이르케 인자 호그로 요마는게 요르케 맨드라요. {그래갖고는 막 재에다 묻혀갖고는 방에다가 막 이렇게 이제 흙으로 요만하게 요렇게 만들어요.}
- 10404 # 뽕드룽개 요 가운데는 그걸 널 꺼시고 가상으는 이런디 인자, 거다 무를 부서 또 인자 무를 부서갈꼬 부를 기양 방뚜기 절판나도록 부석짜그다 부를 때야 방이 뜨끈뜨끈호제. 뽕이. {뽕둘리니까 요 가운데는 그것 넣을 것이고, 가장자리는 이런 데 이제, 거기에다 물을 부어 인제 물을 부어갖고 불을 그냥 구들장이 절판나도록 아궁이에다 불을 때야, 방이 뜨끈뜨끈 하지.}
- 10404 # 그래갈꼬는 우에다 다뽕 이부리니 덕써기니 더퍼노코는 막 한 사아릴 때요. {그래갖고는 위에다 듬뿍 이불이니 덕석이기 덮어놓고는 막 한 사흘을 때요.}
- 10404 # 밤나스로 때면 인자 재무친 노미 기양 도쿵개 물컹혀. 만치보면. {밤나스로 때면 이제 재 묻힌 것이 그냥 독하니까 물컹해. 만져보면.}
- 10404 # 그러믄저 큰내 가서 기양 방맹이로 디지기 뚜드리갈꼬는 기양 내둘러서 빠라. {그리고 큰 내에 가서 그냥 방망이로 죽도록 두드려갖고는 그냥 내둘러서 빨아.}
- 10404 # 빠라서 인저 그놈 조다 울거갈꼬 말려서 또 다시 고 돌꼬시에 이피야여. 이피갈꼬 인자 니리야여. 니리갈꼬는 인자 그때는 인자 {빨아서 모두 우려갖고 말려서 다시 그 돌꺀에 입혀야 해. 입혀갖고 이제 내려야 해. 내려갖고는 이제 그때는 이제.}

10404 @ 니릴 때는 어떠케 니리요? {내릴 때는 어떻게 내려요?}

10404 # 인자 돌꼬시다 둘러싸갸꼬 깡아리 아네 이마는 거 놔두고 줄줄 니리면 뽕뽕 돌선 니리져.니리머는 고노모로 나라 또. 마당으다. {이제 돌젓에다 둘러갸꼬 광주리 안에 이만한 것 놔두고 줄줄 내리면 뱅뱅뱅 돌면서 내려져. 내려놓으면 그 놈으로 나라 또. 마당에다.}

10404 @ 마당에다 놔가지고요? {마당에다 놔가지고요?}

10404 # 마당으다 여그다 말뚝 박꼬 저그다 말뚝 박꼬 나라갸꼬 인자 꾸여. {마당에다 여기다 말뚝 박고 저기에다 말뚝 박고 나라갸꼬 이제 꾸여.}

10404 # 꾸여갸꼬는 고 노를 인제 마당으다 부릴 피어서, 막 이러케 부를 피여노코는 도투마리에다 인자 또 멘섬 가마갸꼬 또 베를. 인자 올라가면 배 된 거시여. {꾸여갸꼬는 그 놈을 이제 마당에다 불을 피워서 막 이렇게 불을 피어놓고는 도투마리에다 이제 또 멘섬 감아갸꼬 또 베를. 이제 올라가면 배 된 것이여.}

10404 @ 그거할 때 뭐 치자물도 드리고 그런가요? {그것할 때 뭐 치자물도 들이고 그런가요?}

10404 # 매물물 꼬리갸꼬 지자무를 그다가 녀서 놀짱호게, 대강 아르시그만. 지자물 드링 거시랑. 헤헤헤. {메밀물 끓여갸꼬 치자물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누렇게, 대강 아시는구만, 치자물 들이는 것이랑}

10404 @ 어려쉴 때 보고 그래가지고요. {어렸을 때 보고 그래가지고요.}

10404 # 어머니가 그런 거슬 허셔끄만. {어머니가 그런 것을 하셨구만.}

10404 @ 애. {예.}

10404 # 지자무리 안 드리면 호여고, 지자물 드리면 노러니 조코. {치자물에 안 들이면 허영고, 치자물 들이면 노러니 좋고.}

#### 1.4.1. 목화, 삼, 모시의 재배와 길쌈(SJB\_JS\_35)

10404 @ 고 인제 해가지고 고로케 마당에서? {고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마당에서}

10404 # 애. 메야여 인저. 보디다가 그누물 다 띠야여. {예. 메어야해 이제. 바디에다가 그것을 다 띠어야해.}

10404 # 보디다가 띠워가꾸 마당에서 인제 불 피 노코 메물풀 꼬리가꼬 지자 푸러서 메가꼬. {바디다가 띠어갸꼬 마당에서 이제 불 피 놓고 메밀풀 끓여갸꼬 지자 풀어서 메갸꼬.}

10404 @ 그 인제 밤새도록 그 베트레서 인제 해가꾸. {그 이제 밤새도록 그 베틀에서 이제 해갸꼬.}

10404 # 그리갸꼬는 인제 다 메서 베트레다 올리노코는 나제로 짜고, 모지래면 바

- 미로 짜고. {그래갖고는 이제 다 메서 베틀에다 올려놓고는 낮으로 짜고, 모자라면 밤으로 짜고.}
- 10404 # 인저 그 내주면 기양 파라먹꼬, 그놈 한필씩 가꼬가서 파라서 쌀 한 말씩 파다 머거써. { {이제 그 내주면 그냥 팔아먹고, 그것 한 필씩 갖꼬가서 팔아서 쌀 한 말씩 팔아다 먹었어.}
- 10409 @ 고 한 피리이며는 얼, 기리가 얼마나 돼요? # 스무 자. @ 스무 자요? # 애. { @그 한 필이면은 얼, 길이가 얼마나 돼요? # 스무 자. @ 스무 자요? #예.}
- 10410 @ 고 하루며는 얼마나 짤 수 이써요? {그 하루면은 얼마나 짤 수 있어요?}
- 10410 # 우리는 하루 한 필씩 짜써요? {우리는 하루 한 필씩 짤어요.}
- 10410 # 기양 하루, 아치기 조밥 먹꼬 올라가면 기양 죽게 짜제키머는 저녁과네 내려올 찌그 꼬너가꼬 내려와, 한 필씩, 꼬너가꼬 내려오고. 그리써요. {그냥 하루, 아침에 아침밥 먹고 올라가면 그냥 죽게 짜면은 저녁판에 내려올 적에 끓어갖고 내려와, 한 필씩 끓어갖고 내려오고.}
- 10410 # 그제니양 시아바니가 사랑으 가서 우리 메느리는 하루 베 한 필씩 찐다고 어트게 자랑을 해가꼬 베 잘 찐다고 막. {그러니까 그냥 시아버니가 사랑에 가서 우리 며느리는 하루 베 한 필씩 찐다고 어떻게 자랑을 해갖고, 베 잘 찐다고 막.}
- 10410 # 성질대로 형개로, 성질대로 짜버링개 기양. {성질대로 하니까, 성질대로 짜버리니까 그냥.}
- 10410 @ 한 번 시작허며는 그냥 꼬출 보시는구만뇨. {한 번 시작하면은 그냥 끝을 보시는구만요.}
- 10410 # 그냥 막 정신업씨 짜머는 기양 배까스서 드드면 무슨 연주 친다고 히써요, 딱 딱 딱 딱 딱 딱 친다고. {그냥 막 정신없이 짜면은 그냥 바깥에서 들으면 무슨 연주 친다고 했어요, 딱 딱 딱 딱 딱 딱 친다고.}
- 10407 @ 고 베틀레는 고 뭐 요로케 허리에도 고 차고 고런 이름드리? {고 베틀에는 고 뭐 요렇게 허리에도 고 차고 그런 이름들이?}
- 10407 # 그건 부테. {그건 부티.}
- 10407 # 또 이 베 모은 거슨 몰코. {또 이 베 모으는 것은 몰코.}
- 10407 @ 몰코? {몰코?}
- 10407 # 애. {예.}
- 10407 # 뜯저 여그이 요로케 배이다가 느서는 요르케 헨 거슨 인자 잉애. {또 이제 여기 요렇게 배에다가 넣어서는 요렇게 한 것은 이제 잉아.}
- 10407 @ 잉애. {잉아.}
- 10407 # 애. 잉애를 거러야 베가 뵈개. {예. 잉아를 걸어야 베가 되니까.}
- 10407 @ 또 그 다으메 뭐 발로 이르게. {또 그 다음에 뭐 발로 이르게.}
- 10407 # 그건 꼬실코. {그건 꼬실신.}

10407 @ 그 다크메 인저 고 . {그 다크메 이제 고.}

10407 # 용, 용모름. 그인저 이르케이르케 자바댕이는 건 용모름. {용, 용모름. 그 이제 이렇게이렇게 잡아다니는 것은 용모름.}

10405 @ 그 모시는 여기에서는 안 시머썬요? {그 모시는 여기에서는 안 심었어 요?}

10405 # 여그는 모시는 어찌다 한 집썬 허고 멩지베를 마니 히썬요. {여기는 모시는 어찌다 한 집썬 하고 멩주베를 많이 했어요.}

10413 @ 그 멩지베는 뭘로 하는 거예요? {그 멩주베는 뭘로 하는 거예요?}

10413 # 뉘여. 뉘여 켜가꼬, 뽕나무 뜨더머근 뉘여. {누에. 누에 키워갖고, 뽕나무 뜯어먹은 누에.}

10405 @ 모시베는 그러니까 한 집 정도밖에 안 해꾸만뇨. # 예. 한 집빠끼 안 히썬요. {@모시베는 그러니까 한 집 정도밖에 안 했구만요. # 예. 한 집밖에 안 했어요.}

10405 # 요새는 사박꼬 썬때요. {요새는 사방에 썬대요.}

10405 @ 근데 그 모시는 언제 시머요? {그런데 그 모시는 언제 심어요?}

10405 # 안 싱귀. 생전 그 자리가 이썬. {안 심어. 생전 그 자리가 있어.}

10405 @ 아, 한 번 시머는 그냥 그 자리가. # 음. 자꾸 번치기만 혀, 자꾸 뿌렁이가. {@ 아, 한 번 심으면은 그냥 그 자리가. # 음. 자꾸 번지기만 해, 자꾸 뿌리가.}

10405 @ 그래두 인제 맨 처으메는 언제 시머야 될 꺼 아뇨? {그래도 이제 맨 처음에는 언제 심어야 될 것 아뇨?}

10405 # 공개 인제 맨 처으메는 요매년누물, 모디를 저 바까상으다가 싱귀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요만한 것을, 모종을 저 밭가에다 심어요.}

10405 # 그러면 인자 그누미 일년 가는 안 나온디 이년채 뽕서는 기양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빠더가꼬 금방 번치버려. {그러면 이제 그놈이 일년 간은 안 나오는데 이년채 되면서는 그냥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번어갖고 금방 번져버려.}

10405 @ 모시가요? # 애. {@모시가요? # 예.}

10405 # 시방 모시베를 안 낭개 우리 바까상으루 맨 모시요. {시방 모시베를 안 나니까 우리 밭가로 맨 모시요.}

10405 # 그 바테 웬수여, 그양 바트루 드뤄서. {그 밭에 원수여, 그냥 밭으로 들어와서.}

10514 @ 모시가 어트케 생견나? 저는 모시는 몬뽕가꾸요. {모시가 어떻게 생겼나? 저는 모시는 못 봐야갖고요?}

10514 # 모시 입썬기? 뽕이븐 알썬? @ 예. # 뽕입 빠스대요. 납작하니 요로케. {# 모시 잎사귀? 뽕잎은 알썬? @ 예. # 뽕잎 비슷해요. 납작하니 요렇게.}

10514 # 뉘여는 흐여고 위여는 새파라고. {뉘여는 허여고 위여는 새파랑고.}

10514 @ 뒤에는 허여너고? {뒤에는 허열고?}

10514 # 애, 그게 모시여. {예. 그게 모시요.}

10514 # 그놈 여년놈 따다가 떠글 히노면 머 쭈근 저만치 가라여. 참 마시썸, 쫘드거니. {그놈 연한 놈 따다가 떡을 해 놓으면 뭐 썩은 저만큼 가라여. 참 맛있어, 쫘득하니.}

10514 @ 모시떠근 그럼 어트게 해요? {모시떡은 그럼 어떻게 해요?}

10514 # 무시떡? @ 모시, 모시떡. # 모시떡? {#무시떡? @ 모시, 모시떡. # 모시떡?}

10514 # 모시, 모시떠근 고놈 여년놈 입썸 뜨더다가 쌀마요, 쑹맹이로. {모시, 모시떡은 그놈 연한 놈 잎사귀 뜯어다가 삶아요, 썩처럼.}

10514 # 폭 쌀마가꼬 인제 그 인절미 혈찌그 거그다가 느서 쳐요. {폭 삶아갓고 이제 그 인절미 할 적에 거기다가 넣어서 쳐요.}

10514 @ 아 고걸 처메 그러며는 쌀마가꼬, # 예. 쌀마내요. {@ 아 그것을 처음에 그러면은 삶아갓고, # 예. 삶아내요.}

10514 @ 그 인절미 혈 때 찹쌀레다가 너가꼬 떡메로 치는 구만뇨. {@ 그 인절미 할 때 찹쌀에다가 넣어갓고 떡메로 치는구만요.}

10514 # 애. 공개 그저 칠라글찌그 너어. {예. 그러니까 그저 치려고 할 적에 넣어.}

10514 @ 아, 칠라구혈 때, 학또게다가 너코 쳐요? {아, 치려고 할 때, 학독에다가 넣고 쳐요?}

10514 # 애, 학또그다가 너코도 허고 기계도 히다 허고. {예. 학독에다가 넣고도 하고, 기계다 넣고 하기도 하고.}

10514 # 모신넙떼기 참 유명허고 마시썸요, 근디 귀차녀 그누므 거시. {모싯잎떡이 참 유명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귀찮아 그놈의 것이.}

10514 @ 그럼 썩떠기 쉬워요? 모시떠기 쉬워요? {그럼 썩떡이 쉬워요? 모시떡이 쉬워요?}

10514 # 썩떼기나 모시떼기나 또까테요, 허기는. {썩떡이나 모시떡이나 똑같아요, 하기는.}

10514 @ 허기는? # 애. {하기는? # 예.}

10514 @ 근데 뭐가 더 마시썸요? {그런데 뭐가 더 맛있어요?}

10514 # 모시떼기 마싯쥬. {모시떡이 맛있쥬.}

10514 @ 모시떠기 더 마시썸요. {모시떡이 더 맛있어요.}

10514 # 쑹내 난든 허니 모시떠기 마시썸요, 쫘득꺼리고. {썩내 난듯 하니 모시떡이 맛있어요, 쫘득꺼리고.}

10405 @ 고 이 모시 해는 거슨 그러며는 삼베허고 어트게 비스대요. {그 이 모시하는 것은 그러면은 삼베하고 어떻게 비슷해요?}

10405 # 모시가 비싸쥬. {모시가 비싸쥬.}

10405 @ 아니 인제 그 만드는 거. {아니 이제 그 만드는 거.}

10405 # 맨든 거슨 삼보다 쉽다고 하대요. {만드는 것은 삼보다 쉽다고 하대요.}

10405 @ 아, 모시가? {아, 모시가?}

10405 # 애, 삼, 모시는 재를 안 무치고 그양 새분, 새부네다가. {예. 삼, 모시는 재를 안 묻히고 그냥 새분, 새분에다가.}

10405 @ 새분이 뭐예요? {새분이 뭐예요?}

10405 # 그 양젼물 가통거. @ 아. {# 그 양젼물 같은 거. @ 아.}

10405 # 새부니다가 그누를 그양 무를 푸러서 당귀놔따가 찢는다 {새분이다가 그것을 그냥 물을 풀어서 담가 놓았다가 찢는데,}

10405 #사른 이누르 기양 그 재이다가 막 버무러가꼬 방으다가 막 찔무지, 방 가운데다 노코. 그렇게로 참 거시기 허지. {삼은 이눔을 그냥 그 재에다가 막 버무러갓고 방에다가 막 삶지, 방 가운데다 놓고. 그러니까 참 거시기 하지.}

10411 @ 고 이 질싸머고 그래쉴 때 고 좀 옛날 생각, 트빠리 나고 뭐 그렇거 업썬요? # 질쌘힐 찌그 형 거슨 그거시지 뭐. 명뵈 샘베. {@ 고 이 질쌘하고 그랬을 때 고 좀 옛날 생각, 특별히 나고 뭐 그런 것 없어요? # 질쌘 할 적에 한 것은 그것이지 뭐, 명뵈, 샘베.}

10411 @ 인제 좀 힘들거나 뭐 이런. {이제 좀 힘들거나 뭐 이런.}

10411 # 심든 거슨 인제 그 삼 재 무쳐가꼬 저 또랑으가 빠는 거시 심들지. {힘든 것은 이제 그 삼 재 묻혀갓고 저 또랑에 가 빠는 것이 힘들지.}

10411 @ 나른 축꼬? {날은 축고.}

10411 #나른 축꼬 막 무레 가서 기양 그누를 드레서서 방맹이질을 죽게 히야 인자 그누미 낭장낭장히야 무리다 시치며는 시쳐지지, 기양 안 시쳐저요. {날은 축고 막 물에 가서 그냥 그것을 들어서서 방망이질을 죽게 해야 이제 그것이 낭장낭장하여 무레다 씻으면은 씻어지지, 그냥 안 씻어저요.}

10411 # 그럴 때가 제일르 심들지. {그럴 때가 제일로 힘들지.}

10411 # 그러고 인자 삼 바티서 익퀴서 저릅 베끼가꼬 헐 때가 심들고. {그러고 이제 삼 밭에서 익혀서 겨릅 벗겨갓고 할 때가 힘들고.}

10411 # 더웁기는 헌디 껌따글 베끼양개. {덥기는 한데 껌데기를 벗겨야 하니까.}

10411 @ 저릅 빼길 때가 힘들고, {@ 겨릅 벗길 때가}

10411 # 애, 그때가 젤로 더웁고 심들고. {# 예, 그때가 제일로 덥고 힘들고}

10411 # 지금 싸람드른 차암 뭐 사는 세상이 사는 거 까트지만 옛날에는 기양 아그로 아그로 히머꼬 사라썬요, 진짜 아그로 아그로. {지금 사람들은 참 뭐 사는 세상이 사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그냥 악으로 악으로 해먹고 살았어요. 진짜 악으로 악으로.}

10411 @ 그러시쥬. {그렇쥬.}

10411 # 몸뎡이를 그양 아주 뭐 사, 인간 취그블 안허고 그냥 어트게 도냐지 취급

허드끼 그르케 세상사를 사라썬요, 누구든지. {몸둥이를 그냥 아주 뭐 사,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돼지 취급하듯이 그렇게 세상사를 살았어요, 누구든지.}

10411 @ 그러쥬. {그랬쥬.}

10411 # 문지로, 그양 뭐 흠빠티서 재로, 순 그러케만 가꼬 상개 도냐지시그로 사라쥬. {먼지로, 그냥 뭐 흠발에서 재로, 순 그렇게만 갖고 사니까 돼지식으로 살았쥬. }

10411 # 오단버늘 매꼬머니 이버요? 몬니버. {웃 한 번을 말끔하게 입어요? 못 입어.}

10411 @ 고 이르케 질쌘 혈 때 힘들고 그러니까 먼 노래 불르고 허고 뭐 그런. {고 이렇게 질쌘 할 때 힘들고 그러니까 먼 노래 부르고 하고 뭐 그런.}

10411 # 노래 부를 새가 어디가 이썬요. {노래 부를 새가 어디가 있어요.}

10411 # 그러고 연나레 어른드리 노래도 몬 빨르게 해, 지집뜨리 어트게 노래를 부르야고. {그러고 옛날에 어른들이 노래도 못 부르게 해, 여자들이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고.}

10411 # 참 이제 절문 사람드리 인제 노래 밴다고 삼 사므서 공개 노래를 배봐. 그 이튼날은 막 집찌비 조자머거. {참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노래 배운다고 삼 삼으면서 그러니까 노래를 배워봐. 그 이튼날은 막 집집이 쥐어잡아.}

10411 # 지집년드리 가서 개상질 나갈라가디 노래 부르고, 이리나 허지. {계집년들이 가서 개상질 나가려고 하게 노래 부르고, 일이나 하지.}

10411 # 언제 노래 부르고 언제 사른 삼 삼냐고. {언제 노래 부르고 언제 삼은 삼 삼냐고.}

10411 # 아이, 이븐 저, 소니로 저 사른 소니로 삼꼬 노래는 이브로 부르는데 그런다고 인저 억썬 사람드론 달라들고, {아이, 입은 저, 손으로, 저 삼은 손으로 삼고 노래는 입으로 부르는데 그런다고}

10411 # 그라는 사라몬 디지게 당하기만 허고 암마뚜 아너구 인자, 그 이튼날 저 녀그 되야가꼬 그려. 나 어제 데질뻔 봐따구.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되게 당하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하고 이제, 그 이튼날 저녁에 모여갖고 그래. 나 어제 뒤통 뵈었다고.}

10411 # 그도 우리 실랑은 야단 안 혀. {그래도 우리 신랑은 야단 안 해.}

10411 @ 예. {예.}

10411 # 저드리 그러면 절문 사람드리 배울 꺼시나 배워안다. {저들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배울 것이나 배워야 한대.}

10411 # 크내기때 안 배운 거 지금 다 배라거고 막. {큰애기때 안 배운 거 지금 다 배우라고 하고 막.}

10411 @ 고 그때 그 불려썬 노래들 쫘 생강나는 거 이썬요? {고 그때 그 불렀



있던 노래들 좀 생각나는 거 있어요?}

10411 # 다 이저버리쎄요. {다 잊어버렸어요.}

10411 @ 그 한 번 생강나면 한 번 노래 한 번 불러보시죠. {그 한 번 생각나면 한 번 노래 한 번 불러보시죠.}

10411 # 다 이저버려쎄. {다 잊어버렸어.}

10411 @ 그 한 토마기라도요. {그 한 토막이라도요.}

10411 # 한 토매기라도 이저버리서 몰라. 하하하. {한 토막이라도 잊어버려서 몰라, 하하하.}

10411 # 노래도 아니고 기양 어트게 요상시런 소리들 허고 그리쎄. {노래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요산스러운 소리들 하고 그랬어.}

10411 @ 그니까 어떤 어떤 소리드를 해쎄. {그러니까 어떤, 어떤 소리들을 했어.}

10411 # 그 옛날에는 그양 모다 뭐 뵈야서 으머니 아버지 머 그런 노래도 부르고, 시집 와서 인자 심심형개 그런 노래 조개. {그 옛날에는 그냥 모두 뭐 모여서 어머니 아버지 뭐 그런 노래도 부르고, 시집 와서 이제 심심하니까 그런 노래 줌.}

10411 @ 뭐 어머니 아버지 어떤 노래? {뭐 어머니 아버지 어떤 노래?}

10411 # 어무니 아버지 고행이 여그여, 뭐 고행이 따로 인냐, 그르케 쪼개썩 배우다가 뜰치가꼬는 다 안히버리고 마라쎄. 하하하. {어머니 아버지 고행이 여그여, 뭐 고행이 따로 있냐, 그렇게 조금씩 배우다가 뜰쳐갖고는 다 안 해 버리고 말았지. 하하하.}

#### 1.4.2. 누에치기와 비단 짜기

10414 @ 고 인제 명지베 헐 때는 고 인제 누에를 키우자나요? 고 한 번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맨 처음에 인제 누에 씨부터. {고 이제 명주베 할 때는 고 이제 누에를 키우잖아요? 고 한번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맨 처음에 이제 누에씨부터.}

10414 # 누여를, 누여를 이 아리 이쎄요, 알. {누에를, 누에를 이 알이 있어요 알.}

10414 # 뉘 아를 인제 이케 종우떼기다가 요마넨 종우떼기다가 싸악 까라가꾸와. {누에 알을 이제 이렇게 종이에다가 요만한 종이에다가 싹 깔아갖고 와.}

10414 # 까가꼬 인자. {까갖고 이제.}

10414 @ 그 아른 어디서 가지고 와요? {그 알은 어디서 가지고 와요?}

10414 # 공개 인제 그 공장으서 가뽁가 보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장에서 갖고 오나 보테요.}

10414 # 이 동네에서는 뉘야알 깐 사라미 읍쎄. {이 동네에서는 누에알 깐 사람이 없어.}

10414 # 가꾼제 고노를 여그서 누여 키우고 인자 씨누여 현다고, 특빠리 씨누여 현, 키운 사라미 인떠구만. {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여기서 누에 키우고, 이제 씨누에 한다고, 특별히 씨누에 한, 키운 사람이 있더구만.}

10414 # 고노를 인제 누여를 아를 가짜서 인자 한 지비다가 따따헌디다가 이케 중우떼기로 더퍼노면 새카만게 알 쏘그서 나와요. {그노를 이제 누에를 알을 갖고 와서 이제 한 집에다가 따듯한 데다가 이렇게 종이로 덮어 놓으면 새카만 것이 알 속에서 나와요.}

10414 # 그냥 무슨 머, 머 가트냐면 개미 가터 개미. {그냥 무슨 뭐, 뭐 같으냐면 개미 같아 개미.}

10414 # 개미 가치 이케 떠들러보며는 뽀족뽀족뽀족 알 쏘그서 나와. {개미 같이 이렇게 떠들러 보면은 뽀족뽀족뽀족 알 속에서 나와.}

10414 그러곤자 한 시작할 썸그 오늘 그르케 시자글 허면 내이른 싸악 나와버려. {그리고 이제 한 시작할 적에 오늘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내일은 썸 나와버려.}

10414 @ 아, 하루 썸녕만 자면? {아, 하루 저녁만 자면?}

10414 # 예. 하루 썸녕만 다면 썸 나와버려가고, 꺾떼기는 인저 흐여고 알맹이는 개미맹이로 시커며. {예. 하루 저녁만 지나면 썸 나와버려갖고, 꺾떼기는 이제 하얗고 알맹이는 개미처럼 시커메.}

10414 # 그런 누를 인제 뽕 여년놈, 꼬테 여년 누물 쫙쫙 쓰러서 뿌리주면 뜨더머 그머는 나나리 달라요, 이놈 누여가. {그런 놈을 이제 뽕 연한 것, 끝에 연한 것을 쫙쫙 썰어서 뿌려주면 뜯어먹으면은 나날이 달라요, 이놈 누여가.}

10414 # 오늘 뽕고 니열 뽕면 그양 자꾸 커. {오늘 보고 내일 보면 그양 자꾸 커.}

10414 # 가꾼제 한 일주일 되머는 외상장 상당이 커, 막 이만씨기나 허 기양. {그래갖고 이제 한 일주일 되면은 예상 그냥 상당히 커, 막 이만씨이나 해 그냥.}

10414 # 그럼 그녀를 기양 재와 인자 또 잠자, 한 자미 자요. {그럼 그 놈을 그냥 재워, 이제 또 잠자, 한 잠이 자요.}

10414 @ 고 인자 한잠 자머는 그 뭐 이름드리 따로 이써요? {고 이제 한잠 자면은 그 뭐 이름들이 따로 있어요?}

10414 # 한잠, 애기잠, 두잠, 세잠, 네자른 인자 마지막잠. {한 잠, 애기잠, 두 잠, 세 잠, 네 잠은 이제 마지막잠.}

10414 # 그리 자면제 일주일씩 일주일씩 메기면 그르케 처빠네는 애기잠, 두번 잘 짜는 두잠, 세번 잘 짜는 석잠, 인제 녀짜른 인자 마지막 잠자. {그렇게 자면은 일주일씩 일주일씩 먹이면 그렇게 첫번에는 애기잠, 두 번 잘 적에는 두잠, 세 번 잘 적에는 석잠, 녀잠은 이제 마지막 잠 자.}

10414 # 가꾼자 마지막잠 자면 막 누여가 요만씨기나 허 그양. {그래갖고 이제 마

- 지막잠 자면 막 누에가 요만씩이나 해 그냥.}
- 10414 # 자면자 그누른 젤로 늘더구만요. 이트를 자 이트를. {자면 이제 그것은 제일로 늦더구만요, 이틀을 자, 이틀을.}
- 10414 @ 아, 녀잠 때는? {아, 녀잠 때는?}
- 10414 # 응, 마지막짜믄, 녀잠 때는 인저 이트를 자머는, 이틀 자고는 막 밤나즈로 막 뜨더머그면 그양 뽕 따기가 바쁘고 갈따 주기가 바빠요. {응, 마지막잠 은, 녀잠 때는 이제 이틀을 자머는, 이틀 자고는 막 밤낮으로 막 뜯어먹으면 그냥 뽕 따기가 바쁘고 갖다 주기가 바빠요.}
- 10414 # 한 매나 켜보면 이 방으로 하나 키우면 그양 잠박, 간대 이르게 지르고 잠바글 그 위에다가 그양 놔가꾸면 어시력어시력 기양 정심씨 머거버려. {한 매나 키워보면 이 방으로 한 가득 키우면 그냥 잠박, 간대 이렇게 지르고 잠박을 그 위에다가 그냥 놓아갖고 하면 어시력어시력 그냥 정신없이 먹어버려.}
- 10414 # 그림자 여썌채 되머는 누여가 놀짱히져요. 이그머 올라갈라고. {그러면 이제 엿새채 되머는 누에가 노릿해져요, 이그머 올라가려고.}
- 10414 # 그믄저 고놈 하나씩 추리서 인제 고시랭이라고 이썌, 또 고시랭이를, 지블 요만치씩 꼬너, 꼬너 가꼬는 산내키다가 이르게, 산내키를 이르게 두 개가 이르게 퍼개져가고 꼬와쓰면 인제 여기를 산내키를 버리지게 히가고 졸졸졸 히고 인자 저 낙꿍덩이로 꼬터리다가 다라가꼬는 그짜그서 요로케 요로케 내두르면 이눔제 이 산내키 퍼진누미 인제 짜집서 고시랭이라는 노미 봉올봉올하게 조다 이서져. {그러면 이제 그놈 하나씩 추려서 이제 쏘라고 있어, 또 쏘을 짚을 요만큼씩 끊어, 끊어 갖고는 새끼를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퍼개져갖고 꼬았으면 이제 여기를 새끼를 벌여지게 해갖고 졸졸졸 하고 이제, 저 낫토막으로 끝에다가 달아갖고는 그 쪽에서 요렇게 요렇게 내두르면 이눔이 이제 이 새끼 퍼진것이 이제 꼬아 지면서 쏘이라는 것이 봉올봉올하게 모두 이어져.}
- 10414 # 인저 고노를 잠바그다 노코 누여를 거그다 올리노면 조다 올라가서 막 꼬치를 맨드라. {이제 고놈을 잠박에다 놓고 누에를 거기다 올려놓으면 모두 올라가서 막 꼬치를 만들어.}
- 10414 # 호여니 꼬치를 맨들면자 한 일쭤일 되머는 판판혀 꼬추가. {허연하니 꼬치를 만들면 이제 한 일쭤일 되머는 단단해, 고치가.}
- 10415 # 고놈저 싸악 따가꾸 요마년 투가리로 소슬 거러노코 인저 물레 여그다 노코 자세 노코 가꾼저 이케 보글보글보글 꼬림성 자세 이 구머그가 또 이르게 졸졸졸졸 나오는 구머글 뿌러노머는 인저 고 소그서, 투가리서 인자 그 꼬치는 익꼬 시리 되머는저 거그서 막 여러개가 뭉치가꼬는 나오면 가느디가늘게 나와가고, 돌꺼시다 또 그르케 올림성 이르게 험성, 뻘디기 추서 내노면 아드른 와서 주서먹꼬. {그놈을 저 싹 따갖고 요만한 투카리로 술을 거

- 러놓고 이제 물레 여기에다 놓고 자새 놓고, 그래갖고는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면서 자새 이 구멍이 또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는 구멍을 뚫어놓으면은 이제 그 속에서, 투가리서 이제 거 꾸치는 익고 실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 막 여러 개가 뭉쳐갖고는 나오면 가늘디가는게 나와갖고, 돌것에다 또 그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번데기 추려 내놓으면 아이들은 와서 주워먹고.}
- 10414 그 명지베는 누여만 키워노면 천하 쉬워. {그 명주베는 누에만 키워놓으면 천하 쉬워.}
- 10414 @ 그 인제 누에 키울 때가 힘들구만요. {그 이제 누에 키울 때가 힘들구만요.}
- 10414 # 누여 키울 때가 심드러. {누에 키울 때가 힘들어.}
- 10414 # 뭐 한잠 두잠 잘 때는 갠차는디, 마지막잠 네잠 자면 기양 막 여그서 주면 저그서 다 머거버리고, 저그서 주면 여그서 다 머거버리고. {뭐 한잠 두잠 잘 때는 팬찮은데, 마지막잠 네잠 자면 막 여기서 주면 저기서 다 먹어버리고, 저기서 주면은 여기서 다 먹어버리고.}
- 10414 # 자른 오고 바미로 기양 누여 한밥씩 그누를 주고 나면 한 시간씩근 주고 낭개로. {잠은 오고 밤으로 그냥 누에 한밥씩 그놈을 주고 나면 한 시간씩은 주고나니까.}
- 10414 # 그러곤제 똥 개릴쩌그. {그리고 이제 똥 가릴 적에.}
- 10414 @ 똥은 그 어트케 개려? {똥은 그 어떻게 가려?}
- 10414 # 똥은저 한 마리씩 개려서 다른 디다 다마요. {똥은 이제 한 마리씩 가려서 다른 데다 담아요.}
- 10414 # 여그단제 누여를 노코 개리면 여그단자 잠바그 우다가 심문지 깔고 게다 주서다마 한 마리씩. {여기에다 이제 누에를 놓고 가리면 여기에다 이제 잠박 위에다가 신문지 깔고 거기다 주워담아 한 마리씩.}
- 10414 @ 한 마리씩. {한 마리씩.}
- 10414 # 예. 한마리씩 주서다르면 징그럽기도 허고 각씨씨저레는 차암 징그럽떠마요. {예. 한 마리씩 주워담으면 징그럽기도 하고 각시시절에는 참 징그럽더만요.}
- 10414 # 근디 원청 히쌍개 기양 징그란 거뚜 읍꼬, 애기더른 막 주서먹꼬 그랴. 북북 겨댕이마. {그런데 엄청 해쌍니까 그냥 징그런 것도 없고, 아기들은 막 주워먹고 그래, 북북 기어다니며.}
- 10414 @ 예. 몰르고? {예, 모르고?}
- 10414 # 몰르고 막. 억꼬 이르키 누여똥을 개리면 그양 여프로 주서서 먹꼬 막 그려 그양. {모르고 막. 엽고 이렇게 누에똥을 가리면 그냥 옆으로 주워서 먹고 막 그려 그냥.}
- 10414 # 뺨을 때리고 막 더렁거 머근다고 그양. {뺨을 때리고 막 더러운 거 먹는다고 그냥.}

10414 # 버르쟁이 업씨 어른들 아피 뺨 때린다고 지찬 드리가면서. {버르장이 없  
이 어른들 앞에 뺨 때린다고 지청구 들어가면서.}  
10414 # 에이고오 참. {아이고 참.}

### 1.4.3. 옷 만들기

10418 @ 고걸 인제 오슬 그르케 해가지고 만드려야 되자나요? {그걸 이제 옷을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10418 # 애. {예.}  
10418 @ 오슬 직접 그르케 다 만드려써요? {옷을 직접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10418 # 애. 오슬 다 맨드라서 장개 가고 시집갈라만 조다 오슬 맨드라서, 시하네  
시집까면, 장개가머는 그누물 다 소캐를 노치요, 거그다가. {예. 옷을 다 만  
들러서 장가가고 시집가려면 모두 옷을 만들어서, 시한에 시집가면, 장개가  
면은 그놈을 다 숨을 놓지요, 거기에다가.}  
10418 # 소캐를 놔서 다 뉘비서 바지 맨들고, 저구리 맨들고. {숨을 놓아서 다 누  
벼서 바지 만들고, 저고리 만들고.}  
10418 @ 고 인제 오슬 만들 때는 그 온 천 종류에 따라서 온 이름드리 다를꺼 아  
니예요? {고 이제 옷을 만들 때는 그 옷 천 종류에 따라서 옷 이름들이 다  
를 거 아니예요?}  
10418 # 근 이건 바지, 이건 저구리, 죄끼, {그 이건 바지, 이건 저고리, 조끼.}  
10418 @ 아니 그 저기 뭐 베로, 삼베로 만든 온. {아니 그 저기 뭐 베로, 삼베로  
만든 옷.}  
10418 # 멩지뵈온, 멩지온, 삼베온, 미영온. {명주베옷, 명주옷, 삼베옷, 명옷.}  
10418 @ 멩지온? {명주옷.}  
10418 # 애. {예.}  
10418 # 미영온. {명옷.}  
10418 @ 뭐 뭐가 제일 조은 오시예요? {뭐 뭐가 제일 좋은 옷이예요?}  
10418 # 멩지베허고 모시허고 제일 조쵸 오시. {명주베하고 모시하고 제일 좋쵸,  
옷이.}  
10418 # 따습끼는 미영베가 따순디 제일로 가늘고 점잔허고 그런 오슨 부자 싸라  
미나 이브까 가난헌 사라문 그러논 입또 모더. {따뜻하기는 명베가 따뜻한  
데 제일로 가늘고 점잖하고 그런 옷은 부자 사람이나 입을까 가난한 사람은  
그런 옷 입도 못해.}  
10418 @ 고건제 멩지오시네요? {고건 이제 명주옷이네요?}  
10418 # 애. 멩지온. {예. 명주옷.}  
10418 @ 멩지오시나 모시온. {명주옷이나 모시옷.}

10418 # 애. 모시오슨 인제 여르메. {예. 모시옷은 이제 여름에.}

10418 @ 여르메? # 예. {@여름에, # 예.}

10418 # 그렇게로, 그린다 시방은 뭐 조운 온. {그러니까, 그랬는데 시방은 뭐 좋은 옷.}

10419 @ 그 오슬 그르케 만들 때 어터케 만드러요? 인제 고걸. {그 옷을 그렇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고걸.}

10419 # 비지요, 조다 인제, 원폭 저기 반포. {베지요, 모두 이제, 원폭, 저기 반포}

10419 @ 원포는 뭐예요? {원포는 뭐예요?}

10419 # 원포근 이르게 바지를 이르게 비머는 저근자 새끼 가는 오시 이꼬, 여기 원포근 요만썸건 뇌미 원뵈기고. {원폭은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베면은 저기 이제 새끼 가는 옷이 있고, 여기 원폭은 요만큼썸한 것이 원폭이고.}

10419 # 여그는자 비어가꼬 이르게 가새맹이로 그르케 빈 거시 인제 가는, 그거뽀고 뭐라건디, 이져버린네 내가 맨드라썸썸도. {여기는 이제 베어갓고 이렇게 가워처럼 그렇게 벤 것이 이제 가는, 그것보고 뭐라고 하는데, 잊어버렸네 내가 만들었었어도.}

10419 # 그르케 비어서 갈포 타서 다 그르케 히서 이피고. {그렇게 베어서 갈포 타서 다 그렇게 해서 입히고.}

10419 @ 그러면 인제 고. {그러면 이제 고}

10419 # 나중께가 그거슨 골란효, 뽕딱뽕딱 허더락 두드릴라면 그양 을마나 두드린다. {나중께가 그것은 곤란해요. 뽕딱뽕딱 하도록 두드리려면 그냥 얼마나 두드리는데.}

10419 @ 머 어떤 거슬? # 멍지를. @ 멍지를? {@ 뭐 어떤 것을? # 명주를. @ 명주를?}

10419 # 애. 멍지를 해가꾼자 그놈 풀 살짝 메기가꼬 기양, 그 멍지 또글또글허니 두드려지도 안넌누를 납짜거더락 그양 뽕딱뽕딱 허더락 두드려야 돼요. {예. 명주를 해갓고 이제 그놈 풀 살짝 먹여갓고 그냥, 그 명주 또글또글하니 두드려지지도 않는 놈을 납작하도록 그냥 뽕딱뽕딱 하도록 두드려야 돼요.}

10419 @ 고 인제 근데 그 삼베로, 베로 무슨 온뜨를 만드러썸요? {고 이제 그런데 그 삼베로, 베로 무슨 옷들을 만들었어요?}

10419 # 샘베, 인제 여르메, 여르메 입꼬 땡이는 오슨 인제 적삼, 바지, 뽕스, 그런 거슬 맨들고 시하네는 인저 소캐 놔서 바지. {삼베, 이제 여름에, 여름에 입고 다니는 옷은 이제 적삼, 바지, 팬티, 그런 것을 만들고, 시한에는 이제 숨 놓아서 바지.}

10419 @ 소캐 놔서 만드는 {숨 놓아서 만드는}

10419 # 바지. {바지}

10419 @ 애, 고 바지. {예, 고 바지.}

10419 # 저구리. {저고리.}

10419 # 토시. {토시.}

10419 # 뷔션. 그르케 맨드라 이퍼썬요. {버션, 그렇게 만들어 입혔어요.}

10419 @ 색똥은 가튼거 애기드른 뭐. {색동옷 같은 거 애기들은 뭐.}

10419 # 그거슨 저, 애기드른 칸치동온. {그것은 저 아기들은 색동옷.}

10419 # 그건저 멩지베로 무를 디려야 혀. 노랑물, 빨그렁물, 남물. {그건 이제 멩주베로 물을 들여야 해. 놀아물, 빨강물, 남물.}

10426 @ 고 뭐 무른 뭇로 드려요? {고 뭐 물은 뭇로 들어요?}

10426 # 물깨미 인떠구만뇨. {물감이 있더군만요.}

10426 @ 아, 물까므로? {아, 물감으로?}

10426 # 장사더리 물까를 가꼬면, 물감 가판냐거면 가파따거면 이때는 봉다리다 싸가꼬, 뭐 가루가치 생인느물, 이케 무를 헬렐레이즘 푸면 거그다 그양 오슬 느면 남누른 남색 띄고 노랑누른 노랑눔 되고. {장사들이 물감을 갖고 오면, 물감 갖고왔느냐고 하면 갖고 왔다고 하면 이만한 봉지에다 싸갖고, 뭐 가루같이 생긴 것을, 이렇게 물을 헬렐레 줌 풀면 거기다 그냥 옷을 넣으면 남눔은 남색 되고, 노랑눔은 노랑눔 되고.}

10419 @ 고 내복까튼 거슨 뭐 안 만드러 이버썬요? {고 내복같은 것은 뭐 안 만들어 입혔어요?}

10419 # 내복까튼 거슨 안 맨드라 이버썬요. 옴나레는. {내복같은 것은 안 만들어 입혔어요. 옛날에는.}

10419 @ 내보근? {내복은?}

10419 # 내보기 중녀네 나왓찌. {내복이 중년에 나왔지.}

10419 @ 그 저네는 내보기 업썬꾸만뇨. # 읍썬썬. 읍꼬 그양 사썬. {그 전에는 내복이 없었구만요. # 없었어. 없고 그냥 셔츠.}

10419 # 오시로, 소공개, 이 썬, 이르케 시방 사쓰맹이로 뽕썬거니 그르케 입꼬. {옷으로, 속옷이니까, 이렇게, 시방 셔츠처럼 뽕썬하게 그렇게 입고.}

10419 # 그러구냥 소개 똬서 이봉개 그런 거슬 안 입꼬, 속쩍쌈 그런 거 썬썬썬 맨드러 이피고. {그리고 그냥 숨 놓아서 입으니까 그런 것을 안 입고, 속적쌈 그런 거 조금씩 만들어 입히고.}

10419 # 공개 이런디 춤따고 토시 맨드라서 기양 토시 썬고. {그러니까 이런데 춤따고 토시 만들어서 그냥 토시 끼고.}

10419 # 시방 팔찌라고 허드만 옴나레는 토시. {시방 팔찌라고 하더만 옛날에는 토시.}

10420 @ 그 인제 바지나 치마 저고리에서 고 옴 이름드른 먼 뭐가 이썬요? 인제 이르케 세, 세부저그로, 자세하게. {그 인제 바지나 치마 저고리에서 고 옷 이름들은 뭇 뭐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세,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10420 # 치매는 마리썰요, 말. 요마너게 치매를 맨드러 가꼬 마를 또 다시 거다  
형거시 말. {치마는 말 있어요, 말. 요만하게 치마를 만들어 갖고 마를 또  
다시 거기에다 한 것이 말.}

10420 # 말 단다고, 치매 맨드러 노먼 말 다네 그러고. {말 단다고, 치마 만들어  
놓으면 말 다네 그러고.}

10420 # 저구리는 동전. {저고리는 동정.}

10420 # 또 동전 미테 요 쫓까년 건 진. {또 동전 밑에 요 조그만한 것은 짓.}

10420 @ 애. {예.}

10420 # 또 여기 쪼까네 요로케 부친 거슨 섭. {또 여기 조그맣게 요렇게 붙인 것  
은 썰.}

10420 @ 애. {예.}

10420 # 여그는저 폴뚝 당건 동. 그르케 이썰요. {여기는 이제 팔뚝 단 것은 동.  
그렇게 있어요.}

10420 @ 그 다으메 요로케 해서 묶는 건?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묶는 건?}

10420 # 커릭꾼. {허리꾼.}

10420 @ 그거는 여근저 . {그것은 여기 이제.}

10420 # 댄님도 여그저, 바지 입꼬 여 양말 여페 버선 여페 신는 건 댄님. {대님  
도 여기 저, 바지 입고 여 양말 옆에 버선 옆에 신는 건 대님.}

10420 @ 고 요 저고리에 이르케 묶는 건? {고 요 저고리에 이렇게 묶는 건?}

10420 # 저고리에 묶는 건 오르폼, 오꼬름. {저고리에 묶는 건 옷고름.}

10420 # 양반들 오슨 별라지만 여자들 오슨 오꼬름, 여그 섭, 짓, 동전, 그르케 다  
각까지 이썰썰요. {양반들 옷은 별나지만 여자들 옷은 옷고름, 여기 썰, 짓,  
동정, 그렇게 다 갖가지 있었어요.}

10420 @ 고 뭐 여근저 주머니 가튼 건? {고 뭐 여기 이제 주머니 같은 건?}

10420 # 죄끼, 죄끼. {조끼, 조끼.}

10420 @ 고 거게 죄끼는제 주머니라고 그래요? 뭐라게요? {@고 거기에 조끼는  
이제 주머니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10420 # 괴비. {#주머니.}

10420 # 괴비 맨든다고 그러제. 괴비. {주머니 만든다고 그러지, 괴비.}

10420 @ 댄님도 뭐 큰댄니미 인꼬 뭐 자근댄니미 이꼬 뭐 그래요? {대님도 뭐 큰  
대님 있고 뭐 작은대님 있고 뭐 그래요?}

10420 # 큰댄니미라는 거슨 인저 허리끈보고 큰댄니미라고 허고 짜근노른 여근자  
가느른 거슨 아래 양말린는디 췌민 거시 댄님. {큰대님이라는 것은 이제 허  
리끈보고 큰대님이라고 하고 작은놈은 여기 이제 가늘은 것은 아래 양말 있  
는데 묶는 것이 대님.}

10421 @ 고 인제 바지나 치마저고리 만들 때 고 이 처늘 가따가 잘 이르케 가르  
고 자르고 뭐 이 또 다림질 하고 막 그러자나요. {고 이제 바지나 치마저고



리 만들 때 고 이 천을 갖다가 잘 이렇게 가르고 자르고 뭐 이 또 다림질 하고 막 그러잖아요.}

10421 @ 고런 거쫘 한번 자세이 이야기 해 줘요. {그런 것쫘 한 번 자세히 이야기 해 줘요.}

10421 # 고건제 그러케. {그건 이제 그렇게.}

10421 @ 처늘 인제 뭘로 찔러요? {천을 이제 뭘로 잘라요?}

10421 # 가새로. 가위로 인제 베를 짜르쫘. 공개 원포, 새끼포. {가위로, 가위로 이제 베를 자르쫘. 그러니까 원폭, 작은폭.}

10421 @ 근디 고 고런 걸 헐라며는 고 모양을 어트케 쫘 처으메 보고 만들고 뭐 그래야 될꺼 아네요? {그런데 고 고런 것을 하려면은 고 모양을 어떻게 쫘 처음에 보고 만들고 뭐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10421 # 글케 처으메는 요로케 인제 천빠넌 배완는디 예를 드르면 인제 요로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렇게 이제 첫번에는 배웠는데, 예를 들으면 요렇게.}

10421 @ 인제 처니 처으메 이쫘 꺼 아니예요? {이제 천이 처음에 있을 것 아니예요?}

10421 # 넘짜거니 이르게 생이씨면 천빠니 원폭뽀텀 이르게 인저 이르게 납짜거니 꼬너노코 그 대미는 인제 요로케. {넘적하니 이렇게 생겼으면 첫번에 원폭부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납작하니 꿰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렇게.}

10421 @ 쫘끔 비스듬 허게요? {조금 비스듬 하게요?}

10421 # 갈 이르게 이르게 비스듬히가꼬, 여그다가 요로케 맨드라, 맨드라서 비고. {가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갖고, 여기다가 요렇게 만들어, 만들어서 베고.}

10421 # 원포글 인자 여그다 대면 납짜거니 조아지쫘. {원폭을 이제 여기에다 디면 납작하니 좋아지쫘.}

10421 # 그러구 인자 저 저구리는 기양 보통 비지마는 바지허고 두루매기 비기가 켈루 들 바요. 두루매기. {그리고 이제 저 저고리는 그냥 보통 베지마는 바지하고 두루매기 베기가 제일로 덜 베요. 두루매기.}

10421 @ 두루매기? {두루매기?}

10421 # 얘. 두루매기는 여기 무가 이쫘개. 쪼까녕거 보고 무라구려. {예. 두루매기는 여기 무가 있으니까. 조그만 거 보고 무라고 그려.}

10421 @ 아 자근 고걸 보고 무요? {아 작은 고걸 보고 무요?}

10421 # 얘. 무 댄다거고 무. {예. 무 댄다고 하고 무.}

## 제 2편 어 휘

### 2.1. 농경

#### 2.1.1. 경작

20101	벼	나락 가트네요
20101	벼	나락
20102	이삭	이사근 요거시쥬
20102	이삭	알랭이
20102	이삭	나락 모가지여 모가지
20102	이삭	나락 모가지고
20103	볍씨	썸:나락
20103	볍씨	오:나락
20103	볍씨	는나락
20104	못자리	몰짜리
20104	못자리	몰짜리다가
20104	못자리	몰짜리파니라고려
20105	모판	모:판
20105	모판	몰:파니라고
20106	쟁기	쟁기라구유
20107	보습	보십
20107	보습	쟁깁보십
20108	벗	깍쟁기(밭)
20108	벗	논쟁기(논)
20108-0-1	-이	
20109	극쟁이	깍쟁기구만유
20110	씨레	씨:리
20110	씨레	씨리
20110	씨레	씨린빨
20111	번지	씨리라고 허는데
20111	번지	씨:리가 일씨요
20112	모내기	모:싱구러가(+ 구)
20112	모내기	이식허러 간다(+ 신)
20112	모내기	모:싱군다(+ 구)
20112	모내기	모:내기(+ 신)
20113	흙덩어리	덤벙이

20113	흙덩어리	흑뽕뽕이가 몽쳐간꼬
20114	고무래	당그래로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당그래
20114-2	고무래(재 용도)	당그래
20114-2	고무래(재 용도)	부억당그래
20114-3	고무래(흙 용도)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당그래
20115	쇠스랑	소:시랑
20116	곡괭이	흑 파는 호꾸라고
20116	곡괭이	꼭괭이
20116	곡괭이	꼬괭이
20116	곡괭이	꼭괭이
20116	곡괭이	이건 호꾸고
20116	곡괭이	호:꾸
20117	괭이	괭이
20118	삽	삽:
20119	호미	호맹이
20119	호미	호:맹이
20120	농기구	농기구 창고
20121	김	지심
20122	김매다	지심 매러간다
20122	김매다	피 뽀브러간다
20122	김매다	지심 매러간다
20122	김매다	폴 매러간다고도 허고
20123	애벌 매다	초벌찌심
20123-1	두벌 매다	두벌찌심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바테 마무리 지심 매러가네
요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만두리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세벌 마무리 지심
20124	논두둑	방천 날따고
20124	논두둑	영:떡이래고
20124	논두둑	영:떡
20124-1	논두렁	논뚜레기 기양
20125	밭둑	*
20126	밭두둑	두럭
20126	밭두둑	두럭 맨든다구려
20127	밭고랑	고:리 이제
20127	밭고랑	고랑
20127	밭고랑	고랭이고

20127	밭고랑	고랑
20128	밭이랑	이랑이라고도 하고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두러글 맨드라서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두러글 진는다고
20128-2	이랑밟기	받뚜럭 볼브러간다
20129	보리	보리
20129-1	가을보리	보리
20129-2	봄보리	봄보리
20130	보리쌀	보린쌀
20131	가을갈이	시:안가리(겨울)
20131	가을갈이	봄까리
20132	깜부기	깜:볶기 보리
20133	두엄	쉴똥거름
20133	두엄	보린꺼름(풀만 썩힌 것)
20133	두엄	뒤:에미고
20134	거름	거름 받는 거시고

##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추수한다고
20201	추수하다	추수
20201	추수하다	타작허리가네
20201	추수하다	나락벨러간다고
20202	벧단	나락따발
20202	벧단	나락다발
20202-1	벧단(한 줌정도)	나락다발
20202-2	벧단(타작할 정도)	나락까리
20202-3	벧단(한 아룀정도)	나락가리
20203	가리(積)	나락 줄가리헌다구려
20203	가리(積)	가리
20203	가리(積)	줄가리
20203	가리(積)	장작까리라구류
20203	가리(積)	나락까리 싸네
20204	가리다(積)	쟁인다그려 쟁여
20204	가리다(積)	나락뚜 쟁인다구려 기양
20205	벧가리	진까리
20206	날가리	*
20207	타작	가실허러간다구려
20207	타작	가실

20208	벼훑이	훑테
20208-1	그네	
20209	개상	호룽기
20209	개상	메질헌다고
20209-1	자리개	
20209-2	자리개질	
20210	도리깨	도리깨
20210-1	도리깨장부	대막까지
20210-2	도리깨열	도리깨널
20210-3	도리깨꼭지	도리깨널까락지
20210-3	도리깨꼭지	까락찌
20211	벧짚	집
20211-0-1	-을	집따바를 가져와
20211-0-2	-에	집따바레다 불댄다
20211-0-2	-에	나락까리다가
20212	새 꽤기	췌:때기
20212	새 꽤기	회:뛰기
20213	쭈정이	쭈:쟁이
20214	티	티:끄락
20214	티	회:뛰기 날린다 그러제
20214	티	문:지
20215	까끄라기	받뚜레기라구려
20215	까끄라기	꺼끄락
20216	풍구	불무(대장간)
20216	풍구	풍:구
20217	원두막	외:막
20218	허수아비	허:새비
20219	흥년	승:년
20219	흥년	실:꽤받따구려제
20220	머슴	머심
20221	놉	품파리
20221	놉	썩꾸나라고도 허고(+ 신)
20221	놉	날:품
20221	놉	노버드러 간다
20221-0-1	-을	노:블 인제
20221-0-1	-을	노블 어드로 간다
20222	품앗이	품:아시
20223	품삯	품쌔기라고도 허고
20223	품삯	품쌔기라고혀
20223	품삯	품쌈
20223	품삯	품:쌈

20223 품삯  
 20223-0-1 -으로  
 20223-0-1 -으로

일땅  
 품싸그로  
 품싸글 바다따

###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20301 방아  
 20302 디딜방아  
 20302 디딜방아  
 20303 방앗공이  
 20304 방아확  
 20304 방아확  
 20305 물레방아  
 20306 연자방아  
 20307 절구  
 20307 절구  
 20308 절구통  
 20308 절구통  
 20308 절구통  
 20309 절굿공이  
 20310 절구질  
 20311 겨  
 20312 보릿겨  
 20313 왕겨  
 20314 등겨  
 20315 검불  
 20315 검불  
 20316 껍질

보리방아 찧러가네  
 나락빵애 찧러가네  
 드딜빵애  
 드딜빵애 도구통  
 도곤때  
 화독  
 드들빵애 화독  
 물:레방아  
 독빵아  
 독도구통  
 나무도구통  
 도구통이라구려  
 절구통  
 도구통  
 도곤때  
 도구질  
 저  
 보린저  
 왕저  
 몽강저  
 검부적  
 검부쟁이  
 껍떼기

### 2.1.4. 곡물

20401 곡식  
 20401 곡식  
 20401 곡식  
 20401 곡식  
 20402 찹쌀  
 20402 찹쌀

곡썰기라구려  
 잡곡  
 싱:냥  
 곡썩  
 찹쌀  
 찰:비(나락)

20402	참쌀	차나락
20402	참쌀	참쌀(찜은것)
20402	참쌀	찰:비
20403	맷쌀	맷쌀
20404	쌀보리	곶보리
20404	쌀보리	쌀보리
20405	조	서숙
20406	차조	차서숙
20407	메조	메씨숙
20408	좁쌀	서숙쌀(보통형)
20408	좁쌀	좁싸리고도 허요
20409	잘다	자라요
20410	조이삭	서숭모가지
20411	수수	이건 쭈:시고
20411	수수	쭈수
20411-1	붉은색 수수	쟁:쭈시는
20411-1	붉은색 수수	찰쭈수
20411-2	장목수수	메쭈수
20411-3	찰수수	찰쭈시
20411-4	메수수	메쭈시
20412	수수깁	깁탱이
20412	수수깁	쭈:신태
20413	옥수수	강:냉이(+ 구)
20413	옥수수	옥:쭈수(+ 신)
20413	옥수수	강:냉이
20413-1	찰옥수수	찰:강냉이
20413-2	메옥수수	메강냉이
20414	귀리	*
20415	메밀	매물
20416	콩	콩
20417	콩깍지	콩깍찌
20417	콩깍지	섭
20417	콩깍지	섭깍때기라고도 허고
20417	콩깍지	깍찌
20417	콩깍지	깍때기라고도 허고
20418	메주	메주
20419	매달다	다라요
20419	매달다	매다라
20420	떡우다	띠워서 장을 담찌
20420	떡우다	띠워
20421	곰팡이	메주실

20422	강낭콩	돈부
20423	콩기름	콩지름
20424	깨	꽤:
20424	깨	깨:
20424-1	참깨	창깨가 이꼬요
20424-2	들깨	들꽤
20425	고소하다	꼬순꼬

## 2.1.5. 채소

20501	채소	채소라구려
20502	나물	넘:새
20502	나물	나물
20502-1	"나물(발 재료)"	넘새가
20502-1	"나물(발 재료)"	넘새라고 허고
20502-1	"나물(발 재료)"	넘새
20502-2	"나물(발 반찬)"	넘새
20502-3	"나물(들 재료)"	나무리라거고
20502-3	"나물(들 재료)"	나물
20502-4	"나물(들 반찬)"	넘새고
20502-5	"나물(산 재료)"	산너물
20502-6	"나물(산 반찬)"	산너물
20503	푸성귀	산:너물이라고 해요 전부다
(취, 고사리, 돌가지 등을 통틀어 말함)		
20503	푸성귀	넘새(밭에서 나는 것들 - 채
소나물을 통틀어 말함)		
20503	푸성귀	푸성가리(단어 사용을 꺼려
함)		
20504	다듬다	개린다구려
20504	다듬다	개려
20505	반찬	벨 반찬 읍써
20506	무	무수
20507	썰다	씨러서
20508	무청	쭈거리
20508	무청	입:쌈
20508	무청	이파리고
20509	시래기	씨라구
20510	무말랭이	무시우거리
20510	무말랭이	우거지



20510	무말랭이	무시우거지 말린씨
20511	장다리무	장다래바근 무시씨
20512	배추	배추
20513	고갱이	배추속
20514	오이	외:
20514	오이	무뢰:
20515	오이지	외장아치
20516	오이소박이	무뢰:김치
20517	가지(茄子)	까지
20518	호박	호박
20518	호박	늘근호배기고
20518	호박	푸도박
20519	고구마	힌:고구마
20519	고구마	고구마
20520	감자	하지감자
20520	감자	감자도
20521	우영	우영
20521	우영	우영은
20522	파	파:
20523	고추	꼬:치
20523	고추	푼꼬치
20524	시금치	시금치가 일꼬
20525	미나리	미나리
20526	부추	술:
20527	상추	상:추
20528	마늘	마:늘
20528	마늘	육쫄마늘
20528	마늘	마:늘
20529	생강	시:양(+ 구)
20529	생강	생강(+ 신)
20530	냉이	나:송개
20530	냉이	나송개
20531	달래	달룽개
20532	도라지	도라지(+ 신)
20532	도라지	돌가지(+ 구)
20533	더덕	더덕

## 2.2. 음식

###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쌀:밥
20601	쌀밥	고:빼
20602	찬밥	씨근밥(+ 신)
20602	찬밥	찬밥(+ 구)
20602	찬밥	줄:
20602	찬밥	굴레고
20602-1	더운밥	따:순밥
20602-1	더운밥	따순배비
20603	조밥	서숙빼비(+ 구)
20603	조밥	좁쌀배빈디(+ 신)
20603	조밥	서숙뺨(+ 구)
20603	조밥	좁쌀밥(+ 신)
20604	누룽지	누룽지
20605	눌은밥	소:망
20605	눌은밥	누룬밥
20606	승냥	승냉
20607	뜨물	뚝물
20608	김(蒸氣)	된짐난다
20609	갱죽(羹粥)	씨래기쪽
20610	싱겁다	싱겁따거머는
20611	국수	국쭈
20612	칼국수	칼재비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기계쪽수
20613	건더기	건테기
20613-1	국물	말:국
20614	고명	계란 양념 찌끄림따
20615	꾸미	*
20616	미역	미역쪽
20617	김(海苔)	김:
20618	수제비	수제비
20619	끼니 것)	굶절히따(며칠 동안 못 먹은 것)
20619	끼니	끄니털
20620	미음	미:음(쌀티가 없는 것)
20620	미음	흰죽(쌀티가 하나씩 있는 것)

20620-1	(미움을) 끓이다/쭈다/삶다	미움 고안따고
20620-1	(미움을) 끓이다/쭈다/삶다	미우물 끄리서 췌따고그료
20621	엿기름	엿절금
20621	엿기름	엿:찌름
20622	식혜(食醢)	식케
20623	식해(食?)	
20624	달다(甘)	다라
20624	달다(甘)	단디
20624	달다(甘)	달기만 허지
20625	가루	떡가루가 되고
20625-0-1	-에	쌀가루다
20625-0-1	-에	밀가루이다가
20625-0-2	-을	쌀가루나 밀가루나 만지먼
20625-0-2	-을	떡가루를 만들먼
20625-0-3	-도	밀가루도 업찌
20626	밀가루	밀가루
20626	밀가루	밀:가루
20627	밀기울	밀:겹딱(+ 구)
20627	밀기울	밀찌울(+ 신)
20628	미숫가루	미숫가루

##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간장
20702	된장	된장으다 찌거머겨요
20703	고춧가루	꼬:춘가루
20704	고추장	꼬치장
20705	소금	소곰허다가
20706	김치	가을김치
20706	김치	김치
20706	김치	여름김치
20707	김장	진장김치
20707	김장	김장헌다
20708	깍두기	뚝때기(작게 썰은 것)
20708	깍두기	깍뛰기고
20708	깍두기	깍때기
20708	깍두기	왕뚝때기(크게 썰은 것)
20709	나박김치	깍때기 김치
20710	담그다	겨을찜장 다 히따구료

20710-0-1	-고	진장허고 일따
20710-0-2	-어라	진장해야제 그래요
20711	양념	양념
20712	버무리다	꼬친까루 갠:다
20712	버무리다	속빵능거
20712	버무리다	버무린 거시고
20713	버섯	싸:리버섀
20713	버섯	송:이버섀
20713	버섯	버:섀
20713-0-1	-이	버서시
20714	콩나물(재료)	콩나물
20714-1	콩나물(반찬)	콩너물짬지
20714-1	콩나물(반찬)	콩너물국
20714-2	숙주(나물)	녹뚜너물(반찬)
20714-2	숙주(나물)	녹뚜:질금(재료)
20715	두부	뚜부
20716	비지	비:지
20716-1	비지떡	비질쪽 (떡을 해먹지는 않음)
20717	달걀	달걀(+ 구)
20717	달걀	계란(+ 신)
20718	가래떡	가래떡
20719	시루떡	시루떡
20719	시루떡	쭈신히떡(돌 잔치할 때 먹는 떡)
20720	송편	송:편
20721	빻다	맨드라
20721	빻다	송:편 맨든다고
20722	흰떡	가래떡
20722	흰떡	흰:떡
20722	흰떡	흰떠글 히머근디
20723	고물	판꼬물
20723	고물	콩까루
20724	팔죽	동지죽
20724	팔죽	파쭈그로 아라요
20725	새알심	새알시미
20725	새알심	새알시미 너코 동지죽 꼬려
20726	백설기	백:찌(+ 신)
20726	백설기	백찌떡(+ 신)
20726	백설기	설:기떡(+ 구)
20727	튀밥	튀밥

20728	술	약쭈
20728	술	술 머그러 가자구
20728	술	술:먹으러 가자
20729	막걸리	막걸리
20730	소주	쇠:주
20731	부침개	저기라고도 허고(+ 구)
20731	부침개	부침개라고(+ 신)

###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부뚜
20802	가마솥	솥:판지
20802	가마솥	솥판지
20802	가마솥	꺼멍솥
20802-0-1	-을	솥판지를
20802-0-2	-에	꺼멍솥판지이다 허서
20803	아궁이	부엌
20803	아궁이	아궁지
20803	아궁이	부엌아궁지
20803-0-1	-이	부엌 아궁지가 너무나 크네
20804	그을음	끄실목
20805	불쏘시개	쏘:시개
20805	불쏘시개	쏘:시개를
20806	연기	연기
20806-1	내(煙氣)	내웁따고구료
20807	그을리다	끄슬메기 떠러져서
20808	부지깻이	부주땡이
20809	부삽	오새비여 오삽
20810	넙다	매웁따 그려 매와
20810	넙다	누니 매와서 안떠진다
20811	넙비	넙비
20812	그릇	그릇
20812-0-1	-을	그르글 깨까시 썬쳐라
20813	뚜껑	뚜껑
20814	주발 뚜껑	복지깨
20814	주발 뚜껑	바끄룩뚜껑
20814	주발 뚜껑	복지깨뚜껑
20814	주발 뚜껑	복지깨
20815	사발 뚜껑	개

20816	솔뚜껑	소두방 뚜껑
20817	밥주걱	뽕주걱
20817	밥주걱	나무주걱
20817	밥주걱	주걱
20817	밥주걱	쇠주걱
20818	순가락	수:제
20819	젓가락	저번(+ 구)
20819	젓가락	저분
20820	종지	깍쟁이
20821	보시기	중발
20822	뚝배기	투가리
20823	접시	사라접씨
20824	조리	조리
20824	조리	조:리
20825	이남박	함박
20825	이남박	나무함박
20826	바가지	나무바가지
20826	바가지	바가지
20827	행주	행주
20828	행구다	행기는거시
20828	행구다	행기기만헨쫄
20829	설거지	설:거지
20830	개숫물	구정물
20831	찌꺼기	찌끄래기
20832	화로	화리
20832	화로	화:리
20833	화롯불	장작뿔
20833	화롯불	숯:뿌리라고도 허고
20833	화롯불	가로불이라고도 허고
20833	화롯불	가리불
20834	부젓가락	윤두
20834	부젓가락	화전꾸락
20834	부젓가락	불썰꼬락
20834-0-1	-이	화전꾸래기 업쓰먼
20834-0-1	-이	화전꾸래기 업따
20834-1	불순가락	불:까래
20834-1	불순가락	부:까래
20835	다리쇠	삼:발
20836	석쇠	적:쇠
20837	도시락	도시래기라고(+ 구)
20837	도시락	도시락

20837	도시락	도시락 인썬요(+ 구)
20837	도시락	벤또(+ 신)
20838	바구니	바구니
20839	뒤주	두제
20839	뒤주	두지
20840	찬합	차납
20841	강판	첸칼
20842	개다리소반	동군상

## 2.3. 가옥

###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큰방
20901	안방	큰뱅이랑계
20902	벽	백작
20903	다락	정 켜백짱
20904	벽장	백짱
20905	감추다	감:춘다 그래요
20906	흙	상:처날따 그래요
20907	돌쩌귀	돌:쪽
20907-1	암쪽	암똥쪽
20907-1	암쪽	암똥쩌구
20907-2	수쪽	순똥쪽
20907-2	수쪽	순똥쩌구
20908	미단이	밀:챙이지요
20909	여단이	문:
20909	여단이	고리문
20910	덧문	점:문
20911	열다	여러지지요
20912	문고리	문고리
20913	자물쇠	쥔뵤
20913	자물쇠	쇠:통
20914	간히다	가되노코
20915	열쇠	열:썩쵸
20915	열쇠	열:썩
20915	열쇠	쥔:때
20916	잠그다	쇠:통으로 잠관따 그래요

20917	구멍	문구덕
20917-1	취구멍	지:구덕
20918	찢다	찌저버린따고
20919	구들	방:뚝
20920	흙받기	바:침때
20920	흙받기	흑:바치미나
20921	흙손	흑:쏜
20921	흙손	흑쇠손
20922	흙칼	쇠:손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흑쏜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쇠손
20923	바르다	민:다고 그래요
20924	장판	장파나라고 허는디요
20925	종이	종우
20926	도배	백찌
20926	도배	되빈종우
20926	도배	백찌
20927	구석	구석떼기
20927	구석	구석떼기
20928	굽도리	떼지
20928	굽도리	떼지 발른다고 해요 떼지
20929	깨끗하다	깨끄터다고 그러
20930	문지방	문턱
20930-0-1	-에	문터게 올라서지 마라
20931	틈	문:쌔가 버러절따고
20932	가장자리	가에다 놔떠니
20932	가장자리	마룻끝
20932	가장자리	마룻꼬टे
20933	가운데	가운데
20933	가운데	한복판
20933	가운데	복파나라고
20934	시렁	선반 질린따고 그래요
20935	살강	살:강
20935	살강	살:갱이고
20936	선반	선반
20937	서랍	빼도지
20937	서랍	빼도리
20937	서랍	미다지
20938	경대	경대
20938	경대	경대 노코
20939	거울	색경



20940	걸다	건다고 해도 되고
20940	걸다	거릴따고
20941	호룽	호룽
20941	호룽	등잔

### 2.3.2. 건물

21001	지붕	지:뽕이고
21001	지붕	지붕
21001-0-1	-에	지붕으로
21002	기와	기와
21002	기와	지아
21003	기와집	지아찜
21003	기와집	기완찜
21004	수키와	숯찌와
21005	암키와	암:찌와
21006	대들보	대들뽕
21007	서까래	서:까래
21007	서까래	서:까래가
21008	추녀	추녀
21009	처마	채양바지
21009	처마	처마여
21010	오두막	오두막싸리
21010	오두막	오두막찜
21011	초가집	초가지비라구 현디
21012	이영	날개를 여껴서
21012	이영	날:개
21012	이영	날개
21012-0-1	-에서	날개에서 놀고 인따
21012-0-1	-에서	날개 연끈디 인지 마라
21012-0-1	-에서	날개소그서 놀고 인따
21013	용마름	용모름
21014	기스락	처마끄틀
21014	기스락	집씨랑 민테
21015	낙숫물	집씨랑물
21015-1	기스락물	소탕물
21016	사닥다리	새다리
21017	용마루	용:마람
21018	토방	뚜룽 맨드란따고 현디

21019      뗏돌  
 21019      뗏돌  
 21019-1    섬돌  
 21019-1    섬돌  
 21020      마루  
 21020-0-1   -에  
 21021      텃마루  
 21022      기둥  
 21023      주춧돌  
 21023-0-1   -을  
 21024      굴뚝

돌:  
 뚜룽    딛꼬    올라가  
 발판  
 심:방뚝  
 마룽  
 마룽에    올라가지    말라  
 뒤마룽  
 지둥  
 주추  
 주추를    놔야  
 귀뚝    인썸요

### 2.3.3. 마당

21101      뜰  
 21101      뜰  
 21102      마당  
 21103      넓다  
 21103      넓다  
 21103-0-1   -어서  
 21104      넓히다  
 21105      곳간  
 21105      곳간  
 21106      외양간  
 21107      마구간  
 21108      광  
 21109      헛간  
 21109      헛간  
 21110      쓰레기  
 21111      장독대  
 21112      장독    뚜껑  
 21113      변소  
 21113      변소  
 21113      변소  
 21113      변소  
 21113-1    똥장군  
 21113-1    똥장군  
 21113-1    똥장군  
 21114      울타리

화단  
 마당터  
 마당이  
 마당이    널롭따고  
 넓따고  
 널버서  
 키워야겄따고  
 창고(+ 신)  
 고양  
 외양  
 소막  
 고양  
 허칭  
 허칭백짜  
 씨레기(+ 신)  
 장:뚝  
 맨대기    뚜껑  
 칩간  
 부친깐  
 칩간(+ 구)  
 뼤소(+ 신)  
 장군  
 부낭  
 장구느로    퍼내요  
 홀타리

21115 담  
 21115 담  
 21115-0-1 -에  
 21115-0-2 -도  
 21116 사립문  
 21116 사립문  
 21117 뒤곶  
 21117-0-1 -에  
 21118 바깥  
 21118-0-1 -에  
 21119 모퉁이  
 21119 모퉁이  
 21119 모퉁이  
 21120 모서리  
 21120 모서리  
 21120 모서리

담  
 백돌담  
 담우그 인따  
 담두 무너지고  
 싸리무늘  
 싸림문  
 뒤에 터  
 뒀빠테서  
 배깁티  
 바깁테  
 구석  
 모퉁이  
 모퉁이  
 밥쌍귀라고  
 귀챙이  
 방 귀챙이

####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21201 마을  
 21202 윗마을  
 21202 윗마을  
 21203 이웃  
 21203-0-1 -이  
 21203-0-1 -이  
 21203-0-2 -에  
 21203-0-2 -에  
 21204 마을가다  
 21205 우물  
 21206 두레박  
 21207 샘(泉)  
 21207 샘(泉)  
 21208 가(邊)  
 21208-0-1 -을  
 21208-0-2 -에  
 그래요  
 21209 물지게  
 21210 가게

동:네  
 마으리고  
 우춤  
 가온대춤  
 유:짚  
 유:시 조아서  
 유:시 조아서 이사를 몬칸다  
 유찌베서 산다  
 유:찌비서 사는데  
 모실칸다구려 모실  
 시아프로  
 두릅박  
 시양수  
 시양수 난다고 그래요  
 가상  
 받까상 둘러본다 그래요  
 받까상으가 푸리 마:니날따  
 물찌기  
 과:쥔짚

21210	가게	과게
21211	싸다	싸다고
21212	비싸다	비싸다
21212	비싸다	비싸다 그리고
21213	흥정	흥:정은
21213	흥정	흥쟁이고
21213	흥정	시비
21214	중매인(거간꾼)	흥정꾼
21214	중매인(거간꾼)	거간쟁이
21214	중매인(거간꾼)	거간쟁이
21215	잔돈	잔:저느로 바꿔달라
21216	에누리	에:누리나
21216	에누리	에누리를 헐다고
21216	에누리	에느리 허자고(+ 신)
21216	에누리	까까주쇼(+ 구)
21217	거스름돈	거시름돈
21218	거스르다	거실러돌라고도 허고
21218	거스르다	거실러돌라 그래야제
21218	거스르다	거실러줘요그료
21219	꾸다(借)	빌리줄 수 업써요
21219	꾸다(借)	꿔돌라고(+ 구)
21219-0-1	-어야	꾸어주쇼
21220	구두쇠	인색시럼따고
21220	구두쇠	독쌀시럼네
21220	구두쇠	구두쇠
21221	맡기다	보관힐따가
21221	맡기다	맡끼노라고
21222	나머지	나머지
21222	나머지	나른 도는
21222	나머지	남는 도는 저그미라
21223	덤	후허게
21223	덤	더:미라고 허지
21224	몫	내 목
21224-0-1	-을	내 모글
21224-0-1	-을	내 목씨루 챙긴따
21224-0-1	-을	모글 챙긴따
21225	빚	빚
21225-0-1	-을	비슬 마니 켜써요
21225-0-2	-에	빚째비한티 쫄린다
21226	이자(利子)	이자
21227	심부름	신바람

21228	두름	한두름
21228-1	축	한 축
21228-2	쾌	한 추기라구료
21228-3	접	한 접
21228-4	쌈	한 쌈
21228-5	두름	한 접
21228-6	단/뭇(작은 묶음)	다발
21228-7	단/뭇(서너 개 묶음)	한 다발(+ 구)
21228-7	단/뭇(서너 개 묶음)	한 단(+ 신)
21228-8	툇	한 툇
21228-9	모숨	한 무꿈
21228-9	모숨	한: 주먹
21228-9	모숨	한 쥐기
21229	컬레	한: 커리
21230	마지기	한 다랭이 두 다랭이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한 마지기는 이백평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한 필지기는 구백평
21231	꾸러미	한 줄
21231	꾸러미	한: 줄
21232	그루	한 주 두 주
21232	그루	한: 주 두 주
21233	포기	한 띄기 두 띄기
21234	저울	저울
21235	자루(包袋)	잘구
21235	자루(包袋)	잘: 구
21235-0-1	-을	잘: 구를 가져오니라
21235-0-2	-에	잘구에 담는다
21236	하나	하나
21236	하나	하나
21236-1	한-개	한 개
21236-2	한-되	한 되
21236-3	한-말	한: 말
21236-3	한-말	한말
21237	둘	둘
21237-1	두-개	두: 개
21237-1	두-개	두개
21237-2	두-되	두 되
21237-3	두-말	두말
21238	셋	세엔
21238	셋	세: 엔
21238-1	세-개	세: 개

21238-1	세-개	세개
21238-2	세-되	세:되
21238-2	세-되	서:되
21238-3	세-말	서:말
21239	넷	네엔
21239	넷	네:엔
21239-1	네-개	네:개
21239-1	네-개	네:게
21239-2	네-되	네:되
21239-2	네-되	너:되
21239-3	네-말	너말
21239-3	네-말	너:말
21240	다섯	다섯
21240	다섯	다섯
21240-1	다섯-개	다섯개
21240-2	다섯-되	다섯
21240-2	다섯-되	다:되
21240-3	다섯-말	다:말
21241	여섯	여섯
21241-1	여섯-개	여섯개
21241-2	여섯-되	여섯
21241-2	여섯-되	여:되
21241-3	여섯-말	여:말
21241-3	여섯-말	여:말
21242	일곱	일곱
21242-1	일곱-개	일곱개
21242-2	일곱-되	일곱
21242-3	일곱-말	일곱말
21243	여덟	여덟
21243	여덟	야달
21243-1	여덟-개	야달개
21243-2	여덟-되	야달
21243-3	여덟-말	야달말
21244	아홉	아홉
21244-1	아홉-개	아홉개
21244-1	아홉-개	아:홉개
21244-2	아홉-되	아:홉
21244-3	아홉-말	아:홉말
21245	열	열
21245	열	열:
21245-1	열-개	열:개

21245-1	열-개	열개
21245-2	열-되	열피
21245-3	열-말	열말
21246	스물	수물
21246-1	스무-개	수무:개
21246-2	스무-되	수무되
21246-3	스무-말	수무말
21247	서른	서룬
21247-1	서른-개	서룻개
21247-2	서른-되	서룬되
21247-3	서른-말	서룬말
21248	마흔	마훈
21248-1	마흔-개	마운개
21248-2	마흔-되	마흔되
21248-3	마흔-말	마흔말
21249	쉰	쉰:
21249-1	쉰-개	쉰:개
21249-2	쉰-되	쉰:되
21249-3	쉰-말	쉰:말
21250	예순	예순
21250-1	예순-개	예순개
21250-2	예순-되	예순되
21250-3	예순-말	예순말
21251	일흔	이룬
21251-1	일흔-개	이룬개
21251-2	일흔-되	이룬되
21251-3	일흔-말	이룬말
21252	여든	야든
21252-1	여든-개	야든개
21252-2	여든-되	야든되
21252-3	여든-말	야든말
21253	아흔	아훈
21253-1	아흔-개	아훈개
21253-2	아흔-되	아훈되
21253-3	아흔-말	아훈말
21254	백	배기쵸
21254-1	백-개	백개
21254-2	백-되	백:되
21254-3	백-말	백말
21255	이백	이백
21255	이백	이백개

21256	한둘	한두가락
21256	한둘	한둘
21256	한둘	하나두리라구료
21256-1	한두-개	한두개
21256-2	한두-되	한두되
21256-3	한두-말	한두말
21257	두셋	둘썸
21257	두셋	두썸
21257-1	두세-개	두서너개
21257-2	두세-되	두서너되
21257-3	두세-말	두서너말
21258	두서넛	두서넛
21258	두서넛	두서너시라구려
21258-1	두서너-개	
21258-2	두서너-되	
21258-3	두서너-말	
21259	서넛	서너대시
21259-1	서너-개	서너개
21259-2	서너-되	서너되
21259-3	서너-말	서너말
21260	네댓	너대시
21260-1	네댓-개	너던개 가져오니라
21260-2	네댓-되	너던뵈
21260-3	네댓-말	너던말
21261	대여섯	대여섯
21261-1	대여섯-개	대여섯개
21261-2	대여섯-되	대여섯뵈
21261-3	대여섯-말	대:연말
21262	예닐곱	야닐곱
21262-1	예닐곱-개	야닐곱개
21262-2	예닐곱-되	야닐곱뵈
21262-3	예닐곱-말	야닐곱말
21263	일여덟	*
21263-1	일여덟-개	칠팔개
21263-2	일여덟-되	칠팔뵈
21263-3	일여덟-말	칠팔말
21264	여덟아홉	*
21264-1	여덟아홉-개	여더라웁개
21264-2	여덟아홉-되	여더라웁뵈
21264-3	여덟아홉-말	야달말 아웁말
21265	여남은	*



21265-1 여남은-개  
 21265-1 여남은-개  
 21265-2 여남은-되  
 21265-3 여남은-말

여나무개가  
 여나므개  
 여나무되  
 여남말

## 2.4. 의복

###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21301 치마  
 21301 치마  
 21301 치마  
 21302 길이  
 21303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21305 두령이  
 21306 무늬  
 21307 고쟁이  
 21307 고쟁이  
 21307 고쟁이  
 21307 고쟁이  
 21308 바지  
 21308 바지  
 21309 두루마기  
 21310 의복  
 21310 의복  
 (하나씩 지칭)  
 21311 구겨지다  
 21312 옷고름  
 21312 옷고름  
 21313 단추  
 21314 동정  
 21315 겹  
 21315 겹  
 21315-0-1 -에  
 21315-0-1 -에

치매  
 가:닥치마(한복)  
 가닥치매  
 통치매고  
 지레기  
 저구리  
 색똥저구리  
 깐치동저구리  
 \*  
 무니라고쥬  
 속끈(+ 신)  
 가래중우  
 고쟁이(+ 구)  
 단속끈  
 바지  
 가래바지  
 두루매기  
 이복(전체지칭)  
 그르케 허는 거시 오:시고  
 꾸구러져  
 오꼬름  
 오:꼬름  
 단초  
 동전  
 거테  
 껌:딱  
 껌따그가  
 거테

21315-0-2	-을	온 껌따글
21316	홀웃	흔곶
21317	곶웃	죤곶
21318	잠방이	반바지
21318	잠방이	잠뱅이
21319	누더기	지운:오시라구료
21319	누더기	두테기
21319	누더기	두테기 온
21320	거지	동낭아치라고
21320	거지	동낭치
21321	구곶	구거른
21321	구곶	동낭 어드로 왁따고
21321	구곶	동:낭
21322	조끼	죤:끼
21323	내의	속:쩌구리
21323	내의	속:빠지
21324	껴입다	쩌:이버
21325	소매	소매
21325	소매	소매끄시고
21325	소매	소매곶
21326	주머니	주머니
21327	호주머니	괴비
21328	허리띠	각띠(가죽으로 만든 것)
21328	허리띠	허른곶
21328	허리띠	허린곶
21329	댕기	댕기
21330	도포	두랭이
21330	도포	두렁치(잠바식)
21331	삿갓	삿:까시요
21331	삿갓	사:깁
21331-0-1	-에	삿:까시 지퍼서
21331-0-1	-에	사:까시 널뤄서
21332	고깁	꼬:깁
21333	사모	관:대(모자)
21333	사모	사:모관대라고
21333	사모	사:모
21334	유건	권
21335	대님	댄:님
21336	감발	발:쏘시개
21336	감발	발쏘시개
21337	짚신	집썰기

21337	짚신	짚
21337	짚신	털미신(+ 구)
21338	미투리	메투리
21338	미투리	옹날메트리
21338	미투리	삼신
21338	미투리	메:토리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결다	짚:다고 그러제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결다 시여 짜:	옹:날 메투리는 짚다고 허꺼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결다	삼는다고러지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결다	짚썰기 삼는다고
21339	나막신	나무깨
21339	나막신	나무깨라고 (+ 구)
21339	나막신	나막썸(+ 신)
21339	나막신	나무꽤
21340	설피	설피를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멩:지온
21401	명주	멩:지베
21401-1	명주실	멩:지실
21402	목화	미영
21402-1	목화다래	미영따래
21403	무명	미영베
21403-1	무명실	미영실
21404	씨아	씨아시
21405	자새	자:새
21405	자새	물레라고 허여
21406	물레	물:레
21407	베	베를
21408	길쌈	질쌈
21409	꿀무	꿀미
21410	반질고리	반질꼬룩
21411	가위	가이(+ 신)
21411	가위	가새
21411	가위	가위라고도헌디(+ 신)
21411	가위	가새(+ 구)
21411	가위	가이

21411-0-1	-을	가새를 가져오니라
21411-0-2	-에	가새에
21412	마르다(裁)	썬다구료
21412-0-1	-고	가새로 썬다고
21412-0-2	-어라	끄너라
21413	형겹	형겹때기
21413	형겹	형겹쫓가리
21413-0-1	-을	형겹때기를
21413-0-1	-을	형:거블
21413-0-2	-에	형:거베 무던따
21413-0-2	-에	형겹때기가
21414	바늘	바닐
21414	바늘	바너리쫓
21415	웨다	웨어서
21415-0-1	-고	웨간꼬
21415-0-2	-어라	웨어라
21416	바느질	바느질숨씨가 조타
21417	재봉틀	자방침
21418	끈	끈
21419	노끈	논나끄니라구
21419	노끈	논나끈
21420	참바	동애줄
21420	참바	바:쭈른 인자
21420	참바	받줄
21421	매듭	모디 매즌다고
21421	매듭	모디가 절따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매:친따고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매즌다고
21422	보자기	보재기
21423	이불	이불
21424	솜	소캐
21425	포근하다	따습따고 그러쫓
21426	흙이불	흔:니불
21427	겹이불	점:니불
21427-1	솜이불	솜:니불
21428	누비이불	뉘비이불
21428	누비이불	뉘:비이불
21429	베개	비개
21430	베갯잇	비갯니
21430-0-1	-에	비갯니가
21431	목침	목침

21432	퇴침	퇴침
21432	퇴침	퇴침
21433	방석	방석(+ 신)
21433	방석	자부동(+ 구)
21434	담요	담:뇨
21435	빨래하다	빨래허러 간다구려 빨래
21436	빨랫방망이	빨랫방망이
21436	빨랫방망이	방망이당개
21437	빨래터	빨랫터
21438	빨랫줄	빨랫줄
21439	다리미	다리미
21439-1	다림질	다리미질 험다고
21440	인두	윤두
21441	다듬잇방망이	따듬뽕망이
21442	다듬잇돌	따듬뚝
21443	다듬이질	따듬질

## 2.5. 민속

###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설나라라구료
21502	설	정초(어른)
21502	설	설:(아이들)
21503	선달 그믐날	선따리라거고
21503	선달 그믐날	그믐나리고
21504	묵은세배	*
21505	올해	올해
21505-0-1	-는	오래는 인자
21505-0-1	-는	올해넌
21505-1	작년	장:녀네
21505-2	재작년	개:장년
21505-3	내년	내년
21505-4	후년	후:년
21505-5	내후년	내후녀네
21506	작은설	작은설(정월보름을 지칭)
21507	윷	윷:노라
21507	윷	윷:짜글 던지쥬

21507-0-1	-을	유:설
21507-0-1	-을	유슬 던지라
21507-0-1	-을	유:짜게 마잔따 그래야제
21507-0-2	-에	유:짜게 얼고리 마잔따고그
러쵸		
21507-1	웃놀이	윤:놀로 가자
21508	웃가락	윤
21508	웃가락	윤짜
21508-1	도	되
21508-2	개	개:
21508-2	개	개
21508-3	걸	수:
21508-3	걸	걸
21508-4	웃	윤(+ 신)
21508-4	웃	순(+ 구)
21508-5	모	모
21508-5	모	모: 나왈따 히고
21508-5	모	모:
21509	단동	단동은 항개보고 단뎡이여
21509-1	외동무니	한동
21509-2	두동무니	두동
21509-3	석동무니	석똥
21509-4	넉동무니	넉똥
21509-5	막동	막똥
21509-6	단동무니	*
21510	보름	보름
21510	보름	보름
21510-1	삭망	상망이라는 마를
21511	추석	추석
21512	망월	망위리
21513	쥐불놀이	쥐불노리
21514	자치기	자치기
21514-1	작은막대	짜근자
21514-2	긴막대	큰자치기
21515	수수께끼	수수꺼끼
21516	호미씻이	술:매기
21516	호미씻이	술매기
21517	뽕과리	깡:매기
21517	뽕과리	뽕매기
21518	장구	장:구
21519	결두리	새참(+ 다)

21519	결두리	쏟꺼리(+ 소)
21520	무당	무:당
21520	무당	보살
21520	무당	점쟁이라고도 허고
21520-1	박수	범싸는 인제
21520-1	박수	범:싸
21521	고수레	꼬시레
21521-1	고수레!	꼬시레 허구 던지구
21522	점쟁이	점쟁이라구두 허고
21523	상여(喪輿)	생이
21524	굴건	권: 맨들지
21524	굴건	권
21525	제사	지사도 지사지만
21525	제사	기앙 모신다고
21525	제사	지앙모신다
21525	제사	지앵(점잖은 말)
21525	제사	지사를 지나(무례한 말)
21525	제사	기앙
21526	제기	옥끼
21527	귀신	귀신
21527	귀신	귀:신
21528	도깨비	돋깨비가

##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소꼬삐
21601	고삐	꼬:삐
21602	굴레	*
21603	명에	명에(쟁기질 할 때)
21604	길마	질마
21605	부리망	망:
21606	구유	구수
21607	작두	작뚜
21608	꼴	깔
21609	여물	여물
21609	여물	여무리고
21610	쇠죽	쇠:주기라거고
21610	쇠죽	쇠:죽
21611	쇠죽바가지	개막빡적

21612	수레	구루마
21613	끌다	끄:리고 간다
21613	끌다	끌코간다
21613-0-1	-고	
21614	바퀴	네 발통
21614	바퀴	두 발통
21615	새끼(繩)	산내키
21615-1	새끼(짐승의)	새:끼라고 그르쥌
21616	망태기	망:태
21617	떡등구미	멕:싸리
21617	떡등구미	꼴모꾸리
21617	떡등구미	꼴목따리
21618	거적	덕썩
21619	가마니	가마니
21619-1	가마니틀	가마니틀로
21620	돛자리	갈때자리라고
21620	돛자리	자리(왕골)
21621	자리틀	자리틀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결다	자리를 짱개
21622	왕골	왕:골
21623	삼태기	산태
21623	삼태기	꺼렁탱이(짚으로 만듦)
21623	삼태기	산태꺼랭이
21623	삼태기	꺼:랭이라고 마니 쓰제
21623	삼태기	산:태미(나무로 만듦)
21623-1	짚 삼태기	집꺼랭이
21623-2	싸리 삼태기	싸:리꺼랭이
21623-2	싸리 삼태기	싸리꺼랭이
21624	명석	덕:썰기고
21625	어레미	얼:기미고(구멍이 넓은 것)
21625-1	고운채	빈:채
21625-1	고운채	빈:채가 인썰요
21625-2	굵은채	얼:기미채
21625-2	굵은채	영:근채(중간)
21626	대장장이	성:녕쟁이
21626	대장장이	대정간
21626	대장장이	성:녕쟁이
21627	대장간	성:녕간
21627	대장간	대:정까니라고도허고
21628	풀무	불무를 부치야
21629	모루	쇠:지둥



21629	모루	물:뚝
21630	모루채	망:치
21630	모루채	쇠:망치
21631	갈퀴	갈:키
21631	갈퀴	갈:퀴
21632	집게	찍:깨
21633	장도리	장도리
21633-1	노루발	노리발
21634	툽	거두라고도 허고(큰 툽을 이 르는 말)
21634	툽	툽
21634-0-1	-에	토브리 써러서
21634-0-1	-에	토비
21635	도끼	도치고
21636	자루(柄)	도친짜루
21636	자루(柄)	자루
21636-0-1	-을	자루럴 잡고
21636-0-2	-에	도친짜루가
21636-0-2	-에	도끼 자루에
21637	갈고리	깎코리
21638	썰기	썰악
21639	송곳	송:고슨
21639	송곳	송:곧
21639-0-1	-에	송:고시 찢릴따
21640	뽕죽하다	뽕:쫓허쵸
21641	숫돌	수:뚜
21641	숫돌	수:뚝
21641-0-1	-에	수뚜그다 간다
21642	맷돌	멘:똥판
21642	맷돌	멘:똥
21642-1	수쇠	멘똥뽕
21642-1	수쇠	슌:눔
21642-1	수쇠	슌:눔
21642-2	암쇠	암:노믄
21642-2	암쇠	암:눔
21643	지게	지:게
21644	발채	바:채기고
21645	지게 작대기	작때기
21646	막대기	나뭇때기
21646	막대기	나무때기
21647	몽둥이	몽똥이

###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빈짜리고
21701	빗자루	빈:짜리
21701	빗자루	빈짜리
21702	광주리	깡아리
21702	광주리	자근깡아리
21703	소쿠리	소:코리
21704	함지	함박
21705	폴비	폴빼
21705-1	귀얄	폴빼라고 그러요
21706	독	도가지
21706	독	수퉁이
21706	독	도가지가 수퉁이여
21706	독	도가지
21706-0-1	-에	도가지다가
21706-0-1	-에	도가지다
21707	물독	*
21708	항아리	항아리
21709	단지	단지
21710	물동이	동우
21711	빠리	또가리
21712	옹기	옹구그럭
21713	표주박	바가치
21713	표주박	바가지
21713	표주박	두룽박
21714	키(箕)	챙이
21714	키(箕)	챙이로 까분다
21715	떡살	떡쌀
21716	다식판	떡파나라도 허고
21716	다식판	떡싸레
21716	다식판	떡사레
21717	시루	시루
21717	시루	시:루
21717-0-1	-을	시루 간꼬 와라
21717-0-1	-을	시루털
21717-0-2	-에	시루다가
21717-0-2	-에	시루에 찢다
21718	시룻밑	시루밑
21718	시룻밑	시루미창

21718-0-1	-에	시루미세가
21719	시룻번	시룬뻔
21720	부싯돌	부치
21720	부싯돌	부순뜰
21720-0-1	-을	부순또를 가져오니라
21721	부시	부수돌
21722	부싯깃	부수진
21723	담배	담배
21724	담뱃대	담뻐때
21725	담배설대	담배때
21726	담배통	담배꼭지고
21727	물부리	담배 빨대
21728	담배쌈지	쌈:지
21729	부채	부채
21730	토시	토시
21731	벼루	베루
21732	가락지	까락지
21733	비녀	비네
21734	참빗	참빈
21734-0-1	-을	참비시로
21734-0-2	-에	참비세가
21735	얼레빗	얼기빈
21735	얼레빗	어리빈
21736	세숫대야	논때양
21737	비누	비누
21737	비누	세순빠누
21738	도투마리	도투마리
21739	활대	용두마리
21739	활대	용두머리
21740	잉앗대	잉애
21741	부티	부테
21742	도롱이	도랭이

## 2.6. 인체

###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마쥬
-------	----	-----

21802	이마빼기	이마뺏
21802	이마빼기	머린 빼비라거고
21803	눈자위	눈자시라고도 허고
21804	검은자위	눈창
21804	검은자위	꺼멍창
21805	흰자위	흰창
21805	흰자위	흰:창
21806	눈꺼풀	눈뒤경
21806	눈꺼풀	눈탱이라거고
21807	거적눈	까라진눈
21808	눈썹	눈썹
21808	눈썹	눈:썹
21808-0-1	-이	눈썹비 빠져서
21809	속눈썹	송:눈썹
21809-0-1	-이	송:눈썹비 질다고
21810	눈두덩	눈뚜쟁이 뽕썩허다형가
21810	눈두덩	눈뚜쟁이
21811	안경	앙경
21812	안경집	앙경집
21813	돋보기	독뽕기
21814	주름살	주름
21814-0-1	-이	주루미 뽕깨가 된다
21814-0-1	-이	주름싸리
21815	엣되다	애띠네
21815	엣되다	애띠다고
21816	수염	쉬:염
21817	구레나룻	굴레쉬염
21817-0-1	-을	굴레쉬어물 왜 까까 부런써
21818	코	코:
21818-0-1	-이	코가 크다그러
21818-0-1	-이	시루 미빠다그 무덜따
21819	콧수염	쉬염
21819	콧수염	짜가생이 쉬염
21820	코딱지	코딱찌
21821	콧구멍	콘꾸먹
21821-0-1	-을	콘꾸너글
21821-0-2	-에	콘꾸너그서
21822	콧물	콘물
21823	입술	입썰
21823-0-1	-에	입소레 밥티 무던네
21824	다물다	오무린따고 허지요

21825	어금니	아:금니
21826	덧니	쫑니
21827	휘파람	훤빠람
21828	침	츄 뱀는거
21829	삼키다	생킨다고
21829	삼키다	넙:기다가(목에 걸리면)
21830	가래(痰)	개:래츄(+ 구)
21830	가래(痰)	가래(+ 신)
21831	빨다	배튼다 그러
21832	혀	썸:빠닥
21833	헛바늘	썸:뽕 이러
21834	긋불	귀문
21834	긋불	귀밥
21834	긋불	권뽕
21834	긋불	권뽕
21834	긋불	귀맹이
21835	귀고리	귀거리 찢러따고 허는디
21835	귀고리	귀고리
21835-1	귀걸이	귀망
21835-1	귀걸이	귀망 켜네
21836	귀지	권뽕
21837	귀이개	귀호지개
21838	소리	소리가
21838	소리	목소리야
21839	엿듣다	엿듣는다고 그러요
21840	귀청	귀창
21841	귀밑	귀밑
21841-0-1	-을	귀미테 꾹 입따
21842	관자놀이	*
21843	기미	지모
21844	주근깨	주경깨
21845	턱	턱
21846	턱수염	턱쉬염
21847	뺨	뺨
21847	뺨	뺨미라고 허고
21847-1	볼	볼테기
21848	가름하다	삼다니 감따고
21848	가름하다	잘:쫑거다고
21849	보조개	보지개
21850	머리카락	머리크락
21851	비듬	비느리

21852	기계총	부슬목
21852	기계총	기꺽뚝 올라서
21853	정수리	점배기
21853	정수리	정배기고
21854	대머리	버서배기
21855	고수머리	꼬:시래기
21856	가르마	가르매 탄따고 허고
21856	가르마	가르매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곧게 타절따
21857	가마	가마
21857	가마	가매
21857-1	가마(鼎)	개마숯
21857-2	가마(轎)	가매
21857-2	가마(轎)	가:매
21857-3	가마(질그릇)	가마라고 혈꺼여 가마
21857-4	가마(가마니)	가마니
21858	뒤통수	뒤꼭지
21859	뒷덜미	되수기
21859	뒷덜미	되쉬기
21860	목	목
21861	먹살	모글 꺾 잠는다고 그러자나
요		
21861	먹살	멕쌀

## 2.6.2. 상체

21901	어깨	얼깨
21902	밀치다	미러버린다고
21902	밀치다	친다고 그러
21903	겨드랑	저트랑
21904	등	등
21905	가슴	가심
21906	결리다	담절린다
21907	갈비뼈	갈:빔뼈
21908	허파	허파에 바람들런따
21908	허파	부애가 나서
21909	쓸개	썰:개
21910	콩팔	지레
21910	콩팔	콩판

21910-0-1	-에	콩파세
21910-0-2	-을	콩파슬
21911	팔	팔뚝
21912	팔꿈치	폴꿈생이
21913	팔짱끼다	폴짱찌구 땡이네
21913	팔짱끼다	폴짱
21914	손툽	손툽
21915	오른손	오른손
21916	왼손	외악손
21917	다르다	달리 다라야 험다고
21917	다르다	다르게 이피야
21917-0-1	-아서	달라서
21917-1	틀리다	틀린다고대요
21918	왼손잡이	외악찌비
21919	엄지손가락	엄지손꾸락
21920	집게손가락	손꾸래기라군디
21921	가운뎃손가락	간:데손꾸락
21922	약손가락	손꾸래기라고망형개
21923	새끼손가락	깨끼손꾸락
21923	새끼손가락	새끼손까락
21924	생인손	손꾸래기 애린다고
21924	생인손	손애린다
21925	사마귀	사마구
21926	손아귀	소나구지
21927	손목	손목(+ 신)
21927	손목	손 흘목(+ 다, + 구)
21927	손목	흘메기(+ 다, + 구)
21928	뺨	뺨
21928	뺨	뺨엄
21929	허리	허리
21930	지팡이	지팡이라고도 허고
21930	지팡이	주렁(+ 다)
21930	지팡이	지팡막때기
21930	지팡이	주렁막때기
21931	옆구리	엽꾸리
21932	간지럽다	간지랍따
21933	간지럼	간지랍뺨 메긴다고
21934	잔허리	개미허리
21935	근육	그:늑
21936	배꼽	배꼽
21937	목물	등막

### 2.6.3. 하체

22001	복사뼈	복송씨
22002	발가락	발꾸락
22003	발바닥	발빠닥
22004	발톱	발툽
22005	냄새	남새
22006	고린내	꼬랑내
22007	굳은살	공이가 배킨따
22007	굳은살	굉이
22008	정강이	장갱이 빼라거대요
22009	종아리	장갱이 될따리
22009	종아리	종아리
22009	종아리	종아리 거더라
22009	종아리	될따리
22010	장딴지	장:딴지
22010	장딴지	허벅따리
22011	회초리	훤차리로
22012	무릎	물팍
22012	무릎	무릅
22012-0-1	-을	물파글
22012-0-1	-을	무르블 다천따
22012-0-2	-에	물꽤기
22012-0-2	-에	무르베
22013	오금	오금쟁이
22014	엉덩이	넙턱치
22014	엉덩이	넙턱찌
22015	궁둥이	방똥이
22016	볼기	볼기가
22017	명	명
22018	명울	앙아리
22019	가랑이	가르쟁이
22020	사이	인 새이가 쨍긴거
22021	살	사탕이
22021-0-1	-이	사:씨 부선따
22021-0-2	-을	사:슬
22022	사타구니	사탕이(낮춤말)
22022	사타구니	사시라고 허는디(높임말)
22023	가래뿔	가라투
22023	가래뿔	가라투가 스먼



22023-0-1	-을	가라투 만친다
22023-0-1	-을	가라투를 만저봐따
22024	허벅다리	허벅따리
22024	허벅다리	허벅따리라군디
22024	허벅다리	허벅다리가
22025	넓적다리	넙쩍지(엉덩이 밑부분)
22026	가부좌(跏趺坐)	양발개고 안저따
22026	가부좌(跏趺坐)	양발갠다거고
22026	가부좌(跏趺坐)	개고 안저따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	

##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강기 드러따고지
22101	감기	해수뻥
22101	감기	감:기
22102	기침	지침
22103	재채기	재치기
22104	사레	사레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사레 들린따
22105	딸꾹질	태깅질
22106	트림	트름
22107	곰보	곰보라군디
22108	천연두	이드름
22108	천연두	호:녁
22109	여드름	*
22110	학질	초학
22110	학질	엠병이라고 그런디
22110-1	하루거리	초학
22110-1	하루거리	초하근
22110-2	이틀거리	두지기 세지기
22110-3	매일 앓는 학질	한:기
22111	홍역	호녁
22112	볼거리	볼부시
22113	땀띠	땀때기
22114	두드러기	두드레기
22114	두드러기	두드럭 나쵸
22115	버짐	버짐
22115	버짐	버듬

22115-1	마른버짐	마른버드미
22115-2	진버짐	버드미고
22115-3	도장 버짐	도장버듬
22116	문둥이	문탱이
22116-1	문둥병	창뺑
22116-1	문둥병	문탱이뺑 드리따고
22117	부스럼	부슬메기 나
22117-1	종기	종치가
22117-1	종기	종치여
22118	고름	고름
22119	곰기다	앙아리 배긴따고 그러제
22120	난쟁이	땀뽀(난쟁이보다는 크고 성
인보다는 작은)		
22120	난쟁이	난쟁이(아주 작은)
22121	사팔뜨기	할개눈 오네
22121	사팔뜨기	할개눈
22122	언청이	썰보
22123	소경	봉사
22123-1	달달봉사	달달봉사
22124	애꾸	애꼬
22125	눈곱	눈썹썰기
22126	다래끼	다래끼
22126-1	다래끼(눈 위쪽)	미영 다래끼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다래끼라혀요
22127	절름발이	절름바리(낮춤말)
22127	절름발이	개구다리(높임말)
22127	절름발이	나무다리(기분 나쁜 말)
22128	곱사등이	썸썰
22129	귀머거리	귀머거리
22130	말더듬이	반병어리
22130	말더듬이	말을 더듬는다고
22130	말더듬이	반:병어리
22130	말더듬이	말더드미라 그러지
22130	말더듬이	반버버리
22131	병어리	버버리랑계
22132	잠꾸러기	잠충이
22133	줄리다	자올라
22133	줄리다	자올른다거고
22134	하품	하품
22135	줄음	자미 쏘다징개
22135	줄음	자오름도 되고

22135-0-1	-을	자물
22135-0-2	-에	자미
22135-0-2	-에	재:미 와서
22136	잠꼬대	잠튀정
22136	잠꼬대	잠투정

## 2.7. 육아

22201	입덧	입똥
22201	입덧	입떠시 심허다고
22201-0-1	-을	입떠슬 시머게
22202	갓난아이	깐:난애기
22203	어린아이	애기라고 그냥
22204	경기(驚氣)하다	정풍난따고
22204	경기(驚氣)하다	정풍 난네
22205	눅히다	뉘핀따 그러
22206	계집아이	크내기(10살 이상)
22206	계집아이	저누무 가시내(+ 비)
22206	계집아이	지지바(높임)
22207	예쁘다	예쁘네
22208	사내아이	머시매라고거고
22209	아우 타다	제글 탄다고
22209-1	아우보다	아:시본다
22209-1	아우보다	동생본다 그러제
22210	야위다	야:와절따고
22210	야위다	갈타
22210	야위다	갈타버리네
22210	야위다	말라버려
22211	쌍둥이	쌍둥이
22212	오줌	오줌
22213	똥	똥을
22214	기저귀	지지구
22215	뉘다(排便)	쌔우쵸
22215	뉘다(排便)	쉬아 시긴다
22215	뉘다(排便)	오주믈 싹따
22216	방귀	똥뀐다
22216	방귀	방구 편다
22216-1	뀌다	똥 편다

22217	구린내	구른내 난다 그러
22218	구리다	구른내 나네
22219	포대기	포대기
22220	기지개	지지기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지지기 쓴다
22221	거짓말	거진말
22222	남부끄럽다	남뵈기 쟁피시러서
22222	남부끄럽다	보기 쟁피허다 그러
22223	겹쟁이	겹쟁이
22224	불쌍하다	불쌍흐다고
22225	죄암죄암	조암조암
22226	곤지곤지	지꼇지꼇
22227	따로따로	고네고네
22228	도리도리	도리도리
22229	짹짹	박수채 박수채 그러는디
22229	짹짹	짹짹
22230	부라부라	불무야 불무야
22231	결음마	거름마
22232	아장아장	안개안개
22233	넘어지다	자빠진다
22233	넘어지다	자빠져
22234	곤두박질	곤두박질찌리
22234	곤두박질	꺼꾸로 떨어질따고
22234	곤두박질	꺼꾸로 자빠질따고
22234	곤두박질	꺼꾸로 배키부런따
22235	안기다	아나준다
22235	안기다	보듬는다고
22235	안기다	안:결따
22236	바람개비	팔랑개비
22237	호드기	회때기
22238	숨바꼭질	봉사잡끼
22239	소꿉놀이	빠꿈사리
22240	사금파리	새금파리쪼각
22241	연	연:
22241-1	방패연	방:패연
22241-2	가오리연	가오리연
22241-2	가오리연	홍회연
22242	걸리다	걸릴따고지요
22243	고누	꼬:누
22244	땅뺨기	땅뺨끼
22244	땅뺨기	뺨재먹기

22245	팽이	뽕이
22246	딱지치기	패치기
22247	구슬	구실
22248	그네	군지
22248	그네	그네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그네 뛴다고 힌찌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군지 탄 거
22249	밀신개	발파니라구릴써
22249	밀신개	깁:판
22250	굴렁쇠	굴:렁쇠
22251	굴리다	굴름서 노라
22251	굴리다	궁근다
22251-0-1	-고	궁글고 논다
22251-0-2	-어야	굴러야 된다
22252	자전거	자친기
22253	목말	몽:말
22254	말타기	말타기
22255	달음박질	담박질
22255	달음박질	담박질허고
22256	썰매	썰:매가 만꼬
22256	썰매	씨케토 타
22256	썰매	발씨케토
22256	썰매	쓰:께또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강 타러 간다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어르믈 탄다
22256-2	송곳	송:고시라고도 허요
22257	엄살	엄살헌다고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엄:살 힌다고
22258	부아	부애 날따고

## 2.8. 친족

22301	아버지	아분님
22301	아버지	아부지
22301-1	아버지(호칭)	아부지라거고
22301-1	아버지(호칭)	아분니미라고
22302	어머니	어머니 그러쥬
22302-1	어머니(호칭)	엄마 그릴써

22303	할아버지	하라부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라부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나씨라군디
22304	할머니	할무니
22304	할머니	할매라고쥬
22304-1	할머니(호칭)	할무니라고
22305	남편	우리 실랑니미라고
22305	남편	서뱅이라구혀
22305	남편	실랑을
22305-1	남편(호칭)	여보
22306	아내	집싸람
22306	아내	집싸라미라구는혀
22306-1	아내(호칭)	당신이라고 허등가
22306-1	아내(호칭)	성수
22306-1	아내(호칭)	당시니라고도 허고
22307	형	성:
22307-1	형(호칭)	성님 그러
22308	아우	동상
22308-1	아우(호칭)	동상
22308-1	아우(호칭)	동상 동상
22309	누나	누님
22309-1	누나(호칭)	누님
22310	누이	영자 동상
22310-1	누이(호칭)	동생이라고 그러
22310-1	누이(호칭)	우리 동상이라고 그러
22311	자식	자식뜨라고더라고
22311	자식	자녀라 그래요 자니
22311	자식	자식뜨린디
22312	만아들	큰자진니
22312	만아들	크나들
22312	만아들	큰자진니
22313	만딸	큰딸
22313	만딸	만따리고도허고
22314	막내	막똥이
22315	오빠	오라버니라고
22315	오빠	오빠
22315-1	오빠(호칭)	오빠여
22316	언니	언니라느 마른 (+ 소)
22316	언니	성(+ 다)
22316	언니	생이라 그러
22316-1	언니(호칭)	성

22317	아버	애비한티
22317-1	아버(호칭)	애비아
22317-1	아버(호칭)	애비보고
22318	어미	에미라구제
22318	어미	에미야
22318-1	어미(호칭)	에미야
22319	손자	손지고
22319	손자	손지다 그러
22320	손녀	손지따리라구려
22321	사위	사우다고
22321-1	사위(호칭)	사우 그러
22322	외손자	외:손지
22323	외손녀	외손지딸
22324	꾸짖다	조진다구히써
22324	꾸짖다	잡띠쥬
22324-0-1	-고	조지먼
22324-1	나무라다	나무랜다는 마른 강
22324-1	나무라다	나무램서
22325	총각	총각
22326	처녀	처녀라
22326	처녀	처녀가
22327	혼인	호니는
22327	혼인	게로늘
22327-1	혼인식	예를 지내고
22327-1	혼인식	예 지낸다 그럴째
22328	혼인 잔치	잔치
22328	혼인 잔치	대사친디 잔치 험다고
22329	장가가다	장개간다네
22329-1	시집가다	시집칸다네
22330	혼숫감	혼수깨미라고
22330	혼숫감	혼수까든
22331	함	하든
22331	함	하미고
22332	겹사돈	겹싸둔
22333	새색시	메누리
22333	새색시	각씨
22333	새색시	새덕 쏘릴 마니 씨
22333-1	새색시(호칭)	새덕
22334	시아버지	시:아바니
22334	시아버지	우리 시아부지
22334-1	시아버지(호칭)	아분님 그르케 부르고

22335	시어머니	시어머니
22335	시어머니	시어머니제
22335-1	시어머니(호칭)	어머니
22336	비위	비우릴 잘 만취야 한다고 그
려		
22337	아주머니	시숙
22337-1	아주머니(호칭)	시수기여 그러
22337-1	아주머니(호칭)	시숙 그리고 부르고
22338	서방님	시아재라 그러고
22338-1	서방님(호칭)	시아재 그러고
22339	도련님	시아재라 그러
22339	도련님	테련님
22339-1	도련님(호칭)	삼추니라 그러고
22340	형님	큰동서
22340	형님	둘쨌 동세
22340	형님	동서
22340-1	형님(호칭)	둘쨌 동서
22341	시누이	시누
22341-1	시누이(호칭)	고무
22341-2	아가씨	시누라고 현디
22341-3	아가씨(호칭)	고무라고 현당개
22342	올케	올케는 인자
22342	올케	동상으대기라거고
22342-1	올케(호칭)	동상으대기고
22342-1	올케(호칭)	동상으더근
22343	매형	매양
22343-1	매형(호칭)	매양
22344	매제	매제고
22344-1	매제(호칭)	매제라고
22345	큰아버지	크나부지라 그러
22345	큰아버지	크나부
22345-1	큰아버지(호칭)	크나빠
22345-1	큰아버지(호칭)	큰크나부지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자근아빠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자근크나부지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자근아부지라고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막똥이자근아부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막똥이자근아빠
22346	큰어머니	크너머니라 그러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너매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너머니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자근크너매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자그매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막똥이자그매
22347	큰집	큰지비라고도 현디
22348	작은아버지	자근아빠라고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자근아빠
22349	작은어머니	자그머니
22349	작은어머니	자그머니여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22350	삼촌	삼촌
22350-1	삼촌(호칭)	삼촌
22351	아저씨	당숙
22351-1	아저씨(호칭)	당숙
22352	아주머니	당승모
22352-1	아주머니(호칭)	당승모
22353	조카	조카
22354	조카딸	조카딸
22355	고모	고무제
22355-1	고모(호칭)	고무
22356	고모부	고마부
22356-1	고모부(호칭)	고마빠
22356-1	고모부(호칭)	고마부
22357	고종	고종
22357	고종	고종간
22358	이모	이모
22358-1	이모(호칭)	큰니모
22358-1	이모(호칭)	자근니모
22359	이모부	이마부
22359-1	이모부(호칭)	이마빠 그려
22360	이종	이종동생
22360	이종	이종간
22361	외삼촌	외삼촌
22361-1	외삼촌(호칭)	삼촌
22362	외숙모	외승모라정개
22362	외숙모	외승모
22362-1	외숙모(호칭)	외승모
22363	외종	외가쩍 성
22363	외종	외가쩍 눈님
22363	외종	외가쩍 성님 외가쩍 동상
22364	외할아버지	외하라버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외하라버지

22365	외할머니	외할머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외할매
22366	장인	쟁인
22366-1	장인(호칭)	아분님 그리고
22366-1	장인(호칭)	아부지
22367	장모	장모
22367-1	장모(호칭)	어머니라
22368	처남	처남
22368-1	처남(호칭)	처남
22369	처남택	처나무택
22369-1	처남택(호칭)	아주머니
22370	홀아버	호래비라구지
22371	홀어미	호레미
22371	홀어미	호로마니
22372	계모	새엄마
22372-1	계부	새아부지라그러제
22373	아저씨	아자씨
22373-1	아저씨(호칭)	아자씨 아자씨
22373-1	아저씨(호칭)	아자씨
22374	아주머니	아주머니
22374-1	아주머니(호칭)	아짐마
22375	사나이	사내
22375	사나이	사나
22375	사나이	장정
22376	영감	영개밍개
22376	영감	영감
22376	영감	영감님
22376-1	할망구	할망구구만
22376-1	할망구	할망구 할망구
22377	나이	나이가 멩네
22377-0-1	-를	
22378	환갑	항갑 도라와따고
22378-1	환갑 잔치	항갑짬치라고
22379	사투리	사토리
22379	사투리	사투리 썬다구려

## 2.9. 동물

###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물꼬기
22401	물고기	물피기도
22402	민물고기	민물꼬긴디
22402	민물고기	민물피긴데
22403	피라미	피리
22404	지느러미	쭈:때기
22404	지느러미	쭈때기
22405	아가미	아그
22406	창자	창시
22406	창자	내장
22407	송사리	송사리라구
22407	송사리	송사리
22408	헤엄	시엄친다고
22409	메기	미에기
22409	메기	미에기고
22410	자라	불무테기
22410	자라	자래
22410	자라	자라
22411	거북	거부기
22412	미꾸라지	미꼬랭이
22413	개구리	깨구래기
22414	올챙이	올챙이
22415	두꺼비	두께비
22416	거머리	거마리
22417	다슬기	대수리
22418	우렁이	우렁
22419	고둥	고둥이라는 마른 안씨요
22420	달팽이	달팽이
22421	새우	새우
22421-1	새우(민물 대)	징계미
22421-2	새우(민물 소)	새비
22421-3	새우(바다 대)	대화
22421-3	새우(바다 대)	왕새우
22421-4	새우(바다 소)	새우
22422	새우젓	새비젓

22422-0-1	-이	새비저시라고
22423	가재	까재
22424	갈치	갈치라고허대요
22425	고등어	고등어
22425	고등어	고등어
22426	가오리	가오리
22427	가자미	납조리
22428	멸치	멜치
22429	명태	명태
22429	명태	맹태
22429-1	동태	동태
22429-2	황태	*
22429-3	노가리	*
22429-4	북어	부거
22429-4	북어	부거여
22429-4	북어	마른명태
22429-5	생태	생태
22430	조기	조구
22431	도미	도미
22431	도미	도미는
22432	뱀장어	비암장애
22433	낙시	내끼질
22434	미끼	내끼
22435	낙싯대	내깁때라구려(+ 구)
22435	낙싯대	낙싯때(+ 신)
22436	얼레	자새
22436	얼레	연짜새
22437	조개	조개
22438	소라	소라

##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버럭찌
22502	날벌레	날깁찜승
22503	파리	포리
22503-1	쉬파리	쉬포리
22504	쉬슬다	쉬깁린다고
22505	가시	쉬:
22506	진딧물	뜸물

22506-1	(진딧물)이) 끼다/얹다/생기다	찢따고
22506-1	(진딧물)이) 끼다/얹다/생기다	뜸무리 찢얼따고
22506-1	(진딧물)이) 끼다/얹다/생기다	뜸물 찢다 그러
22507	잠자리	자마리
22508	방아깨비	땅깨비
22508-1	암컷	*
22508-2	수컷	*
22509	메뚜기	메띠기
22509	메뚜기	메떼기라고
22509	메뚜기	메떼기
22510	여치	찢개
22511	사마귀	연:치
22511	사마귀	연치
22512	벌	벌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꿀친다고
22513	땅벌	땅끼벌
22514	나비	나비
22515	하루살이	하루사리
22516	풍뎡이	강구
22517	모기	모구
22518	장구벌레	장구벌레
22518	장구벌레	장구벌레고
22519	매미	매미
22519	매미	왕치(큰 매미)
22520	개똥벌레	개:똥벌레
22520	개똥벌레	똥빨레
22520	개똥벌레	개똥벌레
22521	반딧불	병:깁뿔
22522	거미	거무
22523	굼벵이	굼벵이
22524	구더기	쉬:
22525	노래기	사니기
22526	그리마	거름자
22527	지네	지네
22528	개미	개미
22529	바구미	바그미
22530	진드기	찢드기여
22530	진드기	진등개
22531	벼룩	베룩
22532	이	이:
22532-1	서캐	서캐도 인꼬

22532-2	빈대	빈대
22533	송충이	송치
22533	송충이	송:치
22534	귀뚜라미	뀌뚜래미
22535	누에	뉘여
22536	고치	꼬치
22537	번데기	뽕데기
22538	지렁이	거시랑
22538	지렁이	지랭이
22539	회충(蛔蟲)	회충도 인꼬
22539	회충(蛔蟲)	거시랭이
22540	소금쟁이	*
22541	방개	강구

### 2.9.3. 가축

22601	가축	짐:쌩 키운다 그러
22601	가축	짐성
22601	가축	가축
22601	가축	짐생이
22602	암소	암소라 그러
22603	송아지	소:새끼
22603	송아지	송아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네에미 네에미 그러
22605	황소	황소는 황소
22605	황소	습쏘
22606	길들이다	질:드린다 그러 질:드려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이라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워: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아)	이라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아)	자라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이:리:
22607	쇠고기	소:고기 사러간다고 허고
22607	쇠고기	소:고기 사러가네
22608	고기(肉)	*
22609	둘치	자:라종이라 그러
22609	둘치	자래종
22610	꼬리	꼬랭이
22611	망아지	망아지라고 허더만

22611	망아지	망아지새끼
22612	당나귀	우말
22612	당나귀	노:새넌
22612	당나귀	당:나귀도
22613	갈기	*
22614	돼지	돼지
22614-1	멧돼지	멧돼지
22615	주둥이	주둥이럴 나발때라 그려
22615	주둥이	돼지 나발때
22616	돼지 머리	돼지 머리
22617	돼지우리	돼지 막
22617-1	오래오래	*
22618	개(犬)	개:
22618-1	수캐	수캐
22618-2	암캐	암캐
22619	강아지	수강아지 암강아지
22619	강아지	강아지
22620	염소	멤:소
22621	고양이	팽:이
22621-1	수고양이	수팽이
22621-2	암고양이	암팽이
22622	토끼	퇴끼
22623	거위(鵞)	게:우
22623	거위(鵞)	게우
22624	암탉	암:딱
22625	병아리	뺑아리
22626	모으다	되:아
22626	모으다	되라고
22627	수탉	장:딱
22627-0-1	-이	장:따기 울머는
22628	벼슬(鷄冠)	베:실
22629	부리	부레
22630	모이	모시
22630-0-1	-을	모시를 쏘네
22630-1	모이다	모야서
22631	닭털	터럭
22631	닭털	닥터럭
22632	닭똥	달구똥
22632	닭똥	닥똥 싹따구지
22633	어리	덕까리
22634	닭장	닥쟁이

22634	닭장	장태가 인씨
22635	등우리	등구리
22636	날개	날개
22637	깃	진:꼬리
22637-0-1	-을	지시 그건가 보요
22637-0-1	-을	꿍:지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호랭이
22702	살쥬이	살:가지
22703	여우	여:시
22704	원숭이	원췌이
22705	사슴	사심
22706	노루	노리
22706-0-1	-이	노리가
22706-0-2	-를	노리털 잡알따 그려
22707	고슴도치	고신돈
22708	두더지	뒤재기
22709	족제비	쪽찌비
22710	뱀	비얌
22711	도마뱀	동애비얌
22712	구렁이	먹:꾸렁이고
22712	구렁이	구렁이
22712	구렁이	황:구렁이고
22713	살모사	독썰
22713	살모사	살무사는
22713	살모사	살:무사
22714	생쥐	새:끼쥐
22714	생쥐	쥐새끼
22714	생쥐	새앙쥐
22714	생쥐	시앙쥐
22715	박쥐	방내비
22715	박쥐	방나비
22716	거꾸로	꺼꾸루
22717	다람쥐	다람쥐
22717	다람쥐	담:보
22718	새(鳥)	새
22719	꿍지	꼬랭이



22720	솔개	매:
22721	독수리	솔:갱이
22721	독수리	독쭈리가 솔갱이여
22721	독수리	독쭈리
22722	제비(燕)	제비
22722	제비(燕)	제:비
22723	두루미	황:새
22724	소쩍새	소: 짹째기
22725	꿩	꿩:
22726	장끼	쟁:끼
22726	장끼	쟁:끼는
22727	까투리	암:꿩
22727	까투리	까:토리
22727-1	꺼병이	꿩:새끼
22727-1	꺼병이	꿩:새끼라고그러제
22728	종달새	종조리새
22729	빼꾸기	숙꼭새
22729	빼꾸기	쭉꼭새
22730	기러기	갈가마구
22730	기러기	갈가마구 떼
22731	뜸부기	뜸벽새
22732	울빼미	울:빼미
22733	까치	간치
22734	딱따구리	딱따구새
22735	덧	쥐돈
22735-0-1	-을	도시여
22736	올가미	올:룽개

## 2.10. 식물

###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진달리꼐
22802	철쭉꽃	개:진달래
22803	민들레	민들레
22803	민들레	민:들레 꼬순
22804	맨드라미	*
22805	봉선화	봉사꼐

22806	파리	딸:기
22807	해바라기	해부래기
22808	꽃봉오리	꼰뽕오리
22808	꽃봉오리	봉오리
22809	시들다	시드리진다고
22810	질경이	질갱이풀
22810	질경이	빠:뿌쟁이
22810-1	질경이(식물 이름)	질갱이푸른
22810-2	질경이(식용 이름)	빠뿌쟁이
22811	빨기	빠:비
22812	비름	비름
22813	쇠비름	쇠:비름
22814	썸바귀	지충개
22815	고들빼기	꼬돌 빼기 제
22815-1	고들빼기(식물 이름)	꼬돌 빼기
22815-2	고들빼기(식용 이름)	꼬돌 빼기 짐치라 그러
22816	고사리	꼬사리
22817	고비	괴춤
22818	도깨비바늘	까시랑코
22819	도꼬마리	*
22820	억새	쌔:떼기
22821	갈대	갈:때는
22821	갈대	갈:때
22822	이끼	바우손
22823	아주까리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댕댕이넝쿨
22825	수세미	쭈:세미
22826	덩굴	넝:추리
22827	덤불	검부재기
22827	덤불	검불
22827-1	가시덤불	까시랑코
22827-1	가시덤불	까:시넝쿨
22828	잔디	떼밭
22828	잔디	떼:
22828	잔디	떼: 이편다고

## 2.10.2. 나무

22901	소나무	솔:나무
-------	-----	------

22901	소나무	소나무
22902	솔방울	솔:뽕울
22903	관솔	관솔
22903	관솔	간솔
22904	솔가리	갈퀴나무
22905	그러모으다	글거
22905	그러모으다	글거서 인자
22906	뽕나무	뽕:나무
22907	오디	오:두개
22908	도토리	도토리
22908	도토리	상소리
22909	떡갈나무	상소리나무
22910	상수리	상소리
22911	옻	온나무
22911	옻	옻돌:날따고
22911	옻	칠:
22911	옻	온나무에서
22911-0-1	-으로	치리다고
22912	버드나무	회뜨기나무
22912	버드나무	버드나무
22913	느티나무	당산나무
22913	느티나무	정지나무
22913	느티나무	등구나무
22914	그림자	거름자가
22914-1	그늘	응달진다
22914-1	그늘	응달진다고
22914-1	그늘	거름저진다
22915	숲	수비 우거절따
22915-0-1	-을	수풀 다 태월따 그러
22915-0-2	-에	수:폐
22915-0-2	-에	수폐
22916	시원하다	시언허다고
22917	찔레	찔:루나무
22917	찔레	찔루나무
22918	참	까시랑코
22918	참	칙:
22918	참	칭녕출
22918-0-1	-에	칭:녕쿠레
22919	가지(枝)	나뭇가지
22919	가지(枝)	나뭇가지가
22920	끝	끝판

22920-0-1	-이	끄시제
22920-0-1	-이	끄시여
22920-0-2	-을	나무 끄슬
22920-0-3	-에	끄세
22921	삭정이	고목
22921	삭정이	삭:딸가지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삭딸가지 따러간다 그러
22922	나무	나무 올라가지 마라
22922-0-1	-을	나무를
22922-0-2	-에	나무에 올라가지 마라
22923	나무하다	나무허게
22924	그루터기	나무 뿌랭이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뿌랭이
22925	등걸	등거지
22926	장작	장작
22927	꽤다	도치를 꽤다고
22928	부스러기	엽:쪽
22929	숯	숯
22929-0-1	-이	수시
22929-0-2	-을	숯뽕이를
22929-0-3	-에	숯:뽕이다가
22930	불잉걸	불뽕이
22930	불잉걸	불:뽕이
22931	쌩	쌩 툇따고
22931	쌩	쌩: 날따고도 힌디
22932	읻	읻쌩 날따고 그래야지
22932	읻	읻쌩
22932	읻	읻쌩 편따고
22932-0-1	-을	상추 이비나
22932-1	읻사귀	무싯읻쌩기나
22932-1	읻사귀	이파리
22932-1	읻사귀	읻쌩구
22933	가랑읻	가랑니비라구려
22934	뿌리	뿌링이
22934	뿌리	나무 뿌리
22934	뿌리	뿌리

###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사과(+ 신)
23001	능금	능금(+ 구)
23002	돌배	독배
23003	복숭아	복송
23004	곶감	꼬감
23005	홍시	홍수
23006	고욤	괴염:
23007	살구	살구
23008	앵두	앵두
23009	자두	자두
23010	오얏	*
23010-0-1	-을	*
23011	석류	성누
23012	모과	모개
23013	과일	과이리라구려
23014	꼭지	꼭떼기
23015	밤	밤:
23015-1	밤송이	밤썰이
23015-2	팻밤	폰뺨
23015-3	알밤	알뺨
23015-4	쌍동밤	쪽뺨
23016	보늬	비늘
23016	보늬	밤베늘
23017	호두	추자
23018	가래(楸子)	추자라고 그리썩
23019	개암	깨금
23020	머루	멀구
23021	다래	*
23022	청미래덩굴	
23023	으름	*
23024	참외	이건 차외고
23024	참외	차외
23025	딸기	딸기
23025-1	"딸기(발 재배)"	그걸또 딸기라고더만
23025-1	"딸기(발 재배)"	바테서 난 딸기가 이꼬
23025-2	"딸기(발 야생)"	*
23025-3	"딸기(들 재배)"	*
23025-4	"딸기(들 야생)"	개미딸

23025-5 "딸기(산 재배)"  
 23025-6 "딸기(산 야생)"  
 23025-6 "딸기(산 야생)"  
 23026 뱀딸기  
 23027 마름(菱)

함박딸기  
 산딸기가 이꼬  
 고무때왈  
 비얌딸기  
 우엉이여

## 2.11. 자연

###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23101 산꼭대기  
 23102 기슭  
 23102-0-1 -에  
 23102-0-1 -에  
 23103 골짜기  
 23104 메아리  
 23104 메아리  
 23105 고함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23106 묘  
 23106 묘  
 23107 뗏자리  
 23107 뗏자리  
 23107-1 광중  
 23107-1 광중  
 23108 구덩이  
 23109 비탈  
 23109 비탈  
 23109 비탈  
 23110 가파르다  
 23111 언덕  
 23112 낭떠러지  
 23113 들(野)  
 23113-0-1 -에  
 23114 벌  
 23115 갈림길  
 23115 갈림길

날망  
 상사바우  
 중투리  
 중투리다 지블 진다고  
 산중투르다 지블 전네  
 산:꼴짜그서  
 산:울리미라고도 허고  
 메아리 친다 그릴쩔  
 괴암 지른다  
 괴암 지른다구제  
 봉촉  
 메  
 땅보러 땡인다구려  
 땡짜리  
 시체구텡이  
 땅구텡이  
 구덩이소그다  
 깔끄막  
 깔끄막또 인꼬  
 깔크매기라고구려  
 깔끄막져서  
 잔등  
 날:똥  
 드:리 널롭따고  
 드레로 일허러 간다  
 갱버네 간다고도  
 갈림쩔  
 삼:거리쩔

23116	헤어지다	헤어져
23116	헤어지다	갈리자고려고
23116	헤어지다	헤어지자
23117	바위	바:우
23117-0-1	-을	바우를 드러
23117-0-2	-에	바우에서
23118	돌(石)	돌
23118	돌(石)	돌:멩이
23118-0-1	-을	돌멩이털 뚜드린떠니
23118-0-1	-을	도:를 골라내라
23118-0-2	-에	도:레
23118-0-2	-에	돌멩이로 마자서
23119	자갈	자갈
23120	모래	모:래
23120	모래	모래지 머 그거
23120	모래	모새라고도 히고 그러
23120-0-1	-를	모래 파와라
23120-0-1	-를	모래를 퍼오너라
23121	진흙	질:흑
23121	진흙	진:땅
23121-1	찰흙	지륵
23121-1	찰흙	차:룩또 되지만

##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무레 빠진 사람
23201	물	물:마시제
23202	거품	버큼
23203	개운하다	개운히고 조아
23204	도랑	깨또랑
23204	도랑	개울또랭이라구려고
23204	도랑	깨또랑
23204-1	붓도랑	보또랭이라거고
23205	둑	보
23205	둑	방천
23205	둑	보
23206	잠기다	쟁기제
23206	잠기다	바다되안따
23206	잠기다	쟁:긴따

23207	개울	개:울
23208	내(川)	넌물
23209	미역 감다	되욕:허네
23209	미역 감다	멕:감는다 소리넌
23209	미역 감다	되욕한다고 그러
23210	발가승이	피:버선따고
23210	발가승이	피벅쟁이
23211	목욕하다	모:욕한다고
23212	수채	수:챜꾸넉
23213	개골창	개울창
23214	시궁창	시:금창이라 허드라구
23214	시궁창	시금챙이
23215	웅덩이	괴얏따
23215	웅덩이	웅:덩이
23216	수렁	구레실
23216	수렁	해:수짱
23216	수렁	수렁:
23216	수렁	수렁창
23217	늪	해치깡
23217	늪	해:치
23217-0-1	-에	
23218	배(船)	배:
23219	나루터	뽕짜리 가자고 그러 뽕짜리
23219	나루터	선:창
23220	돛	*
23220-0-1	-에	
23221	돛대	*
23222	돛배	*
23223	돛 줄	*
23224	돛 줄	*
23225	거루	*
23226	상앗대	간:진때
23227	개(펼)	흐레
23228	물	*
23228-0-1	-으로	
23229	밀물	*
23230	썰물	*
23231	가라앉다	가라안자버린따고 그래야제
23232	그물	투망(던지는 것)
23232	그물	구무리여(깔아놓은 것)
23232	그물	구물



23233	해녀	해녀덜
23233	해녀	해녀

### 2.11.3. 시후

23301	새벽	새:보게
23302	새벽밥	새복밥
23303	아침	아:침
23304	아침밥	아침밥
23305	점심	정:심밥
23305	점심	새:꺼리(+ 구)
23305	점심	정:심
23306	저녁	저녁때
23306	저녁	저:녁 빼비제
23307	설빔하다	해가 너머가네
23307	설빔하다	해너머간다 그러
23307	설빔하다	살:푼
23308	노을	복쌈가 떠서
23308	노을	해다라진다고
23308-0-1	-을	복쌈를 보고 인따
23309	불그레하다	빨그레 다라징게
23309	불그레하다	불거
23310	해거름	저:물 게 왁써
23310	해거름	해:거름도 인써
23310	해거름	해거르메 와
23311	땅거미	땅:금
23311	땅거미	어둑빨저서
23311	땅거미	어둑빠리 징게
23312	봄	늘뵈
23312	봄	봄
23312	봄	일긴봄(늦봄)
23313	여름	여름
23314	더위	더우가
23315	추위	추:가
23315	추위	추:가 오래간다
23316	가을	가을
23316	가을	가:을
23316-0-1	-에	가으레
23317	겨울	겨:을

23317-0-1	-에	겨으리 참 지네
23318	얼음	강:
23318	얼음	어르미라고도 허고
23319	오늘	오늘
23320	내일	니얼
23320	내일	니얼
23321	모래	모래
23322	글피	그페
23322	글피	그페
23323	그글피	그그페
23324	어제	어저꼬
23324	어제	어:제
23325	그저께	그제
23325	그저께	그저꼬
23326	그그저께	그꼬저꼬
23326	그그저께	그그저꼬
23327	훗날	후제 만나자 그러
23327	훗날	후:제 만나
23328	하룻날	초:하룻날
23328	하룻날	초하루
23329	이튿날	초이틀
23329	이튿날	초:이튿날
23330	사흘날	초산:날
23331	나흘날	초난:날
23332	닷새날	초단쌔
23332	닷새날	초:단쌔날
23333	엿새날	초:열쌔날
23334	이렛날	초:이렌날
23335	여드렛날	초:야드렌날
23336	아흐렛날	초:아흐렌날
23337	열흘날	초:열흘날
23337	열흘날	초:열흘
23338	하루	하루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알
23341	나흘	나:알
23342	닷새	단:쌔
23343	엿새	열:쌔
23344	이레	이:레
23345	여드레	야드레
23346	아흐레	아흐레

23347	열흘	여를
23348	한나절	한나잘
23348-1	반나절	반나잘
23349	그믐	그믐
23349-1	그믐께	그:믐께
23350	지금	시:방해야지(+ 구)
23350	지금	시방(+ 구)
23350	지금	지그미라고(+ 신)
23350	지금	시방가서 빨리 갇꼬와(+ 구)
23351	아직	나는 안작 안머건써
23352	이제	인자
23353	이미	진작
23353	이미	이무 먹언넌디
23354	요즈음	요새
23355	금방	금방

####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베시
23401-0-1	-이	베시 인자
23401-0-2	-을	베틀 쟁개
23401-0-2	-을	베슬 쟁개
23402	따스하다	따:와
23402	따스하다	따:숨네
23402	따스하다	따:순밥
23403	아지랑이	삼:새미
23403	아지랑이	삼새미
23404	응달	응달
23405	양달	양:재
23406	비(雨)	비:가 오제
23407	가랑비	가랑비
23408	이슬비	이:슬비도
23409	안개	양:개
23409	안개	양:개 쨌따고 그러
23410	눈개	이실:
23410	눈개	그게 이시리여
23411	무지개	무:지기
23412	소나기	쏘:내기
23413	갑자기	베락가치 쏘내기가 와갇꼬

23413	갑자기	갑작끼	쏘다져서
23414	홍수	큰:물	절따 그려
23414	홍수	홍:수	도
23415	번개	빙개	
23416	천둥	하늘	운다고
23416	천둥	천둥	친다고 헌디
23416	천둥	뇌성	헌다구제
23417	벼락	베락	때린써
23417	벼락	베락	
23417	벼락	베락	때린따고
23418	무섭다	무:서	
23418	무섭다	무서워	서
23419	함박눈	함박	눈
23420	싸락눈	싸래	기
23420	싸락눈	싸래	기눈
23421	발자국	발	짜꼭
23422	진눈깨비	진:태	
23422	진눈깨비	눈조차	비조차 진태오네
23423	우박	우:박	
23424	고드름	고도	름
23425	햇무리	헨:머	리
23425	햇무리	해	머리
23426	달무리	달:머	리
23427	둥글다	똥:그	라:머 게(+ 구)
23427	둥글다	둥글	다고 허덩마는(+ 신)
23428	은하수	은하	수라고도 허지(+ 신)
23428	은하수	북	풍
23428	은하수	기	레기(+ 구)
23428	은하수	기	레기 켜네(+ 구)
23429	금성	왕:벨	
23429	금성	왕:별	
23430	가뭇	가:뭇	
23431	마르다	말	러
23431-0-1	-어서	잘	말룽개 존타
23432	위	머	리 우에
23432	위	우	에도
23432	위	우	에
23433	아래	미	테
23433	아래	아	래
23434	왼쪽	외	약쪽
23435	오른쪽	오	른쪽

23436	결	내 여프로 안 와
23436-0-1	-에	내 여프 안저라
23437	회오리바람	소소리바람
23437	회오리바람	소소리바람 분다고
23438	북풍	북:쪽빠래미라 그러는디
23439	남풍	남:풍
23440	동풍	동풍
23441	서풍	서풍

## 제 3편 음 운

### 3.1. 음운 목록

####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태가
31001-0-1	테(輪)-이/가	태가
31001-0-2	테(輪)-보다	테보단
31002-0-1	태(胎)-이/가	태가
31002-0-1	태(胎)-이/가	태:가
31002-0-2	태(胎)-보다	태:보단
31003-0-1	떼(群)-이/가	떼가
31003-0-2	떼(群)-보다	피리떼보단
31004-0-1	때(時)-이/가	때가
31004-0-1	때(時)-이/가	때가 되얀디
31004-0-2	때(時)-보다	때보단
31005-0-1	틀(機)-이/가	트리
31005-0-2	틀(機)-보다	틀:보단
31006-0-1	털(毛)-이/가	터리
31006-0-2	털(毛)-보다	털보단
31007-0-1	글(文)-이/가	그리
31007-0-2	글(文)-보다	글보단
31008-0-1	걸(옷)-이/가	거:리
31008-0-2	걸(옷)-보다	걸보단
31009-0-1	기(旗)-이/가	긴:때가 질다
31009-0-1	기(旗)-이/가	긴:때가
31009-0-2	기(旗)-보다	기:보다
31010-0-1	귀(耳)-이/가	귀가
31010-0-2	귀(耳)-보다	귀보단
31011-0-1	시(生時)-이/가	시:가
31011-0-2	시(生時)-보다	시:보다
31012-0-1	쉬(蠅卵)-이/가	쉬:가
31012-0-2	쉬(蠅卵)-보다	쉬:보다
31013-0-1	쇠(鐵)-이/가	쇠:가
31013-0-2	쇠(鐵)-보다	쇠:보단

31014-0-1 외:국(外國)-이/가  
 31014-0-2 외:국(外國)-보다  
 31015-0-1 왜국(倭國)-이/가  
 31015-0-2 왜국(倭國)-보다  
 31016 쉬:다(休)-더라  
 31017 쇠:다(설을~)-더라  
 31018-0-1 베(布)-이/가  
 31018-0-1 베(布)-이/가  
 31018-0-2 베(布)-보다  
 31019-0-1 배(船)-이/가  
 31019-0-2 배(船)-보다  
 31020-0-1 배(腹)-이/가  
 31020-0-2 배(腹)-보다  
 31021-0-1 (떡)메-이/가  
 31021-0-2 (떡)메-보다  
 31022-0-1 매(鞭)-이/가  
 31022-0-2 매(鞭)-보다  
 31023-0-1 메:다(擔)-더라  
 31023-0-2 메:다(擔)-어서  
 31024-0-1 매:다(繫)-더라  
 31024-0-2 매:다(繫)-어서  
 31025-0-1 떼:다(分離)-더라  
 31025-0-2 떼:다(分離)-어서  
 31026-0-1 때:다(炊)-더라  
 31026-0-1 때:다(炊)-더라  
 31026-0-2 때:다(炊)-어서  
 31027-0-1 베:다(切斷)-더라  
 31027-0-1 베:다(切斷)-더라  
 31027-0-2 베:다(切斷)-어서  
 31028-0-1 배:다(孕胎)-더라  
 31028-0-2 배:다(孕胎)-어서  
 31029-0-1 세:다(算)-더라  
 31029-0-2 세:다(算)-어서  
 31029-0-2 세:다(算)-어서  
 31029-0-2 세:다(算)-어서  
 31029-0-2 세:다(算)-어서  
 31030-0-1 새:다(漏泄)-더라  
 31030-0-2 새:다(漏泄)-어서  
 31030-0-2 새:다(漏泄)-어서  
 31031-0-1 뒤(後)-이/가  
 31031-0-2 뒤(後)-보다

외:구기  
 외:국뽀단  
 왜뇌미  
 왜놈보다  
 쉼:다고  
 쇠:다고  
 뽀빠대기 존타  
 베가  
 베:보단  
 \*  
 배:보단  
 배가 불르다  
 니: 배보단  
 메가 무겁다  
 메:보단  
 매가 마능개  
 매:보단  
 메고 가거라  
 메:라  
 째:미고 간다  
 째:며  
 띠고 밥 머거라  
 띠어라  
 땡개  
 때고 노라  
 때라  
 비먼  
 비:고  
 비얼따고 해야제  
 배:고  
 배:서 그렇가  
 돈 시고 안잔네  
 돈 좀 시어도라  
 다 시언냐  
 시얼쏘  
 시어도라  
 무리 새:고 일따  
 무리 새:네  
 무리 썰따  
 뒤여가  
 뒤:보단

31032-0-1	되(升)-이/가	되:가
31032-0-1	되(升)-이/가	되가
31032-0-2	되(升)-보다	되보단
31033-0-1	게:(蟹)-이/가	게:가
31033-0-2	게:(蟹)-보다	게:보단
31034-0-1	개:(犬)-이/가	개가 만치
31034-0-2	개:(犬)-보다	큰 개보단 발바리가 짝꼬
31034-0-2	개:(犬)-보다	큰 개보단

###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여레 형게
31035-0-2	여럿(多)-보다	여:레보단
31035-0-3	여럿(多)-을/를	여:러설
31035-0-3	여럿(多)-을/를	여러설
31036-0-1	물결(波)-이/가	물껴리
31036-0-2	물결(波)-보다	물:결보단
31036-0-3	물결(波)-을/를	물:껴를
31037-0-1	예:의(禮儀)-이/가	예:가 박떠라
31037-0-2	예:의(禮儀)-보다	예:보단
31037-0-3	예:의(禮儀)-을/를	예:럴
31038-0-1	계:획(計劃)-이/가	괴호기 만흐다고
31038-0-2	계:획(計劃)-보다	괴혹뽀단
31038-0-3	계:획(計劃)-을/를	괴호글 마니 세월따고
31039-0-1	규칙(規則)-이/가	귀추기 심허다
31039-0-2	규칙(規則)-보다	귀촉뽀단
31039-0-3	규칙(規則)-을/를	귀추글 지켜야제
31040-0-1	휴일(休日)-이/가	*
31040-0-2	휴일(休日)-보다	*
31040-0-3	휴일(休日)-을/를	*
31041-0-1	교통(交通)-이/가	괴:통이
31041-0-2	교통(交通)-보다	*
31041-0-3	교통(交通)-을/를	*
31042-0-1	효:자(孝子)-이/가	회:자가 만흐다
31042-0-2	효:자(孝子)-보다	회:자보단
31042-0-3	효:자(孝子)-을/를	회자를 본바드라 그래야제
31043-0-1	웬일(何事)-이/가	*
31043-0-2	웬일(何事)-보다	웬닐로
31043-0-3	웬일(何事)-을/를	*



31044-0-1 궤:(꺈)(櫃)-이/가  
 31044-0-1 궤:(꺈)(櫃)-이/가  
 31044-0-2 궤:(꺈)(櫃)-보다  
 31044-0-3 궤:(꺈)(櫃)-을/를  
 31045-0-1 왜란(倭亂)-이/가  
 31045-0-2 왜란(倭亂)-보다  
 31045-0-3 왜란(倭亂)-을/를  
 31046-0-1 헛대(鷄架)-이/가  
 31046-0-2 헛대(鷄架)-보다  
 31046-0-3 헛대(鷄架)-을/를  
 31047-0-1 원망(怨望)-이/가  
 31047-0-2 원망(怨望)-보다  
 31047-0-3 원망(怨望)-을/를  
 31047-0-3 원망(怨望)-을/를  
 31048-0-1 권:투(拳鬪)-이/가  
 31048-0-2 권:투(拳鬪)-보다  
 31048-0-3 권:투(拳鬪)-을/를  
 31049-0-1 의논(議論)-이/가  
 31049-0-2 의논(議論)-보다  
 31049-0-3 의논(議論)-을/를  
 31049-0-3 의논(議論)-을/를  
 31050-0-1 무늬(紋)-이/가  
 31050-0-1 무늬(紋)-이/가  
 31050-0-2 무늬(紋)-보다  
 31050-0-3 무늬(紋)-을/를  
 31051-0-1 왕(王)-이/가  
 31051-0-2 왕(王)-보다  
 31051-0-3 왕(王)-을/를  
 31052-0-1 과자(菓子)-이/가  
 31052-0-2 과자(菓子)-보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귀썰기고  
 궤썰기 튼튼하다  
 궤썰보단  
 궤:짜글  
 \*  
 왜란도  
 왜라늘 이르킨따  
 궤:가 질다  
 궤:보단  
 궤:릴  
 원:맹이 만타  
 원:망보단  
 원:망을 마니 현다  
 원:망얼  
 건:투가 재밌따라  
 권:투보단  
 권:투릴 봉게  
 으:노니  
 으:논보단  
 으:노늘  
 으:노늘 마니 현다고  
 무늬가  
 무늬가 인짜나  
 무:네보단  
 무늬릴 봐라  
 왕이  
 왕:보단  
 왕:얼  
 과자가  
 과자보단  
 과자릴 감꼬와라

### 3.1.3. 장모음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31053-0-2 일(一)-보다  
 31054-0-1 일:(事)-이/가  
 31054-0-2 일:(事)-보다  
 31055-0-1 매(鞭)-이/가

이리  
 일:보단  
 이:리 만타  
 일:보단  
 매가 무섭따

31055-0-2 매(鞭)-보다  
 31056-0-1 매:(驚)-이/가  
 31056-0-2 매:(驚)-보다  
 31057-0-1 밤(夜)-이/가  
 31057-0-2 밤(夜)-보다  
 31058-0-1 밤:(栗)-이/가  
 31058-0-1 밤:(栗)-이/가  
 31058-0-2 밤:(栗)-보다  
 31059-0-1 눈(眼)-이/가  
 31059-0-2 눈(眼)-보다  
 31060-0-1 눈:(雪)-이/가  
 31060-0-2 눈:(雪)-보다  
 31061-0-1 말(馬)-이/가  
 31061-0-2 말(馬)-보다  
 31062-0-1 말(斗)-이/가  
 31062-0-2 말(斗)-보다  
 31063-0-1 말:(言)-이/가  
 31063-0-2 말:(言)-보다  
 31064-0-1 손(客)-이/가  
 31064-0-1 손(客)-이/가  
 31064-0-2 손(客)-보다  
 31065-0-1 손(手)-이/가  
 31065-0-2 손(手)-보다  
 31066-0-1 손:(孫)-이/가  
 31066-0-1 손:(孫)-이/가  
 31066-0-2 손:(孫)-보다  
 31067-0-1 배(梨)-이/가  
 31067-0-2 배(梨)-보다  
 31068-0-1 배:(倍)-이/가  
 31068-0-2 배:(倍)-보다  
 31069-0-1 벌(罰)-이/가  
 31069-0-2 벌(罰)-보다  
 31070-0-1 벌:(蜂)-이/가  
 31070-0-2 벌:(蜂)-보다  
 31071-0-1 솔(松)-이/가  
 31071-0-2 솔(松)-보다  
 31072-0-1 솔:(刷)-이/가  
 31072-0-2 솔:(刷)-보다  
 31073-0-1 줄(鉉)-이/가  
 31073-0-2 줄(鉉)-보다  
 31074-0-1 줄:(연장)-이/가

매보단  
 매:가 눅피떨따  
 매:보단 술갱이가 무섭따  
 배미 오제  
 밤보단  
 바:미 만타  
 바:미고  
 밤:보단  
 누니 박떠라  
 눈보단  
 누:니 마니온다  
 눈:보단  
 마리 머신타  
 말:보단  
 마리 크다  
 말보단  
 마:리 만흐다고  
 말:보단  
 손니미 와  
 손니미 만타  
 손님보단  
 소니 크더라  
 손보단  
 손:지더리 만타  
 손:지더리  
 손:지덜뽀단  
 배가 마신타  
 배보단  
 두 배:가 만혀  
 두 배보단  
 버리  
 벌보단  
 버:리 꿀치러 간다 그러제  
 벌:보단 꾸리 만타  
 조선솔나무가 만타  
 조선솔보단  
 소:리  
 솔:보단  
 주리 엽따  
 줄보단  
 주:리 일따

31074-0-2 줄:(연장)-보다  
 31075-0-1 돌:(石)-이/가  
 31075-0-2 돌:(石)-보다  
 31076-0-1 담(牆)-이/가  
 31076-0-2 담(牆)-보다  
 31077-0-1 담:(膽)-이/가  
 31077-0-2 담:(膽)-보다  
 31078-0-1 들:(野)-이/가  
 31078-0-1 들:(野)-이/가  
 31078-0-2 들:(野)-보다  
 31079-0-1 달-(懸)-더라  
 31079-0-1 달-(懸)-고  
 31080-0-1 달-(甘)-더라  
 31080-0-1 달-(甘)-고  
 31080-0-1 달-(甘)-고  
 31080-0-1 달-(甘)-더라  
 31081-0-1 달:-(熱)-더라  
 31081-0-1 달:-(熱)-고  
 31081-0-1 달:-(熱)-더라  
 31081-0-1 달:-(熱)-고  
 31081-0-1 달:-(熱)-더라  
 31081-0-1 달:-(熱)-고  
 31082-0-1 갈-(換)-고  
 31082-0-1 갈-(換)-더라  
 31082-0-1 갈-(換)-더라  
 31082-0-1 갈-(換)-고  
 31083-0-1 갈-(磨)-고  
 31083-0-1 갈-(磨)-더라  
 31083-0-1 갈-(磨)-더라  
 31083-0-1 갈-(磨)-고  
 31084-0-1 갈:-(耕)-고  
 31084-0-1 갈:-(耕)-더라  
 31084-0-1 갈:-(耕)-더라  
 31084-0-1 갈:-(耕)-고  
 31085-0-1 걷-(收)-고  
 31085-0-1 걷-(收)-더라  
 31085-0-1 걷-(收)-더라  
 31085-0-1 걷-(收)-고  
 31086-0-1 걸:-(步)-더라  
 31086-0-1 걸:-(步)-고  
 31086-0-1 걸:-(步)-고

줄:보단  
 되:기 마내서  
 독:뽀단  
 다미 질다  
 담보단  
 다:미 절린다  
 담:보단  
 드레 간다  
 드:레 간다고  
 들:보단  
 메주 달고 인따  
 메주 달고 인따  
 달더라  
 달고  
 달더라  
 달고  
 달과  
 달과  
 달:과  
 달:과  
 달구고 인따  
 달구고 인따  
 가랴떠라  
 같고 인씨  
 가랴떠라  
 같고 인씨  
 날 같더라  
 같고 인따  
 날 같더라  
 같고 인따  
 받 같:고 인떠라  
 같:더라  
 받 같:고 인떠라  
 같:더라  
 걷꼬 인떠라  
 걷떠라  
 걷꼬 인떠라  
 걷떠라  
 걸:코 인떠라  
 걸:더라  
 걸:코 인떠라

31086-0-1	걸:-(步)-더라	걸:떠라
31086-0-1	걸:-(步)-더라	걸:터라
31086-0-1	걸:-(步)-고	걸:떠라
31087-0-1	적-(書)-더라	적떠라
31087-0-1	적-(書)-고	적꼬 일떠라
31087-0-1	적-(書)-고	적떠라
31087-0-1	적-(書)-더라	적꼬 일떠라
31088-0-1	적:-(小)-더라	죄깨여
31088-0-1	적:-(小)-고	죄깨여
31088-0-1	적:-(小)-더라	죄깨다
31088-0-1	적:-(小)-고	죄깨다
31088-0-1	적:-(小)-더라	만코 저궁건 대봐라
31088-0-1	적:-(小)-고	만코 저궁건 대봐라

## 3.2. 음운 과정

### 3.2.1. 활용

32001-0-1	막-(防)[ㄱ]-지	막찌마라
32001-0-2	막-(防)[ㄱ]-고	물 막꼬 일따고
32001-0-3	막-(防)[ㄱ]-더라	막떠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마궁개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물 마가라
32002-0-1	흐르-(流)[ㄹ]-지	흐르지 안터라
32002-0-2	흐르-(流)[ㄹ]-고	무리 흐르고 일따
32002-0-3	흐르-(流)[ㄹ]-더라	안 흐르더라
32002-0-4	흐르-(流)[ㄹ]-으니까	무리 흐룽개 조타
32002-0-5	흐르-(流)[ㄹ]-아/어(왔/었다)	안 흘러
32003-0-1	오-(來)[ㅇ]-지	오지 안흔다 그러지
32003-0-2	오-(來)[ㅇ]-고	나한티 오고 일따
32003-0-3	오-(來)[ㅇ]-더라	오더라
32003-0-3	오-(來)[ㅇ]-더라	오더라 그래야제
32003-0-4	오-(來)[ㅇ]-으니까	잘 옹개 조타
32003-0-5	오-(來)[ㅇ]-아/어(왔/었다)	왈따
32004-0-1	듣-(聞)[ㄷ변]-지	듣찌 안헌다
32004-0-2	듣-(聞)[ㄷ변]-고	안 듣꼬 일따
32004-0-3	듣-(聞)[ㄷ변]-더라	잘 듣떠라

32004-0-4	듣-(聞)[ㄷ뵌]-으니까	잘 뜨룽개 조터라
32004-0-5	듣-(聞)[ㄷ뵌]-아/어(왔/었다)	드:런따
32005-0-1	많:- (多)[나]-지	도니 만치 안응개
32005-0-2	많:- (多)[나]-고	식구가 만코
32005-0-3	많:- (多)[나]-더라	만터라
32005-0-4	많:- (多)[나]-으니까	마능개
32005-0-5	많:- (多)[나]-아/어(왔/었다)	마닌따
32006-0-1	말-(任)[ㅍ]-지	만찌 말고
32006-0-2	말-(任)[ㅍ]-고	*
32006-0-3	말-(任)[ㅍ]-더라	다 만떠라
32006-0-4	말-(任)[ㅍ]-으니까	혼자 마툽개 심:들제
32006-0-5	말-(任)[ㅍ]-아/어(왔/었다)	마타서 다 힌따
32006-0-5	말-(任)[ㅍ]-아/어(왔/었다)	마타서
32007-0-1	알:- (知)[ㄹ]-지	그거슬 알지럴 모던다
32007-0-2	알:- (知)[ㄹ]-고	알고 일따고
32007-0-2	알:- (知)[ㄹ]-고	알고 일따
32007-0-3	알:- (知)[ㄹ]-더라	알더라 그래야제
32007-0-4	알:- (知)[ㄹ]-으니까	잘 양개 데리와라
32007-0-5	알:- (知)[ㄹ]-아/어(왔/었다)	아라
32008-0-1	감:- (閉眼)[ㄱ]-지	감찌 안허고 일따
32008-0-2	감:- (閉眼)[ㄱ]-고	강꼬 일씨
32008-0-2	감:- (閉眼)[ㄱ]-고	강꼬 일떠라
32008-0-3	감:- (閉眼)[ㄱ]-더라	감떠라
32008-0-4	감:- (閉眼)[ㄱ]-으니까	감꼬일떠만
32008-0-5	감:- (閉眼)[ㄱ]-아/어(왔/었다)	가마라
32009-0-1	벗-(脫)[ㅂ]-지	벗찌
32009-0-2	벗-(脫)[ㅂ]-고	벗꼬인따
32009-0-3	벗-(脫)[ㅂ]-더라	벗떠라
32009-0-4	벗-(脫)[ㅂ]-으니까	버승개
32009-0-5	벗-(脫)[ㅂ]-아/어(왔/었다)	버션따
32010-0-1	옴-(可)[ㅇ]-지	올치 안허
32010-0-2	옴-(可)[ㅇ]-고	올코
32010-0-3	옴-(可)[ㅇ]-더라	올터라
32010-0-3	옴-(可)[ㅇ]-더라	야 마리 오룽개
32010-0-4	옴-(可)[ㅇ]-으니까	오룽개
32010-0-5	옴-(可)[ㅇ]-아/어(왔/었다)	가 마리 오른소리더라
32011-0-1	입-(着衣)[ㅍ]-지	입찌안터라
32011-0-2	입-(着衣)[ㅍ]-고	입꼬인따
32011-0-3	입-(着衣)[ㅍ]-더라	안입떠라
32011-0-3	입-(着衣)[ㅍ]-더라	입떠라
32011-0-4	입-(着衣)[ㅍ]-으니까	오슬 이봉개 보기가 존타

32011-0-5	입-(着衣)[ㅂ]-아/어(왔/었다)	이벌파
32012-0-1	바꾸-(換)[ㅌ]-지	바꾸지 안흔다
32012-0-2	바꾸-(換)[ㅌ]-고	바꾸고 일파 그래야제
32012-0-3	바꾸-(換)[ㅌ]-더라	바꾸자 허드라
32012-0-4	바꾸-(換)[ㅌ]-으니까	바꿈개 조타
32012-0-5	바꾸-(換)[ㅌ]-아/어(왔/었다)	바짜더라 허더라
32013-0-1	덮-(覆)[ㅍ]-지	덮찌 안혀
32013-0-2	덮-(覆)[ㅍ]-고	덮꼬 일파고 해야제
32013-0-2	덮-(覆)[ㅍ]-고	더프고 일파고 해야제
32013-0-2	덮-(覆)[ㅍ]-고	이부를 덮꼬 인네
32013-0-3	덮-(覆)[ㅍ]-더라	덮떠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더풍개 따습다
32013-0-5	덮-(覆)[ㅍ]-아/어(왔/었다)	더프라
32014-0-1	묻:- (問)[ㄷ 변]-지	무러보지 안능다
32014-0-2	묻:- (問)[ㄷ 변]-고	무러보고 일파고
32014-0-2	묻:- (問)[ㄷ 변]-고	묻꼬 일파고도 허제
32014-0-2	묻:- (問)[ㄷ 변]-고	물꼬 일파고
32014-0-3	묻:- (問)[ㄷ 변]-더라	물터라
32014-0-4	묻:- (問)[ㄷ 변]-으니까	무릉개
32014-0-5	묻:- (問)[ㄷ 변]-아/어(왔/었다)	무러촬파
32015-0-1	낫:- (癒)[ㅅ 변]-지	날찌 안허고 그대로 일파고
	해야지	
32015-0-2	낫:- (癒)[ㅅ 변]-고	나설파고
32015-0-2	낫:- (癒)[ㅅ 변]-고	날꼬
32015-0-3	낫:- (癒)[ㅅ 변]-더라	날터라
32015-0-4	낫:- (癒)[ㅅ 변]-으니까	나:싱개 조타고
32015-0-5	낫:- (癒)[ㅅ 변]-아/어(왔/었다)	나살파
32016-0-1	닫-(閉)[ㄷ]-지	닫찌마라 꺾꺾하다 그러자나
32016-0-2	닫-(閉)[ㄷ]-고	닫꼬인네
32016-0-3	닫-(閉)[ㄷ]-더라	닫떠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다등개 꺾꺾허드라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다다라 그러고
32017-0-1	쫓-(追)[ㅈ]-지	쫓치마라
32017-0-1	쫓-(追)[ㅈ]-지	쫓찌마라
32017-0-2	쫓-(追)[ㅈ]-고	쫓꼬인파
32017-0-3	쫓-(追)[ㅈ]-더라	*
32017-0-4	쫓-(追)[ㅈ]-으니까	쫓:칭개
32017-0-5	쫓-(追)[ㅈ]-아/어(왔/었다)	쫓차야지
32018-0-1	베:- (枕)[ㄴ]-지	비지 안터라
32018-0-2	베:- (枕)[ㄴ]-고	비고 일파
32018-0-3	베:- (枕)[ㄴ]-더라	안비더라

32018-0-3	베:-(枕)[네]-더라	잘 비더라
32018-0-4	베:-(枕)[네]-으니까	빙개
32018-0-5	베:-(枕)[네]-아/어(왔/었다)	비어
32019-0-1	깨:-(破)[헤]-지	깨지 안타
32019-0-2	깨:-(破)[헤]-고	깨고 인따
32019-0-3	깨:-(破)[헤]-더라	깨더라
32019-0-4	깨:-(破)[헤]-으니까	그르슬 깡개
32019-0-5	깨:-(破)[헤]-아/어(왔/었다)	깟따
32020-0-1	펴:-(伸)[ㄱ]-지	피지 안혀
32020-0-2	펴:-(伸)[ㄱ]-고	피고 인떠라
32020-0-3	펴:-(伸)[ㄱ]-더라	피더라
32020-0-4	펴:-(伸)[ㄱ]-으니까	핑:개
32020-0-5	펴:-(伸)[ㄱ]-아/어(왔/었다)	펴봐라
32020-0-5	펴:-(伸)[ㄱ]-아/어(왔/었다)	피어봐라
32021-0-1	밝:-(明)[?]-지	박찌 안타
32021-0-2	밝:-(明)[?]-고	박꼬
32021-0-3	밝:-(明)[?]-더라	박떠라
32021-0-4	밝:-(明)[?]-으니까	발궁개 존타고 해야지
32021-0-5	밝:-(明)[?]-아/어(왔/었다)	발가
32022-0-1	쌈:-(烹)[?]-지	쌈:찌
32022-0-2	쌈:-(烹)[?]-고	쌈:꼬 인떠라 그래야제
32022-0-2	쌈:-(烹)[?]-고	쌈:꼬 인따
32022-0-3	쌈:-(烹)[?]-더라	쌈:떠라
32022-0-4	쌈:-(烹)[?]-으니까	쌀몽개 조터라
32022-0-5	쌈:-(烹)[?]-아/어(왔/었다)	바물 쌀마서
32023-0-1	을:-(吟)[ㄷ]-지	을프지 마러라
32023-0-2	을:-(吟)[ㄷ]-고	시조를 을프고
32023-0-3	을:-(吟)[ㄷ]-더라	을프더라
32023-0-4	을:-(吟)[ㄷ]-으니까	을풍개
32023-0-5	을:-(吟)[ㄷ]-아/어(왔/었다)	을퍼라
32024-0-1	밟:-(踏)[?]-지	밟:찌 안힐따
32024-0-1	밟:-(踏)[?]-지	밟찌 안힐따
32024-0-2	밟:-(踏)[?]-고	밟꼬 인따
32024-0-3	밟:-(踏)[?]-더라	밟떠라
32024-0-4	밟:-(踏)[?]-으니까	발로 발붕개 죽떠라
32024-0-5	밟:-(踏)[?]-아/어(왔/었다)	발받따
32025-0-1	하:-(爲)[ㄴ 변]-지	허지 안허면
32025-0-2	하:-(爲)[ㄴ 변]-고	마니 허고
32025-0-3	하:-(爲)[ㄴ 변]-더라	허더라
32025-0-4	하:-(爲)[ㄴ 변]-으니까	마니 형개
32025-0-5	하:-(爲)[ㄴ 변]-아/어(왔/었다)	힐따

32026-0-1	맺-(結)[ㅈ]-지	맺찌 안헐라고
32026-0-2	맺-(結)[ㅈ]-고	맺꼬 인떠라
32026-0-2	맺-(結)[ㅈ]-고	맺꼬
32026-0-3	맺-(結)[ㅈ]-더라	맺떠라
32026-0-3	맺-(結)[ㅈ]-더라	맺떠라
32026-0-4	맺-(結)[ㅈ]-으니까	사돈을 매증개 존타
32026-0-5	맺-(結)[ㅈ]-아/어(왔/었다)	매잔증개
32027-0-1	없:-(無)[?]-지	읍찌
32027-0-2	없:-(無)[?]-고	읍꼬
32027-0-2	없:-(無)[?]-고	너는 읍꼬
32027-0-3	없:-(無)[?]-더라	읍:떠라
32027-0-4	없:-(無)[?]-으니까	읍쟁개
32027-0-4	없:-(無)[?]-으니까	연피리 읍증개 속쌍허건따
	그래야지	
32027-0-5	없:-(無)[?]-아/어(왔/었다)	읍씨절따 그러까
32028-0-1	앉-(坐)[ㅈ]-지	안찌 안코 왜 서인냐
32028-0-2	앉-(坐)[ㅈ]-고	앙꼬
32028-0-3	앉-(坐)[ㅈ]-더라	안절떠라
32028-0-3	앉-(坐)[ㅈ]-더라	안떠라
32028-0-4	앉-(坐)[ㅈ]-으니까	안증개 조터라
32028-0-5	앉-(坐)[ㅈ]-아/어(왔/었다)	안절씨
32028-0-5	앉-(坐)[ㅈ]-아/어(왔/었다)	안전는데
32029-0-1	비비-(刮)[ㅂ]-지	비비지 안터라
32029-0-2	비비-(刮)[ㅂ]-고	비비고 인따
32029-0-3	비비-(刮)[ㅂ]-더라	비비더라
32029-0-4	비비-(刮)[ㅂ]-으니까	막 비빙개
32029-0-4	비비-(刮)[ㅂ]-으니까	비빙개
32029-0-5	비비-(刮)[ㅂ]-아/어(왔/었다)	비빔따
32029-0-5	비비-(刮)[ㅂ]-아/어(왔/었다)	비빔따 그래야지
32030-0-1	끄-(消)[ㅡ]-지	끄지 안헌다
32030-0-2	끄-(消)[ㅡ]-고	부를 끄고 인떠라 그래야지
32030-0-2	끄-(消)[ㅡ]-고	부를 끄고 인뜨라
32030-0-3	끄-(消)[ㅡ]-더라	안 끄더라
32030-0-4	끄-(消)[ㅡ]-으니까	꿈개
32030-0-5	끄-(消)[ㅡ]-아/어(왔/었다)	꺼절따
32031-0-1	겪-(折)[ㄱ]-지	끈치
32031-0-1	겪-(折)[ㄱ]-지	끈:치 안터라
32031-0-2	겪-(折)[ㄱ]-고	꿈코
32031-0-3	겪-(折)[ㄱ]-더라	끈터라
32031-0-4	겪-(折)[ㄱ]-으니까	끄능개 안조타고 그래야지
32031-0-4	겪-(折)[ㄱ]-으니까	꺼꿈개 안조타고 그래야지



32031-0-5	꺾-(折)[ㄱ]-아/어(왔/었다)	꺾떠라
32031-0-5	꺾-(折)[ㄱ]-아/어(왔/었다)	꺾꺼서
32032-0-1	신:-(履)[ㄴ]-지	신:찌 안터라
32032-0-2	신:-(履)[ㄴ]-고	안 싱꼬 인떠라
32032-0-3	신:-(履)[ㄴ]-더라	잘: 신떠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시:능개
32032-0-4	신:-(履)[ㄴ]-으니까	시능개
32032-0-5	신:-(履)[ㄴ]-아/어(왔/었다)	시:너봐라
32033-0-1	보-(視)[ㅇ]-지	보지 안헌다
32033-0-2	보-(視)[ㅇ]-고	보고 인따
32033-0-2	보-(視)[ㅇ]-고	보고 인따고 할까
32033-0-3	보-(視)[ㅇ]-더라	보더라
32033-0-4	보-(視)[ㅇ]-으니까	봉개
32033-0-5	보-(視)[ㅇ]-아/어(왔/었다)	봐라
32034-0-1	추-(舞)[ㅈ]-지	추지 안헌디
32034-0-2	추-(舞)[ㅈ]-고	잘 추고 인떠라
32034-0-3	추-(舞)[ㅈ]-더라	잘 추더라
32034-0-3	추-(舞)[ㅈ]-더라	추더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잘 충개
32034-0-5	추-(舞)[ㅈ]-아/어(왔/었다)	취봐
32035-0-1	피우-(吸煙)[ㅈ]-지	피지 안헌디
32035-0-2	피우-(吸煙)[ㅈ]-고	피고 인따
32035-0-3	피우-(吸煙)[ㅈ]-더라	피더라
32035-0-4	피우-(吸煙)[ㅈ]-으니까	핑개
32035-0-5	피우-(吸煙)[ㅈ]-아/어(왔/었다)	편는데
32035-0-5	피우-(吸煙)[ㅈ]-아/어(왔/었다)	안편는디
32036-0-1	서-(立)[ㅅ]-지	스지 안흔다
32036-0-2	서-(立)[ㅅ]-고	스:고 인따
32036-0-3	서-(立)[ㅅ]-더라	스:더라
32036-0-4	서-(立)[ㅅ]-으니까	승:개 이쁘다
32036-0-5	서-(立)[ㅅ]-아/어(왔/었다)	서서
32037-0-1	기-(匍腹)[ㅇ]-지	기지 안흔다
32037-0-2	기-(匍腹)[ㅇ]-고	기고 인따
32037-0-3	기-(匍腹)[ㅇ]-더라	기더라
32037-0-4	기-(匍腹)[ㅇ]-으니까	강:개
32037-0-5	기-(匍腹)[ㅇ]-아/어(왔/었다)	기어와라
32038-0-1	이-(戴)[ㅇ]-지	이지 안헌다
32038-0-2	이-(戴)[ㅇ]-고	이고 간다
32038-0-2	이-(戴)[ㅇ]-고	이고 가더라
32038-0-3	이-(戴)[ㅇ]-더라	이더라
32038-0-4	이-(戴)[ㅇ]-으니까	머리다 잉:개

32038-0-5	이-(戴)[ㅣ]-아/어(왔/었다)	지물 이엿떠라
32039-0-1	아니-(否)[ㅣ]-지	아니지
32039-0-2	아니-(否)[ㅣ]-고	아니고
32039-0-3	아니-(否)[ㅣ]-더라	아니더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아닝개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아:너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아넨따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학생이 아넨따
32040-0-1	되-(升)[니]-지	되지 안흔다
32040-0-2	되-(升)[니]-고	되고 일따
32040-0-3	되-(升)[니]-더라	되더라
32040-0-3	되-(升)[니]-더라	안되더라 그래야지
32040-0-4	되-(升)[니]-으니까	땡:개
32040-0-5	되-(升)[니]-아/어(왔/었다)	되야빨따
32041-0-1	있-(有)[ㅅ]-지	일찌 안코
32041-0-2	있-(有)[ㅅ]-고	간꼬 이꼬
32041-0-3	있-(有)[ㅅ]-더라	간꼬 일따
32041-0-3	있-(有)[ㅅ]-더라	간꼬 일떠라
32041-0-4	있-(有)[ㅅ]-으니까	간꼬 일쑹개
32041-0-5	있-(有)[ㅅ]-아/어(왔/었다)	간꼬 이:썸
32042-0-1	놓-(放)[ㅎ]-지	노치 안터라
32042-0-2	놓-(放)[ㅎ]-고	노코 일떠라
32042-0-2	놓-(放)[ㅎ]-고	논코
32042-0-3	놓-(放)[ㅎ]-더라	노터라 그래야지
32042-0-4	놓-(放)[ㅎ]-으니까	놓:개 개북따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노왈따
32043-0-1	훔-(擧)[ㄹ]-지	훔찌 안흔다
32043-0-2	훔-(擧)[ㄹ]-고	훔꼬 일따
32043-0-2	훔-(擧)[ㄹ]-고	훔꼬 일떠라
32043-0-3	훔-(擧)[ㄹ]-더라	훔떠라
32043-0-4	훔-(擧)[ㄹ]-으니까	훔통개 나래기 떠러절따
32043-0-4	훔-(擧)[ㄹ]-으니까	훔릉거
32043-0-5	훔-(擧)[ㄹ]-아/어(왔/었다)	훔털따
32043-0-5	훔-(擧)[ㄹ]-아/어(왔/었다)	훔터
32044-0-1	굽:-(麗)[ㅂ변]-지	굽찌 안터라
32044-0-2	굽:-(麗)[ㅂ변]-고	굽꼬
32044-0-3	굽:-(麗)[ㅂ변]-더라	안:굽떠라
32044-0-4	굽:-(麗)[ㅂ변]-으니까	공:개
32044-0-5	굽:-(麗)[ㅂ변]-아/어(왔/었다)	고와서
32045-0-1	쥐:-(握)[ㄱ]-지	쥐지 안힐따
32045-0-2	쥐:-(握)[ㄱ]-고	쥐고 일따

32045-0-3	쥐:-(握)[귀]-더라	쥐더라
32045-0-4	쥐:-(握)[귀]-으니까	쥐개
32045-0-5	쥐:-(握)[귀]-아/어(왔/었다)	쥐어라
32046-0-1	가-(去)[ㅏ]-지	가지 안흔다
32046-0-2	가-(去)[ㅏ]-고	가고 인따
32046-0-3	가-(去)[ㅏ]-더라	학교를 안가더라 그래야지
32046-0-4	가-(去)[ㅏ]-으니까	학교를 강개 조용허다
32046-0-5	가-(去)[ㅏ]-아/어(왔/었다)	*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먹꼬 인따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거봐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뜯꼬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뜯꼬 인따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덜따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갈떠라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갈뜨라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터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똑갈터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야:차절떠라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야참꼬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차도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허치더라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허:치서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를 허치서 속 쌍헌다 그래야지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날:더라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날라가더라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넌러가더라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넌러가더라 그래야지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울:고 인따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애가 울고 인따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리쌍개 과자 안 즐겨여
32054-0-1	"일:-(洵)-지 -고 -더라"	일:고 인따
32054-0-2	"일:-(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이러도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얼지 안흔다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리 어려도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넘:찌 안케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도 펜찬타고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숨:꼬 인따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머도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쉽:떠라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어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어도 조심히라
32059-0-1	"눅:-(臥)-지	-고	-더라"	눅:찌마라
32059-0-2	"눅:-(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윌따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쥐고 인따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쥐어서 이변쫘개
32061-0-1	"밉:-(憎)-지	-고	-더라"	미웁떠라
32061-0-2	"밉:-(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워도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놉찌 안타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놉프고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암만 놉파도 올라갈 수 인따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지코 인따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진꼬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지어서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통통 붓꼬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선따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웁꼬 인따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선따
32066-0-1	"짖:-(吠)-지	-고	-더라"	진꼬 인따
32066-0-2	"짖:-(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서 찐다 그래야지
32066-0-2	"짖:-(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암만 지서도 올 싸라문 온다
32067-0-1	"꽂:-(插)-지	-고	-더라"	꼭꼬
32067-0-2	"꽂:-(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붕게 예쁘다
32067-0-2	"꽂:-(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바도 안 이쁘다
32068-0-1	"낳:-(産)-지	-고	-더라"	애기털 나코 인따
32068-0-2	"낳:-(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서
32069-0-1	"땅:-(?) -지	-고	-더라"	따고 인따
32069-0-1	"땅:-(?) -지	-고	-더라"	따:코 인따
32069-0-2	"땅:-(?)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판따
32070-0-1	"깎:-(切)-지	-고	-더라"	깎:코 인따
32070-0-2	"깎:-(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너서 가져감따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괜찬치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괜차녀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익꼬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채글 익찌 안허네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채글 마니 일거서 똑똑허다
32073-0-1	"떨:-(漈)-지	-고	-더라"	떠럽꼬
32073-0-1	"떨:-(漈)-지	-고	-더라"	떨:찌 안터라
32073-0-1	"떨:-(漈)-지	-고	-더라"	떨:찌 안터라
32073-0-2	"떨:-(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떠러도 머글꺼여
32074-0-1	"웁:-(遷)-지	-고	-더라"	웁:떠라

32074-0-2	"옮:- (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만파
32075-0-1	"뚫:- (貫)-지 -고 -더라"	뚫코 일파
32075-0-2	"뚫:- (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뚜러서
32076-0-1	"끓:- (?) -지 -고 -더라"	끓코 일파
32076-0-2	"끓:-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러서
32077-0-1	"닭:- (?) 연필 심이)-지 -고 -더라"	달치 안힌파
32077-0-2	"닭:- (?) 연필 심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라서
32078-0-1	"닭:- (煎 술에서 장이)-지 -고 -더라"	달군다
32078-0-1	"닭:- (煎 술에서 장이)-지 -고 -더라"	다룬다
32078-0-2	"닭:- (煎 술에서 장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과도
32079-0-1	"짜:- (鹽)-지 -고 -더라"	짜고
32079-0-2	"짜:- (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짜:서
32080-0-1	"말:- (捲)-지 -고 -더라"	물고 일파
32080-0-2	"말:- (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라서
32081-0-1	"쓰:- (書)-지 -고 -더라"	쓰고
32081-0-1	"쓰:- (書)-지 -고 -더라"	씨고 일파
32081-0-2	"쓰:- (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서
32082-0-1	"오르:- (登)-지 -고 -더라"	올르고
32082-0-2	"오르:- (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란파
32083-0-1	"바쁘:- (忙)-지 -고 -더라"	바쁘지 안타
32083-0-2	"바쁘:- (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빠도
32084-0-1	"고프:- (餓)-지 -고 -더라"	고프지 안타
32084-0-2	"고프:- (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파서
32085-0-1	"쏘:- (射)-지 -고 -더라"	쏘:고 갈파
32085-0-2	"쏘:- (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쏘:와서 아프다
32086-0-1	"꾸:- (夢)-지 -고 -더라"	꿈을 꿔고 인는갑파
32086-0-2	"꾸:- (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어서 우련파
32087-0-1	"머무르:- (留)-지 -고 -더라"	머물고 간네
32087-0-2	"머무르:- (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물러서
32088-0-1	"다듬:- (整)-지 -고 -더라"	따듬꼬 일파
32088-0-2	"다듬:- (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드마서 싯쳐라
32089-0-1	"견디:- (忍)-지 -고 -더라"	전:디고 인떠라
32089-0-2	"견디:- (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디도
32089-0-2	"견디:- (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딘파
32090-0-1	"말리:- (裁)-지 -고 -더라"	말르고 일파
32090-0-2	"말리:- (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러서
32091-0-1	"끼:- (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찌더라
32091-0-2	"끼:- (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안개가 찌서
32092-0-1	"마시:- (飲)-지 -고 -더라"	마시고 일파
32092-0-2	"마시:- (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무리 마시도 모기 마른다
32092-0-2	"마시:- (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시도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시:더라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어도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퍼개고 인따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퍼개서 찬짱 올려날따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뚜더리고 인따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뚜두리서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키고 인따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쓰고 인따고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써라 그러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써라
32097-0-1	"췌:-(바람을)-지 -고 -더라"	바라믄 췌고 인따
32097-0-2	"췌:-(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라믄 췌아도 머리가 아프
다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쇠고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쇠아서
32099-0-1	"쉬:-(?)-지 -고 -더라"	쉬:지 안케
32099-0-2	"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어서 몬머근다
32100-0-1	"회-(白)-지 -고 -더라"	이건 회고:
32100-0-2	"회-(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회:어서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복끄고 인따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보까 머궁게 존타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양:꼬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나서 달궂다고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묻꼬 인따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더도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불고 인따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훤때기를 마니 부러서 머리
가 아프다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빨:고 인따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라서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죽췌 안코 사라인따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거야제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걸:터라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러서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가물더라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무라서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자오르고 인따고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올라도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방을 췌고 인따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러서 깨끄더다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강:꼬 인따

32111-0-2	"감:- (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마서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더듬꼬 인따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드머서 과자를
32113-0-1	"굽:- (炙)-지 -고 -더라"	끓꼬인따
32113-0-2	"굽:- (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튀서 머거라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무겁떠라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거서 들 쭈가 업따
32115-0-1	"잇:- (連)-지 -고 -더라"	인꼬 인따
32115-0-2	"잇:- (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서야 한다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빈꼬 인따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서서 이쁘다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검:뜨라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꺼머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커매서 안 네쁘다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너꼬 인따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너:서
32119-0-1	"고:- (煮)-지 -고 -더라"	고꼬 인따
32119-0-1	"고:- (煮)-지 -고 -더라"	고꼬 인따
32119-0-2	"고:- (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과:서 애드를 쫄따
32120-0-1	"엎-(載)-지 -고 -더라"	영:꼬 인따
32120-0-2	"엎-(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연저도
32121-0-1	"귀찮-(?)-지 -고 -더라"	귀찬허더라
32121-0-2	"귀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귀차니도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발가내고 인따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발가낸다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막떠라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가서 존타
32124-0-1	"끓:- (膿)-지 -고 -더라"	곰꼬 인떠라
32124-0-2	"끓:- (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골만따
32125-0-1	"굵:- (太)-지 -고 -더라"	국떠라
32125-0-2	"굵:- (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거서 기부니 조타
32126-0-1	"얇:- (薄)-지 -고 -더라"	야트더라
32126-0-2	"얇:- (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티서
32127-0-1	"썰-(?)-지 -고 -더라"	실:코 인따
32127-0-2	"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서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일코 인따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돈만 이리
32129-0-1	"활-(?)-지 -고 -더라"	활꼬 인따
32129-0-2	"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활타서 멍는다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짧롭떠라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짧와서 쓸쭈가 업따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놀래지 마라라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놀래서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자고 일파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서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모더더라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디도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모른디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모르고 인는데
32134-0-2	"모르-(不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몰라서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너무 아:프더라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파서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크더라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커서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꼬고 일파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서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주글 쭈:고 일파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어서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만추고 일파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무리 마봐도 안만는다
32140-0-1	"데우-(?)-지 -고 -더라"	디:고 일파
32140-0-2	"데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디어서 머거라
32141-0-1	"이:-(蓋 지붕을)-지 -고 -더라"	이:고 일파
32141-0-2	"이:-(蓋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어서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갈기고 일파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길파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지달리고 일파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지다리고 일파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달라도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시:고 일파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여도 안 만는다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빼:고 일파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서
32146-0-1	"켜-(툽을)-지 -고 -더라"	썰:고 일파
32146-0-2	"켜-(툽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통:나무를 썬러서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되:더라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되:아서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쉬:고 일파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어서
32149-0-1	"할퀴-(搔)-지 -고 -더라"	퀴할키고 인떠라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퀴할키서 그랜찌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퀴할키서



32150-0-1	"놀:-(?)-지 -고 -더라"	놀:치 안히서
32150-0-2	"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런따
32151-0-1	"깨닫-(覺)-지 -고 -더라"	깨달리더라
32151-0-1	"깨닫-(覺)-지 -고 -더라"	깨:다리더라
32151-0-2	"깨닫-(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다란따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자주 매랴떠라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라도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부끄럽떠라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끄러서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가참떠라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차서 조타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지프더라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퍼서
32156-0-1	"긋:-(劃)-지 -고 -더라"	그시고 인따
32156-0-2	"긋:-(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싯싸서 말쌍 부리네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씻꼬 인따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씻쳐서 안쳐라
32158-0-1	"찜-(搗)-지 -고 -더라"	찜꼬 인따
32158-0-2	"찜-(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어서
32159-0-1	"값-(擻)-지 -고 -더라"	극꼬 인따
32159-0-2	"값-(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가 멍는다 그러제
32159-0-2	"값-(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가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굶:꼬 인따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굶머서 배가 마니 고프다
32161-0-1	"닳:-(似)-지 -고 -더라"	담:꼬
32161-0-2	"닳:-(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안 달마서
32161-0-2	"닳:-(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마서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싯터라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
32163-0-1	"끓:-(?)-지 -고 -더라"	끓터라
32163-0-2	"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라서 몬 멍는다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붓:꼬 인따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서서 무리 만흐다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타고 인따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타도 안 무섭떠라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빨래가 마르고 인따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랴따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참 쓰더라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서 몬 멍는다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실:프터라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나 실:퍼서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기쁘고 조터라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김퍼서
32170-0-1	"쏘-(? 벌이)-지 -고 -더라"	쏘:고 다라날따
32170-0-2	"쏘-(? 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쏘:아서 아프다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주더라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얼따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키우고 인따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웁따고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웁따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가두지 마라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되서 키웁게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뿐:꼬 일따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뿌수고 인따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서서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섰따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안 노노고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나서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쇠기고 일따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쇠기서 엄마가 속쌍힐따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뀌:고 일따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뀌:어도 안 니쁘다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튀고 일따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튀어서
32179-0-1	"괴:-(滄)-지 -고 -더라"	괴:지 안터라
32179-0-2	"괴:-(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괴안떠라
32180-0-1	"여위-(?)-지 -고 -더라"	야와지든 안터라
32180-0-2	"여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왁써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매웁떠라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와서 머글쭈가 엽따
32182-0-1	"뀌:-(?)-지 -고 -더라"	뀌고 일따
32182-0-2	"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뀌얼따고 해야제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고치고 일따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치서 잘 나온다
32184-0-1	"싯:-(載)-지 -고 -더라"	싯:코 인네
32184-0-2	"싯:-(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서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은떠라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더서 짚는다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덜따
32186-0-1	"빡-(粉碎)-지 -고 -더라"	빠수고 일따
32186-0-2	"빡-(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좌서
32187-0-1	"파랗-(碧)-지 -고 -더라"	파라고

32187-0-2	"과랑-(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퍼리서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달르더라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라서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푸더라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퍼서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누:고 일따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오주믈 누어도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테:럽떠라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더럽떠라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러도 썬쳐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거더드리고 일떠라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거:더드리지 안코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더서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끌코 일따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러서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이기더라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리는 이:긴따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내가 이:긴따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정:말 시더라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어서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자빠지지 안케 조심히라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빠질따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잉네키고 일따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잉네킨따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땡:기고 일따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땡기도 엄마넌 내비될따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버리지 마라라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버릴따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훔:치고 일따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훔치서 가져간다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지:고 완따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어서 어깨가 아프다
32202-0-1	"외:- (暗誦)-지 -고 -더라"	외:고 일떠라
32202-0-2	"외:- (暗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암만 외아도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사귀고 일따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귄따
32204-0-1	"썩-(腐)-지 -고 -더라"	썩떠라
32204-0-2	"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거서 머글쭈가 업따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질:더라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러서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까불고 일따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불라도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드물더라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무러도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안 줄터라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러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싱:구고 인따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싱구고 인따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싱귀서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싱:귄따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씨다듬더라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다드만따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싸:납떠라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나 싸:나서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개밥꼬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개봐서
32213-0-1	"젓:-(?) -지 -고 -더라"	젼꼬 인따
32213-0-2	"젓:-(?)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서도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두껍떠라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꺼워서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꺼도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꺼서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무르고 인다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런따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분질지 마러라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뿌지러지고 인따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분질런따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분질러서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배고 인따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그를 배고 인씨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배와서 잘 잉는다
32218-0-1	"다리-(?) -지 -고 -더라"	대리고 인따
32218-0-2	"다리-(?)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대리도
32219-0-1	"후비-(? 귀를)-지 -고 -더라"	훼비고 인따
32219-0-2	"후비-(? 귀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훼비서 아프다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애리더라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송:끄시 애리서
32221-0-1	"그리-(畫)-지 -고 -더라"	기리고 인따
32221-0-1	"그리-(畫)-지 -고 -더라"	그리고 인따
32221-0-2	"그리-(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리서
32222-0-1	"저리-(癲)-지 -고 -더라"	제:리더라
32222-0-2	"저리-(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제리서 이를 모더견따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불고 인파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불구고 인파고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귀서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렬파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뜨시더라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셔서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끄리고 인파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리서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늪비고 인파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늪비서 따숯파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꾸그적꺼리고 인파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그적꺼려서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비지 안케 해라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얼뜨라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여서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식쿠고 인파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식꿔서 먹기가 졸타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매고 인파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도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어서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쨌:미고 인파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쨌미쨌파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뛰고 인파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뛰얼싸서 정시니 읊파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담:꼬 인파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당꼬 인파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마서
32234-0-1	"가렵-(?)-지 -고 -더라"	개랍떠라
32234-0-2	"가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개라서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때리고 인파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때리도 말 안 듣는다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어둡떠라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뤄서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잡:꼬 인떠라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바도 뿌리치고 가더라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차고 인파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도 공이 안 날르더라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모지래더라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지래서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부르고 인파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러라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따르고 인따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라서
32242-0-1	"쫘:- (啄)-지 -고 -더라"	쫘:꼬 인따
32242-0-2	"쫘:- (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쫘:사서 머겔따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두더라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어서 안전허다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시기더라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기라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기서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제리고 인따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제리서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뎡:지고 인따 애가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뎡:지서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뵈:더라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뵈:아도
32248-0-1	"만지-(?)-지 -고 -더라"	만치고 인떠라
32248-0-2	"만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치도 안 따습떠라
32249-0-1	"쫈:- (?) -지 -고 -더라"	쫈:고 인따
32249-0-2	"쫈:-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쫈:아도
32249-0-2	"쫈:-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쫈아도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비틀더라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트러서 아프다
32251-0-1	"돕:- (助)-지 -고 -더라"	돕쪼 안터라
32251-0-2	"돕:- (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도와주더라
32252-0-1	"썸-(咀)-지 -고 -더라"	썸떠라
32252-0-2	"썸-(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오래 썸버서 머거야 헨다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미:끄럽떠라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끄러서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다치 안흔다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안 다안찌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눌르고 인따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눌러서
32256-0-1	"주무르-(?)-지 -고 -더라"	주무르고 인따
32256-0-2	"주무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물러도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메꾸고 인따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멜:꿔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꼬십찌 안혀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꼬:습꼬 마싯따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좌서 마싯따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내리고 인따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내리서 몬 나간다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구르고 인파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러서 바리 아프다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맨들고 인파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맨:드라서
32262-0-1	"늡-(老)-지 -고 -더라"	늡또 아녀
32262-0-2	"늡-(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늘건파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알고 인파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알코 인파고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라도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따르고 인파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라도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사:고 인파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서 아들한테 쥘파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치고 인파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눈 치워라
32267-0-1	"부리지-(被折)-지 -고 -더라"	뿌리지더라
32267-0-2	"부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리절파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안 다치게 잘 노라라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치서 엄마가 속쌍허다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느리더라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느리서
32270-0-1	"무치-(和 나물을)-지 -고 -더라"	무치고 인파
32270-0-2	"무치-(和 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묻치서 먹짜
32271-0-1	"죄:-(締)-지 -고 -더라"	죄:이고 인파
32271-0-2	"죄:-(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죄아도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팔고 인파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빵을 파라서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뽑:꼬 인파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뽑바도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뒤:고 인파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뒤어서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도라
완파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치서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치서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제리고 인파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제리서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휘:더라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휘얼파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준꼬 인파
32278-0-2	"줍:-(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서서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빼:꼬 인따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빼좌서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지우르고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지울르고 인따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지울러져서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아깝떠라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아까서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방갑떠라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방가서 소늘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찌고 인따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찌서 머겔따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노러더라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노리서 예쁘다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시퍼러더라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파리서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푸리제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서둘지 마라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서두러서 버스를 탄따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설:더라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서투르더라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서투리서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게울르더라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게올러서 못혀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따뜨더더라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따뜨대도
32290-0-1	"춡-(寒)-지 -고 -더라"	춡떠라
32290-0-2	"춡-(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춷:서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뜨겁떠라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뜨거서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맹간허고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맹간히서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차:지 안케 히라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차서 머글쭈가 업따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불겅찌 안터라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불거도 욱혀지 마라
32295-0-1	"알밋-(憎)-지 -고 -더라"	알:밋떠라
32295-0-2	"알밋-(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알미워서 말허기 시러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비스더더라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비스디서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새록꼬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새로운 거슬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서:럽떠라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러서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까탈시럽떠라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탈시러서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외:롭떠라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외롭떠라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안 외로워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아습떠라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좌서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단단허더라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단단히도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늦찌 안케 와라
32303-0-2	"늦-(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절따
32304-0-1	"남:-(餘)-지 -고 -더라"	남:찌 안케
32304-0-2	"남:-(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마서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냉기고 머저라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블 냉기서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너머트리지 마라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트리서 우렘따
32307-0-1	"꾸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우그러들지
32307-0-1	"꾸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우그러트리지 마라
32307-0-2	"꾸그러뜨리-(使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암만 우그러도
32307-0-2	"꾸그러뜨리-(使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그릴따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전:주고 인따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줘서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구구다늘 외:고 인따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외야서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문질고 인따
32310-0-2	"문지르-(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문지러라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갈치고 인따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치도
32312-0-1	"가르치-(教)-지 -고 -더라"	갈:치고 인따
32312-0-2	"가르치-(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치도 몬 아라든는다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고누고 인체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고누고 인따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봐서 췌라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저누고 인따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눠서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달개고 인따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개서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뻔:뜨지 마라

32316-0-2	"본받-(效)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늘떠도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어질지 마라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암만 어지러도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달리고 인따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리서 쉬미 차다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위기지 마라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암만 위기도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중알거리지 마라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중알거리도
32321-0-1	"지껄이-(騷)-지 -고 -더라"	지꺼리지 마라
32321-0-2	"지껄이-(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옌간히 지꺼려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댕기고 인따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댕기지 마라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댕기서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떠러치고 인따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떠러쳐서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깨더라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서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시:더라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어서 머글쭈가 업따
32326-0-1	"숫-(湧)-지 -고 -더라"	손떠라
32326-0-1	"숫-(湧)-지 -고 -더라"	손찌 안터라
32326-0-2	"숫-(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사서 존타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존터라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아서 추물 췌따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빨:그리고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빨:그러더라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빨:그러서 보기 존타
32329-0-1	"끌:-(曳)-지 -고 -더라"	끄지고 간다
32329-0-2	"끌:-(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지서 더럽따
32330-0-1	"넓-(廣)-지 -고 -더라"	넌롭떠라
32330-0-2	"넓-(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넌뤄서
32331-0-1	"하얗-(白)-지 -고 -더라"	하:여드라
32331-0-2	"하얗-(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이서
32331-0-2	"하얗-(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이서 보기가 존타

###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구기 마신히
32332-0-2	국(羹)-을/를	구글 머거라
32332-0-3	국(羹)-에(서)	국그다 바블 마라 머거라
32332-0-3	국(羹)-에(서)	구게
32332-0-4	국(羹)-으로	구그로
32332-0-5	국(羹)-도	국또 좀 머거라
32333-0-1	논(沍)-이/가	노니 널롭따
32333-0-2	논(沍)-을/를	노늘 파라라
32333-0-3	논(沍)-에(서)	노네다 시머따고
32333-0-3	논(沍)-에(서)	노네가 일 좀 히라
32333-0-3	논(沍)-에(서)	노네가
32333-0-4	논(沍)-으로	노네로 간따
32333-0-5	논(沍)-도	논도 봐라
32334-0-1	쌀(米)-이/가	싸리 만타
32334-0-2	쌀(米)-을/를	싸를 봉개 배가 고프다
32334-0-3	쌀(米)-에(서)	싸리서
32334-0-3	쌀(米)-에(서)	싸레서 벌레가 나온다
32334-0-4	쌀(米)-으로	쌀로 바블 맨드라
32334-0-5	쌀(米)-도	쌀:도 사고
32335-0-1	봄(春)-이/가	보미 완따
32335-0-2	봄(春)-을/를	보물 조아한다
32335-0-3	봄(春)-에(서)	보메 나드리 간다
32335-0-4	봄(春)-으로	*
32335-0-5	봄(春)-도	봄도 조코
32336-0-1	집(家)-이/가	지비
32336-0-2	집(家)-을/를	지블
32336-0-2	집(家)-을/를	지블 지연따
32336-0-3	집(家)-에(서)	지브서 산다
32336-0-3	집(家)-에(서)	지베서 산다
32336-0-4	집(家)-으로	지브로 간따
32336-0-5	집(家)-도	집또 크다
32337-0-1	옷(衣)-이/가	오시 예쁘다
32337-0-2	옷(衣)-을/를	오슬 이버라
32337-0-3	옷(衣)-에(서)	오세서 도니 나왈따
32337-0-4	옷(衣)-으로	오스로
32337-0-5	옷(衣)-도	온또 이쁘다
32338-0-1	방(房)-이/가	방이 널롭따

32338-0-2 방(房)-을/를  
 32338-0-3 방(房)-에(서)  
 32338-0-4 방(房)-으로  
 32338-0-5 방(房)-도  
 32339-0-1 낮(晝)-이/가  
 32339-0-2 낮(晝)-을/를  
 32339-0-3 낮(晝)-에(서)  
 32339-0-4 낮(晝)-으로  
 32339-0-5 낮(晝)-도  
 32340-0-1 낮(顔)-이/가  
 32340-0-2 낮(顔)-을/를  
 32340-0-3 낮(顔)-에(서)  
 32340-0-4 낮(顔)-으로  
 32340-0-5 낮(顔)-도  
 32341-0-1 부엌(廚)-이/가  
 32341-0-2 부엌(廚)-을/를  
 32341-0-3 부엌(廚)-에(서)  
 32341-0-4 부엌(廚)-으로  
 32341-0-5 부엌(廚)-도  
 32342-0-1 밭(田)-이/가  
 32342-0-2 밭(田)-을/를  
 32342-0-3 밭(田)-에(서)  
 32342-0-4 밭(田)-으로  
 32342-0-5 밭(田)-도  
 32343-0-1 앞(前)-이/가  
 32343-0-2 앞(前)-을/를  
 32343-0-3 앞(前)-에(서)  
 32343-0-4 앞(前)-으로  
 32343-0-5 앞(前)-도  
 32344-0-1 녀(魂)-이/가  
 32344-0-2 녀(魂)-을/를  
 32344-0-2 녀(魂)-을/를  
 32344-0-3 녀(魂)-에(서)  
 32344-0-4 녀(魂)-으로  
 32344-0-5 녀(魂)-도  
 32345-0-1 흙(土)-이/가  
 32345-0-2 흙(土)-을/를  
 32345-0-3 흙(土)-에(서)  
 32345-0-4 흙(土)-으로  
 32345-0-5 흙(土)-도  
 32346-0-1 여덟(八)-이/가

방을 그림 따까라  
 방으다  
 방으로 드러가라  
 방도 녀꼬  
 나시 질다  
 나슬 지다련따고  
 나제 도라댕기라  
 나지로는 일헌다  
 날또 힘들고  
 나시  
 나슬  
 나시서  
 나스로 온다  
 날또 존타  
 부어기 너무나 찍다  
 부어글 치위라  
 부어그서  
 부어그로 오니라  
 부엌또 쪼꼬  
 바시 널:롭따  
 바슬 맨따  
 바테서 너를 부른다  
 바테로 와라  
 받또 널롭따  
 아비 존타  
 아블 봐라  
 아폐서 어른거리마라 그려  
 아프로 와라  
 압또 안 뵈다  
 네기 떠러절따  
 너글 노아버릴따  
 너글 낱따  
 \*  
 \*  
 녀또 빠저  
 흐:기 만타  
 흐글 퍼와라  
 흐그서  
 흐그로 벽또를 맨드란따  
 흑또 만타  
 야다리 만타

32346-0-2 여덟(八)-을/를  
 32346-0-3 여덟(八)-에(서)  
 32346-0-4 여덟(八)-으로  
 32346-0-5 여덟(八)-도  
 32347-0-1 돌(週歲)-이/가  
 32347-0-2 돌(週歲)-을/를  
 32347-0-3 돌(週歲)-에(서)  
 32347-0-3 돌(週歲)-에(서)  
 32347-0-4 돌(週歲)-으로  
 32347-0-5 돌(週歲)-도  
 32348-0-1 값(價)-이/가  
 32348-0-2 값(價)-을/를  
 32348-0-3 값(價)-에(서)  
 32348-0-4 값(價)-으로  
 32348-0-5 값(價)-도  
 32349-0-1 속:(內)-이/가  
 32349-0-1 속:(內)-이/가  
 32349-0-2 속:(內)-을/를  
 32349-0-3 속:(內)-에(서)  
 32349-0-4 속:(內)-으로  
 32349-0-5 속:(內)-도  
 32350-0-1 돈:(錢)-이/가  
 32350-0-2 돈:(錢)-을/를  
 32350-0-3 돈:(錢)-에(서)  
 32350-0-4 돈:(錢)-으로  
 32350-0-5 돈:(錢)-도  
 32351-0-1 발(足)-이/가  
 32351-0-2 발(足)-을/를  
 32351-0-3 발(足)-에(서)  
 32351-0-4 발(足)-으로  
 32351-0-5 발(足)-도  
 32352-0-1 짐(荷物)-이/가  
 32352-0-2 짐(荷物)-을/를  
 32352-0-2 짐(荷物)-을/를  
 32352-0-3 짐(荷物)-에(서)  
 32352-0-4 짐(荷物)-으로  
 32352-0-5 짐(荷物)-도  
 32353-0-1 입(口)-이/가  
 32353-0-2 입(口)-을/를  
 32353-0-3 입(口)-에(서)  
 32353-0-4 입(口)-으로

야다를  
 야다리서  
 사람 야달로는  
 야달또 만코  
 도리 도라왈따  
 도를  
 도레 쥘따고 그래야제  
 도레  
 \*  
 돌도 돌아오고  
 가비 엇다  
 가블 따저  
 이: 가베서  
 이: 가브로는  
 갑또 비싸다  
 소:기 집따  
 소기 지프다  
 소글 씨긴다  
 소:그서 열부리 난다  
 소그로는  
 속또 존타  
 도니 만타  
 도늘 마니 버릴따  
 도네서 인심난다  
 도니로 물게늘 삼따  
 돈도 만타  
 바리 크다  
 바를 드러라  
 바레서 남새 난다  
 발로 공을 팍 찬따  
 발도 크다  
 지미 무겁따  
 지물  
 지물 이고 간다고 그러고  
 지메서  
 지:프로 열구를 천따  
 짐도 무겁따  
 이비 크다  
 이블  
 이베서 남새 난다  
 이브로

32353-0-5 입(口)-도  
 32354-0-1 낫(鎌)-이/가  
 32354-0-2 낫(鎌)-을/를  
 32354-0-3 낫(鎌)-에(서)  
 32354-0-3 낫(鎌)-에(서)  
 32354-0-4 낫(鎌)-으로  
 32354-0-5 낫(鎌)-도  
 32355-0-1 강(江)-이/가  
 32355-0-2 강(江)-을/를  
 32355-0-3 강(江)-에(서)  
 32355-0-4 강(江)-으로  
 32355-0-5 강(江)-도  
 32356-0-1 젖(乳)-이/가  
 32356-0-2 젖(乳)-을/를  
 32356-0-3 젖(乳)-에(서)  
 32356-0-4 젖(乳)-으로  
 32356-0-5 젖(乳)-도  
 32357-0-1 꽃(花)-이/가  
 32357-0-2 꽃(花)-을/를  
 32357-0-3 꽃(花)-에(서)  
 32357-0-4 꽃(花)-으로  
 32357-0-5 꽃(花)-도  
 32358-0-1 팔(赤豆)-이/가  
 32358-0-2 팔(赤豆)-을/를  
 32358-0-3 팔(赤豆)-에(서)  
 32358-0-4 팔(赤豆)-으로  
 32358-0-5 팔(赤豆)-도  
 32359-0-1 옆(側)-이/가  
 32359-0-2 옆(側)-을/를  
 32359-0-3 옆(側)-에(서)  
 32359-0-4 옆(側)-으로  
 32359-0-5 옆(側)-도  
 32360-0-1 샀(賃金)-이/가  
 32360-0-2 샀(賃金)-을/를  
 32360-0-3 샀(賃金)-에(서)  
 32360-0-4 샀(賃金)-으로  
 32360-0-5 샀(賃金)-도  
 32361-0-1 닭(鷄)-이/가  
 32361-0-1 닭(鷄)-이/가  
 32361-0-2 닭(鷄)-을/를  
 32361-0-3 닭(鷄)-에(서)

입또 크다  
 나시 엽따  
 나슬 가꼬와라  
 나세서  
 나세서 비치 난다  
 나시로  
 낫또 존타  
 강이 널롭따  
 강을 봐라  
 강이서  
 강으로 흘러간다  
 강도 존따  
 저시 존타  
 저슬 메기라  
 저세서  
 저시로 배를 채와라  
 젖또 존타  
 꼬:시 예쁘다  
 꼬슬 꺾찌마라  
 꼬세서  
 꼬스로 머리를 꼬잔따  
 꽃또 예쁘다  
 포시 존타  
 포슬 가져와라  
 포시서 벌거지 날따  
 포시로 주글 꼬리  
 폰또 존타  
 여피 널롭따  
 여플 봐라  
 여피서 장난치지 마라  
 여프로 도라봐라  
 엽:또  
 썩:기 비싸다  
 싸글 좀 까까라  
 싸게서 난다  
 품싸그로 이를  
 품썩또 비싸다  
 다기  
 대기 만타  
 다글 봐라  
 다게서 달가리 나왓따

32361-0-4 닭(鷄)-으로  
32361-0-5 닭(鷄)-도  
32362-0-1 밖(外)-이/가  
32362-0-1 밖(外)-이/가  
32362-0-2 밖(外)-을/를  
32362-0-3 밖(外)-에(서)  
32362-0-3 밖(外)-에(서)  
32362-0-4 밖(外)-으로  
32362-0-5 밖(外)-도  
32362-0-5 밖(外)-도

다그로  
닥또 크다  
배까시 어둡따  
바까시 어둡따  
배까슬 봐라  
바까테서  
배까테서  
배까트로 나가라  
배깁또 어둡꼬  
바깁또 어둡꼬

## 제 4편 문 법

### 4.1. 대명사

####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나
40101	나	내제
40101-0-1	내-가	내가 마를 허제
40101-0-1	내-가	내가 마를 힌따고
40101-0-2	내	그건 내 물거니다
40101-0-3	나-를	나를 만나러 완따
40101-0-4	나-에게	나를 도라
40101-0-4	나-에게	나한테 줘라
40101-0-5	나-와	나랑 함께 가자
40101-0-5	나-와	나허고 가치가자
40101-0-5	나-와	나허고 가자
40101-0-6	나-는	나는 안다
40101-0-7	나-도	나도 안다
40102	저/제-가	저:라고 그래야제
40102-0-1	저-가	제가 머겔따고 그래야제
40102-0-2	저-의	제꺼요
40102-0-3	저-을/를	저를 주세요
40102-0-4	저-에게	저한테 말허세요
40102-0-5	저-와/과	저랑 가치가요
40102-0-5	저-와/과	저허고 가치가요
40102-0-6	저-는	저는 아라요
40102-0-7	저-도	저도 알고 그래요
40103	우리	울:아부지
40103	우리	우리아부지
40104	저희	저희가 그러케 행씀니다
40105	너	너
40105-0-1	-가	니가 말히짜나
40105-0-2	-의	니:꺼다
40105-0-3	-을/를	너를 봐라
40105-0-3	-을/를	너:를 봐라



40105-0-4	-에게	너보고 마를 허께
40105-0-5	-와/과	너:한티 주께
40105-0-6	-는	너:허고
40105-0-6	-는	너는 몰라
40105-0-6	-는	너도 알고
40105-0-6	-는	너랑 안 노라
40105-0-7	-도	*
40106	자네	자네는
40106	자네	자네:는
40107	당신	당시니 가봐
40108	너희	너거 아부:
40108	너희	너거 아버지
40109	개	자:
40109	개	가:가 뭐딩가 몰라
40109-1	애	야:가 그랜써
40109-2	재	자:가 그릴써요
40110	자기	제: 말만 듣떠라
40110	자기	지:말만 올타고 헐다고
40111	당신	당신 방:으서 안 주무신다

####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구여:
40112-0-1	누-가	누가:
40112-0-2	누구-의	누구 도:닌가
40112-0-3	누구-를	누구를 만:난냐
40112-0-4	누구-에게	누구한티 줄래
40112-0-5	누구-와	누구허고 게:론허냐
40112-0-5	누구-와	누구랑 게론헐다고 그려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뭐:야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뭐:요
40113-0-1	무엇-이	무어시 인냐
40113-0-2	무슨	뭐:더냐
40113-0-3	무엇-을	뭇:힌냐
40113-0-4	무엇-과	뭇 달만냐
40113-0-4	무엇-과	뭇:달만냐
40113-0-4	무엇-과	뭇더고 비스던다 그런디

### 4.1.3. 그 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너 어디 가냐
40115	언제	언:제 올래
40116	어느	어:뎡게
40116	어느	어:뎡
40116	어느	어뎡거 마르 드냐
40117	왜	왜: 우냐 아가
40118	얼마나	월매나 걸리냐
40119	어떻게	어:티케 사냐

###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이거
40120	이것	이거슨
40120	이것	이걸
40121	그것	그게 뭐냐
40122	저것	저거슨
40122	저것	저걸
40123	여기	여그 뵈라
40124	거기	거그다 뵈:
40125	저기	저그다 뵈라 그러기도 허고
40125	저기	저:그다 뵈라
40126	이리	이리 와
40127	그리	그:리 가지 말고
40128	저리	저:리 가
40128	저리	저리 가

## 4.2. 조사

### 4.2.1. 격조사

40201	-이/가	물:게니 비싸
40202	-이/가	코가 크다
40203	-을/를	귀:털

40204	-을/를	과자덜 사궼따
40204	-을/를	무를 주얼따
40205	-에게/게	손자한티 줘라 그러지
40205	-에게/게	할머니한티 갑따드리라
40206	-보고/더러	나보고 당시니라 그러
40206	-보고/더러	나보고 당시니라고
40207	-보고/더러	누구보고 저런케 요글 형고
40208	-에	장:으가
40209	-에	나중에
40210	-에서	학교서
40210	-에서	장:으서 산따고도 허고
40211	-에서	관촌여그서 만나자
40212	-에서	여:그서
40213	-으로	쌀로 맨들고 밀까루로 맨들
고		
40213	-으로	밀까루로 맨들고
40214	-으로	지브로 맨들고
40214	-으로	지브로 꼰꼬
40215	-으로	산내끼로
40216	-으로	어디로 가나
40217	-와/과	수박허고 외허고 마니 멍는
다		
40217	-와/과	수마글 외:허고
40218	-와/과	나랑 가치 가자 그러
40218	-와/과	나:허고
40218	-와/과	나랑 가치 가자 그러제
40219	-보다	동상보단
40220	-처럼	되아지가치
40220	-처럼	되아지처럼
40220	-처럼	되아지맹이로
40221	-만큼	너맹이로 켜쓰먼 졸켄따조
40222	-만큼	머글 만치 내논코
40223	-아/야	세원아 그러지 뭐
40223	-아/야	원:종아 그러고
40224	-아/야	복:내미여
40225	-아/야	영:수야 부르고
40225	-아/야	영:수
40226	-아/야	누:나
40226	-아/야	눈:님
40226-1	-예	누:나야
40227	-아/야	하라부지

40227-1	-요	하라부지
40227-1	-요	큰집 하라부지
40228	-이랑	수려고 떠거고 고기혀고 잘
머건씨		
40228	-이랑	수:리랑 고기랑
40228	-이랑	때:기랑 잘 머건네
40228	-이랑	수:리랑 고기랑 잘 머건따
40229	-커녕	마뉘커녕 처년도 업:씨

## 4.2.2. 보조사

40230	-은/는	수:른 멍는디 담배는 안 피
더라		
40231	-만	딸:만 예빠라고 허드라
40232	-도	키:도 크고
40233	-마다	날마동
40234	-부터	내:일뽕텀
40235	-까지	내일까지 끈내라
40236	-조차	마:실 물도 읍는디엄
40236	-조차	마실 물조차
40236-1	-할라	비조차 오는디 뵤더러 나가
냐		
40237	-이야/야	마른 잘 혀
40237	-이야/야	마리아 올체
40237	-이야/야	마:른 잘 혀
40238	-을랑	나라길랑
40239	-이라도	부자라도
40240	-밖에	너:배끼 업따
40241	-가지고	쌌:가꾸 이고 갈째

## 4.2.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오라고 허더라
40242	오라-고 한다	오라고 허드라
40243	알았어-요	아라씨요
40244	했지-요?	누가 해씨요
40244	했지-요?	버물런씨요

## 4.3. 종결어미

### 4.3.1. 명령법

40301	-아라	안저라
40302	-게	내 저프 안저봐
40302	-게	여그 좀 안께
40303	-으오	안저요
40303	-으오	안:쏘
40304	-으십시오	안진씨요
40304	-으십시오	안즈세요
40305	-세요	안저요

### 4.3.2. 청유법

40306	-자	가치 가자
40307	-세	가치 가세
40308	-으오	가치 갑씨다
40309	-십시오	가치 갑씨다
40310	-세요	가치 갑씨다

### 4.3.3. 의문법

40311	-니	비 오냐
40312	-나	비 웅:가
40313	-오	받께 비 와요
40314	-습니까	비 와요
40315	-나요	비 와요
40316	-니	너: 어디 가냐
40317	-나	어디 강가
40318	-시오	어디 가셔요
40319	-십니까	어디 가셔요
40320	-세요	어디 가셔요

#### 4.3.4. 서술법

40321	-는다	잘: 멍는다
40322	-네	잘: 멍네
40323	-오	바블 잘: 멍네요
40324	-습니다	바블 잘: 멍네요
40325	-네요	바블 잘: 멍네요
40326	-다	작따
40327	-네	장:네
40328	-소	자가요
40329	-으십니다	자가요
40330	-으세요	자가요:

#### 4.3.5. 반말

40331	-아	어디가 아파
40332	-지	병원 갈:꺼제
40332	-지	갈:꺼제
40332	-지	머글꺼제

#### 4.3.6. -이다

40333	-이다	내: 생어리다
40334	-이니	니: 생어리냐
40335	-이네	생:시니네
40335	-이네	생:시니여
40336	-인가	생:시닌가
40337	-이오	생:어리오
40338	-이오	생이리오
40338	-이오	내일 생이리오
40339	-입니다	생:시니오
40339	-입니다	생:시님니다
40339	-입니다	생어리오
40340	-입니다	생:신 아님니까
40340	-입니다	생시님니까
40341	-이지지요	생:시니지요
40342	-이지지요	생:신 아니어요

40342	-이시지요	생:시니지요
40343	-이냐?	뭐:냐
40343	-이냐?	이게 뭐:냐
40344	-인가?	똥:가
40345	-이오?	뭐:요
40346	-업니까?	무어시어요
40347	-인가요?	무어시요
40348	-이야?	똥:가
40349	-이어요?	뭐:요

####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마:느네요
40350	-습니다	마:너요
40351	-습디다	마늑떠다
40352	-는구나/구나	착커구나
40353	-는구먼/구먼	잘: 멍는구만
40354	-일세	오랜마니네
40355	-으마	사:주마
40355	-으마	내일 사:주마
40356	-음세	가파춤새
40356	-음세	가:품새
40357	-을라	다:칠라
40357	-을라	조심히라

####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밥 먹꼬 테레비 본다
40402	-으면서	밥 머금서 테레비를 봐:
40403	-어/-어서	추워서 못 깎써
40404	-으니 /-으니까	뽕이 파송개 줄린다
40405	-관테	무슨 이를 헨디 피안써
40406	-다가	오다가 비가 마니 와서 저절
써요		
40407	-거든	만:나면
40407	-거든	만나면

40407	-거든	만나거든
40408	-더라도	떼:를 써도
40408	-더라도	머거도 쪼:끔만 머거라
40408	-더라도	쓰:드라도
40408	-더라도	떼:를 쓰드래도
40409	-으려고	갈라 머글라고 살:써
40410	-도록	밤:새더락
40410	-도록	뻔 빠지게 이를 해원는데
40410	-도록	죽떠락
40410	-도록	빼:가 빠지더락
40411	-을수록	노플씨락
40412	-듯이	물 쓰넌끼
40412	-듯이	물:쓰데끼
40413	-지	무더두기만 허지
40413	-지	무더두기만 허제

## 4.5. 주체 존대

40501	-셔	*
40502	-췌소	*

## 4.6. 시제

40601	웃는다	잘 운는다
40602	기어간다	기어간다
40603	크다	크:네
40603	크다	크다
40603	크다	예쁘다
40603	크다	크고 예쁘다
40604	생일이다	생어리네
40604	생일이다	생어리다
40605	오고 있다	비가 마니 오고일따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진지 잡췌췌요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밥 머건냐
40607	왔었다	간췌췌



40608	먹더라	잘: 먹떼
40608	먹더라	잘: 먹떠라
40609	먹더나	잘: 먹떼
40609	먹더나	잘: 먹떠나
40610	만나는 친구	만나
40610	만나는 친구	나하고 만난 친구여
40611	만난 친구	매:일 만난 친구여 이 친구
40612	만났던 친구	만:날뎌 친구를
40613	만날 친구	매일 만날 친구고
40614	큰 아이	키:가 크내는
40615	크던 아이	크:던 애가 짜가전네
40616	켰던 아이	킬뎌 애가
40617	마시지 않겠다	안: 마시건네
40618	비가 오겠다	비: 오건네

##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밥 안 머건네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날이 안 존네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안: 깨끗더네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깨끄허덜 안허네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	장가 양:가써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	장개 가지 아닐써요
40705	만나 보지 않았/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안 만나봤써요	
40705	만나 보지 않았/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만나보지 아니써요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 안코 잠만 자네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무려보도 안허고 갑따
40706-1	먹도 않고	먹두 안코 잠만 잔다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수를 몬: 마셔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마시덜 모대요
40708	맞잖소?/안 맞소?	맞찌 아너요
40708	맞잖소?/안 맞소?	내 마리 맞찌 아너요

## 4.8. 피동과 사동

###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릴따
40802	늘리다	늘:릴따
40803	말리다1	말:린다 그러제
40803	말리다1	말:긴다
40803	말리다1	말:기라
40803	말리다1	말:화서
40804	말리다2	얼:군다
40804	말리다2	얼:귀라
40805	얼리다	노:킨따
40805	얼리다	노킨다
40806	눅이다	싱:낄따
40807	신기다	보여쥬따
40808	보이다	*
40809	알리다	알리쥬라
40810	입히다	이피고 인따
40810	입히다	이피라
40811	얹히다	안치라
40812	벗기다	베:낄따
40813	웃기다	위:킨다
40814	쓱히다	쓱쥬서
40815	숨기다	쥬:긴따
40815	숨기다	쥬:킨따
40816	끓기다	끓기자
40816	끓기다	끓:기라
40817	깨우다	깨우네
40818	돈우다	도:파라

### 4.8.2. 피동

40819	잡히다	재쥬따
40820	깎이다	깨낄따
40821	끼이다	끼얼따
40821	끼이다	끼:얼따

40822	떼이다	띠:어서
40823	채이다	채일따
40824	단히다	다:친따
40825	들리다	안:들린다
40826	업히다	에:핀따
40827	바뀌다	배:깁따
40828	썹히다	도글 씨핀다
40829	엿히다	언:친거 가트다
40830	찍히다	찌:깁따
40831	눌리다	눌:리서
40832	실리다	실:리서
40833	끓기다	끓:깁따
40834	끓히다	글깁따

##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간꼬잡따
40902	싶다	조은거 가트더니
40902	싶다	잘 형가시프더니 모더네
40903	보다	이버봐요
40904	버리다	다:머거버린냐
40905	대다	우리대네 그러고
40906	-나/는가 보다	비가 마니 올랑잡따
40907	-나/는가 보다	다 장잡따
40907	-나/는가 보다	장:잡따
40908	-나/는가 보다	추운잡따

## 4.10. 부사

41001	실컷	실큰 머거라
41002	많이	마니 머거라
41003	너무	너무나 머그먼 모메 해봐
41004	조금	쪼끔만 머거도
41005	자주	자주 본다
41006	빨리	빨리 완따
41007	얼른	얼:른

41007	얼른	얼:른 머거라
41008	기어코	기여니
41008	기어코	기여니 가더니
41009	가끔	가끔 멍는다
41010	먼저	아페
41010	먼저	아프 가
41010	먼저	너는 아프서 가
41011	나중에	나중에 머거
41011	나중에	나중에 머거라
41012	가득	까뜩 부실파
41013	몽땅	모착
41013	몽땅	모착 갑파라
41014	모조리	전부 다 가:좌
41014	모조리	모조리 싹 비어버린네
41015	혼자	혼차 일파
41016	항상	항상 바뻘
41017	똑똑히	똑뛰기 잘봐라
41018	겨우	제우
41019	늘	늘: 잠만 잔다
41020	저절로	제절로 나온다
41021	자꾸	자꾸 나온다
41022	설마	설:마
41022	설마	서:령
41023	하마터면	하마트라면
41024	함께	항:께 머거
41025	겉핥하면	얼:쩍찌근허면
41026	공연히	고:여니
41026	공연히	고여니
41027	그냥	기양 완냐
41028	매우	검:나게 시더라
41029	곧장	바로 와
41030	벌써	그새 다 힌냐
41030	벌써	벌써 힐써
41030	벌써	벌써 힌냐
41031	가장	젤로
41032	가만히	가마니 안잔써라
41033	미리	미리
41033	미리	미리 허라고
41034	이따금	이따끔 오더라
41034	이따금	뜬내기로
41034	이따금	일따끔 오더라

## 4.11. 관용적 표현

### 4.11.1. 관용구

41101	여보	여보
41102	여보세요	여보세요
41103	들어가세요	드러가세요 그리고
41104	수고하세요	욕 보세요
41104	수고하세요	욕 뽀네
41104	수고하세요	욕 뽀따
41104	수고하세요	욕 뽀썸요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오랜마니네: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진지드런썸요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식:싸 힌썸요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진지 잡썸썸요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그동안 안녕하썸썸요
41108	여기 있습니다	돈 바다요
41109	예	예:
41110	아니	아니라우
41110	아니	아녀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암시랑토 안혀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암시랑 안혀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암시랑토 안혀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괜차너
41112	내버려 뒀	내비뒀
41112	내버려 뒀	넵뒀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되나 개나

### 4.11.2. 속담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동우 물:주기로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늘 도도기 소 도둑 된다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고무 도도기 큰 도둑 된다
41116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랴	불 안땀 귀뚜기서 연기가
나:		

## <English Abstract>

This report is the result of the dialect survey which has been made in Imsil-gun area(in Jeollabuk-do, Korea) from June to November in 2009. 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 has conducted the nationwide project to survey all Korean dialects since 2004, and this report shows how the survey was conducted in Jeollabuk-do area.

The report includes natural conversation or narrative discourse, local words, phonological aspect and grammatical expressions of Imsil-gun area through which we expect to understand the linguistic aspect of central area of Jeollabuk-do.

Two informa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mong whom Inja Ryu gave much information at lexical, phonological, grammatical and discursive levels as a main informant.

The survey was made on the basis of the questionnaire for about 42 hours, and especially four hours of narrative data was put into transcription, which covers geographical information of the region and private and traditional way of life of the main informant.

Key Words : 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 dialect survey, Imsil-gun, Jeollabuk-do, phonological, grammatical, discourse, local word, transcription

###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               |
|-------|---------------|
| ◆ 위원장 | 이기갑 (목포대학교)   |
| ◆ 위 원 | 강영봉 (제주대학교)   |
| ◆ 위 원 | 김무식 (경성대학교)   |
| ◆ 위 원 |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
| ◆ 위 원 | 김정대 (경남대학교)   |
| ◆ 위 원 | 박경래 (세명대학교)   |
| ◆ 위 원 | 소강춘 (전주대학교)   |
| ◆ 위 원 | 최명옥 (서울대학교)   |
| ◆ 위 원 | 한영목 (충남대학교)   |
| ◆ 위 원 | 홍윤표 (전 연세대학교) |

